

1주차 1차시 : 사회복지의 흐름과 가족복지론의 구성

[학습 내용]

1. 사회복지의 최근 경향
2. 가족복지론의 과정 구성
3. 가족복지론 학습방법

[학습 목표]

1. 사회복지의 최근 경향에 따른 가족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가족복지론 과정의 구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가족복지론을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의 최근 경향

1) 사회복지의 시작 : 공공부조

- ① 어느 나라이든 사회복지의 시작은 '빈민 구제'에서부터 시작하는 경향이 있다.
eg. 엘리자베스의 빈민법(1601, The Poor Law)
eg. 우리나라 생활보호법(1961), 조선구호령(1944)
- ② 국가는 빈곤에 처한 국민에 대해서 구빈하는 책임을 가질 수밖에 없다.
- ③ 우리나라는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면서 권리차원으로 변모하였다.
- ④ 선별주의적 방법으로 대상효율성이 높다. 반면, 스티그마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2) 사회복지의 발전 : 사회보험

- ① 사회보험은 빈곤에 처하기 전에 빈곤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 ② 프로이센의 비스마르크가 노동자에게 당근책으로 처음 제시한 것이 사회보험이다(1871).
- ③ 현대 자본주의 및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사회보장의 근간으로 자리잡았다.
- ④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5대 사회보험이 사회보장의 근간으로 정립되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64) --> 국민건강보험법(1977)--> 국민연금법(1988) --> 고용보험법(1995) -->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08)
- ⑤ 사회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직면했을 때 이를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에서 사회보장의 주요 방편이 되고 있다.
- ⑥ 보편주의적 방법으로 사회전체를 안정되게 하는 장점이 있다. 부의 재분배에 있어 실질적인 효과가 가장 큰 방법이다. 반면, 기금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에 관심을 기울여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진다.

3) 사회복지의 확장 : 사회서비스

① 정의(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4호)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② 과거에는 사회복지서비스와 기타관련제도로 구분하였던 것을 이제는 사회서비스라는 넓은 개념으로 사회복지의 확장을 지향하고 있다.

③ 사회서비스라는 용어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가 우선적으로 빈곤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제공되는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라는 관점으로 전환되어가고 있음을 반영해주고 있다.

eg.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업의 경우 대부분 저소득층을 위한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사업 등 새로운 서비스 창출이 더욱 장려되고 있다.

cf.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골격(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1호)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 ① 국가가 사회문제에 대한 대처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 ②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③ 소득과 서비스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④ 실현방법으로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갖는다.

제1선의 보호 : 사회보험

제2선의 보호 : 공공부조

제3선의 보호 : 사회서비스

4) 사회복지흐름에서 가족의 의미

① 사회적 위험에 출산과 양육이 포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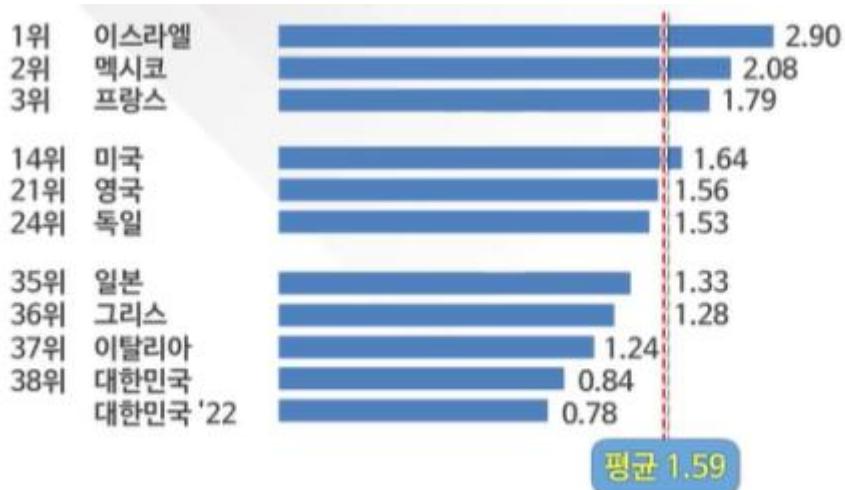
- 이는 저출산고령사회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3조)에 의하여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 따라서 가정을 보호해야 한다는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010년 1.23, 2022년 0.78로 합계출산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음

- 출생아수와 합계출산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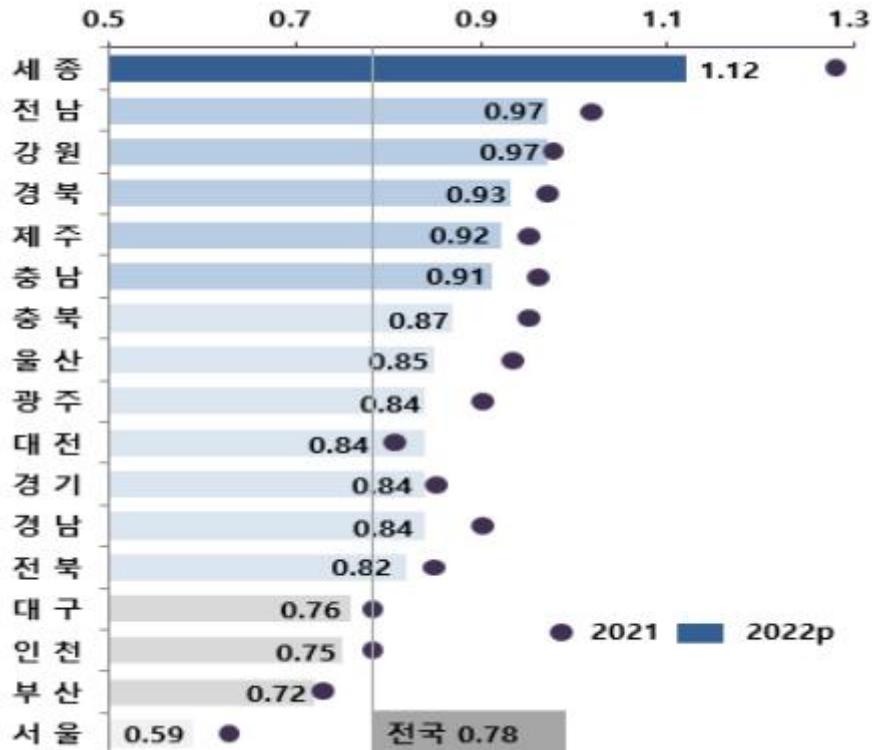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3.2.22. 12:00).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 OECD 국가 합계출산율(2020년 기준)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3.2.22. 12:00).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 주요 시도별 합계출산율(2022년)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3.2.22. 12:00). 2022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② 국제사회에서 가정관련 중요성이 여러 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다.

- 아동세션에서 국제사회가 천명하는 아동보호의 원칙들
 - 김형태 외(2018)는 아동복지시설 기능 개편방안 연구에서 유엔 아동권리협약, 유엔총회의 아동 대안양육에 대한 지침 결의안, 헤이그국제아동협약 등을 검토하여 국제사회가 제시한 아동보호의 원칙을 다음 7가지로 제시하였다.
 - 첫째, 아동 최상의 이익 최우선의원칙
 - 둘째, 원가족 보호 우선의 원칙
 - 셋째, 대리보호 한시성의 원칙
 - 넷째, 소규모 가정환경 보호의 원칙
 - 다섯째, 공공책임주의 원칙
 - 여섯째, 최소 제한 대안의 원칙
 - 일곱째, 취약아동 특별지원의 원칙
- 이런 원칙들의 면면에 흐르는 핵심(核心)은 가정(가족)에 대한 보호이다.
- 우리나라에는 이 원칙들에 따라 아동복지법에서 원가정에 대한 조항이 설치되어 있다, --> 가정(가족)에 대한 보호가 사회복지의 주요원칙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다.
- ③ 아동복지 서비스를 구분할 때 가정의 기능을 중심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가정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어 조금 지원해주면 되는 경우 --> 지지적 서비스
eg. 상담 등
 - 가정의 기능이 부족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면 되는 경우 --> 보충적 서비스 eg. 공공부조 등

- 가정의 기능이 회복될 수 없으므로 가정의 기능을 만들어 주어야 할 경우 --> 대리적 서비스 eg. 입양, 양육시설 등
- ④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발생할 경우 원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원가족복귀가 아예 불가능할 경우에도 가정과 같은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 입양,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순으로 고려해야 한다.
- ⑤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고 있다.
 -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 강화 역시 그 기저에는 가정(가족)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이념을 확인할 수 있다.
- ⑥ 공공부조도 자격취득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심사하지만 보호는 가정단위보호가 원칙이다.

※ 일련의 내용들을 종합하면 사회복지의 흐름에 있어서 가정을 보호하거나, 가정을 회복하거나, 가정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제공이 시대적 흐름인 것을 알 수 있다.

2. 가족복지론 과성 구성

1) 가족복지 개관

- ① 가족의 개념과 기능
- ② 현대가족의 변화에 대한 이해
- ③ 가족복지에 대한 개념과 접근방법
- ④ 가족체계와 가족생활주기 이해

2) 가족복지 정책과 전달체계

- ①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대상, 유형
- ② 복지국가와 가족복지정책
- ③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 ④ 가족복지정책과 전달체계

3) 가족복지실천 과정

- ① 사정과 개입계획
- ② 개입과 종결
- ③ 평가

4) 가족치료 모델

- ① 가족치료의 개념과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
- ②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과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

- ③ 해결중심 단기 가족치료 모델
- ④ 여성주의 가족치료 모델과 이야기치료 모델

5) 가족복지의 대상과 실천영역

- ① 일반가족에 대한 실천
- ② 빈곤가족에 대한 실천
- ③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천
- ④ 가정폭력 및 학대가정에 대한 실천
- 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천
- ⑥ 입양 및 재혼가족에 대한 실천

6) 가족복지의 종합과 전망

- ① 가족복지실천가와 윤리적 문제
- ② 가족복지의 전망과 과제

3. 가족복지론 학습의 방법

1) 공부해서 남 주자

- ①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을 바라는 부모의 심정이 '공부해서 남 주냐?'라는 말로 집약된다.
- ② 사회복지사는 이 말을 액면(額面) 그대로 받아서 '공부해서 남 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남에게 줄 때는 가장 좋은 것을 줘야 한다. 얼마만큼 준비하느냐에 따라 줄 수 있는 것이 달라진다. 따라서 남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한다.
- ④ --> 전문가적인 소양은 차분히 준비하는데서 갖춰지는 것이다.

2) 가족복지론 학습에 대한 그릇된 신화

- ① "이론과 현장은 다르다."
 - 학습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이론과 실천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 현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 그러나 이론을 떠난 현장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이론과 현장은 지속적인 상호관련을 맺고 있어야 한다.
- ② "필요할 때 책을 보면 된다." "책에 다 있어."
 - 필요할 때 책을 보는 건 당연하다. 다만, 어떤 책, 언 지점을 보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서 얼마든지 자료를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 자료는 보는 사람이 판단하면서 자료의 가치를 결정해야 한다. 인터넷 자료 중 잘못된 정보도 상당수 많다. 많은 정보 중 쓸 만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가려내는 것은 전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의 몫이다.
 -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한 사람만이 책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 ③ "나는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공부가 목표가 아니다."

- 어쩌면 가장 솔직한 표현일 수 있다. 특히, 온라인 학습자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 그런데 아무리 자격증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자격증에 맞는 전문성까지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 자격에 맞는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과정 자체가 진지해야 한다.

3) 가족복지론을 공부하는 방법

- ①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 ② 예습과 복습 중 하나는 반드시 해야 한다.
- ③ 개론서를 정독하라.
- ④ 학회나 협회를 통하여 실천적이고 실제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도모한다.
- ⑤ 자원봉사 등으로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1주차 2차시 : 가족의 이해

[학습 내용]

1. 가족의 개념
2. 가족의 기능
3. 가족관련 여러 용어

[학습 목표]

1. 가족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가족의 기능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가족이 주는 중요한 역할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3. 가족과 관련된 여러 용어의 쓰임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가족의 개념

1) 전통적 가족의 개념

① '가족'의 의미는 사회문화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었다.

- 다수의 문화권 - 핵가족
- 아프리카계 미국인 - 확대된 친족관계망
- 이탈리안을 비롯한 유럽인 - 몇 세대 확대 친족 포함
- 아시아권 - 조상에 초점

②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혼인'과 '자녀출생'으로 이루어진다.

사회적으로 인정한 혼인 + 자녀출생 --> 자녀의 혼인 + 그들의 자녀출생

③ 가족은 주로 직계와 방계로 확장되는 혈족의 개념이다.

- 직계는 조부, 부, 자, 손과 같이 조부로부터 손자에게 곧바로 이어가는 관계이다. eg. 조부, 부 등
- 방계는 형제, 조카등과 같이 공통의 조상을 통하여 갈라지는 관계이다. eg. 백부, 조카 등

④ 머독(Murdodk, 1949)의 가족에 대한 정의

- "가족은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구성되고 주거와 경제적인 협력을 같이하며, 자녀의 출산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 공동거주의 경제적인 협동
- 인정받는 성관계와 자녀의 출산
- 가족을 핵가족으로 파악하고 있다.

⑤ 레비 스트라우스(Levi-Strauss, 1969)의 가족에 대한 정의

- "가족은 결혼으로 시작되며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로 구성되지만, 이들 외 가까운 친족이 포함될 수 있고, 가정구성원은 법적 유대 및 정치적, 종교적인 것 등의 권리와 의무, 성적 권리와

금기, 애정과 존경 등 다양한 심리적 정감으로 결합되어 있다.”

- 머독의 정의보다 확대된 면이 있다. 즉, 확대가족의 개념으로 가족을 보고 있다.

⑥ 버제스와 로크(Burgess & Loke, 1945)의 가족에 대한 정의

- “혼인과 혈연 또는 입양의 유대로 맺어진 사람들의 집단이며, 단일가구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 주어진 위치(남편, 아내, 어머니, 자녀 등)에 따라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 나감으로써 상호작용하고 공통의 문화를 만들며 유지해 가는 집단이다.”
- 입양이 가족구성의 요건으로 제시되고 있음을 주목하게 된다.
- 단일가구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 가족구성원 간의 내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강조하고 있다.

⑦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은 가족구성을 혈연에 둑어두려는 경향성이 강하여 가족의 생성이라는 측면에서 설명력이 높지만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하여 포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2) 현대적 가족의 개념

① 하트만과 레이어드(Hartman & Laird, 1983)의 가족에 대한 정의

- “둘 이상의 사람이 친숙한 한 가족이라고 여기고, 밀접한 감정적 유대와 가정이라는 생활공간 그리고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적 요구의 총족에 필요한 여러 역할과 과제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할 수 있다.”
- 둘 이상의 구성원을 제시한다.
- 결혼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결혼을 가정의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 밀접한 감정적 유대와 생활공간의 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② 기든스(Giddens, 1992)의 가족에 대한 정의

- “가족은 정서적이고 물질적인 지지에 기반을 둔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이 상호간 기대를 갖고 그들의 삶의 유형과 관계없이 상호책임감, 친밀감, 지속적인 보호를 주고받는 구성체이다.”
- 결혼을 가족 구성의 필수요건으로 보지 않는다.
- 두 사람 이상의 상호작용 및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③ 아이클러(Eichler, 1988)의 가족에 대한 정의

- 가족은 한 명 혹은 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며 ①, 이 자녀가 혼인관계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② 사회집단이다. 이들 성인관계는 결혼에 근거를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③ 이들은 같은 거주지에 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④ 이들 성인들은 성적으로 동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관계는 애정, 매력, 경건성, 경외감 같은 사회적으로 패턴화된 감정을 포함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⑤”
- ①은 무자녀부부를 이른다.
- ②는 입양이나 배우자의 전혼 자녀를 이른다.
- ③은 사실혼 관계도 가족으로 포함함을 이른다.
- ④는 주말부부, 기러기 가족 형태에서 발견할 수 있다.
- ⑤는 형식적인 가족관계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④ 현대적 가족 개념은 반드시 결혼과 출생이라는 관계를 통하여 가족이 형성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

현대사회의 변화를 반영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⑤ 결국 가족의 개념을 어떻게 보느냐는 사회복지실천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 핵가족으로 전제로 한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고수한다면 그러한 형태에 일치하지 않은 가족은 모두 역기능적인 가족이라고 보게 된다.
- 이럴 경우 다양한 가족형태로 변화한 현대사회의 특징을 실천에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 핵가족만이 정상적인 가족이라는 것도 편견이다. 편견으로 다른 형태의 가족이 서비스 밖에 서 있게 할 가능성이 있다.
- '정상가족'의 개념 자체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 적어도 시대적으로 사회복지실천면에서는 이런 닫힌 시야에서 벗어나야 할 과제가 주어졌다.

note1: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제1호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시기적으로는 현대에 만들어진 법이지만 가족에 대해서 핵가족을 기본적으로 가족의 일반적인 모습으로 상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 이런 관점에서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이는 법이 항상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지만 자칫 시대적인 상황을 담지 못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note2: 가족복지실천가는 가족을 어떤 개념으로 보아야 할까?

- 정상가족, 비정상가족을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구분 자체가 낙인감을 줄 수가 있다.
- 실천가는 열린 마음으로 가족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
- 그러면서 법적 제한성 등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 가족의 기능

1) 가족 내 기능

① 가족은 성적 욕구충족과 자녀출산의 기능이 있다.

- 일반적으로 가족은 남녀의 사랑을 기초로 해서 형성된다.
- 부부간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이런 성생활의 결과로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
- 사회의 어떤 집단이 대신할 수 없는 가족만의 고유한 특성이다.

② 가족은 자녀양육과 사회화의 기능이 있다.

- 아이들은 출생하면서 가족의 보호를 받고 가족으로부터 사회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 가장 기초단위가 되는 가족에서부터 관계성을 비롯하여 사회에서 필요한 행동들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
- 이런 사회화는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진다.

③ 가족은 경제적 기능이 있다.

- 전통사회에서는 가족이 생산과 소비의 기능을 모두 감당했다.
- 현대사회에서는 고도의 산업화와 상품의 대량생산으로 인해 가족의 생산기능은 축소되고 소비기능을

중심으로 하게 되었다.

- 가족구성원은 주로 산업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으며, 그 임금으로 가족의 소비를 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 (과거 농경사회에서 근대산업사회로 전환될 때 노동자의 1일 노동임금은 1인의 노동임금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가족이 공동으로 생산하던 체제에서 가장이 임금노동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의 노동은 가족의 생산성에 맞춰주어야 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수당 등의 제도가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계 어려움이 커져 맞벌이 등 미성년을 제외한 가구원은 모두 노동자가 되어야 하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 ④ 가족은 보호 및 부양의 기능이 있다.
- 가족은 질병과 여러 어려움으로부터 가족구성원을 보호한다.
 - 또한 가족은 자녀 양육과 노부모 부양의 책임도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 ⑤ 가족은 휴식 및 오락의 기능이 있다.
- 가족은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심신의 긴장이나 피로를 회복시켜 주는 안식처 역할을 한다.
 - 가족은 정서적 지지의 근원이 된다.
 -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간은 즐거움의 시간이기도 하지만 사회화의 시간이기도 한 특징을 갖는다.
- ⑥ 가족은 종교의 기능이 있다.
- 가족은 가족구성원이 지니는 특정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의례나 형식을 따른다.
 - 이것은 가족의 결속력을 더욱 공고하게 하는 역할도 한다.
 - 이를 통하여 가족은 삶의 진리를 깨달으며, 인간능력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게 되고, 더욱 힘 있게 나가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한다.
 - 현대사회에서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종교적 강요는 할 수 없다.

2) 대 사회적 기능

- ① 가족은 성통제 기능이 있다.
- 성적 욕구는 인간의 기본적 욕구이다.
 - 결혼제도가 있음으로 인해서 사회는 문란하게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질서 속에서 성적 욕구를 통제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
- ② 가족은 사회구성원 충원 기능이 있다.
- 가족의 성적 기능 및 자녀출산이라는 내적기능은 필연적으로 사회구성원의 충족이라는 역할을 하게 된다.
 - 가족은 자녀 출산으로 사회 및 인류를 존속하는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다.
 - '인구대체율'은 한 사회가 유지되는 출산율을 의미한다. 2.08명이 기준이다.
- ③ 가족은 노동력 제공 및 생활보장기능이 있다.
- 가족구성원은 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재화를 구입하여 가정 소비를 이룬다. 이렇게 가족은 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 이런 가족구성원이 활동이 사회전체의 보장과 연결이 된다.
- ④ 가족은 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하는 기능이 있다.
- 가족은 자녀를 생산, 양육함으로써 사회성원을 배출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사회의 전통과 문화가 이어져 나가게 된다.

- 사회적 지속성을 갖게 된다.
- ⑤ 가족은 사회안정화의 기능이 있다.
- 가족이 있음으로 사회구성원은 안정을 느끼며 이를 토대로 사회가 안정되어지는 것이다.
 - 가족이 가족 구성원에게 보장하는 보호와 휴식의 기능은 사회구성원이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하게 하는 선순환구조를 갖게 한다.

※ 가족의 내적 기능과 대 사회적 기능은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는 관계에 있는 것이다.

3. 가족관련 여러 용어

1) 가정(home)

① 사전적 의미:

- 부부를 중심으로 어머니와 근친자들이 한데 모여 의식주 등 일상생활을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를 가정이라고 한다.
- 이때 공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하고, 공동생활이 가정생활이고, 공동생활을 하는 집안을 가정이라고 한다.
- 물질적인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고, 휴식을 취할 수 있으며, 안식과 애정이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로 이해할 수 있다.

note1. 건강가정기본법 상 가족과 가정

가족 - 결혼, 출생, 입양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의 기본단위

가정 - 생활공동체

note2: 집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가정은 돈으로 살 수 없다.

생활공동체로서의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준다.

② 가구(household)

- 통계조사 때 주로 쓰이는 용어로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취침, 취사, 생계를 같이 하는 단위를 말한다.
- 보통 단일가구가 일반적이다.
- 결혼이나 혈연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개념이다.
- 생활하는 공간과 협력하는 가계라는 경제적 협력만 기준으로 삼는다.
- 함께 살고 있는 고용인은 가족은 아니지만 가구원에 포함한다. 반면, 출타하여 단독 거주하는 가족원은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③ 세대(household, family)

- 가구와 비슷한 의미로 주거와 생계를 동일하게 하는 사람의 집단을 이른다.
- 따로 나가 있는 가족구성원은 포함되지 않으나 동거하면 식사 등을 함께 하는 고용인은 포함된다.

④ 집

- 우리말에서 집은 다양한 뉘앙스를 갖는다.
- 우리 집은 세 식구다. --> 가족구성원
- 우리 집은 부산이다. --> 거주지
- 우리 집은 크다. --> 건물(house)
- 우리 집안은 양반집안이다. --> 사회적 배경
- 그 집안과는 결혼을 할 수 없다. --> 가족범위를 넘어 친족까지 포함

⑤ 친족

- 혈연과 인척관계에 의하여 결합된 사람들로서 긴밀한 접촉관계를 유지한다.
- 민법상으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2주차 1차시 : 현대가족의 변화에 대한 이해

[학습 내용]

1. 가족의 변화
2. 가족변화의 관점

[학습 목표]

1. 가족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변화하는 가족의 관점을 통해 현대사회에서의 가족의 의미와 역할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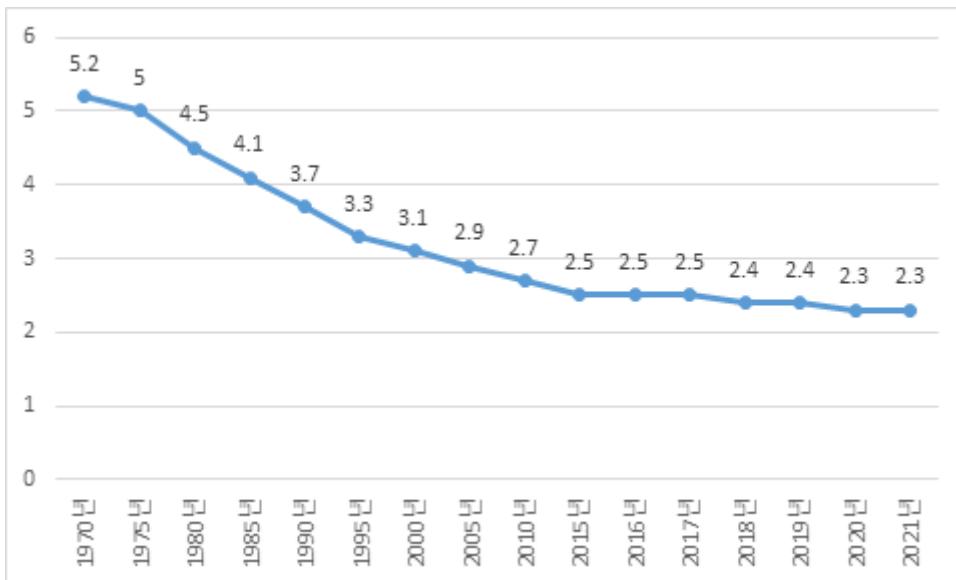
1. 가족의 변화

1) 가족수의 축소

- ① 해방 이후부터 1960년까지 우리나라 평균 가구원수는 시단위 5.0명, 군단위 6.22명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다.
- ② 국가주도의 가족계획정책으로 인하여 가족규모가 단시간에 축소되었다.
- ③ 1980년대 들어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이에 따라 가족수 감소는 더 급격히 진행되었다.
- ④ 인식의 변화도 가족수 축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
 - 결혼 : '결혼은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인식의 증가
 - 이혼 : '경우에 따라서 이혼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의 증가
 - 자녀 : '행복한 결혼을 이루는데 자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는 인식의 증가
- ⑤ 초혼연령의 증가와 그로 인하여 가임기간의 축소는 자녀출산에 장애가 되고 있다.
- ⑥ 맞벌이의 증가,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 자녀양육 부담의 증가 등이 맞물려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다.
- ⑦ 주목할 만한 현상 중 하나는 1인 가구의 증가이다.
 - 독거노인의 증가
 - 독신가정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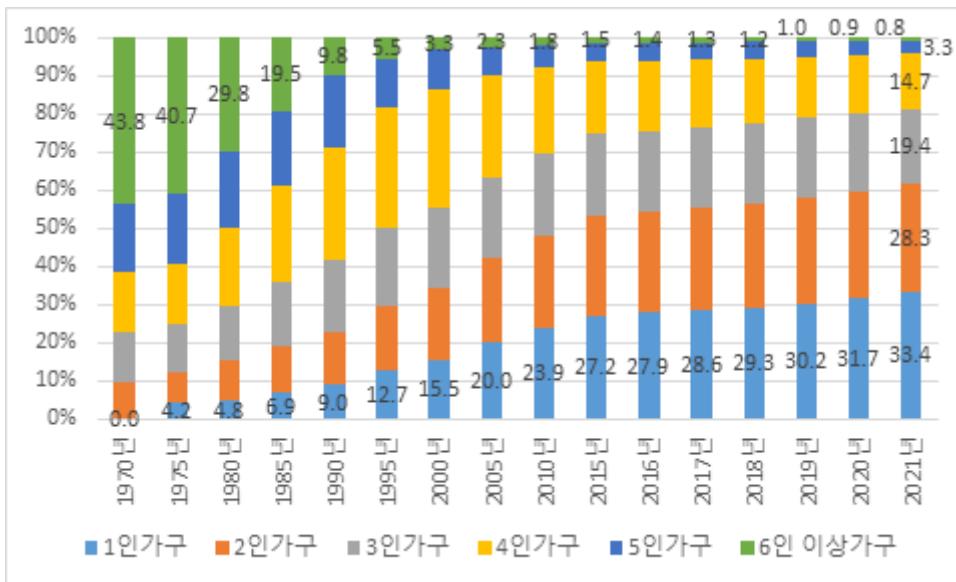
cf. '가족'의 개념은 혼인, 출생, 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할 때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을 가정하게 된다. 그런데 현대적 의미에서는 '1인가족'이라는 말로 성립되는 경향이 있다.

⑧ 평균 가구원수 변화



출처: 국가통계지표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9#>) 참고로 그림

⑨ 가구원별 가구분포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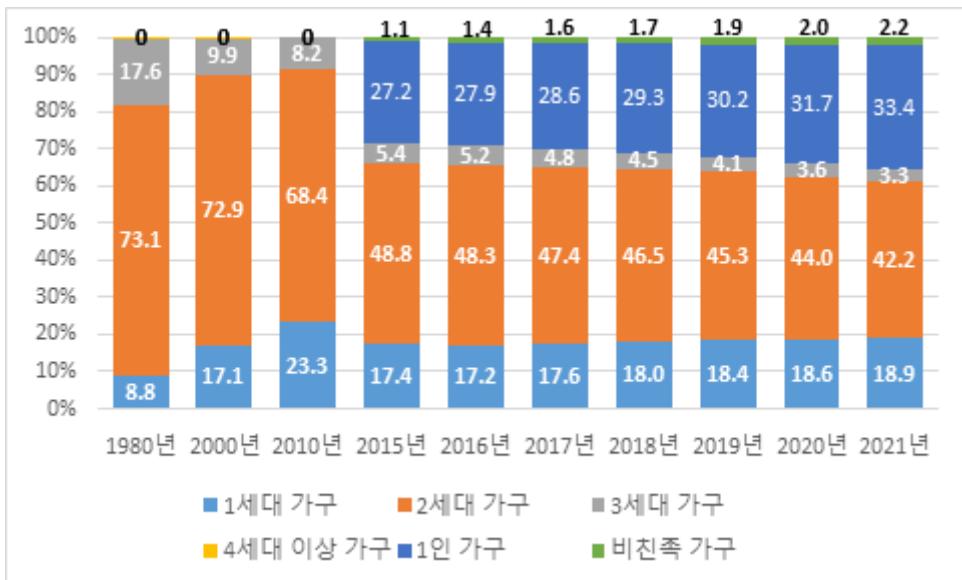


출처: 국가통계지표 (<https://www.index.go.kr/unify/idx-info.do?idxCd=4229#>) 참고로 그림

2) 세대구성의 단순화

- ① 과거에는 대가족제를 유지하여 3세대 구성 비율이 높았다.
- ② 핵가족화 되어가면서 2세대 가구 구성 비율이 높아졌다.
- ③ 핵가족화가 안정되면서 2세대 가구가 중심인 가운데 1인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④ 혈연가구의 세대수별 분포(%)



출처: 통계청 인구주택조사 각 년도 바탕으로 작성

3) 가족구성원의 복잡화

① 이혼 및 재혼가족의 증가로 가족구성원이 복잡해지는 추세이다.

② 재혼형태의 분포(%)

연도	재혼건수	남편 재혼 + 아내 재혼	남편 재혼 + 아내 초혼	아내 재혼 + 남편 초혼	남편 재혼 + 아내 미상	아내 재혼 + 남편 미상
2013	67,195	53.68	19.11	27.10	0.05	0.06
2014	65,972	53.77	18.22	27.93	0.04	0.05
2015	64,453	53.81	18.11	27.98	0.06	0.04
2016	60,108	53.37	18.48	27.82	0.17	0.16
2017	58,030	53.52	18.12	27.95	0.24	0.17
2018	57,132	53.79	17.86	27.89	0.32	0.15
2019	54,526	53.95	17.91	27.49	0.47	0.17
2020	46,135	54.60	17.15	27.79	0.34	0.11
2021	42,866	55.50	16.55	27.33	0.40	0.21
2022	42,672	55.15	17.35	26.59	0.63	0.29

출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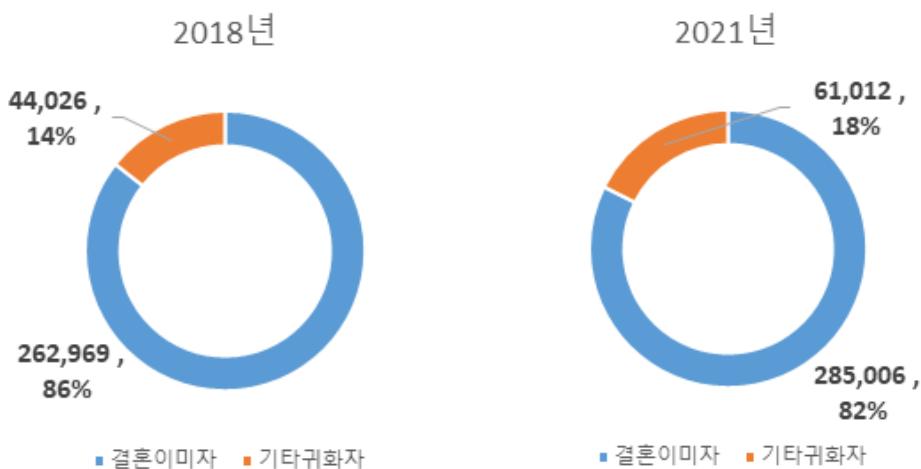
국가통계지표(<https://www.index.go.kr/unity/potal/indicator/IndexInfo.do?cdNo=2&clasCd=10&idxCd=F0030>)

③ 재혼양상이 복잡해짐에 따라 가족구성원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④ 성개방과 더불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동거 형태(사실혼)도 늘어가는 추세이어서 가족구성원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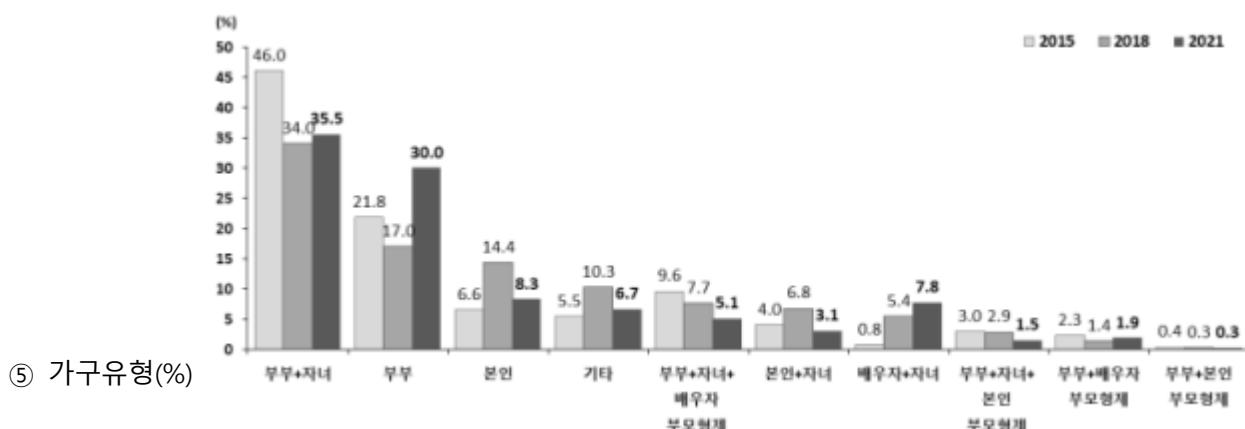
4) 다문화가족의 증가

- ① 다문화가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이주노동자 : 산업인력으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나 다양한 이유로 이주노동자가 늘어가고 있다.
 - 결혼이주자 : 농촌지역으로 결혼 이주하는 경우가 많은 가운데 종교적 이유로 결혼이주한 경우도 있다.
 - 귀화자 : 정치적, 사회경제적 이유로 귀화자가 늘어가고 있다.
- ② 다문화가족의 가구특성



출처: 2018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2021 전국다문화실태조사 참고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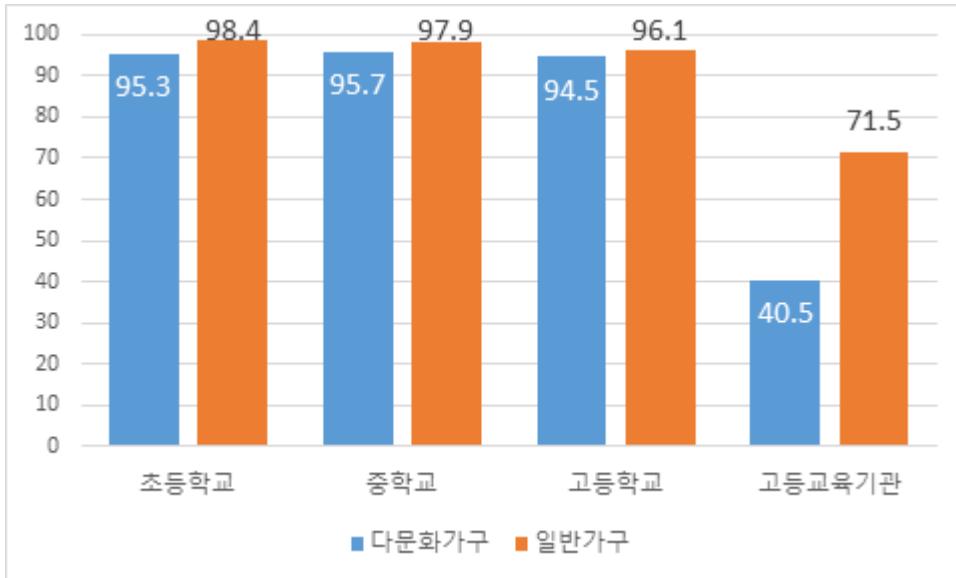
- ③ 지역별로는 2018년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역의 거주비율이 55.6%로 주로 수도권, 동부 거주 비율이 높았고, 2021년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 지역의 거주비율이 56.16%로 주로 수도권, 동부 거주 비율이 높았다.
- ④ 평균 가구원 수는 2.92명(2018년) -> 2.82명(2021년)으로 다소 줄었다.



출처: 2021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 ⑥ 자녀특성

- 평균 자녀수 0.95명(2018년) -> 0.88명(2021년)으로 다소 줄었다.
- 자녀의 평균 나이는 8.3세(2018년) -> 10.70세(2021년)으로 다소 늘었다.
- ★ 2021년 평균연령 – 2018년 평균연령 = 2.38
자녀를 전혀 낳지 않을 경우 평균연령의 자연 증가율이 3세라는 점을 볼 때 다문화가정에서의 출산이 적었음을 보여준다.
- 전체 저학년 자녀의 42.4%가 평일에 혼자 방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8년 53.4%에 비하면 낮아졌으나 절대적 수치로 보았을 때 여전히 높은 편인 것을 알 수 있다.
- 취학률



출처: 2021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를 토대로 작성

⑦ 경제적인 구조

-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300만원 24.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300-400만원 22.7%, 400-500만원 15.3%, 100-200만원 14.3%, 100만원 미만 10.2%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2015년, 2018년에 비해 점점 완만해지면서 전반적인 구간별 편차가 감소되는 추세이다.

5) 한부모가족의 증가

- ① 현대사회의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다양한 가족형태가 증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 ② 특히, 한부모가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③ 과거 한부모가족은 주로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되었다.
- ④ 최근에는 이혼, 별거, 미혼모 발생으로 인하여 한부모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 ⑤ 과거에는 주로 모자가정이 많았지만 점차 부자가정이 증가하고 있다.
- ⑥ 30대, 40대에서 한부모가정이 많다.
 - 이는 중년남성의 사망률 증가했다는 점을 반영한다.
 - 자녀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이혼에 대한 태도 변화 등이 30대 젊은 연령집단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 ⑦ 한부모가족 현황(가구,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총가구	19,837,665	20,167,922	20,499,543	20,891,348	21,484,785	22,022,753
한부모 가구	1,539,868	1,533,166	1,539,362	1,529,151	1,532,751	1,509,958
비율 (%)	7.76	7.60	7.51	7.32	7.13	6.86

출처: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index/index.do>)에서 발췌 및 작성

6) 기타가족의 증가

- ① 이혼가족, 재혼가족, 다문화가족 이외에도 새로운 유형의 가족들이 공존하고 있다.
- ② 조손가정이 늘어가고 있다.
 - 친부모의 이혼이나 재혼으로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경우가 있다.
 - 친부모의 가출이나 실종으로 양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경우가 있다.
 - 경제적인 이유 곧 친부모의 실직이나 파산으로 양육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경우가 있다.
 - 아이의 학습문제, 생활지도문제, 장래준비문제, 건강문제 등으로 부모와 함께 생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조손가족은 사회적 약자들의 결합인 탓에 노인빈곤, 아동빈곤, 세대갈등 등 다양한 요인이 중첩되어 있다.
 - 경우에 따라서는 복지사각지대가 되기도 한다.
 - (조손가족은 달리 구분하지 않고 한부모가족에 포함하기도 한다.)
- ③ 북한이탈주민이 늘어가고 있다.
 - 과거에는 귀순용사가 주를 이루었다.
 - 현재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하여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서 탈북하여 입국하는 사례가 늘어가고 있다.
 - 가족동반 탈북으로 인하여 아동자녀와 함께 탈북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탈북 자체도 늘어가고 있다.
 - 이미 입국한 가족의 도움을 받아 잔류가족이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④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청소년의 사회에 잘 적응하는데 부모가 적응을 잘 못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김형태, 2004).

2. 가족변화의 관점

1) 가족위기론

- ① 가족위기론자들이 말하는 가족의 위기는 단순한 표면적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 ② 근본적인 구조 및 기능상이 쇠퇴와 그에 따른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혼란과 갈등을 의미한다.
- ③ 가족변화의 원인을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및 인간의 쾌락주의에서 찾는다.
- ④ 가족위기론자들의 사회와 가족 진단
 -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개인주의적 가치가 증대되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강조된다.
 - --> 사회에서 점차 가족은 자녀의 보호와 사회화 기능 및 사랑과 연대감 제공이라는 정서적

기능들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한다.

- --> 이런 상태에서 이혼과 한부모가족, 무자녀부부가족, 독신가구 등이 증가해 간다.
 - --> 출산을 거부하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한다.
- ⑤ 현대사회에서 개인은 점차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시하고 공동체로서의 가족유대보다는 개별체로서의 자아실현에 더 가치를 두는 풍조로 변하는 것이 문제라고 본다. 이런 현상을 가족해체의 원인으로 본다.
- ⑥ 가족위기론의 입장에서는 아동의 빈곤을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제기한다.
- ⑦ 가족위기론자들이 제시하는 대책
- 여성들에게 고등교육을 제한하거나 저임금을 유지하거나 피임을 금지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여성 권한의 제한)
 - 종래의 성별역할을 지속시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Parsons(구조기능론자의 대표): 남성의 '도구적 역할'과 여성의 '정서적 역할'을 가장 인간적이고 자연순응적인 가족의 이상형으로 제시한다. --> 부계중심의 가족가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가족진보론

- ① 가족진보론은 가족변화론이라고도 한다.
- ② 가족진보론자들은 가족변화를 위기보다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변화로 수용하면서 다양한 가족유형을 인정한다.
- ③ 현대가족은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치는 중시하는 전체사회의 변화 속에서 점차 전통적 가족의 위계를 거부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형성시키고자 하는 의지들을 성숙시켜 나가고 있다. --> 이에 따라 가족구조는 당연히 변화하고 다양화되어야 한다.
- ④ 가족진보론자들은 가부장적인 가족구조를 변화시켜야 하며, 부부 간 평등과 아동 및 개별 구성원들의 개인적 권리가 존중되는 가족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⑤ 자녀양육 및 출산의 책임이 여성에게만 과중하게 부여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 ⑥ 경제구조의 다원화와 불안정성 때문에 가족구조가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 남성생계부양모델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 ⑦ 아동이 빈곤문제 역시 가족해체의 문제라기 보다는 노동시장의 여성불평등과 저임금체계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및 안전망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 ⑧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 ⑨ 이혼율의 증가와 결혼율의 감소에 대해서 반드시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 이혼은 새로운 삶의 기회를 모색하고 더 적극적인 삶이 방식이라고 한다.
- ⑩ 한부모가족, 독신가족, 동거가족, 동성애가족 등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가족유형 등을 가족제도의 위기도 보지 않는다. 오히려 대안적 가족형태로 본다.
- ⑪ 가족진보론자들은 가족변화는 당연한 것으로 보아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을 통하여 전통적인 가족기능을 사회화하여야 한다는 강조한다.

※ 가족위기론과 가족진보론의 쟁점 비교

	가족위기론	가족진보론
가족변화의 원인	극단적인 개인주의, 이기주의, 쾌락주의	가부장제의 모순과 자본주의 경제구조이 불안정성
이상적 가족형태	남성: 생계부양 여성: 가족보호	존재하지 않음
중심적 가족 가치	가족공동체, 특별한 정서적 유대, 상호의존	개인적 만족, 자기발전, 자율과 독립성
이상적 부부관계	성별분업에 기초한 동반자 남성중심	가족보호와 노동에 대한 동업자 남녀평등 강조
새로운 가족 유형들	가족제도의 위기 징후	대안적 가족형태
대안	전통적 가치의 회복 분명한 성역할 정립	적극적인 사회복지정책을 통한 가족기능의 사회화

출처 : 고명석, 김경원, 박선민(2016), p.29 수정보완

2주차 2차시 : 가족복지의 이해

[학습 내용]

1. 가족복지의 개념
2. 가족복지의 접근방법
3. 가족복지 서비스 유형

[학습 목표]

1. 가족복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가족복지의 접근방법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가족복지의 서비스 유형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가족복지의 개념

1) 가족복지 정의의 어려움

- ① 가족복지의 대상이자 주체인 가족에 대한 정의가 어렵기 때문이다.
-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은 결혼, 출산, 입양을 통하여 이루어진 사회의 기초단위로 본다. 이럴 경우에는 개입의 대상이 가족구성원으로 비교적 명확하다.
 -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은 '일정한 책임감을 갖고 서로 의지하는 존재'로 보는 등 가족을 정체되어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어떤 것으로 개념화 되어가고 있다. 가족 주체가 변화하는 시대적인 흐름이 있기에 가족복지의 주체가 되는 가족에 대해서 합의된 정의를 찾기가 쉽지 않다.
- ② 가족복지 분야가 다른 복지 분야와 중첩되어 가족과 개별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 가족복지의 고유영역 분류 기준이 모호하다.
 - 아동, 여성, 노인 등 개별 구성원들의 복지와 가족복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
 - 실질적으로 가족문제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와 정책을 수립할 때 '전체로서의 가족'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개인 단위로 서비스와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 실제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르지 않은 경우가 있다.
- ③ 부처 간 업무가 분절되어 있다.
- 가족구성원이지만 노인이나 영유아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관할하고 있다.
 - 여성, 청소년, 가족문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가 관할하고 있다.
 - 같은 가족의 구성원인데 이렇게 개별복지가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가족복지적인 일관된 입장을 갖는 것이 쉽지 않다.

2) 가족복지의 정의

- ① 가족복지란 가족의 삶이 행복하고 안정되며 바람직하도록 사회구성원 전체가 집단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 cf. 'Family Welfare'의 정식명칭은 무엇일까?
 - Social Welfare for Families
 - Social Welfare(사회복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② 여러 학자들의 정의를 종합하면 가족복지의 개념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 대상적 측면에서 가족복지는 그 대상을 가족으로 하고 있다. 가족을 하나의 '**전체성의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 즉, 가족복지는 가족구성원 개개인에게도 관심을 두지만 한 단위로서의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 가족구성원의 발달을 원조하고, 문제와 욕구를 충족하는 '**가족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 사회와의 관계적 맥락에서 가족과 구성원들의 '**사회적 기능 수행**'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건강한 성장과 사회적 적응 및 행복한 생활**'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게 검토되고 있다.
 - 가족복지의 실천기제에 대해 가족과 그 구성원을 돋는 '**공공과 민간의 모든 노력**'이 가족복지임을 제시하고 있다.
- ③ 결국 가족복지는 가족의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파악하여 가족생활을 향상시키고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사회복지증진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 ④ 가족구성원 개인이나 가족에 대한 서비스뿐만 아니라 가족제도의 강화나 수정 및 변화에 대한 노력까지 포괄하는 모든 정책과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 ⑤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관계
 - 용어적인 면에서 가족정책은 사회 전반에 걸친 가족문제를 다룬다.
 - 용어적인 면에서 가족복지정책은 가족문제에 국한하여 복지정책을 펼치는 것을 이른다.
 - 보편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주로 가족정책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 선별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주로 가족복지정책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반드시 엄격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사회복지정책성을 갖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내용상으로 볼 때 보편주의적 입장을 지향하여 나가고 있다.

2. 가족복지의 접근방법

1) 가족복지의 대상

- ① 가족복지에 대한 미시적 접근방법과 거시적 접근방법이 있다.
 - 거시적 접근방법은 가족 외적 요인 특히, 산업화와 현대화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변화로 인해 가족문제가 야기된다고 본다. 따라서 가족이 처한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려는 환경적·예방적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미시적 접근방법은 가족문제가 가족 내적 요인 즉, 가족의 구조적 결손, 역기능적인 가족관계, 가족기능의 약화, 가족생활주기 상 발달과업의 미성취 등으로 인하여 야기된다고 본다. 따라서

구체적인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가능성이 있는 가족에게 직접 개입하여 문제해결을 돋는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맞춘다.

- 이 두 방법은 어느 수준에서 출발하느냐의 차이일 뿐 결국 가족의 사회적 기능수행의 향상 및 행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가족복지의 전반적 발전을 위하여 두 가지 접근방법이 병행되어야 한다.

② 가족복지는 '전체로서의 가족'을 전제로 한다.

③ 따라서 가족구조상 특성에 따라 대상으로 구분하면

- 취업부모가족, 미혼모가족, 이혼 및 재혼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노인가족, 도신가족 등
- 가족구조상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가족이 가진 특성에 따라 개입을 달리한다.
- (cf. 소년소녀가장가족의 경우 보호를 받아야 할 아동이 가장이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여 정책적으로 위탁가정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④ 가족기능상의 문제에 따라

- 학대, 알코올중독, 약물중독, 청소년 비행,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가족의 병리적 측면 등
- 병리적, 경제적 측면에서 기능상의 결손을 경험하는 가족 그리고 장애로 인하여 심리 및 의료적 문제를 겪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개입한다.

⑤ 가족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의 위기나 욕구에 따라

- 부부만의 시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미취학 아동기, 학동기, 청소년기, 독립기, 중년기, 노년기 등
-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가족구성원인 개개인은 물론 가족 자체가 당면하게 되는 다양한 복지욕구에 개입한다.

2) 가족복지의 주체

(1) 국가

- ① 가족복지의 일차적 주체는 국가이다.
- ② 국가는 건강한 가정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그러나 실질적으로 국가가 가족복지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이를 수는 없다. 따라서 다양한 복지주체가 필요하다.(복지다원주의의 대두)

(2) 가족

- ① 가족이나 가족구성원도 가족복지의 주체 중 하나이다.
- ② 이제는 복지대상이 복지의 주체가 되는 시대이다.
- ③ 가족은 가족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④ 부부체계가 가족복지의 책임을 많이 지게 된다. 그렇지만 그 외 가족체계도 가족복지에 대해서 주체가 되어야 한다.

(3) 기업이나 민간단체

- ① 기업이나 민간단체 역시 가족복지의 주체 중 하나이다.
- ② 경제적 위기도 앞으로 국가의 가족복지에 대한 개입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 ③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나 민간단체가 가족복지에 더욱 활발하게 참여함으로 가족복지의 더욱 활성화하여야 한다.

- ④ 특히,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은 가족에 대한 여러 복지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⑤ 사회 여러 단체는 가족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활동들을 더욱 활발하게 해 나가야 한다.

3) 가족복지서비스 접근방법

(1) 가족복지정책적 접근방법

- ① 가족복지정책적 접근이란 대상을 가족으로 하는 정책적 개입으로 사회적 위협으로 나타난 가족문제를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나 사회가 나서서 해결하는 접근방법이다.
- ② 소득지원정책 : 사회보험, 조세정책,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③ 건강가정지원정책 : 건강보험, 의료급여
- ④ 가족기능을 중심으로 한 가족복지정책

가족복지정책	
재생산기능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방과후 보호, 양육비 지원, 보육서비스, 아동수당
경제적기능	가족수당, 가족에 대한 각종 소득공제, 공적연금, 공공부조, 주택보조
사회화기능	교육비 지원, 의무교육, 무상교육
돌봄기능	노인장기요양보험, 간병휴가, 장애인활동보조

출처: 이영주 외(2015)를 수정함

(2) 가족복지서비스 접근방법

- ① 가족복지서비스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또는 사회적 서비스로 정의할 수 있다.
- ② 가족복지서비스의 기능은 가족생활을 보호하거나 회복시키고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돋는 역할을 하며, 가족구성원들의 성장과 발달을 돋고 가족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 ③ 가족보호
 - 가족보호는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가족 장애문제에 대해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다.
 - 발달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 치매노인가족, 만성질환자 부양가족들에 대한 서비스이다.
- ④ 가족생활교육
 - 가족생활교육은 가족 및 가족구성원이 가족생활과 성장, 발달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도록 도와 가족 내 역할 수행에 대한 잠자력을 향상시킴으로 가족생활을 향상시키고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다.
 - 평생교육이라는 관점과도 연결된다.
 - 결혼준비교육, 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 부모교육, 한부모가족 생활교육 등으로 새로운 가치나 문화 그리고 실질적인 기술 등을 교육하는 서비스이다.
- ⑤ 가족계획사업
 - 가족계획사업은 재생산적 건강보호서비스의 일종이다.
 - 임신중절, 성병에 대한 보호, 영양, 자녀 수에 대한 계획, 임신을 위한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 ⑥ 가족옹호
 - 가족옹호는 빈곤, 기회불평등, 인종차별 등 가족이 처한 사회적 불이익 상황을 초래하는 환경에 개입하는 것이다.
 - 사회행동의 일환이다.

- 다양한 옹호활동이 개발될 수 있어야 한다.
- 옹호활동은 합법적인 방법을 주로 사용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법을 넘어서는 활동도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 타당성이 분명하여야 하며, 수위조절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cf. 집회, 결사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⑦ 가족치료

- 가족치료는 가족진단을 기초로 가족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가족 내 역기능 문제나 정서적 문제를 해결하여 정상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 가족치료의 이론과 모델을 적용하여 개입한다.

⑧ 가족 사례관리

- 가족 사례관리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례관리이다.
- 현대사회는 다양성이 확대되는 사회이기에 가족구성원의 욕구나 문제 또한 복잡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어떤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복합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사례관리 방법이 도입되어야 한다.
- 가족사례관리는 역할중심, 자원획득, 역량강화라는 세 가지 접근으로 이루어진다.

3. 가족복지 서비스 유형

1) 가족기능 지원서비스

- ① 가족기능 지원서비스는 가족에 대한 지지적 서비스이다.
- ② 가족이 생활하고 있는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가족의 기능을 가족 스스로가 보다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의 일부를 지지하는 서비스이다.
- ③ 보편주의적 입장에서 제공되는 각종 정책(소득보장, 주택보장, 교육보장, 보건 및 의료정책)과 가족상담, 가족치료서비스,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서비스, 문화 및 여가 서비스 등이 있다.
- ④ 지지적 서비스의 핵심은 지금 기능하고 있는 가족기능을 더욱 원활하게 하는 데 있다.

2) 가족기능 보충서비스

- ① 가족기능 보충서비스는 작동하지 않는 가족 기능 일부에 대해서 보충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 ② 보육서비스,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재가서비스, 노인보호서비스 등이 있다.
- ③ 보충적 서비스는 가족이 기능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한다.

3) 가족기능 대리서비스

- ① 가족기능 대리서비스는 가족기능이 전반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부득이 가족기능을 대리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가정위탁보호, 입양, 그룹홈, 시설입소 등이 대리적 서비스이다.
- ③ 대리적 서비스는 가정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의미한다.

3주차 1차시 : 가족체계의 이해

[학습 내용]

1. 가족체계의 개념 및 가족이해 관점
2. 가족체계의 특징과 기능
3. 가족생활교육

[학습 목표]

1. 가족체계의 개념과 가족 이해의 관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가족체계의 특징과 기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가족생활교육의 의의와 접근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가족체계의 개념 및 가족이해 관점

1) 가족체계의 개념

- ① 체계이론은 한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 모든 가족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② 가장의 실질은 가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가 된다.
- ③ 가족체계는 가족구성원이 상호 의존하는 관계의 특성을 보여준다.
- ④ 따라서 가족체계에 대한 접근은 가족사정 및 문제해결에 효과적인 역할을 한다.
- ⑤ 가족규범은 분명하지도 언어화되지도 않지만 가족집단 내에서 어떤 행동이 적절한지를 구체화하는 규칙이다. 사회복지사는 가족 내에 있는 이런 규칙을 발견하여 기능적인 것을 발전시키지만 역기능적인 것은 기능적인 것으로 변화·표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⑥ 권력구조란 한 가족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른다. 이러한 권력은 긍정적일 때는 가족이 역동적일 수 있지만 잘못 사용될 때 아동학대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
- ⑦ 이러한 가족체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체계론적인 입장과 가족발달이론을 활용하게 된다.

2) 가족이해의 관점 및 이론

(1) 가족체계이론

- ① 가족체계이론은 일반체계이론을 받아들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가족생활을 모든 부분을 이해하려는 접근이다.
- ② 가족경계 :
 - ◆ 가족체계에서 다른 체계와 구분하는 것을 경계라고 한다.
 - ◆ 경계는 정보가 흘러가는 양상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진다.
 - ◆ 경계는 명확한 것이 바람직하고 개방적인 것이 바람직하다.

- ③ 가족 항상성 :
- 항상성은 일반체계이론에서 나온 개념으로 어떤 특성을 끝까지 유지하려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 항상성은 긍정적으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족체계가 변화를 필요로 하는데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 ④ 가족 삼각관계:
- 가족 안에 정서적으로 삼각관계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 2인 체계는 불안과 긴장이 유발된다. -->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 2인 체계의 긴장을 줄이는 방법이 제3자를 끌여들여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 ⑤ 가족규칙 :
- 가족구성원 안에서 상호 역동적으로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가족 안에서 많은 규칙이 있을 수 있는데 가족규칙이 경직되어 있을 때 역기능적인 모습을 갖게 된다.
- ⑥ 가족신화 :
- 가족의 전반적인 이데올로기를 말한다.
 - 가족구성원 개개인과 그 관계에 대한 기대와 공유된 믿음으로 구성된다.
 - 사실이나 역사의 왜곡에 기초한다.
 - eg. 남자는 바깥일을 담당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담당한다.
- ⑦ 가족의식(family ritual) :
- 가족의식이란 세대적 전승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역기능적인 구조의 가정에서 보이는 일상적인 상호작용의 양상이나 명절이나 기념일에 보여지는 활동을 포함한다.
 - 쉬는 날이면 가족이 무엇을 한다면 이는 가족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 ⑧ 격리와 밀착 :
- 가족이 서로 얼마나 관여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는 개념이다.
 - 이와 관련된 개념은 경계인데 애매한 경계는 지나치게 서로 밀착되어 불필요하게 관여하게 된다.
 - 격리는 그와 반대로 가족을 침묵시키고 위축되어 서로 고립되게 만든다.
- ⑨ 부모화 :
- 어떤 자녀가 가족에서 부모나 배우자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 대가족,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등에서 자주 일어난다.
 - 부모화된 자녀는 지나치게 어른스러워질 수 있다.
- (2) 가족발달이론
- ① 발달론적 관점은 삶의 다양한 단계를 통하여 일반적인 발달을 볼 수 있다.
- ② 가족은 정적이라기보다는 역동적이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가족체계 안에서 살아간다.
- ③ 가족 내에서 전환기가 중복된 가족구성원이 있을 경우 위기가 더 크게 다가온다.
eg. 대부분 자녀청소년기는 부모 중년기이다.
- ④ 이를 능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가정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 ⑤ 발달단계와 발달과업

단계	주요과업	최초의 사건
결혼 전	본가로부터 분리	약혼
아이 출생 전 부부	부부역할에 적응(가정꾸미기)	결혼
아이 출생 부부	새로 태어난 아이에 적응	첫아이 출생과 입양
완성된 가족	새로운 가족구성원에 적응	막내의 출생
청소년을 가진 가족	가족체계 내의 융통성 증가	가족으로부터의 아동분리
떠나보내기	가족구성원이 떠나는 것을 수용	자식의 직업이나 결혼
자식을 모두 떠난 보낸 후	외로움과 늙어감을 수용	자식을 떠나보냄, 배우자 사망

출처 : 김용환 외(2019), p.44 수정함

(3) 사회교환이론

- ① 사회적 노력은 개인이 그들에게 보상되는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비용이 되는 상호작용의 경향이 있다.
- ② 즉, 서로 가치 있는 것을 교환하는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이다.
- ③ 따라서 사회질서는 이윤이나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개인 활동의 부산물이라고 본다.
- ④ 보상, 투자,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상호작용을 하게 된다.
- ⑤ 배우자 선택, 부부 간 권력, 노인문제 등이 교환가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4) 건강가족 관점(strong family perspective)

- ① 건강한 가족의 범위는 가족의 병리보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장점에 초점을 둔다.
- ② 같은 조건하에서 잘 적응하는 가족과 그렇지 못한 가족과의 차이에 관심을 두고 건강가족의 특성을 규정하고자 한다.
- ③ 건강 가족적 차원에서 중요시하는 주제
 - ◆ 개인적 차원 - 긍정적 사고, 책임감, 응집력과 적응력 강화, 효율적인 의사소통
 - ◆ 사회적 차원 - 건강한 시민의식 함양 등

2. 가족체계의 특징과 기능

1) 가족체계의 특징

- ①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보는 관점은 가족구성원 간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가족과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까지 모두 관찰하고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 ② 가족은 가족구성원 개개인으로 구성된 체계이고,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사회체계의 한 유형이다.
- ③ 개방체계는 체계 내 여러 요소와 환경 간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변화를 지향한다.
--> 가족구성원 간 상호교류와 의사소통이 원만하고 가족 성장을 가져다 준다.
- ④ 폐쇄체계는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에너지의 혼란상태(엔트로피)에 이른다.
- ⑤ 한 사람의 행동이 다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며 이는 반복적으로 상호적 행동으로 유형화된다.

2) 가족체계의 기능

(1) 문제해결의 기능

- ① 가족 안에는 경제적인 문제, 일상생활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난다.
- ② 가족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2) 의사소통의 기능

- ① 가족 구성원 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기능이다.
- ② 건강한 가족은 명확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만 역기능적인 가족은 명료화하는데 실패한다.

(3) 역할의 기능

- ① 역할은 가족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가족구성원의 반복적인 행동패턴을 의미한다.
- ② 가족체계를 경영하고 유지하는 역할, 의식주와 같은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 양육하고 지원하는 역할, 부부의 성적 만족 역할, 부모역할 등이 있다.
- ③ 각 구성원이 적절하게 이런 역할을 수행할 때 기능적인 가족이 되고 그렇지 못할 때 역기능적인 가족이 된다.

(4) 정서적인 기능

- ① 가족구성원은 관계 속에서 서로 정서적인 반응을 한다.
- ② 정서표현 방법에는 '행복감 감정'들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사랑, 온화함, 동정심, 행복감, 즐거움 등과 같은 감정들도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다.
- ③ 정서표현의 또 다른 방법은 '위급한 감정'들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는 두려움, 공포, 분노, 실망 등과 같은 감정들도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다.
- ④ 일반적으로 행복한 감정들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적절한 위급한 감정들로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할 때도 있다.

(5) 감정이입의 기능

- ①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의 감정에 어떻게 반응, 이입하는가의 문제이다.
- ② 상태에 따라 공감적 감정이입 상태를 가장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6) 행동조절의 기능

- ① 가족체계 안에서 충동적인 역동들이 적용될 수 있다.
- ② 그러할 때 가족구성원들이 신체적으로 위험한 행동들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중요한 문제가 된다.
- ③ 행동의 조절은 자녀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적용된다.
- ④ 행동에 대해서 유연성이 있는 것이 기능적인 것이다.

(7) 영적 기능

- ① 영적기능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인적인 차원과 연결이 된다.
- ② 영적 차원에는 신념과 의지, 소명과 결과, 경험과 감정, 의식과 습관, 용기와 성장, 공동체, 권위와 지도 등이 있다.

- ③ 영적기능을 반드시 종교와 연결할 필요는 없다.

3. 가족생활교육

1) 가족생활교육의 의의

(1) 가족생활교육의 정의

- ① 가족생활교육(family life education)이란 유아에서 노인까지 개인과 가족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통합적인 가정교육이다.
- ② 가족생활교육은 가족 및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개인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강화시키는 평생교육이다.
- ③ 현대사회에서 대두되는 가족문제는 개인 성장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사회 안녕 및 질서유지에 중요한 영향요인이 된다. --> 따라서 가족문제 발생에 대한 대책과 더불어 가족생활교육이 요구된다.
- ④ 가족문제에 대한 대처뿐만 아니라 예방하여 가족생활을 윤택하게 한다는 측면에서도 가족생활교육이 요구된다.

(2) 가족생활교육의 영역과 내용

- ① 가족생활교육은 크게 문제해결, 문제예방, 잠재력 개발이라는 초점을 갖는다.
- ② 이중 어느 것이 우의를 차지하는지는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가족생활교육 초기에는 문제해결에 더 중점을 둔 반면 가족생활교육이 이루어질수록 문제예방과 잠재력개발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 ③ 어떤 것에 초점을 두든지 가족생활교육은 다음과 같은 고통의 목적을 갖는다.
 - ◆ 하나의 체계로서 가족의 능력을 향상
 - ◆ 가족체계의 각 구성원의 심리적 안녕 증진

(3)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이 효과적이기 위한 조건

- ① 건강한 가족체계의 기능을 증진시켜야 한다.
- ② 가족 안에 있는 독특한 사회적·문화적 맥락을 잘 포함하여 이를 지지한다.
- ③ 가족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있어야 한다.
- ④ 내용상으로 가족생활주기와 다양한 인생경험 및 교육이 지속되어야 한다.
- ⑤ 치료보다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미래지향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⑥ 개인의 태도, 행동 변화를 강조하는 학습과정이 제시되어야 한다.
- ⑦ 적절한 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보통 추후활동을 포함하여 15-18시간을 배정한다.
- ⑧ 연습을 통한 학습강화 계획이 제시되어야 한다.
- ⑨ 개인의 삶의 경험에 대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⑩ 개인의 경험, 가치, 문화적 지향 등이 존중되어야 한다.
- ⑪ 기술에 대한 모델을 보여주고 토론과 의견을 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 ⑫ 잘 계획되고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한다.
- ⑬ 집단의 요구도 조사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이 개발·제시되어야 한다.

⑯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완·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족생활교육의 접근법

① 평생발달적 접근법이 있다.

이는 가족생활교육에 대해 가족발달단계라는 폭넓은 개념을 반영하고 주제 영역이 주는 중요한 개념을 놓치지 않고 그 구조를 운영할 수 있게 한다.

② 주제중심적 접근법이 있다.

이는 가족발달주기 단계에서 이루어야 할 특정한 내용을 주요 관심영역으로 갖는다.

eg. 결혼준비 교육,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 자녀와의 관계를 향상하기 위한 부모교육, 치매노인 부양 가족교육 등

③ 통합적 접근법이 있다.

이는 가족발달단계 접근과 주제중심적 접근을 통합한 것이다.

3주차 2차시 : 가족생활주기와 가족복지

[학습 내용]

1. 가족생활주기의 정의 및 유용성
2. 가족발달과정
3. 가족 주기별 특성, 위기, 개입
4. 변화하는 가족생활주기

[학습 목표]

1. 가족생활주기에 대한 정의 및 유용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가족발달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가족 주기별로 나타나는 특성과 위기, 예방적 개입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가족 구성 변화에 따른 가족생애주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가족생활주기의 정의 및 유용성

1) 가족생활주기의 정의

- ① 가족생활주기는 가족치료이론 중에서 발달이론에 가장 근접하며, 구조적이고 전략적인 접근법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학으로부터 빌려온 모델이다.
- ② 가족생활주기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가족 내의 발달적 경향을 묘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개념이다.
- ③ 가족생활주기모델은 개개인의 생활과정의 모든 영역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전체로서의 가족을 강조한다.
- ④ 가족은 가족생활주기의 전환기에 적응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적응상의 문제는 가족문제의 근원이 될 수 있다.
- ⑤ 사티어를 비롯한 많은 가족치료자들은 가족주기는 정체된 것이 아니라 계속 변화하는 것으로 본다.
- ⑥ 따라서 정상적 가족생활주기를 규정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운 작업이 되고 있다.
 - ◆ 또한 정상적 가족생활주기에 대해서 너무 경직된 사고를 가질 경우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병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게 되기에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
 - ◆ 반대로 신세대에 나타난 '용감한 신세계'만을 강조하다보면 부모기의 역할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가족사가 단절될 수도 있다.
 - ◆ 보통 가족생활주기는 장남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다보니 장남이 부모를 떠날 때 막내가 태어나는 등 전통적으로 구분한 시기가 맞지 않을 수도 있다.
 - ◆ 뿐만 아니라 재혼가족, 이혼가족, 미혼모가족 등 복잡한 가족구조로 인하여 가족생활주기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어느 하나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 ⑦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생활주기는 가족 내에서 세대 간 연결을 통하여 가족생활주기를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가족생활주기의 유용성

- ③ 모든 가족에게 획일화된 가족생활주기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가족생활주기는 나름대로 유용성이 있다.
- ④ 발달적 관점에서 가족을 사정하는 것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실천가에게 가족이 사회적 기대를 충족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데 유용하다.
- ⑤ 가족치료 중에는 증상과 역기능을 발달단계의 정상기능과 비교함으로써 가족발달의 원동력을 찾는데 도움을 준다.
- ⑥ 가족생활주기는 가족문제 진단을 위한 척도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 --> 이는 가족치료 계획에도 활용될 수 있다.

2. 가족발달과정

1) 여러 학자들의 가족발달과정

(1) 두발과 힐(Duvall & Hill)

- ① 처음 가족생활주기를 논의한 치료자 솔로몬(Solomon, 1973)은 가족생활주기를 5단계로 나눴다.
- ② 두발과 힐을 2세대 핵가족을 중심으로 8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이후 가족발달연구의 근간이 되었다.
- ③ 결혼부부 --> 자녀출산가족 --> 학령전아동가족 --> 아동기자녀가족 --> 청소년자녀가족 --> 청소년자녀 떠나 보내기 --> 중년기 부모 --> 노년기 가족

(2) 카터와 맥골드릭(Cater & MnGoldrick)

- ①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연결하는 결혼한 성인자녀를 포함하는 3세대 중심의 6단계 가족생활주기를 제시했다.
- ② 아울러 이혼과 재혼까지도 발달단계에 제시하였다.
- ③ 결혼전기 --> 결혼적응기 --> 자녀아동기 --> 자녀청소년기 --> 자녀독립기 --> 노년기

(3) 한국인구보건원

- ① 2세대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 ② 형성기(결혼-첫 자녀 출생) --> 확대기(첫자녀출생-막내출생) --> 확대완료기(막내출생-자녀결혼시작) --> 축소기(자녀결혼시작-자녀결혼완료) --> 축소완료기(자녀결혼완료-남편사망) --> 침체기

2) 서구와 한국의 가족주기 특성

(1) 서구와 한국의 가족주기의 공통성

- ① 서구와 한국의 가족주기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니다.
- ② 이는 한국도 서구와 마찬가지로 2세대 중심의 가족구성일 일반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즉, 서구나 한국이나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가족체계가 일반화되기 때문에 가족생활주기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 ④ 아울러 우리나라 가족치료에 대한 이론의 도입이 자생적이라기보다는 서구의 것을 들여오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도 양상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가 된다.

(2) 서구와 한국의 가족주기의 차이성

- ① 서구는 대체로 관점이 부부중심의 가족생활주기를 구성하는 경향이 있다.
- ② 이에 반하여 한국은 대체로 세대를 중심으로 하는 생애주기를 구성하는 관점을 갖는다.
- ③ 한국의 변화를 보면
 - ◆ 초혼연령의 상승, 결혼에서 첫 자녀 출산기간의 단축, 출산완료까지의 기간 단축
 - ◆ 막내출산에서 자녀결혼 시작 기간의 길어짐, 자녀결혼 시작점부터 완성까지의 짧아짐
 - ◆ 여성의 혼인에서 사망까지의 기간이 길어짐

3. 가족주기별 특성, 위기, 개입

1) 결혼전기

(1) 결혼전기 특성

- ① 독립된 젊은 성인단계로써 자녀가 원가족을 떠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아 가족을 이루기 전까지의 기간이다.
- ②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졸업 이후 취업하는 기간이 점차 길어지고, 혼인연령이 늦어지면서 부모에 의존하는 성인기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캥거루족)
- ③ 또한 우리나라 문화는 성인자녀를 독립된 성인으로 존중하기보다 간섭하고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2) 결혼전기 위기

- ① 배우자를 찾기 위해 자신에 대한 정의를 자주 바꾼다.
- ② 남성은 대인관계에 자신을 헌신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대신 일과 관련된 것에는 가성독립적(pseudo-independent)인 정체감을 형성한다.
- ③ 부모는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청년자녀에 대해 실망한다.
- ④ 청년은 부모의 희생에도 불구하고 부모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죄책감을 갖는다.

(3) 결혼전기 예방적 개입

- ① 부모 대 자녀가 성인 대 성인의 지위로 전환해야 한다.
- ② 결혼을 위하여 배우자에게 일방적으로 맞추는 것이 아닌 결혼 전 자신의 욕구와 기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상호적 기대가 서로 충족하는지 확인한다.

2) 결혼적응기

(1) 결혼적응기 특성

- ① 결혼이란 다른 두 개의 체계가 변화하여 제3의 하위체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 ② 따라서 부부가 된다는 것은 가족생활주기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힘든 전환 중의 하나이다.
- ③ 서로에게 적응해야 하고 결혼생활의 개선을 위하여 부부 상호 간 의도적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④ 이 시기는 겉으로 보이는 것처럼 달콤하고 행복한 시기가 결코 아니다.
- ⑤ 낭만적 결혼생활에 대한 환상은 결혼 초기에 발생하는 사소한 갈등이나 다툼 등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된다.

(2) 결혼적응기 위기

- ① 원가족과의 정서적 미분화 문제로 부부 및 고부갈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 ② 배우자 폭력, 알코올중독, 정신병리의 문제로 정상적 결혼생활 유지가 어렵다.
- ③ 계획하지 않은 임신, 비정상적인 태아의 확인, 남아선호사상 등으로 낙태 결정, 불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3) 결혼적응기 예방적 개입

- ①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결혼 전 예비교실에 참여한다.
- ② 산전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자녀양육과 자녀계획에 대한 재정 포트폴리오를 작성한다.
- ③ 재정문제, 가사, 사회 및 여가활동, 배우자 가족관의 관계 등에 대한 합의를 한다.

3) 자녀아동기

(1) 자녀아동기 특성

- ① 이 단계는 부부위주가 아닌 자녀를 돌봐야 하는 책임이 요구된다.
- ② 전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던 아동은 독립성을 추구하게 된다.
- ③ 부모는 아동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동시에 수용할만한 양의 자극을 제공해야 한다.
- ④ 자녀가 생김으로 에너지 고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⑤ 자녀가 학령기에 이르면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게 된다.
- ⑥ 자녀 교육의 책임은 한 배우자에게만 전가하거나 지나치게 '자녀'나 '직업'만 강조하여 부부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다.
- ⑦ 부모는 자녀에게 학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쉴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하고 적절한 학습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2) 자녀아동기 위기

- ① 자녀의 발달 및 정서적 문제가 출현한다.
- ② 자녀에 대한 고정관념과 경직된 사고 등 부적절한 양육태도가 나타난다.
- ③ 자녀돌봄과 일 사이의 불균형이 발생한다.

(3) 자녀아동기 예방적 개입

- ① 부부관계의 친밀감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 ② 자녀발달과 양육, 교육, 자녀문제 등에 대해 책임과 방향성을 공유한다.

③ 돌봄과 일 사이의 균형을 위한 외부 자원 등을 개발한다.

④ 자녀와 적절한 경계선을 유지한다.

cf. 경계선에 대한 체계론적 관점: 명확한 경계선 / 모호한 경계선 / 경직된 경계선

4) 자녀청소년기

(1) 자녀청소년기 특성

- ① 가족은 자녀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주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자녀의 독립심과 책임감을 성장시킬 수 있는 구조와 조직으로 변화해야 한다.
- ② 가족 내의 부모와 자녀의 역할규정을 새롭게 한다.
- ③ 자녀의 사춘기적 특성으로 가족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부부갈등이나 부모의 사회적 지지의 정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도 크다.
- ④ 가족이나 사회적 지지를 높게 자각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자아개념이 높고 친구관계의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정도가 낮았다.
- ⑤ 반면, 가족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적게 받으면 자아개념이 낮고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높으며 사회적 자아개념이 낮았다.

(2) 자녀청소년기 위기

- ① 결혼생활 만족도가 낮아 부부관계를 재협상하거나 이혼을 결정한다. 자녀 10대 때가 부부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하여 청소년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힘든 시기가 된다.
- ② 정서적, 물리적으로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삼각관계 등의 가족관계가 나타난다.
- ③ 자녀가 낮은 학업성적, 학교폭력, 약물중독 등으로 정상적 학업 및 사회관계에서 실패한다.

(3) 자녀청소년기 예방적 개입

- ① 부모는 자신들의 사춘기를 돌아보고 자녀의 사생활이나 독립심을 존중한다.
- ② 기존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자녀와 대화하는 게 한계가 있다면 의사소통 방법과 내용을 개선하고 다양화시킨다.
- ③ 청소년 자녀와 함께 가족 내 규칙과 관계를 재정립한다.

5) 자녀독립기

(1) 자녀독립기 특성

- ① 자녀가 사회활동이나 결혼으로 독립된 삶을 확립하는 단계이다.
- ② 자녀를 출가시키고 직장에서 은퇴한 가족은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발생한다.
- ③ 빈번한 부부 간 불화와 갈등은 새로운 문제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이전에 해결되지 않은 갈등과 생활방식의 차이, 억압당했던 감정 등이 요인이다.
- ④ 만약 부부관계가 강화되지 않거나 부부관계에 대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황혼이혼을 할 수도 있다.
- ⑤ 자녀중심의 가족생활로 인한 공허감, 직장생활에서 느끼던 성취감과 존재감의 상실을 극복하기 위하여

의미 있는 새로운 삶의 활동을 발견해야 한다.

cf. 중년기의 중요과제 중 하나는 여가이다.

(2) 자녀독립기 위기

- ① 자녀독립 이후 감춰졌던 부부갈등이 불거진다.
- ② 사회생활에서 자의 반, 타의 반 물러나면서 정서적 위축과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다.
- ③ 새로운 가족구성원(자녀의 배우자)과의 갈등이 생긴다.

(3) 자녀독립기 예방적 개입

- ① 부부의 공동의 관심사를 개발하고, 경직된 의사소통방법의 변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 ② 성역할 태도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역할을 학습하고 수용한다.
- ③ 자녀의 독립을 인정하고, 자녀부부세대의 문화와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6) 노년기

(1) 노년기 특성

- ① 노년기는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친구나 친척, 배우자와 사별하는 고통을 겪는다.
- ② 특히, 배우자의 죽음으로 혼자 남게 되는 삶을 재조직해야 하지만 그러한 상실을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점에서 극복이 쉽지 않다.

(2) 노년기 위기

- ① 배우자의 사망, 노년의 고독감, 노인학대, 방임문제가 발생한다.
- ② 노인의 빈곤과 건강문제가 나타난다.

(3) 노년기 예방적 개입

- ① 노인대학, 지역사회 노인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회적 지지망을 확립한다.
- ② 퇴직 후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활동을 찾거나 여가활동에 참여한다.

4. 변화하는 가족생활주기

1) 이혼가족의 생활주기

(1) 이혼가정의 증가

- ① 이혼을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 ② 이혼에 대한 가치판단은 바람직하지 않다.
- ③ 그런데 이혼에 대해서 이혼 후의 재정 및 생활의 자립, 자녀양육 등에 대해서 쌍방의 수준 높은 협력이 필요하다.

(2) 이혼가족 발달단계와 과업

- ① 이혼결정단계:

- ◆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이 없음을 인정한다.
- ◆ 결혼실패를 초래한 각자의 잘못을 수용한다.

② 가족해체계획단계:

- ◆ 가족해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한다.
- ◆ 자녀양육권, 방문, 경제문제에 대해서 협력한다.
- ◆ 확대가족과 이혼문제에 대해서 다룬다.

③ 별거 및 이혼단계:

- ◆ 협조적 공동부모관계를 지속한다.
- ◆ 확대가족 관계를 재정비하고 배우자의 확대가족과 관계를 유지한다.
- ◆ 정상가족상실을 슬퍼하고 재결합에 대한 환상을 버린다.

④ 이혼 후 단계:

- ◆ 전 배우자와 공동부모관계를 유지한다.
- ◆ 자녀가 전배우자나 그 가족과 관계(접촉)를 유지하도록 한다.
- ◆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을 구축한다.

2) 재혼가족의 생활주기

(1) 재혼가족의 증가

- ① 이혼의 증가와 더불어 재혼가정의 증가가 늘어나고 있다.
- ② 재혼가정은 복잡한 가족구조를 갖게 된다. 이런 복잡함이 다시 이혼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 ③ 자녀들은 계부모와 친부모 사이에서 충성심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 ④ 자녀들의 관계 또한 복잡하게 된다.

(2) 재혼가족 발달단계와 과업

① 새로운 관계의 시작:

- ◆ 첫 번째 결혼의 상실을 회복한다
- ◆ 법리적, 물리적 이혼뿐만 아니라 적절한 정서적 이혼이 이루어져야 한다.
- ◆ 결혼과 가족을 형성하기 위하여 재헌신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복잡성, 모호성을 다룰 준비를 한다.

② 새로운 결혼생활과 새로운 가족개념화의 계획:

- ◆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개방적 태도를 갖고 가식적 관계를 피한다.
- ◆ 전 배우자와 협력적 공동부모관계를 형성을 위한 계획을 세운다.
- ◆ 두 개의 가족체계에 대한 두려움, 충성심의 갈등, 소속감을 다룬다.

③ 재혼과 가족의 재구성:

- ◆ 투과성 있는 경계를 가진 새롭고 다양한 가족모델을 수용한다.
- ◆ 공동부모로서의 협력을 한다.
- ◆ 확대가족에 대한 관계를 확립한다.
- ◆ 복합가정의 통합증진을 위하여 추억이나 역사를 공유하고, 새로운 추억이나 역사를 만들어 간다.

4주차 1차시 : 가족복지정책의 이해

[학습 내용]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2. 가족복지정책의 대상
3.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학습 목표]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가족복지정책의 대상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가족복지정책의 유형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1)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의 의미

(1) 정책의 특성

- ① 정책은 거시적인 것이다.
- ② 정책은 보다 근원적인 것이다.
- ③ 정책은 목표나 과정이 담겨져야 한다.
- ④ 정책은 주체가 정부이다.

드로로(Dror): '정책은 주로 정부기관이 최선의 수단에 의하여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고 미래 행동의 중요지침이라고 한다.'

(5) 정책의 형성과정 :

사회문제 --> 이슈화 --> 아젠다 --> 대안형성 --> 대안선택 --> 정책집행

(2)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

- ① 학술적으로 용어상 가족정책과 가족복지정책은 엄연히 다르다.
- ② '가족정책'은 가족과 관련된 정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 ③ '가족복지정책'은 가족정책 중에서 가족복지와 관련된 것들만 이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④ 그런데 가족정책이든 가족복지정책이든 결국은 가족의 복지를 실현시키는 목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서로 혼용하여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⑤ 복지를 폭넓게 보는 시야를 가진 유럽 쪽에서는 가족복지정책이란 용어보다는 가족정책이란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복지를 좁혀서 보고자 하는 영미권에서는 가족정책이란 용어보다는 가족복지정책이란 용어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cf. 사회정책 > 사회보장정책 > 사회복지정책

⑥ 개론적인 내용을 다루는 교과에서는 가족정책이나 가족복지정책이란 용어에 따라서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3) 에스핑앤더슨의 복지국가와 가족정책의 연결

복지 국가 체제	가족복지 유형	국가의 역할
자유 주의	가족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상품화가 최소화한 국가, 자산조사를 통한 사회복지 제공 ◆ 전통적 가족기능과 역할 강조, 가족이 복지의 일차적 책임 ◆ 가족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최소한으로 개입 ◆ 미국, 캐나다, 호주
보수적 조합 주의	이원적 가족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력의 상품화문제를 중요시 하지 않으며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 ◆ 교회나 자원봉사조직이 사회복지 역할을 대신함 ◆ 가족은 일차적 책임, 국가는 이차적 책임 ◆ (남성)노동자 중심 ◆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네덜란드
사회 민주 주의	탈가족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상품화가 가장 높으며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높은 수준으로 작동 ◆ 국가는 정책을 통하여 사회구성원의 문제를 해결함 ◆ 양육/돌봄의 사회화 ◆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출처 : Esping-Anderson (1999)에서 가져옴. 수정함.

2) 여러 학자들의 가족복지정책 개념

① 커머맨과 칸 :

- ◆ 정부가 가족에 대하여 행하는 의도적인 모든 활동이다.
- ◆ 가족에게 영향을 주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적인 개입이다.
- ◆ 가족문제에 대하여 제도적, 환경적, 거시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② 짐머만 :

- ◆ 가족의 복리달성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가족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한 일련의 상호 연관된 정책 선택이다.
- ◆ 개인이 아닌 '가족구성원으로서의 개인' 즉, '가족' 자체에 초점을 둔다.

③ 고티어 :

- ◆ 협의의 정책은 가족의 소득유지, 모성보호, 아동보호, 노인보호 등을 포함한다.
- ◆ 광의적 정책은 가족법,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공공정책을 포함한다.

④ 최성재 :

- ◆ 가족의 기능, 구조 및 역할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다.
- ◆ 가족 전체 및 가족성원으로서 개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동에 관한 일련의 원칙들이다.

⑤ 조홍식 :

- ◆ 가족복지에 관심을 두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취하는 조치나 행동이다.
- ◆ 개인을 다루더라도 가족과 연계해서 다루는 정책이다.

- ◆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제반 정책들을 포함한다.
- ⑥ 종합하여 정리한 가족복지정책의 개념
- “가족복지 향상을 위하여 국가가 가족과 관련된 욕구 및 사회문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인 면에서 개입하는 총체적인 활동이다.”

2. 가족복지정책의 대상

1) 가족구조 측면에서의 구분

- ① 가족복지정책의 대상은 본질적으로 ‘가족의 욕구’와 ‘가족문제’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의 욕구와 가족문제가 없다면 가족복지정책은 있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가족복지정책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사회가 가장 이상적인 사회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어느 사회이든 가족의 욕구와 문제가 있기 마련이기에 가족복지정책이 있을 수밖에 없다.
- cf. 사회복지의 시작은 ‘욕구’와 ‘사회문제’에 있다.
- ② 가족구조 특성에 따른 대상의 종류:
맞벌이가족, 미혼모가족, 이혼가족, 재혼가족, 소년소녀가장가족, 노인가족, 핵가족
- ③ 현대사회에서 추가되는 가족의 구조:
- ◆ 동거가족, 생활공동체, 한부모가족, 1인가족, 다문화가족
 -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돌봄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 ◆ 대부분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생겨나는 구조인 경우가 많다.
 - ◆ 현대인의 다양한 생활패턴도 가족구조의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

2) 가족기능 측면에서의 구분

- ① 가족기능상으로 가족복지정책의 대상을 하면 다음과 같다:
빈곤가족, 알코올중독가족, 약물중독가족, 청소년비행가족, 소득상실 가족 등
- ② 전통적으로 가족이 부양과 돌봄의 기능을 제공해 왔으나 다양한 가족의 등장으로 이런 가족기능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 > 즉, 부양과 돌봄의 책임이 가족에서 사회가 분담하는 형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 > 이것을 부양과 돌봄의 사회화라고 한다. 그리고 부양과 돌봄의 사회화가 진행될수록 가족복지정책이 기능을 하게 된다.

③ 가족의 기능별로 본 정책

기능	정책
경제적 기능	사회보험, 공공부조, 가족수당, 조세감면 등
노동력 재생산 기능	임신 및 출산급여와 휴가, 건강보장 프로그램 등
양육 및 보호 기능	아동수당, 육아휴직, 양육비 지원, 보육서비스, 부모휴가, 가족간호 휴가, 노인·아동·장애인 부양지원 서비스 등
정서적 기능	가족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 가정폭력 지원서비스 등
사회유지 및 통제 기능	가족관련 법(상속, 이혼, 재혼, 입양 등)

출처 : 성정현 외(2017)을 참고로 작성

※ 가정(가족)의 기능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가족기능 정도	정책방향	프로그램
가족기능이 전반적으로 작동	가족지원정책	가족상담, 가족치료 등
가족기능이 일정부분이 부족	가족보충정책	공공부조, 방과후교실 등
가족기능이 불가능/회복불가능	가족대체정책	입양, 가정위탁, 그룹홈, 양육시설 등

3) 가족발달주기 측면에서의 구분

- ① 가족발달주기에 따라 가족은 다양한 변화와 문제 또한 위기를 경험한다.
- ② 가족주기에 따른 대상 :
 - 부부만의 시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미취학 아동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 ③ 각 주기마다 발달과업이 있듯이 필요한 정책이 다양하게 변화한다.
- ④ 우리나라에서도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보면 결혼준비기, 가족관계형성기, 정착 및 자녀양육기, 역량강화기 등에 맞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3.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1) 가족정책 명시성 여부에 따른 유형

- ① 가족정책에 대한 명시성 여부에 따라 '명시적 가족정책'과 '묵시적 가족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명시적 가족정책도 가족에 대한 분명한 목표달성을 위해 고안된 정책이 있는가 하면(스웨덴, 노르웨이, 프랑스), 가족을 위해 의도적으로 시행은 되지만 가족에 대한 합의된 전반적 목표가 없는 정책이 있다(오스트리아, 핀란드).
- ③ Kameran과 Khan이 제시한 명시적 가족정책 유형

분류	가족복지정책	프로그램
고용 관련	고용과 양육제도	모성·부성 지원정책 피고용자 급여
소득 관련	조세제도 가족급여제도	세율차등적용, 파부양자 면세, 빈곤자 면세, 근로소득공제 피부양자수당, 식권제도
사회 서비스	보육제도	보육서비스
	모성건강, 아동건강	모성휴가, 학교보건
	주택정책	주택임대
	특수욕구 가족 정책	빈곤가족 보충급여, 특별욕구 아동지원서비스·아동복지서비스·아동영양서비스

출처 : 김용환 외(2019), p.80

2) 가족정책 통제성에 따른 유형

- ① 하딩은 '통제-비통제'에 따라 국가와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한 모델을 7가지로 유형화하였다.
- ② 권위주의모델 :
 - ◆ 국가가 극단적으로 선호하는 가족 패턴을 정하고 나머지는 금기시 한다.
 - ◆ 국가가 엄격히 제재하고 일치를 요구한다.
 - ◆ eg. 출산율 증가를 위해 피임과 낙태를 불법화하고 이를 어겼을 때 강한 제재를 한다.
- ③ 자유방임모델 :
 - ◆ 정부의 입장은 가족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갖지 않는다.
 - ◆ 가족과 성에 대한 어떤 이데올로기도 없다.
 - ◆ 따라서 가족과 가족정책이 어떤 위치를 점해야 한다는 가정도 없으므로 가족정책도 없다.
- ④ 특정영역에서의 책임을 강행하도록 하는 모델 :
 - ◆ 가족생활에 대한 어떤 목표를 가지지만 권위주의모델처럼 전적인 통제를 하지는 않는다.
 - ◆ 부모책임의 강화나 결혼의 강화와 같은 분명한 정책목적은 갖는다.
- ⑤ 유인동기를 만드는 모델 :
 - ◆ 국가가 선호하는 가족행동 패턴을 장려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억제하기 위하여 별과 보상을 모두 조작한다.
 - ◆ 별을 통한 억제 외에 강화라는 긍정적 수단도 사용하는 다소 점잖은 방법이다.
 - ◆ 가장 효과적인 보상은 경제적 인센티브이다.
- ⑥ 제한적인 전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델 :
 - ◆ 가족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전제가 있다.
 - ◆ 가족정책은 이런 전제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 ⑦ 가족을 대체하거나 지원하는 모델 :
 - ◆ 가족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해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없이 단지 현재 존재하는 가족구조를 강화하고 촉진한다.
 - ◆ 단, 가족이 실패할 경우 이를 지원하거나 대체하는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⑧ 필요와 욕구에 반응하는 모델 :
 - ◆ 순수한 자유방임모델에 가까우며 많은 가족에 관한 국가의 서비스가 요구되지만 주도권이 국가가 아닌 가족에게 있는 경우이다.

- ◆ 국가는 특정 가족유형에 대한 전제나 선호가 없고 가족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할 뿐이다.

3) 저출산에 대한 대응에 따른 유형

모델구분	정책적 관심	정책프로그램	해당국가
가족친화적 출산 장려주의	출산장려	자녀수당, 모성휴가, 보육시설지원 낙태에 관대	프랑스
전통주의	전통적·가족친화적 정책목표 유지 가족지원의 국가개입은 중간정도	취업모 세대지원 되도록 여성이 기정에서 아이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	독일
양성평등주의	남녀평등증진 취업부모에 대한 국가지원	모·부성휴가, 자녀간병휴가, 아동수당, 낙태에 관대	스웨덴 덴마크
가족친화적 비개입주의	국가의 최소한 개입 자립강화	낮은 수준의 모성휴가, 보육지원	미국 영국

출처 : 김용환 외(2019), p.84 수정함

4) 남성생계부양 강도에 따른 유형

- ① 남성부양자 레짐 : 엄격한 성분업을 전제
- ② 젠더역할분리 레짐 : 성분업을 전제하지만 성별 간 차이성 강조. 여성이 돌봄노동에 대한 급여 혜택
- ③ 개인주의 레짐 : 성별분업 지향, 남녀에게 소득자와 양육자 역할 동시 부여

4주차 2차시 : 복지국가와 가족복지정책

[학습 내용]

1. 복지국가와 가족복지의 관계
2. 서구의 가족복지변화
3. 우리나라 가족복지변화

[학습 목표]

1. 복지국가와 가족복지정책의 관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복지국가 형성에 따른 서구의 가족복지변화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복지국가 형성에 따른 우리나라의 가족복지변화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복지국가와 가족복지의 관계

1) 복지국가의 개념과 특성

(1) 복지국가의 개념

- ① 복지국가에 대한 완벽한 정의는 없다.
- ② 일반적으로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해서 정부의 예산과 기구를 동원하여 모든 국민의 안정을 보장받도록 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한다.
- ③ 오늘날 선진사업국가라고 불리는 나라들은 대개 GDP의 20% 이상 혹은 정부예산의 50% 이상을 사회복지에 사용하면서 국민들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고, 실제로 이런 국가들 안에서는 대부분 국민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사회복지급여를 받고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가 되고 있다.
- ④ 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이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하여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권리를 갖게 된다.
- ⑤ 국가는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하여 완전고용과 기회균등을 목표로 하는 복지정책을 실시하게 된다.

(2) 복지국가의 정책방향

- ① 복지국가는 국가정책의 일차적인 목표를 복지에 두고 있다.
- ② 국가는 복지의 주체가 된다.
- ③ 국민전체가 복지의 수혜자가 된다.
- ④ 국민생활에서 복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 ⑤ 복지국가에서는 국민들은 정치적 자유와 권리가 보장된다.

(3) 복지국가의 특성

- ① 복지국가는 이념적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 ② 복지국가는 정치적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한다.
- ③ 복지국가는 경제적으로 혼합경제를 지향한다.
- ④ 복지국가는 사회적으로 완전고용과 사회보장제도가 실현된 국가이다.

※ 그렇다면 복지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가? 복지국가라는 게 가능한가?

복지국가의 가능성 여부를 떠나서 복지국가를 이루려는 국가들에서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살 권리가 실현되는 정도가 크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국가에 대한 이념과 지향이 중요하다.

2) 복지국가와 가족복지유형

(1) 자유주의 복지국가 – 가족주의 정책

- ① 자유주의는 가족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주변적으로 보고 시장의 역할을 중심적으로 본다.
(자유주의=시장주의)
- ② 자유주의는 최고의 가치를 자조와 자립으로 본다.
- ③ 따라서 사회복지 수급에 대해서 빈민이나 취약계층에 한정하고자 한다.
- ④ 제도상으로는 공공부조를 중심으로 한다.
- ⑤ 급여수준은 매우 낮다.
- ⑥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낮다.
cf. 탈상품화는 노동자가 시장에 매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이른다.
- ⑦ 가족복지정책에 대해서 가족주의적 입장을 갖는다. 가족주의적 입장이라는 것은 가족의 문제는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족이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본다. 정부는 개입을 하지 않을수록 좋다고 본다.
- ⑧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이다.

(2) 보수주의 복지국가 – 남성노동자 중심

- ① 보수주의는 코포타리즘이라고도 한다.
- ② 보수주의는 가족의 역할을 중심적으로 보고 시장의 역할은 주변적으로 본다. 정부의 역할은 보조적으로 본다.
- ③ 최고가치는 전통과 질서이다.
- ④ 주요수급 대상자는 남성 노동자이다.
- ⑤ 제도상으로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한다.
- ⑥ 급여수준은 대체로 높은 편이다.
- ⑦ 탈상품화 정도는 낮은 편이다.
- ⑧ 가족복지정책에 대해서는 남성노동자 중심으로,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⑨ 대표적인 나라는 독일과 이탈리아이다.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 탈가족주의

- ①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가족과 시장의 기능은 주변적이고 정부의 기능이 중심적이다.
- ② 최고 가치는 평등과 연대이다.
- ③ 주요 수급대상을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 전체가 대상이다.
- ④ 제도적으로는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다. 이는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까지 확장해서 제도를 본다는 의미이다.
- ⑤ 급여수준은 매우 높은 편이다.
- ⑥ 탈상품화 정도가 가장 크다.
- ⑦ 가족복지정책은 탈가족주의적이다. 즉, 가족의 문제를 사회가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cf. '국민의 집'
- ⑧ 대표적인 국가는 스웨덴이다.

(4) 이념의 흐름과 사회복지

이념의 흐름	국가역할과 사회복지	비고	
자유주의	야경국가, 선택주의	가족과 시장중심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보편주의	국가중심	
신자유주의	반복지사상, (선택주의)	시장중심(국가인정)	
제3의길	(복지다원주의)	'바지 입은 대처'	복지국가 위기

2. 서구의 가족복지변화

1) 산업화와 도시화 시기

- ① 1879-1929년 사이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진 시기이다.
- ② 산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는 사람들의 생활패턴을 바꿔놓았다.
- ③ 농경사회에서는 가족 전체가 생산과 소비를 함께 했는데 산업화와 도시화로 가족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임금노동자가 되었다.
- ④ 도시빈민이 생기면서 높은 빈곤율과 영아사망률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 ⑤ 모성휴가제도를 통한 일하는 여성보호, 여성복지센터·아동복지센터 설립, 빈곤한 어머니·과부·고아에 대한 제한적 연금급여가 나타났다.
- ⑥ 출산율 저하에 대응하여 낙태와 피임을 금하는 법적 조치들이 나타났다.

2) 2차 세계대전까지

- ① 1940-1944년은 제2차 세계대전까지의 시기이다.
- ② 출산율 하락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가 지배적인 시대이다.
- ③ 가족의 불안정성의 증가와 가족 내 부모의 권위약화가 사회적 위협이 되었다.
- ④ 출산수당, 결혼자금 대부 등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조치들이 취해졌고, 일부 국가에서는 부양자녀를

거느린 남성 노동자에게 임금보너스 혹은 가족수당 형태로 현금급여지원이 이루어졌다.

3) 복지국가 형성기

- ① 1945-1959년은 종전으로 평화의 시기가 도래하였다.
- ② 출산율은 다시 높아졌고 가족은 다시 안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 ③ 이 시기는 인구감소 우려는 적었으나 보편주의에 기반한 복지국가 팽창의 가속도로 가족 지원책이 더욱 많아졌다.
eg. 영국의 복지국가 : 베버리지 보고서에 의하여 사회보험과 가족수당 등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 그동안 제한적 의미에서 시행하던 가족수당에 대해서 보편적 의미의 가족수당으로 변하게 되었다.
- ④ 일부 임신 여성노동자 보호조치가 강화되기도 했다.
- ⑤ 대체로 전통적인 남성부양가족을 지지하는 정책을 만들어 냄으로써 어머니와 자녀 간 친밀한 관계를 찬양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전쟁기간에 노동시장에 참여했던 여성들이 가정으로 돌아가 전통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촉구하였다.

4) 복지국가 확대기

- ① 1960-1974년 사이는 복지국가가 확장되는 시기이다.
- ② 사라진 것으로 보였던 빈곤문제가 재확인되면서 자산조사를 통한 선별주의적 급여정책이 도입되었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급여 확대, 저소득가족에게 불리한 조세감면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 ③ 여권주의 운동에 힘입어 성평등과 출산에 대한 통제권 이슈가 쟁점화되면서 피임과 낙태 관련 법규들이 완화되었다. 노동시장 내에서 성평등을 추구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5) 복지국가 황금기 및 복지국가의 위기기

- ① 1975-현재 사이 유례없는 저출산,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 증가, 가족형태의 다양화가 나타나는 시기이다.
- ② 이에 부응하여 낙태 관련 법규가 완화되었고, 취업모 지원이 강화되었다. 부양자녀가 있는 빈곤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가 나타났다. --> 여러 가지 공적 정책이 활발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 ③ 일부국가에서 출산장려정책이 펼쳐졌는데 이는 과거(1930년대)와 같이 명시적 방법이 아니라 가족복지, 취업활동과 부모역할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정책 등으로 통해 간접적으로 추진되었다.

3. 우리나라 가족복지변화

1) 1970년대까지

- ① 일제시대 때 조선구호령과 인보관 사업이 있었다.
- ② 1950년대 한국전쟁과 베이비붐 세대에 경제적 혼란 속에 가족정책은 구호사업 및 전쟁고아를 위한 보호지원과 관리가 중심이었다.

- ③ 1960년대 합계출산율이 6.0명에 이를 정도로 인구팽창이 이루어져 국가차원에서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1970년에서 출산율이 4.5명, 1985년에는 1.7명으로 급감하였다.
cf. 2019년 합계출산율은 0.92명이 되었다.(인구유지 2.08명, 초저출산 1.3명)
cf. 산아제한정책은 당시로는 인구급증에 대한 정책이었지만 이것은 오늘날 저출산 문제로 연결되어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 ④ 1970년대 후반 급속하게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족기능의 약화에 따른 가족문제 확산 현상이 표면화되었다.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국가 차원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⑤ 그러나 성장논리에 매몰되어 가족복지에 대한 국가의 기본적 태도는 비개입주의적·잔여적·개인 중심적 접근이 강조되었다.

2) 1980년대까지

- ① 1980년 초 '정의사회구현'과 '복지국가 건설'을 내세운 5공화국 정권은 도덕성 취약의 문제를 극복하고 정권의 기반확립을 위하여 사회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그럼에도 가족정책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여 출산율 저하 문제가 나타났다.
- ② 가족복지에 대한 명시적 정책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노인·아동·장애인에 대한 복지법 제·개정으로 개별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제도와 서비스가 입법화 되었다.
- ③ 1989년 '모자보건법' 제정으로 비록 저소득층 모자가정이라는 협소한 집단에 대한 것이긴 하지만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명시적 복지정책이 등장하였다.
- ④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로 취업여성의 모성보호조치가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 ◆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산전·후 휴가제에 불과했다.
 - ◆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으로 취업여성의 육아휴직제도가 법제화되었다.
- ⑤ 사회보험을 통한 가족의 소득지원정책이 시작되었다.

3) 1990년대까지

- ① 1990년대에는 이혼율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문제로 아동과 노인부양 문제가 대두되었고, 상대적 빈곤으로 인한 갈등 심화로 가족문제의 심각성과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국가의 개입이 더욱 강화되었다.
- ② 1980년대 후반부터 일가정 양립문제에 필수적인 보육인프라 구축 확대가 요구되면서 1991년에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 ③ 1997년에는 그동안 가족내부의 문제로 인식되던 가정폭력을 사회적 영역으로 간주하여 가정폭력에 대한 처벌의 특례적용과 보호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공적개입이 가능하도록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 ④ 1997년 말 IMF 위기 이후 빈곤에 대한 이해의 전환을 토대로 1999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이를 통하여 노동능력이 없는 빈곤가족에 대해서도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법은 권리성이 강조된 법제이다.

4) 2000년대까지

- ① 2000년대에 들어서는 취업여성에 대한 모성보호가 더욱 확대되었다.

- ② 2001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 산전·후 휴가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였다.
- ③ 2001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휴직이 사용권이 취업여성에서 모든 노동자로 확대되었고 무급휴가에서 유급휴가로 발전되었다.
cf. 2001년은 시대적으로 '여성'이 드러나는 시기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에서 '여자'를 '여성'으로 바꿨고, 여성부가 도입되었고, 상기법들에서 여성의 평등이 강조되었다.
- ④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
- ⑤ 2005년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정으로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사회학적 변화에 대응하는 포괄적인 인구정책 및 노인정책이 수립되었다.
- ⑥ 2007년 가족 내 성평등 관점에서 직장과 가정생활을 양립하는 제도로 강화하는 조치로 '남녀고용평등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 남성 배우자도 유급 출산휴가를 쓸 수 있게 하였다.
- ⑦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으로 가족의 노인부양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 ⑧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으로 이민자와 결혼한 가족에 대한 지원이 규정되었다.

5) 2010년대까지

- ① 이 시기 가족정책은 일과 양육의 양립정책을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게 하는 특징을 갖는다.
- ② 2012년 가정 내 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지원법'을 제정하여 취약계층과 맞벌이 가정의 자녀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가정과 일의 양립을 지원하였다.
- ③ 2015년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여 '모든 가족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다양한 가족이 차별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사회', '남녀 모두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6대 정책과제, 20개 단위과제, 53개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6) 2020년대이후

- ① 2021년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가족 다양성 인정'과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설정하고, 4개 영역 11개 정책과제를 제시함

4대 영역	11개 정책과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 기반 구축	1. 가족의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 2.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3.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가족 구성원 인원 보호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1.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 강화 2.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여건 조성 3.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체계 구축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1.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지원 확대 2.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3. 가족 돌봄 지원의 양적·질적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호환경 조성	② 남녀 모두의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 ③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 친화적 지역 사회 조성

자료: 여성가족부(2021. 4. 27.). 2025 세상모든가족 함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② 가족의 정의를 다양성 포용성 개념으로 변화하는데 주의

- 남녀가 자녀를 동반하여 일상 지속되는 법적이며 성적으로 배타적인 결혼 관계를 의미. 여기서 남자는 생계부양자이며 궁극적 권위를 가짐(Marcklin, 1987)
- 의존성, 의무감, 사랑, 돌봄 또는 협력 등의 이유로 서로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구성한 집단 (Rothausan, 1999)
- 대부분 유럽국가에서 새로운 형태의 가족은(예: 동거커플, 재혼커플, 한부모가족, 복합가족 등) 결혼에 기반한 가족과 동등하게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EU, 2011)

5주차 1차시 : 한국과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학습 내용]

1.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2.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학습 목표]

1.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해 분야별로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2.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에 대해 국가별로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1. 한국의 가족복지정책

1) 노동권 보장정책

(1) 노동권 보장정책의 개요

- ① 가족복지관점에서 노동권은 주로 여성 노동자에 대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 ② 우리나라 여성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
 - ◆ 그러나 여성 노동자는 일자리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 여성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지만 단순 반복을 하는 작업인 경우와 한시적인 일자리인 경우가 많다.
 - ◆ 많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임금과 승진에 있어서도 성차별을 받는 모습이 있다.
 - ③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 ◆ 맞벌이는 부부가 모두 경제력을 갖는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 ◆ 또한 여성도 자신의 일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 ◆ 그러나 맞벌이는 필연적으로 그동안 가정에서 전통적으로 감당하던 돌봄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따라오기 마련이다.
 - ◆ 이로 인하여 맞벌이를 포기하거나(주로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돌봄을 소홀히 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 ④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 ◆ 노동자의 고용정책 즉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 ◆ 부부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가족정책이 양육을 다루는 보육정책과 방과 후 돌봄 정책이다.

(2) 보육정책

- ① 1991년에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은 일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양육자들을 대상으로 일과시간에 보육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보호하고,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가족복지정책이다.
- ②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의미한다.

③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④ 보육정책의 변화

- ◆ 1921년 저소득층 자녀위주의 탁아사업
- ◆ 1982년 '유아교육진흥법' 제정으로 새마을유아원 운영
- ◆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탁아제 도입
- ◆ 1991년 '영유아보육법' 제정으로 탁아에서 보육으로 전환
- ◆ 2013년 보육료·양육수당 전계층 지원 실시, 3-5세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인 '누리과정' 도입
- ◆ 2015년 모든 어린이집 CCTV설치, 임신·출산·육아 관련 웹사이트 '아이사랑' 포털로 통합
- ◆ 중장기보육기본계획으로 보육에 대한 확대 및 내용의 심화

⑤ 중장기보육기본계획

- ◆ 제1차 새싹플랜(2006-2008), 제1차 아이사랑플랜(2009-2012)으로 보완

- 비전 :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세상"
- 6대 추진과제 : 부모의 비용부담 완화, 수요자 맞춤 지원, 보육시설 질 제고 및 균형 배치, 보육인력 전문성 제고, 전달체계 효율화, 보육 사업 지원체계 구축

- ◆ 제2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3-2017)

- 비전 :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세상"
- 6대 추진과제 : 부모의 보육·양육 부담 경감,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지원, 공공성 확대와 품질 관리 강화, 양질의 안심 보육 여건 조성, 신뢰가 있고 투명한 보육생태계 구축, 보육서비스 재정 및 전달체계 개선

- ◆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18-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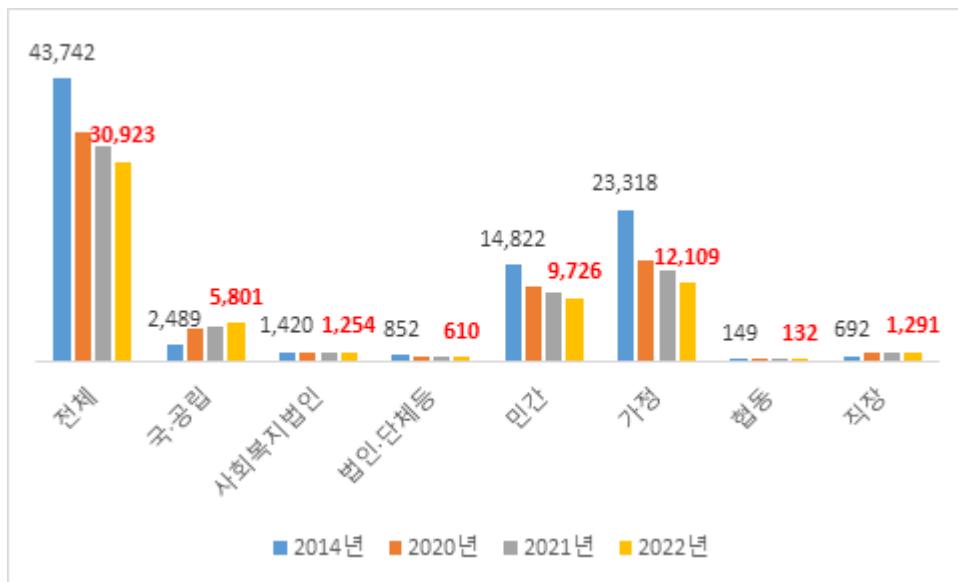
- 비전 :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함께하는 사회"
- 4대 추진과제 : 보육의 공공성 강화, 보육체계 개편,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부모양육지원 확대

- ◆ 제4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2023-2027)

- 비전 :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으로 모든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 뒷받침"
- 4대 중점 전략 : 종합적 양육지원 강화, 영유아 중심 보육서비스 질 제고, 보육교직원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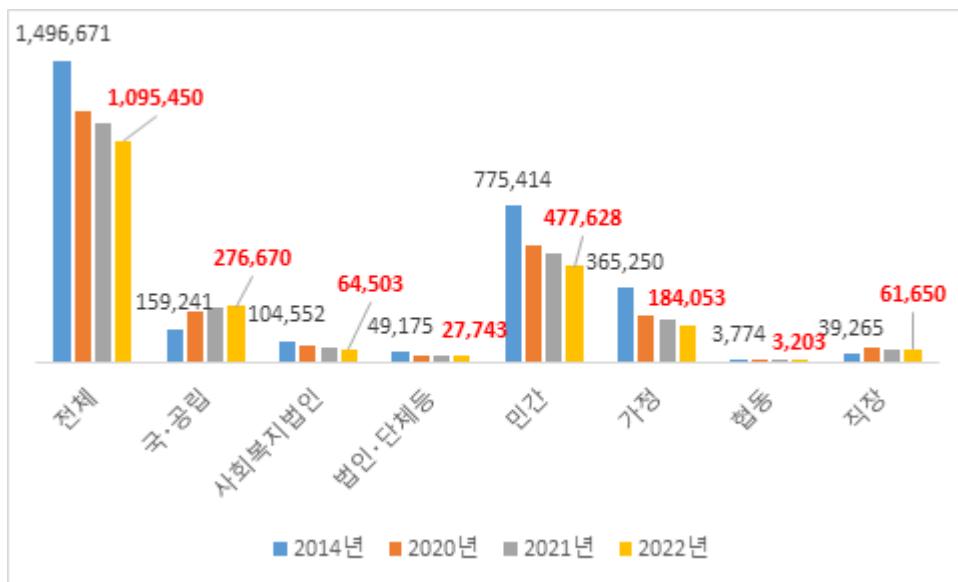
⑥ 보육현황

◆ 어린이집수



자료 : 「2022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바탕으로 구성

◆ 보육아동수



자료 : 「2022년 12월말 기준 보육통계」 바탕으로 구성

(3) 방과 후 보육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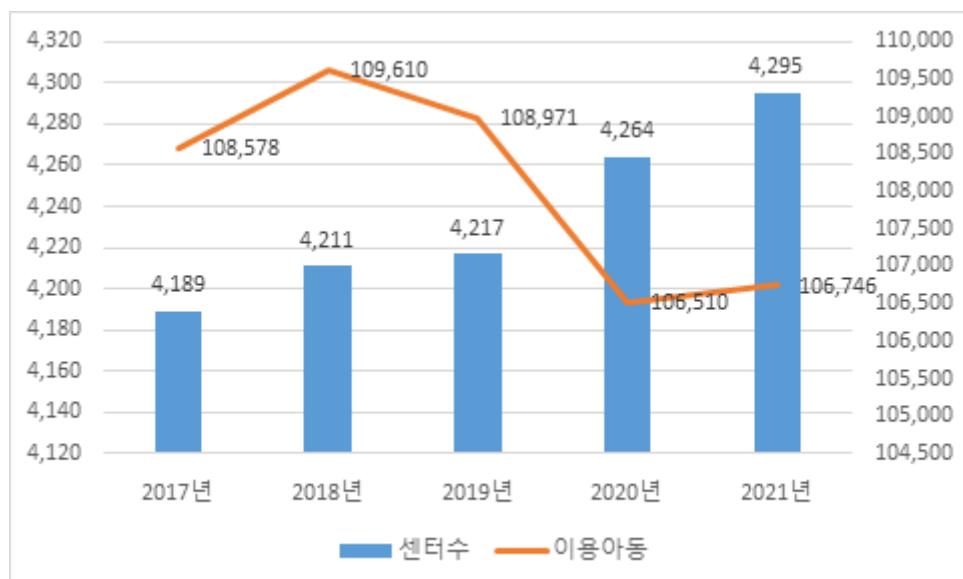
① 우리나라 방과후 보육정책은 두 가지 목적을 갖는다.

- 우선, 여성 노동권 보장을 위하여 아동보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 또한, 빈곤, 다문화가정과 같이 취약가정 등의 교육격차 해소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② 방과 후 보육시설, 공부방, 초등학교 방과 후 학교(교육부),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여성가족부) 등 다양한 이름으로 보육 프로그램이 실시되고 있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부처마다 다른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다.

③ 지역아동센터 현황



출처: 보건복지부(2022) 2022 보건복지통계연보 바탕으로 작성

2) 부모권 보장정책

(1) 부모권 보장정책의 개요

- ① 전통사회에서는 자녀양육이 부모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나 점차 자녀양육이 가정에서 부모가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cf. 사회보장기본법 2012년 전부개정 : 사회적 위험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으로 명시하였다. 출산과 양육을 사회적 위험에 포함하였다.
- ② 양육부담으로 인하여 출산율이 저조하다(2022년 0.87명).
- ③ 부모권 보장에 대한 정책이 필요해졌다.
- ④ 부모권 보장정책은 다음 두 가지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 ◆ 우선, 가족부양부담을 완화한다.
 - ◆ 또한, 부모의 취업을 유지하기 하도록 한다.
- ⑤ 부모권 보장정책으로는 산전·후 휴가제도, 육아휴가제도,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등이 있다.

(2) 산전·후 휴가

- ① 산전·후 휴가제도는 여성 노동자의 모성을 보호하고, 임신·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 노동자의 체력회복을 돋고 이직을 방지하고, 사업주의 여성고용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모성보호의 사회분담 차원에서 출발하였다.
- ② 우리나라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후 90일(다태아 120일)을 유급휴가를 준다. 이중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을 산후에 할당해야 한다.
- ③ 산전·후 휴가 중에는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 ④ 산전·후 휴가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⑤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다.

(3) 육아휴직

- ① 육아휴직제도는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근로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도모하고,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기업은 숙련인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 ② 사업주는 노동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또한 육아휴직 이후 복귀할 때 휴직 이전과 동일한 정도의 직무와 임금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기간을 1년 이내에서 할 수 있다.
- ④ 무급휴가이지만(사업주는 임금지불 안해도 됨) 고용센터에서 1년간 급여지원을 한다.
월급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급하며, 급여의 75%는 매월지급하고 나머지 25%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한다.
- ⑤ 육아기간 중 근로시간 단축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노동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4)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한시 시행의 의미

- ① 그동안 우리사회는 육아부담을 여성에게만 지우는 성역할 분담 성향이 강했다. 하지만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하게 늘어나는 등 사회변화로 인하여 여성에게만 육아부담을 지우는 것이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
- ② 현실적으로 육아 및 재생산을 더욱 활발하게 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 ③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고 가장 적절한 것은 아버지도 육아휴직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 ④ 우리나라에서는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를 2022년까지 시행함으로 이에 대한 인식을 확신시키고 있다(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만원)).
- ⑤ 2023년부터는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시행하지 않고 일반 육아휴직만 적용하게 된다.

3) 노인돌봄관련 정책

(1) 노인돌봄관련 정책의 개요

- ①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가 우리사회의 시급한 문제이다. 다른 나라보다 고령화의 속도가 빠른 편이다.
- ② 노인의 만성적인 질병은 신체적 독립을 어렵게 할뿐 아니라 장기간에 걸친 수발이 필요하다.
- ③ 지금까지 이 노인수발이 가족에게 책임이 전가되었으나 이제는 가족이 전적으로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노인부양 역시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 ④ 이에 대해서 국가는 2008년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함으로 가족의 부양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내용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인 치매나 중풍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지원 등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이다.

- ② 재가복지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로 구분된다.
 - ◆ 재가복지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
 - ◆ 시설보호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노인전문병원은 시설이 아니다.)
 - ◆ 그 외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다.
- ③ 장기요양보험의 사용절차

장기요양인정신청 --> 방문조사(의사소견서 제출) --> 장기요양점수 산정 --> 등급판정위원회의심의 판정 --> 서비스이용
- ④ 등급은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다. 등급외 A, B, C 판정도 있다.
등급외 판정은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신청할 때 필요로 한다.

4) 소득보장정책

(1) 소득보장정책의 개요

- ①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국가가 추진하는 보육프로그램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데 있다.
- ② 따라서 아동의 출산, 양육에 대해서 소득을 보장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
- ③ 소득보장정책은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욕구뿐만 아니라 가족이 경제적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형태의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 ④ 가족 관련 소득보장정책은 여러 가지이지만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가족과 관련이 되는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에 대해서 제시한다.

(2) 아동수당

- ① 대부분의 OECD국가는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
- ② 유럽의 아동수당은 실질적인 아동양육을 돋는 정도의 급여를 의미한다.
- ③ 우리나라 아동수당은 현실적으로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의 실행으로 인하여 아동수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며 점차 급여의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 ④ 아동수당의 시행과정
 - ◆ 대선후보들이 저마다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아동수당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요구되었다.
 - ◆ 2018년 9월 아동수당이 처음 시행되었는데 원래 정부안은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서 월10만월을 제공하는 것이었다.(보편주의)
 - ◆ 국회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로 만 6세미만 모든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월씩 지급하되 하위 90% 가족에게만 지급하기로 하다.(선별주의)
 - ◆ 하위 90%를 선정하기 위한(상위 10%를 걸러내기 위한) 행정비가 더 들어간다는 비판이 일자 2019년 예산편성을 할 때 여야모두 원래 정부에서 추진하던 대로 모든 가정에 만 6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월10만원을 급여로 지급하기도 하고 시행하였다.(보편주의)
 - ◆ 2019년 9월 1일부터 지급대상을 만 7세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대상확대)
 - ◆ 2023년 5월 현재 지급대상은 만 8세 미만이고, 지급액은 10만원이다.(대상학대)
- ⑤ 향후 아동수당을 확대해 나가면 유럽의 아동수당과 같은 성질의 데모그란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양육수당

- ① 양육수당을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내에서 아동을 양육할 때 형평성 차원에서 제공되는 수당이다.
- ② 2009년 7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해서 지급되기 시작했고, 2023년 5월 현재 만 86개월 미만이 모든 아동이 대상이 된다.
- ③ 급여액은 10-20만원이다.
- ④ 아동수당은 자녀양육 비용을 사회에서 부담하는 성격이라면 양육수당은 양육노동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여 지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⑤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이 발전하고 통합하여 유럽식 아동수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2. 외국의 가족복지정책

1) 미국의 가족복지정책

- ① 미국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원리에 의하여 국가개입을 통한 정부부담이 낮은 편이다.
- ② 저소득층이나 빈곤층을 위한 공공부조형태의 잔여적인 복지형태를 실시하고 있다.
- ③ 복지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나 가족에 있고 국가는 사회안전망의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 묵시적 가족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 ④ 대부분 가족복지정책은 빈곤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중산층 이상의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세금공제혜택방식을 통한 간접적 지원만 이루어지고 있다.

2)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

- ① 스웨덴의 가족복지정책은 사회연대와 평등을 이념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 탈가족주의, 양성평등, 양육과 부양의 사회화
- ② 스웨덴이 가족복지정책은 젠더, 가족, 부모 간의 평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 ③ 부모휴가제도 :
 - ◆ 여성에게 집중되어 있는 육아부담을 덜어주고 아버지와 자녀의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한다.
 - ◆ 남성도 일정 시간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 ④ 아동수당이 실질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 아동수당 : 경제 수준에 관계없이 16세까지 지급
 - ◆ 특별지원금 ; 부모의 이혼 및 별거 가정을 위한 지원금으로 부모의 결혼생활의 문제로 인하여 아동이 경제적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하는 정책
- ⑤ '국민의 집' 이념을 구현하고 있다.

3) 독일의 가족복지정책

- ① 독일은 보수주의적인 성격이 강하다.
- ② 여성이 자녀 양육과 취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 양육이 수입과 사회보장체계에 끼칠 수 있는

손실 발생이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③ 아동수당

- ◆ 초기 아동수당은 남성을 수급권자로 하여 가장의 임금을 보충해 줌으로 여성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 ◆ 공공보육시설을 제공할 경우 가족 내 아동보육기능이 약화될 것이라고 여겨 수당제도를 취한 것이다.

④ 부모수당

- ◆ 초기 보육수당과 휴가제도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었다.
- ◆ 그후 남성도 보육수당과 휴가수급권을 갖게 되었다.
- ◆ 취업과 아동보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보육수당에서 제공했던 휴가제도를 부모시간으로 대체하였다.

4) 외국의 가족복지정책의 최근동향

- ① 부부공동과세에서 개인과세로 변화하고 있으며, 반면 부부가족을 대상으로 한 복지정책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성의 취업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조화시킬수 있는가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초점이 있다.
- ② 합법적 결혼과 동거커플 등 가족관련 급여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변화하고 있다.
- ③ 가족복지정책의 보편적 가족수당이 소득조사를 통한 일부 선별주의적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다.
- ④ 한부모가족의 급증으로 한부모가족의 빈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 ⑤ 전통적 가족의 기능 유지와 재생산 독려제도가 강화되었다, 이는 신자유주의의 발흥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5주차 2차시 :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와 관련법

[학습 내용]

1. 가족복지전달체계
2. 가족복지 관련법

[학습 목표]

1. 가족복지전달체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가족복지와 관련된 법제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가족복지전달체계

1) 공공전달체계

(1) 전달체계에 대한 전반적 이해

- ① 인체에는 뉴런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극을 뇌로 전달하고, 또한 뇌의 명령을 각 감각기관에 전달하게 된다.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뉴런이 서로 연결되어 일종의 전달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 ② 가족복지정책도 마찬가지이다. 정책만 세워지고 전달체계가 없다면 정책이 실현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가족복지에 있어 전달체계는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③ 전달체계의 원칙

- ◆ 첫째, 통합성의 원칙이다.
 - 이는 대상자가 한 곳에서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 사회복지서비스는 다양하고 그에 따른 서비스도 다양하다.
 - 대상자의 경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있다.
 - 대상자는 원스톱 서비스를 받는 것이 편리하다.
- ◆ 둘째, 지속성의 원칙이다.
 -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끊이지 않고 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을 때 문제 해결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일 수가 있다.
 - 지속성은 전달체계의 원칙일 뿐 아니라 자원봉사, 사회복지실천 등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 ◆ 셋째, 접근성의 원칙이다.
 - 대상자가 언제 어디서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 아무리 좋은 가족정책이 있더라도 접근하기가 불편하여 이용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다.
 - 접근성에도 여러 차원이 있다 : 지리적 접근성, 제도의 단순성, 낙인감의 해결

- ◆ 넷째, 전문성의 원칙이다.
 - 서비스의 전달이 전문적인 인적 자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가족복지서비스는 가족복지에 대한 전문인력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한다.
 - 전문가가 아니면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가 없다.
 - 질은 단순히 자격증 취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자격증 취득 이후 전문직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 ◆ 다섯째, 다양성의 원칙이다.
 - 다양성은 다양한 문제에 대응해야 함을 이른다.
 -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cf. 통합성과 다양성의 구분 : 통합성=사례관리, 다양성=다양한 종류

④ 전달체계의 두 가지 중요쟁점

- ◆ 서비스를 중앙에서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지방에서 주도할 것인가?
 - 전통적으로 서비스를 중앙에서 책임지고 해 왔었다.(관료제)
 - 복지국가도 결국 정부가 복지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다.
 - 일사불란하게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전문가의 의견을 존중한다.
- (단점)
 - 집행에 필요 이상으로 재정이 많이 들어간다.
 - 간단하게 시행할 일들도 절차에 따라 행해야 한다.
 - 전문가들은 필요 이상으로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 (변화)
 - 탈중앙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지방자치제도의 안착으로 더욱 지방 중심이 되고 있다.
 - 지역마다 격차가 발생하는 면이 있다.
 - 지역사회는 사회복지실천의 장과 일치한다는 장점이 있다.
 -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에 유리하다.
- ◆ 서비스를 공공부문이 담당하느냐 아니면 민간부문이 담당하느냐?
 - 복지국가 이상 아래에서 공공부문이 사회복지정책을 주도해왔다.
 - 경제위기와 더불어 복지국가 실패론이 대두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 민영화, 준시장화, 자원부문이 강화되고 있다.
 - 이는 서비스의 시장화 현상이 되기도 한다.

⑤ 운영주체에 따른 행정부와 정책내용

	운영주체	행정부서	정책내용
공공전달체계	정부 (중앙, 지방자치단체)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노동권 보장 부모권 보장 노인돌봄 관련 소득보장 관련
민간전달체계	기업, 비영리조직, 영리조직	종합사회복지관 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서비스

출처 : 김용환 외(2019), p. 122

(2) 여성가족부

- ① 1998년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가 여성부의 전신이다. 2001년 여성부로 시작하였다. 여러 부처 중 가장 작지만 여성의 권익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생겼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후 가족 업무의 통폐합에 따라 여성가족부로, 또 여성부로, 그리고 또다시 여성가족부로 변화가 있어 왔다.
 - ② 여성가족부는 여성의 가정이나 사회의 평등과 여성 인권 보호를 추구하고, 가족복지정책이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기조를 구축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여성가족부 조직 중 명시적으로 가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청소년가족정책실의 가족정책관이다. 가족정책관 아래에 가족정책과, 가족지원과, 가족문화과, 다문화가족과가 있다.



출처 : 여성가족부 포털

④ 여성가족부의 가족정책:

-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 양성평등문화확산, 정책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여성인력 개발·활용,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지원

- **청소년 활동·복지 지원 및 보호** : 청소년 활동 진흥 및 역량 개발, 유해환경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학교 밖·위기청소년 등의 보호·지원
- **가족 및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조정·지원** : 양육·부양 등 가족기능의 지원, 한부모가족의 자립 지원,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 **여성·아동·청소년에 대한 폭력피해 예방 및 보호** :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이주여성 포함), 스토킹·교제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3) 보건복지부

- ① 보건과 복지 관련 중앙행정기구이다.
- ② 해방 이후 사회부와 보건부가 있었고, 1950년대 사회부와 보건부가 합쳐져 보건사회부가 신설되었다. 1994년 노인·장애인·사회보장에 대한 사무를 더해 보건복지부가 되었다. 2008년에 아동청소년과 가족에 관한 업무를 더해 보건복지부가 되었고, 2010년 청소년·가족에 대한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고 보건복지정책 중심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로 개편했다.
- ③ 가족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인구정책실에 인구아동정책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이 담당하고 있다.
- ④ 보건복지부의 가족정책:
 - 인구정책 : 노후준비지원 확대 정책, 아이돌봄지원
 - 출산정책 : 임신·출산 비용 지원 확대, 모자보건지원
 - 아동복지정책 : 아동수당지급, 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 아동실태조사, 아동인권 증진 지원, 입양
 - 그 외 아동권리정책과 아동학대정책이 있음

(4) 고용노동부

- ① 고용노동부는 우리 사회의 노동정책을 관장하는 주무 부서로서 가족복지정책을 직접 다루는 부서는 아니다.
- ② 하지만 고용 평등 차원에서 여성 노동자를 대상으로 직장과 가정생활 양립을 추구하는 근로 복지정책을 추구함으로써 가족복지정책을 다루는 유관부서라고 할 수 있다.
- ③ 가족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통합고용정책국의 여성고용정책과에서 맡고 있다.
- ④ 고용노동부의 가족정책 :

여성 고용 확대 촉진 정책 수립, 산전·후 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 운영 및 개선, 일과 가정 양립 지원 업무, 육아휴직, 직장보육 제도

(5) 지방자치단체

- 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부처에서 수립된 정책을 집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담당부서로는 주로 보육관련부서, 아동청소년부서, 모부자가족관련부서, 노인담당부서이다.
- ③ 시민이 직접 대면하는 창구는 대부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이다.
eg. 은평구: 주민복지국-보육지원과, 어르신 복지과, 교육문화국-가족정책과

2) 민간전달체계

(1) 민간전달체계의 기능

- ① 민간전달체계는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의 가족복지 전달체계 안에서 기능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
- ② 사회 변동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를 역동적으로 먼저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 ③ 정부의 부분적인 재정 지원과 행정지도가 따른다.
- ④ 민간 전달체계라 할지라도 정부의 역할을 위탁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 ⑤ 민간 전달체계는 공공부문보다는 기민성, 실제성 등에서 효과적이다.

(2) 건강가정지원센터

- 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가정 문제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목적으로 중앙, 시도, 시군구에 세워졌다.
- ②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서 다양한 가족 지원 정책을 제안 및 실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 ③ 가정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 ◆ 다양한 가족 문제로 고민할 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함께 한다.
 -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긴급, 일시적인 시간제 돌봄 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며, 가정생활 전반에 관한 문제를 함께 고민한다.
- ④ 가족의 건강한 변화와 성장을 돋운다.
 - ◆ 가족도 변화하고 성장해 갈 수 있다.
 - ◆ '가정경영 아카데미'를 통해 가족 누구나 가족성장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 가족 형태에 따른 편견을 없애고, 지역 내 이웃 간의 돌봄 영역을 확대하여 가족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돋운다.
- ⑤ 가족 친화 사회환경을 만들어 간다.
 - ◆ 가족이 함께 활동하고 봉사하며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간다.
 -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지역주민 모두 커다란 의미의 한 가족을 이루어 살 수 있도록 '이웃 가족' 및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 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⑥ 사업영역



- ⑦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갖추고 지역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⑧ 가족유지를 저하, 이혼율 증가, 부양기능 문제, 위기문제 등 다양한 가족문제에 대처하여 가족의 안정성 및 가족관계를 강화한다.
- ⑨ 과거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가 분리되었으나 통합하여 운영한다.-->다양한 가족 통합지원 사업의 일부가 되었다.
- ⑩ '사회복지사'와 '건강가정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된다.

(3) 한부모가족지원센터

- ①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지역사회 내에서 일정한 시설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지역사회 내의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마련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실현을 위한 상담, 교육, 문화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② 미혼모·부자에 대해 정보제공과 긴급 지원을 통해 미혼모·부자의 위기상황을 극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 서비스를 지원한다.
- ③ '모부자복지법'을 2007년 개정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였다. 다만,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의 근거는 법령이 아니라 조례이다.

(4) 종합사회복지관

- ① 사회복지관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社会의 복지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②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
 - ◆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
 - ◆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아동 및 청소년
 - ◆ 그 밖의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③ 역사적으로 인보관 운동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

2. 가족복지 관련법

1) 건강가정기본법

- ① 2004년 2월 9일 제정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② 법의 취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현대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건강가정을 구현하고,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 ③ 한 마디로 우리나라 가정정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법제라고 이해하면 된다.
- ④ 이 법에서 정의하는 기본개념은 다음과 같다.
 - ◆ '가족'이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 ◆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 '1인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 ◆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 ◆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 즉, 가정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 ⑤ 건강가정을 위한 제도와 필요한 요건을 조성하는 것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⑥ 5년마다 건강가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⑦ 5년마다 가족실태파악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⑧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법령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
- ⑨ 법 제정 당시부터 법명에 '건강'이라는 말이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가치판단 용어인 '건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가정'이라는 말로 법제가 이루어졌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

- ① 기존에 있던 '보모자복지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하였다. 2007년 10월 17일 일부개정되었고 2008년 1월 18일 시행되었다.
- ② 법의 취지는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 자립 능력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학비 등으로 인한 생활비 지출이 증가될 수 있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하여 자녀가 취학 중인 때는 22세 미만까지 확대하여 지원하도록 하며, 65세 이상의 고령자들과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는 조손가족의 경우도 이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함으로써 조손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아울러 법문장을 쉽게 고쳤다.)

③ 이 법에서 정의하는 주요개념은 다음과 같다.

- ◆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마. 가족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 ◆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 ◆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 ◆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하되,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취학 중인 경우에는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④ 조손가정도 한부모가정에 포함한다.

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정책실행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다.

⑥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등

⑦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세워지고 있다.)

3) 영유아보육법

① 1991년 1월 14일 제정됨과 동시에 시행되었다.

② 법의 목적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이다

③ 이 법에서 정의하는 주요개념은 다음과 같다.

- ◆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 ◆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 ◆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 ◆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④ 영유아 보육에 대한 책임을 모든 국민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책임과 책임 이행을 위한 정책이나 재정 마련을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⑤ 보육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하고 있다.

⑥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 ◆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 ◆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설치 ·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 ◆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 운영하는 어린이집
 - ◆ 협동어린이집 :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 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 · 운영하는 어린이집
 - ◆ 민간어린이집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 ⑦ '무상보육'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⑧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양육수당'을 제공한다.
86개월 미만까지 대상이며 10-20만원을 지급한다.

4)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 ① 2005년 5월 18일 제정되고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 ② 법 제정 이유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 ③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에 대해서 심의하는 기관이다.

5) 기타

- ① 앞에 제시한 법령들은 '가정' 또는 '가족'이라는 명칭이 법명에 부여되거나 또는 가정에 대한 주체적인 법제라는 점에서 제시된 것이다.
- ② 가족에 대한 법제는 이 외에도 민법의 가족법, 상속법, 그리고 여러 복지법의 내용으로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eg. 아동수당 –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제공한다는 것은 '아동수당법'에 의하여 제공되는 사회복지급여이다.

6주차 1차시 : 가족복지실천과정: 초기면접

[학습 내용]

1. 사례발굴
2. 접수면접

[학습 목표]

1. 가족복지개입의 초기단계인 사례발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접수면접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사례발굴

가. 자발적 방문

(1) 자발적 방문의 기본이해

- ① 가족복지실천을 시작하는 첫 단계인 초기 면접은 가족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는 시점부터 가족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클라이언트인지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는 결정하는 단계이다.
- ② 방문자가 곧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
- ③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의뢰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단계로 진전시켜 나간다.
- ④ 이 과정 초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례발굴, 초기 면접에서 사회복지사가 활용하는 기술 등이다.

(2) 자발적 방문의 의미

- ①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사회복지사가 가족을 만나는 경우는 다양한다. 개별적으로 자발적 방문, 사례관리자에 의한 발굴, 의뢰가 있다.
- ② 자발적 방문이라 함은 클라이언트가 직접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를 이른다.
- ③ 이런 경우 클라이언트는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강하며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표출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해결이 쉬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④ 다만, 때로는 무리한 서비스를 요구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 ⑤ 초기 면접에서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명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와 기관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해야 한다.
- ⑥ 특히, 자발적 방문자의 경우 이전에 다른 서비스를 이용했다거나 가족이나 이웃에 의하여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을 받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이럴 경우 기존 서비스 경험에 대한 평가와 함께 가족의 욕구나 기대를 현실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사례관리자에 의한 발굴

(1) 사례관리자에 의한 발굴의 기본이해

- ① 아웃리치(outreach)는 사회복지사가 기관 밖으로 나가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직접 발굴하는 것이다.
- ② 어떤 대상에게 유용한가?
 - ◆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서비스나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대상에게 필요하다.
 - ◆ 자발적 동기가 부족한 잠재적 서비스 이용자로 하여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하다.
 - ◆ 노인이나 장애인 등과 같이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낙인(stigma)과 문제확대 및 노출에 대한 두려움, 무력감 등으로 스스로 기관 접촉을 꺼리는 대상자에게 적합하다.
 - ◆ 청소년의 경우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아웃리치를 통하여 이런 문제를 발견하고 서비스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도 한다.

(2) 사례관리자에 의한 발굴의 활용

- ① 아웃리치에 의하여 이용자에게 다가가려면 사전에 지역사회의 인구사회학적 정보와 그에 따른 욕구를 알고 있어야 한다.
- ② 관찰, 가정방문, 외부 정보를 통해 접근할 수도 있다.
- ③ 지역의 관공서, 종교기관, 지역주민이 많이 모이는 곳 등을 중심으로 아웃리치를 할 필요가 있다.
- ④ 지역사회 주민들은 주변 가족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 큰 도움이 된다.
- ⑤ 사회복지사는 반상회나 주민자체센터 등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 대해 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고(기관과 기관의 사업홍보), 더불어 사례발굴을 위하여 지역조직들과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⑥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가족들의 위기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잠재적인 도움의 욕구를 표출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아웃리치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다. 의뢰

(1) 의뢰에 대한 기본이해

- ① 의뢰란 클라이언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자원이나 기술이 필요한 경우 그러한 자원이나 기술을 가진 부서나 기관으로 연계하는 것을 의미한다.
- ② 즉,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외부기관이나 자원 또는 전문가에게 서비스 이용자를 직접 연계시켜주는 것을 말한다.
- ③ 의뢰는 외부인이 사회복지사에게 사례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사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외부기관이나 자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있다. 어떤 경우이든 이용자의 욕구나 문제로 볼 때 사례 관리 서비스가 적절하게 이행될 수 있는 관리자에게 신중히 연결해야 한다.
- ④ 의뢰에는 법원의 명령으로 강제이행으로 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대상자들은 적극적인 참여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2) 의뢰의 활용

- ① 의뢰를 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확실한 의뢰자의 목표를 세우는 것이고 이에 따라

실행 가능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표적 문제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 ② 제공된 서비스가 그들의 욕구에 유용한지, 서비스에 참여할 기회가 적절한지, 서비스가 잘 연계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해야 한다.
- ③ 최근 사회복지실천에서는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이 강조되고 있으므로 의뢰과정에서 당사자의 자기 결정권이나 선택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 ④ 필요한 경우 의뢰기관과 직·간접적으로 협상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지역사회 안에 있는 다양한 자원이나 기관과 협력관계가 잘 구축되어야 한다.

2. 접수 면접

가. 접수 면접의 기능

(1) 접수 면접의 개념 및 기능

- ① 접수(intake)는 문제를 가진 사람이나 가족이 사회복지기관을 찾아왔을 때 사회복지사가 그의 문제와 욕구를 확인하여 기관의 정책이나 서비스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과정이다.
- ② 접수를 통하여 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사회복지사(기관)를 찾아온 사람은 클라이언트가 되어 사정 단계를 거쳐 적절한 서비스를 받게 된다.
- ③ 접수를 통하여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타 기관에 의뢰하거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2) 접수 면접의 첫 만남에서 중요한 점

- ① 접수 면접을 통해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첫 만남이 이루어진다.
- ② 첫 만남에서 긍정적인 인상을 받게 되면 클라이언트는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갖게 되지만 첫 만남에서 실망하거나 좌절을 경험하게 되면 원조 활동의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워진다.
- ③ 따라서 첫 만남에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경험이 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 ◆ 클라이언트가 가지는 두려움, 긴장감, 양가감정을 완화시키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틀로 유형화하지 않아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유형화하여 정형화하다보면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진짜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기 어려워진다.
 - ◆ 클라이언트가 편안한 마음을 갖도록 관심과 존중을 보여주어야 한다.

나. 접수 면접의 과업

(1) 클라이언트의 문제 파악

- ① 클라이언트의 문제 파악 또는 문제 확인은 클라이언트가 놓여 있는 체계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아니다.
- ② 현재 명백하게 드러나 있는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다,
- ③ 문제 확인은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것에서 출발하게 된다.
 - ◆ 그 문제가 가족에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지 파악해야 한다.

- 무엇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 이런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 ④ 처음에 클라이언트가 이야기하는 게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게 진짜 문제인지 파악해야 한다.
eg. 청소년 비행 문제로 상담을 하여 온 가정이더라도 청소년의 비행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선 부부갈등이 청소년 비행의 근원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진짜 문제는 부부갈등일 수가 있다.
- ⑤ 문제확인의 목적은 닫힌 마음을 여는 것이고, 감정의 표현이나 수용에 의해서 관계의 유대를 확립하는 일이고, 주관적 사고로 문제 속에 잠겨 있는 가족 대상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 양자의 지각을 증진시키는 일이다.

(2) 적격성 심사

- ① 적격성 심사는 사례발굴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의 적합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 ②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서비스 이용자로 결정하는 과정이다.
- ③ 이는 부적절한 의뢰와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사정 이전에 판단함으로써 실제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게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3) 의뢰나 보류의 결정

- ① 접수 면접에서 기관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나 욕구인지를 파악하여야 한다.
- ② 기관에서 다룰 수 없는 경우 다른 기관에 의뢰하거나 보류를 결정해야 한다.
- ③ 의뢰의 경우 단순히 클라이언트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의뢰하는 기관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기관과 접촉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단순히 정보만 나열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그 기관의 담당자와 직접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 ④ 클라이언트에 대한 문제확인 성격에 따라 본 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보류를 결정하여 보다 더 세밀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다만, 보류가 대상자에게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만 지체하게 되는 경우가 되어선 곤란하다.

(4) 접수 면접지 기록

- ① 접수 면접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보통 초기 면접지(intake sheet)라고 한다.
- ② 접수의 목적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와 그 문제를 기관에서 다룰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기본정보, 가족관계, 주요문제, 기관에 오게 된 동기, 의뢰이유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초기 면접지(intake sheet)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은 사회복지사가 본격적인 개입을 준비할 때 필요한 정보가 된다. 따라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 ④ 다만, 너무 세세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지양한다. 오히려 기관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

※ 기관이나 사례에 따라서 접수 면접과 초기 면접이 같을 수도 또한 다를 수도 있다. 접수 면접은 말 그대로 접수에 관련된 것만 하는 경우도 있고, 접수 면접에서 아예 초기 면접까지 함께 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접수 면접과 초기 면접은 같이 진행된다.

다. 초기 면접의 과업

(1) 초기 면담의 과업

①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 파악

- ◆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 가족의 문제와 욕구를 정의할 때 가족원 중 한 사람의 견해에만 주의를 기울이기보다는 모든 가족원의 인식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 ◆ 당면한 이슈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가족원 각자가 그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가족원의 간섭이나 방해 없이 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도와야 한다.
- ◆ 문제와 욕구를 찾아내는 과정에서 그 이슈에 관심이 있는 가족원들 간에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강점(strength)을 유지하도록 한다.
- ◆ 문제를 규정하는데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성원 각자에게 배타적인 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문제를 규정한다. 문제의 해결은 가족원 모두의 과업임을 인식 시켜 책임 의식을 갖고 개입과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② 신뢰관계 형성

- ◆ 클라이언트 가족 구성원 사이, 가족 구성원과 사회복지사 사이에서 클라이언트 가족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가족의 응집력을 높이는 과정은 성공적인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하다.
- ◆ 결국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 ◆ 사회복지사는 관계 형성을 위하여 먼저 클라이언트 가족이 있는 곳에 합류(joining)해야 한다.

합류란?

- ◆ 가족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 ◆ 가족을 수용하고 가족에게 적응하며 가족의 신뢰를 얻는 것이다.
- ◆ 가족에게 합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는 경청과 공감을 하여야 하고, 가족의 언어패턴에 맞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가족원들이 대화하는 방식으로 대화하거나, 가족원들이 사용하는 호칭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사용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 ◆ 가족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따라 사회복지사가 존중해야 할 관계, 가치, 행동 패턴, 태도가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 ◆ 가족과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것은 가능한 한 가족원 모두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 ◆ 가족이 처음 면접에 오게 된 것은 자발적인 경우도 있지만 명령에 의하여 온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족의 참여동기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가족개입에 앞서 가족 구성원의 참여 동기를 높여야 한다.
- ◆ 사회복지사는 가족원 각자의 경험에 대해 중립성과 민감성 사이에서 섬세하게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중립성을 잊을 경우 가족원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③ 가족초점

- ◆ 가족의 문제 혹은 가족의 역기능은 가족 구성원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가족체계의 장애나 어려움에서 발생하는 체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 가족 구성원 한 사람에게 생긴 문제는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친다.
- ◆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문제로 사회복지기관에 의뢰되었다 할지라도 사회복지사는 가족 전체가 클라이언트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 ◆ 가족복지실천은 개별 구성원보다는 가족 내부구성원 간의 관계 혹은 가족과 외부환경과의 관계에

초점을 둔다.

- ◆ 사회복지사는 개별구성원으로부터 가족 전체로 관심의 초점을 넓히고, 가족이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증상으로 확인된 것들에 스스로 기여하고 그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해야 한다.

(4) 사생활보호

- ◆ 사회복지사는 초기 면담에서 가족들이 간섭을 받는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 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목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에만 초점을 두고 질문해야 한다.
- ◆ 가족이 개인적인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사회복지사는 주의 깊게 듣고 지지적으로 반응하고 동시에 시간 제한적이고 목표 중심적인 초점을 유지해야 한다.
- ◆ 너무 자유롭게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 가족원은 이후 너무 많은 것을 노출한 것에 대해 후회하기 쉽다.
- ◆ 초기대화에서 사적인 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어디까지나 가족 면담은 신중하고 목적이 있어야 한다. 면담의 초기에는 가족의 욕구 파악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2) 초기 면담의 원칙과 기술

① 초기 면담에 활용할 수 있는 원칙은 다음과 같다.

- ◆ 클라이언트에 대한 반응은 간단명료하게 기술하도록 요청하고, 클라이언트의 메시지에 대해서는 감정이입할 수 있는 태도로 반응한다. 이런 반응은 라포형성에 도움을 준다.

라포(rapport)

- ◆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상호 이해와 공감을 통해 형성되는 신뢰관계와 유대감을 말한다.
- ◆ 다양한 관계 사이에서 형성되는 심리적인 신뢰감이다.
- ◆ 라포는 상호 관심사의 공유와 공감,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이해, 경험을 통한 공감대의 형성 등을 통해 만들어진다.
- ◆ 라포가 형성된 후에는 보다 장기적인 신뢰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 ◆ 의뢰나 위임의 경우 사회복지사는 잠재적 클라이언트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고 의뢰된 목적과 상황을 파악한다.
- ◆ 특정 가족원과 일을 하면서 다른 가족원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해 다른 가족원의 참여가 필요함을 알리고 협조를 얻는다.
- ◆ 초기과정에서 사회복지사는 가족원과의 접촉을 조절하면서 가족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족원들을 단계적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초기 면담에서 필요한 기술을 다음과 같다.

- ◆ 가족이 표현하는 의미를 신중하게 경청하기
- ◆ 가족원 각각의 소망과 목표에 대한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 ◆ 효과적인 문제 해결과 관련된 가족의 어려움 파악하기
- ◆ 가족의 효과적인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 지식, 태도, 환경적 조건 제공하기

③ 사회복지사의 비언어적 반응 행동 목록

	바람직한 반응	바람직하지 않은 반응
얼굴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인 눈 맞춤 ◆ 따뜻하고 관심 어린 얼굴표정 ◆ 클라이언트와 동등한 눈높이 ◆ 적절한 표정 ◆ 이완된 입 모양 ◆ 미소 어린 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눈 맞춤을 회피함 ◆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고정된 시선 ◆ 신경질적으로 눈썹 추켜올리기 ◆ 지나친 고개 끄덕임 ◆ 하품, 얼거나 딱딱한 표정 ◆ 부적절한 미소나 입술 물어뜯기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과 손이 자연스러운 자세 ◆ 적절한 제스처 ◆ 약간 앞으로 숙인 자세 (주의집중을 하나 편안한 자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짱 끼기 등 경직된 자세 ◆ 등 돌리기 ◆ 의자 흔들기나 손가락 움직임 ◆ 강조하기 위해 손가락질하기
목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끄럽지 않으나 잘 들리는 목소리 ◆ 부드러운 톤 ◆ 클라이언트의 메시지에 대한 적절한 반응 ◆ 적절한 말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듣기 힘든 혼잣말 ◆ 단조로운 목소리 ◆ 문법이 틀린 문장 ◆ 긴 침묵 ◆ 신경질적인 웃음
물리적 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절한 의자 간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나친 간격이나 밀착 ◆ 책상이나 다른 장애물

6주차 2차시 : 가족복지실천과정: 사정과 개입계획

[학습 내용]

1. 사정의 개념
2. 가족 사정의 도구와 쓰임
3. 개입계획

[학습 목표]

1. 사정의 의의 및 주요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가족사정을 위한 도구의 활용 방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개입계획의 과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사정의 개념

가. 사정의 개념

- ① 사정은 수집된 자료를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문제를 규정하고 실천 방향을 결정하는 일이다.
- ② 자료수집이 가족과 가족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모으는 것이라면, 사정은 정리된 자료를 분석하고 심사숙고하여 문제를 규정하는 과정이다.
- ③ 문제들이 규정되면 문제의 중요성과 변화의 시급성을 기준으로 표적 문제를 찾아내어 개입의 목표를 정하게 된다.
- ④ 가족 사정은 문제해결을 위하여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사정한다.
- ⑤ 사정에는 가족의 변화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지역사회 자원을 확인하는 역할도 있다.
- ⑥ 가족 사정에서 가져야 할 질문들
 - ◆ 가족은 이 면접에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 ◆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상담을 받기로 했는가? 문제의 심각성은 어떠한가?
 - ◆ 누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제시하는가?
 - ◆ 과거 상담경험이 있는가, 있다면 어떠하였는가?
 - ◆ 문제해결을 위하여 어떤 시도를 하였는가?
 - ◆ 가족 구성원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 ◆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가족과 다른 체계와 연결되어 있는가?
 - ◆ 의뢰인과의 관계는 무엇이며 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
 - ◆ 가족 구성원의 문제해결 동기는 어느 정도인가?
 - ◆ 사회복지사를 만나기 전 이미 해결된 문제는 무엇인가?
 - ◆ 사회복지사의 개입에 대한 가족의 태도와 기대는 어떠한가?

나. 사정에서 관심 가져야 할 주요 영역

(1) 가족의 욕구

- ① 가족원 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는 단순히 개별당사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욕구 사정은 당사자의 욕구와 함께 가족 전체에 초점을 둔 욕구를 대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② 사회복지사는 개족원의 개별욕구가 다른 가족원의 욕구보다 우선시 되지 않도록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개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
- ③ 현대사회의 변화과정에서 가족의 욕구는 다양한 긴장과 갈등을 겪으면서 점점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eg. 경제적 어려움 --> 문화적 결핍 --> 빈곤의 세습 --> 세대 간 갈등, 역할혼란, 비행, 중독, ...
- ④ 사회복지사는 가족체계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대해 생태 체계론적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⑤ 사정은 사회복지사와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전개되므로 관계가 잘 형성되어야 한다.
- ⑥ 가족 구성원을 개별적으로 또한 전체적으로 만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2) 가족체계

- ① 가족체계이론은 가족이 사회적 체계라는 관점에 근거한다.
- ② 가족체계는 환경의 여러 요소와 호혜적 관계를 맺는 정도에 따라 개방체계가 되기도 하며 폐쇄체계가 되기도 한다.
 - ◆ 개방체계 – 체계 내 여러 요소와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변화를 지향하는 모습을 갖는다. 에너지가 더욱 활성화된다(넥엔트로피). 분명한 경계를 갖는 체계이다.
 - ◆ 폐쇄체계 – 체계 간 상호작용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에너지의 혼란 상태에 이르게 된다(엔트로피). 경직된 경계를 갖는다.
 - ◆ cf. 경계가 모호하여 가족체계로서 구분 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 대부분 가족 문제로 의뢰가 되는 경우는 폐쇄체계인 가정이거나 경계 자체가 모호한 가정인 경우이다.
- ③ 가족체계의 상위체계로는 지역사회, 확대가족이 있고, 하위체계로는 부부 하위체계, 부모-자녀 하위체계, 형제 하위체계 등이 있다.
cf. '홀론'은 체계이론에서 나타나는 특성으로 어떤 체계이든 그것의 상위체계의 하위체계가 되면서 동시에 그것의 하위체계의 상위체계가 되는 특징을 이른다.
- ④ 가족의 항상성
 - ◆ 가족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속성이다. 일관성이 무너질 때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일종의 역동적 균형 관계라고 할 수 있다.
 - ◆ 항상성은 일정정도 개방 체계적인 성격을 갖는다.
 - ◆ eg. 아버지의 실직으로 가족의 항상성이 깨졌을 때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 ◆ cf. 체계이론에서 균형은 아무런 에너지의 교환이 없이 일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으로 폐쇄체계의 성격을 갖는다.
- ⑤ 가족 규칙

- ◆ 가족 규칙은 가족 구성원의 행동을 규정하고 제한하는 구성원 간의 어떤 합의를 이른다.
- ◆ 가족 규칙은 그 가족의 언어, 시간과 공간의 사용패턴, 의사소통 흐름, 가족의 지위와 권력, 가족의례 등을 규정짓는 역할을 한다.
- ◆ 모든 가족은 가족 특유의 규칙이 있다. 가족 구성원은 그 규칙에 따라 행동하게 된다.
- ◆ 가족 규칙은 가족 구성원의 상호작용으로 조직화되는데 때론 명문화되기도 또 때로는 불문율의 형태로 존재하기도 한다.
- ◆ 기능적인 가족 규칙은 가족이 접하는 스트레스나 욕구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하며 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가족과 구성원이 건강하게 발달하도록 돋는다.
- ◆ 역기능적인 가족 규칙은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에 대해 잘못 대처하게 하여 스트레스나 문제를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⑥ 가족 신화

- ◆ 가족이 갖는 일종의 신념체계이다. 사실이나 역사의 왜곡에 기초하여 가족 구성원이 공유하는 일단의 신념이다.
- ◆ 가족 구성원은 이러한 신화가(이데올로기가) 불명확한 것이라는 점을 알지라도 현재의 가족구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것을 문제삼지 않고 허용한다.
- ◆ eg. 남자는 바깥일을 하고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 주방의 일은 여자의 일이다.

⑦ 가족 경계

- ◆ 체계와 체계를 구분하는 것이 경계이다. 가족 경계라 함은 가족과 환경 간의 경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가족체계 안에서도 부부체계와 부모 자녀체계 그리고 형제체계 사이에는 또한 일정한 경계가 있는 것이다.
- ◆ 원칙적으로 경계는 침투성(투과성)이 있어서 경계를 통해 정보와 자원이 가족 안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한다.
- ◆ 명확한 경계 – 체계 간 경계가 분명하면서 에너지의 유입이 자유로움 (개방체계)
- ◆ 경직된 경계 – 체계 간 경계가 경직되어 있어 에너지의 유입이 없음 (폐쇄체계)
- ◆ 모호한 경계 – 구분이 없으므로 모호한 관계가 이루어짐
- ◆ 가족과 외부와의 경계, 가족 내부에서의 경계 모두 명확한 경계가 바람직하다.

⑧ 가족 의사소통

- ◆ 의사소통은 언어적,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 사실적 정보, 생각, 감정을 전달하고 상호교류하는 과정이다.
- ◆ 사정을 할 때 의사소통의 '일치성'과 '명확성'의 측면과 '수용성'과 '표현성'의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인다.

⑨ 가족의 권력구조

- ◆ 가족의 권력이란 한 가족원이 다른 가족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한다.
- ◆ 가족은 이런 권력 구조를 통해 가족원들의 행동을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 ◆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가족의 권력은 갈등의 원인이 되고 가정폭력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 ◆ 가족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에서 차지하는 자원이 많을수록 그 구성원은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한다.
- ◆ 사정 단계에서 가정의 권력 구조 파악과 더불어 권력 배분에 대해서 사정해야 한다. 가족의 권력 구조는 단일하게 통일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 ◆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중시되던 전통적 가부장 문화의 영향과 새롭게 펼쳐지는 양성평등의 가치 사이의 갈등으로 인하여 가족 내 권력배분과 균형의 문제는 더욱 중시되기도 한다.

(3) 환경과의 상호작용

- ① 가족은 주변 사회환경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가족의 기본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자원과 지지를 확보한다.
- ② 주변 환경과 사회적 지지망을 구성하는데 있어 적응적 균형을 이루지 못한 가족은 결핍되거나 고립되어 지나친 환경적 스트레스로 인해 지치게 된다.
- ③ 미시체계
 - ◆ 대면해서 접촉하는 체계이다. 일상생활에서 직접 접촉하는 환경이 된다.
 - ◆ eg. 가족, 친구, 학교 선생님 등
- ④ 중간체계
 - ◆ 미시체계 간의 연결망이다.
 - ◆ 개인이 참여하는 두 가지 이상의 미시체계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주어 미시체계의 성격과 기능을 결정하는 환경이다.
 - ◆ eg. 학교에서 수업은 단순히 교사와 학생 사이의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학생이 가정에서 학습한 것도 영향을 미친다. 이럴 때 학교는 두 체계가 서로 연결되는 특성을 가지므로 중간체계라고 할 수 있다.
- ⑤ 외체계
 - ◆ 개인이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소를 의미한다.
 - ◆ eg. 엄마의 직장은 아이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지는 않다. 그러나 엄마의 야근은 아이에게 돌봄의 부재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럴 경우 엄마의 직장은 외체계가 된다.
 - ◆ eg. 여러 사회기관들은 외체계가 될 수 있다.
- ⑥ 거시체계
 - ◆ 문화, 제도, 법 등이 거시체계이다.
 - ◆ 거시체계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환경으로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등에 포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 ⑦ 사회복지사는 생태도를 활용하여 가족의 사회적 지지망이 가지고 있는 도움제공 능력에 대해서 사정할 필요가 있다.

(4) 가족생활주기

- ① 가족발달주기는 가족의 고유한 발달이슈, 과업, 해결해야 할 잠재적인 위기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해 준다.
- ② 특히, 새로운 단계로의 전환기에는 위기가 수반되어 가족체계는 이 위기에 잘 적응해야 한다.
- ③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가족 사정 시 가족생활주기에 대한 사정을 하여야 한다.
- ④ 다만, 가족생활주기는 한부모가족, 재혼 가족, 조손 가족 등 가족 유형과 사회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 ⑤ 가족발달이론은 가족 사정의 도구가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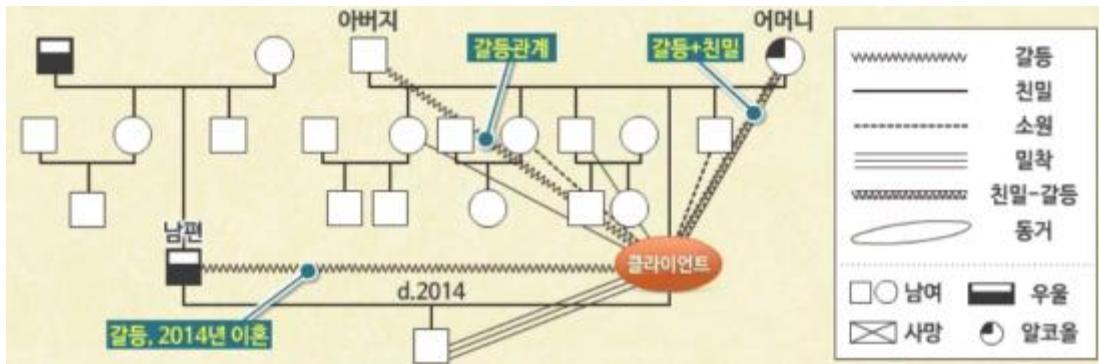
2. 가족 사정의 도구와 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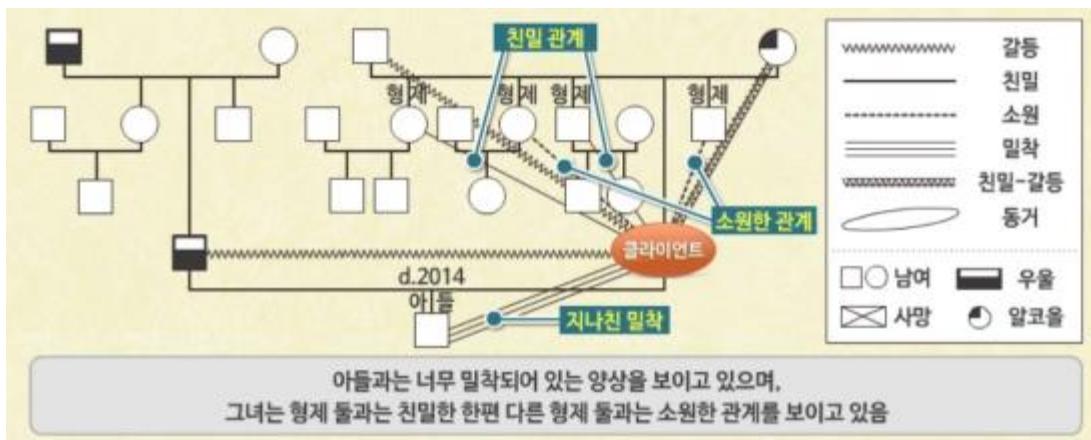
가. 가계도의 작성과 활용

(1) 가계도의 개념과 특성

- ① 가계도는 보웬의 다세대 가족치료이론에서 유래한 가족 사정 도구이다.
- ② 2-3세대에 걸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보와 그들 간의 관계를 도표로 작성하는 것이다.
- ③ 가계도는 가족들의 이름, 연령, 직업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기본적인 가족구조와 관계에 대해서 평가가 가능하게 해준다.
- ④ 탄생, 결혼, 별거, 죽음과 같은 중요한 가족 사건들에 대한 세부적인 그림을 제공한다.
- ⑤ 가족의 구조적 특성이나 세대에 걸쳐 나타나는 생활사건의 반복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어 가족이 호소하는 문제가 어떻게 가족 맥락과 연결되는지 알 수 있다.
- ⑥ 가족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가족에 대한 구조적, 관계적, 기능적 정보를 관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족의 현재 혹은 과거의 역기능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
- ⑦ 시공간을 통해 가족 문제를 추적하도록 돕는다.
- ⑧ 가족의 정서적 문제를 재해석하거나 정상화할 수도 있다.
- ⑨ 가계도는 가족의 기본구조를 보여주고 관계를 검토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가족 문제에 대해서 가설을 세우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2) 가계도의 예와 표식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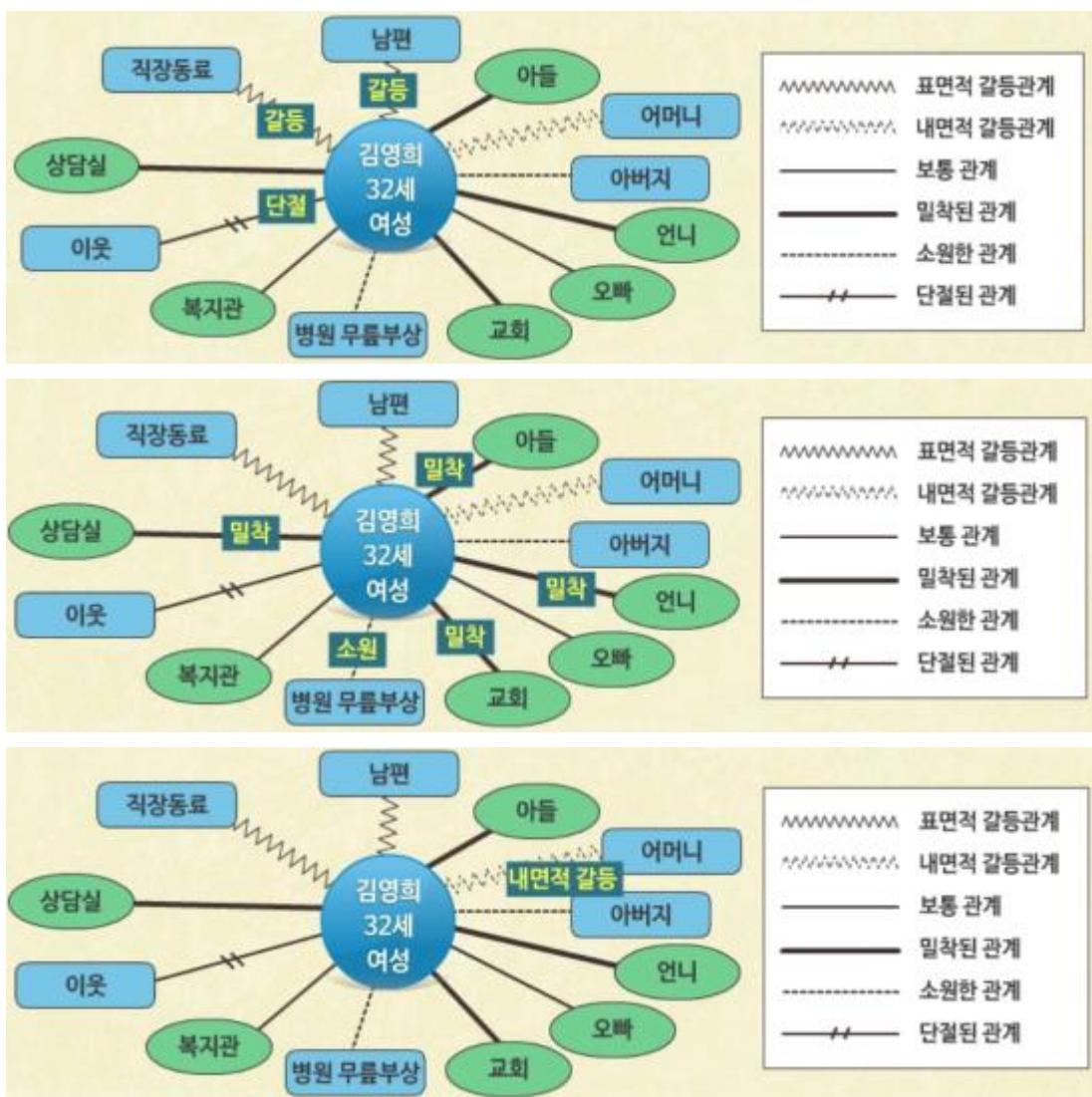
- ① 표식의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 ② 그림에서 클라이언트는 부와는 갈등 관계에, 모와는 갈등과 친밀이 함께 있는 관계를 보이고, 남편과는 갈등 관계이며 2014년에 이혼을 했다. 그러면서 아들과는 너무 밀착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녀는 형제 둘과는 친밀한 한편 다른 형제 둘과는 소원한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그녀의 남편은 자신의 아버지가 우울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도 그 영향을 받아서 우울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생태도의 작성과 활용

(1) 생태도의 개념과 특성

- ① 생태도는 가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 ② 가족과 환경체계들과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체계들 간의 자원교환, 에너지 흐름, 스트레스 관련 자료, 중재되어야 할 갈등, 메워야 할 간극, 활성화되어야 할 자원 등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다.
- ③ 가족과 환경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족 개별 구성원들과 환경체계와의 관계도 표시할 수 있다.
- ④ 특정 시점에 처해있는 가족의 중요한 상호작용을 한 눈에 살펴봄으로써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얻고 문제해결을 위한 자원체계 파악에도 도움이 된다.
- ⑤ 클라이언트가 생태도 작성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시작되거나 문제해결의 단초를 얻을 수도 있다.

(2) 생태도의 예와 표식의 의미



- ① 가계도와 마찬가지로 표식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한다.
- ② 그림에서 클라이언트는 남편과 직장동료와는 갈등 관계에 있고 이웃과는 아예 단절되어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아들, 언니, 상담실, 교회와는 밀착되어 있다. 병원에 대해서는 소원한 관계이며, 어머니에 대해서는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으나 내면적 갈등 관계에 있다.

다.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의 작성과 활용

(1)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의 개념과 특성

- ①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는 가족에게 가족 외부체계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망을 의미한다.
- ② 즉, 사회적 관계망 그리드는 개인이나 가족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사정하는 도구이다.
- ③ 가족 구성원의 사회적 관계망을 그림이나 도표로 한눈에 보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정과 개입계획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④ 특히, 대인의 역동성을 보다 명확히 파악함으로써 사정 평가를 잘 할 수 있고, 클라이언트가 가족, 친구, 기타 다른 사람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명확하게 검토할 수 있다.
- ⑤ 가깝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번호대로 써 내려 가고, 그들에 대해서 사회적지지 정도에 대해서 작성한다.

	생활영역	물질적 지지	정서적 지지	친밀도	만나는 빈도	알고 지낸 시간
내 용	1. 가구원 2. 다른가족 3. 직장/학교 4. 조직 5. 다른친구 6. 이웃 7. 전문가 8. 기타	1. 거의없다 2. 가끔씩 3. 거의 항상	1. 거의없다 2. 가끔씩 3. 거의 항상	1. 거의친하지 않음 2. 가까운정도 3. 매우가까움	1. 1년에 몇번 2. 한달에 몇번 3. 매우 많이	1년 이하 2. 1~5년 3. 5년 이상
1						
2						
3						
4						
5						
6						
7						
8						
9						
10						
11						

- ① 교류의 양이나 질에 대해서도 판단할 수 있다.
- ② 활용하기에 따라 위와 같이 그리드(grid)로 사용할 수도 있고, 다이어그램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라. 가족 조각

- ① 가족 조각은 일종의 시연(試演)이다.
- ② Satir의 가족치료에서 사용하는 주요기법 중 하나이다. 치료기법이기도 하다.
- ③ 가족원 중 한 사람이 조각가가 되어 자신이 자각하고 있는 상황을 각 구성원에게 표현하도록 각자의 위치와 신체적 표현을 정해준다.
- ④ 나머지 구성원들은 조각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 표현될 때까지 그 자세를 유지한다.
- ⑤ 모든 가족이 조각해보도록 한 후 가족원 전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다.
- ⑥ 이때 이성적 피드백보다는 정서적 피드백이 중요하다.
- ⑦ 이렇게 가족 조각을 해봄으로써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의 상황이나 생각에 대해서 통찰을 얻게 된다.

⑧ 말없이도 다른 사람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으므로 말이 서투른 가족에게 활용하기 좋다.

마. 강점 사정

- ① 강점 사정은 문제해결 초점을 가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있지 않고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데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 ② 강점관점 사정을 하려면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를 믿어야 한다.
- ③ 또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 협력적 사정을 해야 한다.
- ④ 인과론적 사고를 지양한다.

바. 기타 사정도구의 구분

- ① 가족 사정을 할 때 여러 척도를 활용할 수 있다.
 - ◆ 가족관계 – 가족체계분화 척도, 성인 애착 척도, 의사소통유형 검사, 자아 분화척도 등
 - ◆ 결혼관계 – 결혼적응도, 결혼 불만족 척도, 갈등대처방안 척도, 사랑의 표현 척도 등
 - ◆ 부모-자녀관계 – 부모와의 유대 척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척도, 부모의 수용성과 거부성 척도, 양육 스트레스 척도, 부모 양육 행동 척도 등
 - ◆ 가족적응·건강·복지 – 원가족 척도, 가족 자원 척도, 가족 응집력 척도, 가족 적응성 척도 등
 - ◆ 가족 문제 – 이혼 적응 척도, 아동학대 및 외상척도, 부모갈등척도, 갈등 진술 척도 등
- ② 면접과 관찰도 중요한 도구가 된다.
 - ◆ 관찰은 비언어적인 자료수집에 효과적이다.
 - ◆ 면접이 가족에 대한 정보 수집에 주로 사용된다면
 - ◆ 관찰은 가족 간의 상호작용 파악에 유용한 측면이 있다. 즉, 가족의 역동성 파악에 유용하다.
 - ◆ 관찰은 내담자에게 제공될 경우 관찰자를 의식한 행동을 할 수 있다.
 - ◆ 관찰은 동의 등 윤리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 ◆ 관찰자의 문화적 편견이나 사회적 통념 역시 객관적인 관찰에 방해를 준다.

3. 개입계획

개입계획의 과정

(1단계) 성과목표 결정하기 --> (2단계) 우선순위결정하기 --> (3단계) 개입목표 결정하기
--> (4단계) 계약하기 --> (5단계) 실행하기

가. 성과목표 정하기

- ① 성과목표는 목적과 유사한 개념이다.

- ② 가족복지실천의 목적이나 개입을 통하여 일어나는 서비스 이용자의 긍정적인 변화또는 기대되는 실천결과를 말한다.
- ③ 사정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나 욕구가 해결되거나 총족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기대되는 가족의 변화로써 다소 덜 구체적일 수도 있다.
- ④ 지향점일 수도 있다.
- ⑤ 성과목표는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달성 가능하는 목표로 정한다. 성취하기 쉬운 것으로 정한다. 변화가 일어나면 변화는 생성적이기 때문이다.
- ⑥ 중장기 성과목표는 필요에 따라 설정하되 단기성과목표들을 이루어보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해결되는 성과목표로 수립할 수도 있고, 단기목표와 무관하게 3-6개월 이상 기간 동안 개입을 통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수립할 수도 있다.

나. 우선순위 정하기

- ① 클라이언트가 이루고자 하는 성과목표가 여러 가지인 경우 사회복지사는 클라이언트와의 합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 ②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자기 결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③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적 관점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2-3가지 성과목표를 제시할 수 있다.
- ④ 사회복지사가 제시하는 성과목표를 우선순위로 정할 경우 사회복지사는 그에 대한 효과나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⑤ 너무 많은 과제를 설정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적이다. --> 실천의 효과를 떨어뜨린다.
- ⑥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실행함으로써 실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야 한다.

3) 개입목표 결정하기

- ① 개입목표는 실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노력해야 하는 것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여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기술한 것이다.
- ② 개입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원조과정은 방향성을 잃게 되고 결과를 평가할 수 없게 된다.
- ③ 누가, 무엇을, 언제,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를 표현되어야 한다.
- ④ 목표는 투입의 형태로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산출이나 성과 형태로 서술되어야 한다.
eg. '자녀 양육 기술 실시'가 아니라 '자녀 양육 기술 향상'이 되어야 한다.
- ⑤ 행동적인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 ⑥ 달성되어야 할 주요한 결과 한 가지를 명확히 한다.
- ⑦ 작더라도 달성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 ⑧ 서비스이용자나 개입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4) 계약하기

- ① 전문적 서비스는 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 ② 계약은 클라이언트 가족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와 가족 간에 합의한 역할을 명확히 하고 개입 기간 동안 기억할 수 있도록 돋는다.

③ 가족과 개입에 참여한 원조자들 각각의 책무성을 명시하고, 수행결과 평가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한다.

④ 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들

- ◆ 개입의 목적이나 목표, 제공된 서비스의 바람직한 결과 (성과목표)
- ◆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자가 수행할 행동
- ◆ 사회복지사가 수행할 행동
- ◆ 서비스 제공기관, 서비스 내용, 서비스기간, 제공자
- ◆ 개입 전체 기간
- ◆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관이나 사람

7주차 1차시 : 가족복지실천과정: 개입과 종결

[학습 내용]

1. 개입의 여러 차원
2. 종결

[학습 목표]

1. 가족복지개입을 여러 차원에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가족복지 종결의 유형, 과제, 진행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1. 개입의 여러 차원

1)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개입

(1) 개입단계의 의미

- ① 사회복지사가 가족을 만나 그들의 욕구와 문제를 가운데 실천과정을 통해 해결해야 할 표적 문제를 설정하고 대안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다.
- ② 이 단계는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가족에게 의도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이다.
- ③ 다양한 실천모델과 복합적인 기술이 사용된다.
- ④ 가족복지 개입에는 가족 구성원에 대한 개입, 의사소통 및 세대 간의 관계에 대한 개입, 외부환경에 대한 개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2) 탈삼각화

- ① 탈삼각화는 보웬(Bowen)의 다세대가족치료에서 사용하는 기법으로 제삼자를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분리하여 삼각관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족원들의 자아분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 ② 삼각관계 또는 삼각화
 - ◆ 두 사람 사이의 스트레스나 긴장 관계가 발생할 때 제3자를 끌어들임으로 위장된 안정을 갖는 현상을 이른다.
cf. 이런 현상은 가족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조직이나 집단에서도 나타난다.
 - ◆ 삼각화는 정교하고 비언어적인 규칙체계에 의해서 유지되며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내용과 시기, 대상, 경계까지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 ◆ 구성원 간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관계 형성을 방해한다.
 - ◆ 문제를 은폐하거나 분산하여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 부부 문제에 자녀를 끼어 들여 삼각화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 ③ 사회복지사는 경우에 따라 의도적으로 삼각관계를 형성하므로 기존의 삼각화를 깨뜨리는 기술을 사용하기도 한다.
- ④ 가족 두 사람의 갈등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삼각화하려는 경향이 있을 때 사회복지사는 이에 끼어들지 않고 객관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

(3) 재구성

- ① 재구성(reframing)은 가족 구성원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사건이나 행동을 다른 시각에서 좀 더 긍정적이고 다양하게 인식하여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다.
- ② 재명명(relabeling), 재규정(redefining), 재정의라고도 한다.
- ③ eg. 남편에게 모든 자원과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고 불만인 아내의 경우
 - ◆ (재구조화) '남편이 의사결정과 자원관리에 부담과 책임을 더 많이 지고 있다.'
 - ◆ 이것은 문제를 부부간 권력의 불균형이나 불평등으로 인식하기보다 역할재분배의 관점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좀 더 부드러운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4) 역할연습

- ① 역할연습은 가족 문제를 행동으로 표현해 보거나 새로운 양식을 설명해 보도록 하는 것으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경험을 재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 ② 가족 구성원에게 다른 사람의 역할을 수행하게 해봄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 ③ 말을 잘 하지 않거나 의사표시를 잘 하지 않는 가족에게 도움이 된다.
- ④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을 역할로 재현하거나 바꾸도록 하고 그것을 관찰한 후 느낌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가족 구성원이 서로 감정을 이입하는데도 매우 유용하다.

(5) 빈 의자 기법

- ① 게슈탈트 치료에서 도입된 기법으로 부부관계나 부모 자녀 관계에 포함된 문제들을 드러내는데 도움을 준다.
- ② 가족 구성원 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앞에 빈 의자를 두고 그 대상이나 상황을 상기하도록 하여 관련된 느낌이나 감정 등을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감정을 활기힐 수 있다.
- ③ 이것은 자신을 성찰함과 동시에 상대방의 입장을 경험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 ④ 빈 의자 기법은 역할극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사는 적절한 시점에 열활 전환이나 행동 시연 기법을 활용하기 위해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6) 로프 기법

- ① 로프 기법은 밧줄을 이용하여 가족체계가 직접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가시화하여 체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 ② 먼저 가족 수 만큼 밧줄을 준비하여 서로를 묶도록 한다. 이렇게 묶는 과정을 통해서 일차적으로 가족의 관계를 파악한다.
- ③ 누군가 줄을 흔들었을 때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크든 작든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로써 가족 구성원의 문제가 모든 가족의 문제임을 알게 한다.
- ④ 또한 밧줄을 풀어봄으로써 문제를 푸는 것도 가능함을 경험하도록 한다.

(7) 재구조화

- ① 가족구조를 새롭게 세움으로써 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을 보다더 활성화하는 것이다.
- ② 경계만들기
 - ◆ 서로 다른 체계에 속한 구성원들이 과도하게 밀착되어 있거나 유리된 경우 일정 정도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 ◆ 가족 내 하위체계의 관계를 변화시키거나 하위체계 간 거리를 바꾸는데 목표를 둔다.

③ 역균형

- ◆ 체계 안에서 지위나 권력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 ◆ 가족 구성원 중 낮은 위치에 있는 구성원을 위해 사회복지사는 제휴, 합세, 연합 등의 방법으로 지위를 높여준다.
- ◆ 경우에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공격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위가 낮은 가족 구성원에게 힘을 부여하여 주는 것이다.
- ◆ 그러나 자칫 공정하지 못하고 일부 구성원만 지원하는 문제가 드러나기도 한다.

④ 보완성

- ◆ 보완성(complementary)은 부분이면서 동시에 전체인 가족 구성원이 상보적 관계에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다.
- ◆ 하나의 부분인 가족 구성원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경우 이것이 단지 부정적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 기여하는 요소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가족 전체에 환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가족에게 긍정적으로 변화를 끌어낼 수 있다.

2) 의사소통 및 세대 간의 관계에 대한 개입

(1) 의사소통의 일반

- ① 의사소통은 참여자들 간의 역동적이고 동시적인 상호교환이다.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쉬지 않고 언어적 반응과 비언어적 반응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고 받아들인다.
- ② 의사소통은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인 것이 있다.
- ③ 사회복지사는 가족기능에 관한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을 읽어낼 수 있어야 한다.

(2) 관심기울이기: 경청과 공감

- ①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 ② 상대방이 전한 메시지를 잘 이해하려는 것을 관심기울이기라고 할 수 있으며 '경청'과 '공감'이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③ 경청

- ◆ 단순히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주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 ◆ 이야기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감정, 태도, 행동, 표정까지 듣는 것을 의미한다.
- ◆ 이를 위해서는 약간 앞으로 굽히기, 시선의 접촉, 즉각적인 언어 반응 등이 필요하다.
- ◆ 적극적인 경청기술로는 명료화, 바꾸어 말하기, 반영, 요약, 침묵의 탐색과 같은 상담기술을 들 수 있다.

④ 공감

- ◆ 상대방의 주관적 경험과 감정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의미를 포착하여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 ◆ 이는 상대방의 이야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비언어적 단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을 통해 전달된다.

- ◆ 공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경험기법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I-Massage(나 전달법)

- ① 우리의 대화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보다는 비난이나 화를 내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 전달법을 활용하는 것이다.
- ② eg. 남편이 늦은 경우 대개 아내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또 늦었네, 전화 한 번 해주면 손가락이 부리지나.”
 - ◆ 사실 이 경우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걱정하였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다.
 - ◆ 또한 이 경우 대화의 주제가 상대방의 행동이 잘못되었다는데 초점이 있다.
 - ◆ 이런 대화로는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할 뿐이다.
 - ◆ 핵심은 남편이 늦게 오면서 연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를 ‘너가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 전달법(I-Massage)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 ◆ (나 전달법) “당신이 늦는다고 전화를 하지 않을 때 (나는) 당신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화가 나게 되요.”
 - ◆ 나 전달법은 감정의 주체가 자신이 된다.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 ◆ 상대방은 화자의 감정을 이해하게 된다.

(4) 전화, 편지, 방문, 가족의례 활용

- ① 현대사회는 가치나 생활양식이 급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세대 간 고리감이 가속화되고 있다. 가족복지사는 이런 세대 간 고리에 대해서 개입하여 세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 ② 전화는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세대 간 이어주기 매개체가 될 수 있다.
- ③ 편지 쓰기를 주저하지만 사용할 경우 가장 강력한 세대 간 이어주기 매개체가 되기도 한다.
- ④ 가족의례는 가족으로서 정서를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관례화된 패턴을 깨고, 가족들이 의미 있는 식사 자리를 갖는 등 가족의례를 갖게 한다.

(5) 의사소통 입장

- ① 가족 구성원은 의사소통을 할 때 다양한 입장을 취하게 된다.
- ② 의사소통 입장에는 유형별로 계산적이거나 따지기만 하는 유형, 책망하거나 공격하는 유형, 저자세이거나 어물쩍한 유형, 주의가 산만하거나 조종하는 유형, 솔직하고 분명한 유형 등이 있다.
- ③ 가족 구성원에게 여러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각 입장에 대한 감정을 서로 나누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 의사소통 입장이다.
- ④ 이런 경험을 통해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소통 방법을 배우고 인식하게 된다.

3) 외부환경에 대한 개입

(1)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 ① 지역사회 내에는 여러 서비스 기관이 있다. 하지만 문제를 가진 가족은 이들 서비스에 대해서 때로는 배제되어 있거나 때로는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②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 기관과 클라이언트 가족의 문제를 파악하여 자원을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즉, 배제되었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중복되었던 것에 대해서는 조정하여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사회복지사는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신뢰감 있고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2)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 ① 사회복지사는 때로 가족과 지역사회 자원 간의 관계를 재수립하고 재규정하기 위하여 가족의 대변자 역할을 하게 된다.
- ② 사회복지사는 단순히 가족을 자원에 의뢰하기보다는 역할모델과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다.

(3) 가족 관계망 개입

- ① 사회복지사는 관심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관계망을 변화의 표적이나 자원으로 인식하고 가족 관계망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 ② 가족, 친구, 이웃, 동료의 관계망 속에 있는 에너지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다.
- ③ 가족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완화하는데 필수적인 지지와 만족, 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 ④ 관계망 개입을 위하여 지역사회 전문가들과 함께 팀접근을 시도한다.

(4) 의뢰

- ① 때로는 가족 문제의 복합성 때문에 구성원 개개인을 전문가나 기관에 의뢰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 ② 의뢰에 대한 결정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해야 한다.
- ③ 사회복지사는 기관이 만들어 놓은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 종결

1) 종결의 유형

(1) 종결의 의미

- ① 가족복지실천의 마지막 단계는 종결이다. 종결은 원조를 받는 가족이나 개인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된다.
- ② 종결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욕구나 문제를 다루는 것의 목표가 이루어져 더 이상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다는 합의적인 판단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 ③ 종결은 계약에 의한 종결, 상황에 의한 종결, 일방적 종결이 있다.

(2) 계획에 의한 종결

- ① 원칙적으로 개입계획을 수립할 때 종결의 시점도 함께 고려하게 된다.
- ② 사회복지사는 가족의 문제, 개입방법, 전략을 고려하여 초기 단계에 미리 가족에게 종결 시기를 알려주며, 그 시기가 되었을 때는 다시 종결을 상기시키고 종결 과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게 된다.

- ③ 미해결문제가 남아 있을 때는 종결 시기를 늦출 수 있지만 가족이 문제를 스스로 다룰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종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런 경우 가족 구성원은 성취감이나 자유로움 같은 긍정적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 ④ 가장 바람직한 종결은 계약에 의한 종결이다.

(3)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서 갖는 종결

- ① 전문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족 문제에 진전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② 이 경우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도 있다.
--> 사회복지사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 아니면 가족이 협조하지 않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 따라서,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아니란 점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원조하는 자일뿐이다. 그리고 모든 원조가 다 성공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 ③ 가족 문제에 진전이 없을 경우 이것을 주제로 가족과 개방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
- ④ 이런 과정을 통해 사회복지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불만이나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고, 종결이나 의뢰와 같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 ⑤ 이런 절차를 잘 다루면 가족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학습하는 효과도 있다.

(4) 가족 구성원이 비협조적이거나 저항이 있어 갖는 종결

- ① 초기 단계에서 이미 가족 구성원 전체와 계약을 수립하지만 실제 중요한 개입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이 협조적이지 않거나 저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② 이때 저항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저항이라기보다는 기존의 안정적인 것을 변화하기 싫어하는 균형(평형)에 의한 저항일 수가 있다. 즉, 변화에 대한 저항일 수가 있다.
- ③ 이럴 경우 클라이언트 가족에게 종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을 알려주되 그동안 변화된 것과 성취한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 이렇게 하는 것은 가족 스스로가 종결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5) 일방적 종결

- ① 일방적 종결은 클라이언트 가족이나 사회복지사 중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종결을 하는 경우이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종결이며 그중에서도 사회복지사에 의한 일방적 종결은 클라이언트 가족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 ② 클라이언트 가족이 계약이후 개입과정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참여를 거부하여 종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문제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종결이지만 사회복지사나 기관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한다.
- ③ 사회복지사가 갑자기 이직·사직하거나 사망함으로써 또는 사회복지사가 갑자기 문제를 다루지 않음으로 일어나는 종결이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종결이다.

2) 종결과제

(1) 종결에 대한 준비

- ① 종결을 앞두고 사회복지사는 자신의 감정을 되돌아보고 종결에 직면할 필요가 있다.
 - ◆ 전문직이지만 사회복지사도 일정기간 친밀하고 강렬하게 이루어지는 실천과정을 종결하면서 상실감, 죄책감, 분노 등 다양한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 ◆ 전문가도 이런 일은 힘들다. 따라서 이런 감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직면해야 한다.
 - ◆ 그렇지 않으면 종결을 연기하거나 종결에 대해서 냉담하고 사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정적 태도를 취할 수 있다.
- ② 가족 구성원이 종결에 어느 정도 가까워지면 종결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지에 대해서도 준비해야 한다.

(2) 목표 및 변화에 대한 평가

- ① 종결단계에서는 가족 문제에 대한 초기 계획의 목표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 ② 전반적인 만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가족 구성원이 그동안 느낀 점이나 만족한 점 그리고 기대에 미치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서 솔직하고 개방적으로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 ③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척도나 측정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사회복지사의 실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할 시간을 마련하여 전문가 자신의 입장을 성찰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3) 종결과 관련된 정서적 문제

- ① 종결 시 클라이언트는 상실감, 두려움, 의존, 슬픔, 자유로움, 성취감 등 복합적인 정서를 경험할 수 있다.
- ② 이런 정서는 때로는 가족이 새로운 문제를 표현함으로 종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회복지사와 개입관계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경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 ③ 이럴 경우 사회복지사는 가족과 함께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종결하도록 해야 한다.
- ④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정서적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 이런 정서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이런 정서도 받아들이고 다뤄야 한다는 걸 알게 된다.

(4) 변화의 유지 및 사후관리

- ① 실천과정 동안 성취한 변화와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하다.
- ② 성취감을 갖게 하는 것은 종결 이후에도 지속적인 변화를 갖는데 중요하다.
- ③ 변화를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 ④ 사후지도를 할 때 지속적인 변화에 대해서 점검하고 변화에 대해서 격려한다.

(5) 의뢰

- 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사, 출산, 이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종결을 하게 될 때는 클라이언트를 의뢰해야 한다.
- ② 특히, 클라이언트가 전문적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특정 개입기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합한 전문가나 기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서비스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 종결진행

- ① 리사이클을 한다. 리사이클은 중요한 사건을 재검토하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하여 가족은 문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갔는지 이해하게 된다. 또는 추가적인 문제가 드러나기도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의뢰 등을 고려해 본다.
- ② 변화에 대한 자각을 유도한다. 작은 변화가 이루어지면 변화는 생성적이어서 또 다른 변화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변화에 대해서 가족 구성원이 인지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유지하도록 한다. 변화가 일어났던 시점이나 방법에 대해서 자각을 갖게 하여 또 다시 그런 상황에 접하게 될 때 변화기술을 스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진전을 견고하게 한다. 종결은 끝이 아니라 전환이다. 따라서 성취한 것을 바탕으로 더 발전해 나가도록 격려한다.
- ④ 종결 이후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가족을 준비시킨다.

7주차 2차시 : 가족복지실천과정: 평가

[학습 내용]

1. 평가의 개념
2. 평가의 종류

[학습 목표]

1. 평가의 개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평가의 종류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1. 평가의 개념

1) 평가의 개념

(1) 평가의 의의

- ① 사회복지 분야에서 평가는 기관의 계획이나 정책 혹은 프로그램에 전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 ② 평가는 단지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도 아니며 집단의 효과성이나 프로그램의 사명을 테스트하는 것도 아니다.
- ③ 평가는 보다 나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영향을 점검하고 어떠한 부분이 수정되어야 하고 제거되어야 하는지 파악하는 방법이다.
- ④ 가족복지실천에서 평가란 가족복지실천 활동이 효과적이었는지 그리고 효율적이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 ⑤ 개입이 클라이언트 가족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태도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났는지, 지식이 향상되었는지, 문제가 개선되었는지 등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⑥ 또한 평가는 개입의 변화가 필요한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 ⑦ 평가에는 구조평가, 과정 평가, 결과평가가 있다.

(2) 평가에 대한 오해

- ① 일반적으로 평가를 개입이 다 끝난 후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 총괄평가를 하는 것이라면 개입이 다 끝난 후에 평가하는 것이 맞다.
--> 사람들은 총괄평가를 평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 ② 평가에는 개입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도 있다.
--> 과정평가라고 한다.
--> 이는 개입 프로그램을 어떻게 형성할까에 대한 목적을 갖고 실행하기 때문에 형성평가라고도 한다.
- ③ 사실 평가는 시작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 초기 단계에서 실시하는 '사정'도 평가의 일부이다.

- ④ 평가란, 개입 초기부터 개입을 마칠 때까지 실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평가의 필요성

(1) 클라이언트 측면

- ①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 클라이언트가 호소하는 문제나 욕구에 대해서 개입이 이루어졌는지를 판단하게 한다.

- ② 클라이언트에게 효율적인 개입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준다.

--> 클라이언트에게 일어난 효과를 얻기 위하여 효율적이었는지를 판단하게 한다.

--> 아무리 효과가 좋아도 비효율적이면 자원의 한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동일한 결론에 이를 때 가능한 한 적은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의 속도조절을 할 수 있게 해준다.

--> 개입계획을 세울 때 개입과정에 대한 계획이 세워지지만 완급조절은 필요하기 마련이다.

--> 사례회의 등을 통하여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것 역시 평가라고 할 수 있다.

- ④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의 종결을 파악하게 해 준다.

-->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는지 또한 앞으로 클라이언트가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판단하여 종결에 대한 결정을 하는 자료로 삼을 수 있다.

(2) 사회복지사 측면

- ① 사회복지사의 '책무성'을 다했는지 점검하게 한다.

--> 사회복지사의 '책무성'이란 클라이언트의 문제에 즉응하는 개입을 해서 문제를 해결했는지로 판단할 수 있다.

- ② 사회복지사의 개입 활동에 대해서 '과학성'을 드러내 준다.

--> 과학성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개입이 이루어졌는가를 보는 것이다.

--> 사정평가에서부터 과정평가, 결과평가 모두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개입 활동에 대해서 과학적인 개입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 ③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이 제대로 드러났는지를 점검하게 한다.

--> 사회복지사가 전문가답게 개입을 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책무성을 다 했는가를 나타난다.

--> 사회복지사 자격이라는 전문자격증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과학적인 조사를 통하여 전문성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면 전문가로서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 ④ 결국 사회복지사의 책무성, 과학성, 전문성은 결국 평가조사라고 하는 사회조사와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자료 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등에 대해서 전문적 기술을 가져야 한다.

(3) 기관 측면

- ① 기관 측면에서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

--> 평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준다.

- ② 평가를 통하여 자료가 생성되고 축적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

- > 이런 자료의 집적은 기관의 역사가 된다.
- > 뿐만 아니라 기관에서 사용하는 이론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새로운 이론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
- ③ 기관의 개입이 과학적이었는지 증명하는 자료가 된다.

2. 평가의 종류

1) 구조평가

- ① 구조란 서비스 간의 조직된 형태를 의미한다.
- ② 또한 클라이언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서비스를 체계화하고 조직하는 능력을 이른다.
- ③ 구조평가는 제공된 서비스 간의 조직화된 형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 ④ 구조평가에서 주로 살피는 것은 사례관리에 동원된 자원, 기관의 신뢰도와 역량, 사례관리자당 사례 수, 행정적 지원 등을 포함한다.
- ⑤ 사례관리 구조의 질을 결정하는 필수요소
 - ◆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원이 포함된다.
 - ◆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가격, 교육, 슈퍼비전, 전문가로서의 훈련수준 등이 포함된다.
 - ◆ 사례관리자의 기능수행 능력이 포함된다.
- ⑥ 결국 구조평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요소의 질을 평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요소가 현재 클라이언트이 문제해결과 관리에 적절하고 어떤 요소가 부족한지 점검하고 확인해 나가는 것입니다.

2) 과정평가

- ① 과정평가는 상담 서비스가 어떻게 제공되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 ② 과정평가는 결국 평가를 통하여 서비스를 이루어나가기 때문에 형성평가라고도 할 수 있다.
cf. 모든 과정 평가는 형성평가는 아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과정평가와 형성평가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
- ③ 평가의 과정에서는 자원이용이나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 수단 등의 사용 정도, 유용성 등을 측정한다.
- ④ 엄밀한 의미에서 실천과정 중의 클라이언트나 가족 구성원 또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들의 모니터링이나 피드백 등도 과정평가라고 할 수 있다.
- ⑤ 사례관리의 기초선 역할을 하는 과정평가는 실천지침이 있다고 볼 때 표준화된 과정이나 매뉴얼에 기초한 실천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⑥ 서비스 실천 중에는 사회복지사의 민감성이 요구됨으로 표준화된 기준이 마련될 경우 실천 평가는 매우 쉽다.
--> 왜냐하면 표준화된 과정이나 매뉴얼은 사례관리자의 통찰이나 주관적 판단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모호한 평가기준을 좀 더 가시적이고 분명한 자료로 제시할 수 있어서 누구나 기본적인 사례관리의

질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표준화된 과정이나 매뉴얼에 너무 고착되어 실질적이지 못하고 형식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 따라서 표준화된 과정이나 매뉴얼에 대하여 얼마나 정교하고 적절한지 평가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3) 결과평가

- ① 종결을 한 후에 하는 평가를 총괄평가라고 한다.
- ② 총괄평가는 효과성과 비용에 관한 내용, 서비스 이용 수준에 관한 내용, 전체적인 기능 수준과 능력, 가족 기능의 수준, 삶의 질 수준 등이 평가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③ 궁극적으로 사회복지실천의 질은 결과평가를 통하여 가늠된다.
- ④ 다만, 기준선 측정이 없거나 측정 도구가 미리 규정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주관적 평가가 될 가능성이 높고 정밀성도 떨어지게 된다.
- ⑤ 일반적으로 결과평가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평가지표로 삼는다.
 - ◆ 비용 효과성과 비용 억제 등 비용에 관한 내용
 - ◆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포함한 전체적인 기능 수준과 능력
 - ◆ 비공식적인 보호 또는 친밀도와 같은 가족 기능
 - ◆ 자율성은 물론 심리적인 안녕과 만족 등의 삶의 질
 - ◆ 응급실 혹은 재가 서비스 등 다양한 이용 수준
- ⑥ 여러 가지 결과평가
 - ◆ 총괄평가 – 모든 것을 평가하는 것이다.
 - ◆ 성과평가 – 개입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에 대한 평가
 - ◆ 산출평가 – 개입으로 말미암아 산출된 결과들. eg. 프로그램 참가자수, 프로그램 담당자 투입량 등
 - ◆ 효과성 평가 – 결과의 효과적인 측면
 - ◆ 효율성 평가 – 비용편익분석이나 비용효과분석
cf.비용편익분석 – 예상수익을 예상비용으로 나눈다.
비용효과분석 – 프로젝트에 의한 경제효과를 화폐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다.

4)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 평가

- ① 서비스의 지원계획, 서비스 지원계획의 이행, 이용자에게 전달되는 서비스와 지원의 효과에 대한 이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 ② 서비스 이용자의 표출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된 프로그램과 관련된 지원과 과정, 결과, 효과성, 사회복지사에 대한 만족도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 ③ 서비스의 품질을 어떻게 평가할까?

- ◆ 가족복지실천 서비스는 물리적 생산품과는 달라서 서비스의 품질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
 - ◆ 서비스의 품질은 결국 이용만족도를 통하여 평가하게 된다. 서비스 품질이 높으면 만족도가 높을 것이란 전제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 ◆ 다만, 서비스 만족도 평가가 객관적이기 위해서는 조사 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해야 한다.
- ④ 만족도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5) 평가의 수준

(1) 평가의 수준

- ① 평가의 수준은 각 항목을 평가할 때 항목별 적용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②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하게 된다.
 - ◆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충분한 합의 과정을 거쳤는지?
 - ◆ 상담 서비스 과정에 투입된 자원은 적절했는지?
 - ◆ 마무리 단계에서 도출된 결과에 클라이언트가 만족하는지?

(2)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가족 모두의 참여 노력

- ① 상담 서비스 전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지속해서 파트너십을 유지해야 한다.
- ② 이들이 함께 해결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 ◆ 무엇을 문제로 규명하고 어떤 문제를 먼저 해결한 것인지?
 - ◆ 어떻게 해결하고 어떤 자원을 투입할 것인지?
 - ◆ 어떠한 목적으로 서비스관리를 수행할 것인지?
- ③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 속에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는 자신이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했는지를 회고하고 점검하며 평가한다.
- ④ 또한, 주체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결정했는가 등을 회고하고 점검하며 평가하게 된다.

(3) 결과

- ① 결과에 대한 수준은 다음과 같은 것을 주로 본다.
- ②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궁극적으로 얻어 내고자 하는 것인지를 평가한다.
- ③ 또한, 기대했던 만큼의 수준인가를 평가한다.

(4) 적합성

- ① 적합성에 대한 수준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점검한다.
- ② 클라이언트와 함께 달성하고자 했던 결과물을 얻기까지 투입된 자원의 내용과 질과 양이 적합했는지를 평가한다.

9주차 1차시 : 가족치료와 다세대 가족치료 모델

[학습 내용]

1. 가족치료 개괄
2. 다세대 가족치료의 방법

[학습 목표]

1. 가족치료에 대한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다세대 가족치료에 대해 주요개념, 치료목표, 치료기법을 설명할 수 있다.

[본학습]

1. 가족치료 개괄

1) 가족치료의 개념 및 필요성

(1) 가족치료의 개념

- ① 가족치료는 개인 병리적 모형에서 벗어나 관계와 관계의 역기능을 파악하는 대인관계적 모형에서 접근하는 것이다.
- ② 문제행동은 가족의 상호작용, 생육사(life history), 그리고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 ③ 가족치료는 가족구성원이 보이지 않는 문제행동을 그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을 둘러싼 가족이라는 맥락 속에서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 ④ 가족치료를 개인을 둘러싼 환경요소 중에서도 특히 가족을 치료적 매개로 사용하는 기법이다.
- ⑤ 베이트슨의 '마음의 생태학'(1972)이 출간되면서 "대상에서 관계로의 이동"이 가족치료를 발달하게 하였다.
- ⑥ 개인심리치료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반면 가족치료는 대부분 단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특성을 갖는다.

(2) 가족치료의 필요성

- ① 가족치료는 전통적인 개인 심리치료가 다루지 못했거나 그 접근으로는 한계가 있었던 문제와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인치료의 주류 밖에서 몇 가지 새로운 움직임이 발생하였다.
- ② 집단역동 운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행동은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관점이 발전하였으며, 인간행동은 기계적 인과관계보다는 역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관점이 발달하였으며, 집단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 주목하게 되었다.
--> 가족 간의 의사소통이나 가족 간의 관계를 보는 관점의 발달로 가족치료를 촉진시켰다.
- ③ 아동지도 운동이 발달하면서 아동기 문제는 부모와 연결된다는 점이 강조되면서 가족치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 ④ 부부상담의 필요성이 확산하면서 다시 심리치료는 문제를 가진 자와 가족을 분리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가졌지만 이들 주류가 아닌 상담자들은 부부가 함께 상담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데서 가족치료가

발달하게 되었다.

- ⑤ 19세기 말 사회복지실천이 발달하면서 개입의 초점을 개인이 아니라 가족에게 두게 되었다.
- ⑥ 체계론적인 사고가 발달하면서 세계를 모든 현상과의 상호 연관성과 상호 의존성으로 파악하게 되면서 기계론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새로운 시각의 치료가 나타나게 되었다.
- ⑦ 세계 제2차 대전 이후 가족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가족치료가 발달하게 되었다.

2) 가족치료의 개괄

(1) 가족치료의 발달사



① 파종기 (1940년대)

- 가족치료는 20세기 중반까지 서구를 지배하던 기계론적 세계관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많은 생명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발전되었던 체계이론과 사이버네틱스의 영향으로 발전하였다.
- 베이트슨이 사이버네틱스의 원리 중 중요한 게 피드백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접목하여 “서로 연결 짓는 패턴”이라는 개념을 가족치료가 태동하게 되었다.

② 모종기 (1950년대)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사회는 전쟁 이후 재결합한 가족의 스트레스 증가, 전쟁으로 인한 결혼의 지연, 종전 후 베이비붐 등 가족생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면서,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안정성 회복을 통한 사회적 안정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 당시 개인과 자아를 강조한 정신역동적 심리치료가 표준적 역할을 했으나 정신분열증은 전통적인 치료방식으로 해결이 어려웠고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족에 대한 관찰과 연구가 정당화될 수 있었다.
- 정신질환의 영향으로 가족관계가 인정되는 시기가 되었다.
- 보웬이 활동한 시기이다.

③ 발아기 (1960년대)

- 가족치료가 하나의 독립된 전문 분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 미국 캘리포니아주 팔로 알토(Palo Alto)에는 가족치료에 관심을 둔 전문가 집단이 결집하였으며, 여기에 위치한 정신건강연구소(Mental Research Institute: MRI)에서 가족치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 사티어가 활동한 시기이다.

④ 개화기 (1970년대)

- 베이트슨의 ‘마음의 생태학’이 출간된 시대이다(1972년).
- 특정 모델을 대표하는 센터나 기관을 중심으로 가족치료를 발달하였다.
- 가족치료가 심리치료의 대안으로 매우 효과가 있다는 흥분에 찬 확신이 전염되는 시기이다.

- 이 시기까지 발달한 대표적인 가족치료 모델은 다세대 모델, 구조적 모델, 경험적 모델, 전략적 모델이었다.

⑤ 전환기 및 통합기 (1980, 90년대)

- 어느 특정한 모델로는 가족치료의 한계가 있음을 느끼면서 각 모델의 통합에 관심을 갖게 된다.
- 후기모델이 출현하게 되는데 해결지향모델, 해결중심모델, 이야기 치료, 협력언어체계모델 등이다.
- 후기모델들은 포스트모더니즘과 구성주의의 영향으로 이전의 정상성 여부 및 역기능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가족이나 관계를 어떻게 경험하는지, 자신의 경험의 세계에 대해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지 등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2) 가족치료의 문제에 대한 인식

① 가족의 패턴

- 부모들은 이미 자녀가 태어나기 전 가족의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 부모들의 행동방식이나 의사소통, 가족의 규칙, 역할, 세력에 대한 분배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 가족의 이러한 환경을 변화시켜 가족원이 갖는 문제나 증상을 해소할 수 있다.

② 가족의 위기

- 가족은 항상 실직, 질병, 이혼, 폭력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해 가는 연속적인 문제해결 과정 속에 있는 하나의 체계이다.
- 가족치료는 이러한 예측 불가능한 가족의 삶의 변화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해주는 역할을 한다.

③ 가족의 신화

- 가족에 대한 자동적인 사고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신화가 있다.
- 대표적인 예로 '전통적인 가족은 현대사회 가족보다 더 안정적이고 화목한 집단이다' 등이 있다.
- 가족치료는 가족 문제에 대한 좀 거 객관적인 인식에서부터 출발하며, 가족의 신화, 비밀을 개방해 주는 기능을 한다.

④ 가족의 상호 관계성

- 가족의 역할과 기능은 일반적인 관계보다도 각 구성원에게 훨씬 더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 마치 천장에 달린 모빌처럼 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가족은 한 사람의 변화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고, 상호 순환적으로 영향을 끼친다.
- 외부 환경에서의 자극은 한 가족원뿐 아니라 전체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 가족치료는 개인 치료와 달리 가족 전체 체계 안에서 가족의 상호 관계성 및 외부의 자극에 대한 가족의 대응을 탐색하여, 가족 안에서 가족과 함께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시도이다.

⑤ 가족의 역사성과 세대 간 전승

- 가족 안에서 한 자녀의 출생은 개인의 출생으로 끝나지 않고 부모, 조부모 등 가족들의 연계성과 혈연집단의 영속성을 승계하는 것을 내포한다.
- 개인의 가치나 행동방식은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요인이 아니라 세대를 반복하면서 부모자녀와의 교류를 통해 전승된 가족 역사의 산물이다.
- 따라서 많은 가족들의 문제들은 적어도 삼 세대를 통한 가족의 역동적 패턴 속에서 이해되는 것이 필요하다.

2. 다세대 가족치료의 방법

1) Bowen의 다세대 가족치료의 주요개념

(1) 자기분화

- ① 자기분화는 Bowen 이론의 핵심개념으로 정신내적인 동시에 대인관계적 개념이다.
- ② 자신과 타인의 구분, 정서적 과정과 지적 과정을 구분하는 능력과 확고한 자아와 거짓자아의 구분이다.
- ③ 자기분화가 되지 못한 사람은 자기감정이 넘쳐 객관적인 사고를 거의 하지 못한다.
- ④ 주위 사람의 감정에 지배받아 맹목적으로 추종하거나 분노를 느끼며 배척한다.
- ⑤ 자기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이룬다. 정서적 충동에 저항할 수 있는 자제력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어 가족의 정서적 혼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2) 삼각관계

- ① 가족구조 안에서 두 사람 간의 갈등 및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가족의 다른 구성원을 끌어들여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 ② 이 관계는 고정적이지 않으며 사이가 멀어질 때 발달하기 쉽다.
- ③ 두 사람의 관계가 문제가 없을 때는 안정되지만 불안이 일어나면 약한 사람이 삼각관계를 만들어 안정을 되찾으려 한다.

(3) 핵가족 정서과정

- ① 해소되지 못한 불안이 개인에게서 가족에게로 투사되는 것이다.
- ② 자신의 원가족에서 자기분화가 잘 안 된 사람은 결혼 후 부부관계에서 강한 융합을 이루려는 경향이 있다.

(4) 가족투사 과정

- ① 부모가 자신의 미성숙함과 분화 부족 등의 문제를 자녀에게 전달하는 과정이다.
- ② 어머니가 자신의 불안을 자녀에게 집중시키면, 자녀의 기능은 저하되고. 이러한 자녀의 미발달은 어머니로 하여금 더욱 통제할 구실을 제공한다.
- ③ 어머니는 이러한 자녀에게 과도한 관심을 나타냄으로써 불안에서 벗어나지만, 자녀로 하여금 정서적으로 더욱 문제를 드러내게 한다.

(5) 다세대 전수과정

- ① 부모와 분화가 덜 된 사람은 자기 부모와 마찬가지로 분화수준이 자기와 비슷한 배우자를 선택하게 된다.
- ② 자녀의 자기분화수준이 현재 속해 있는 세대에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전개되어 온 투사과정에서 형성된 것이다.

(6) 출생순위

- ① 출생순위의 개념은 출생순위에 따라 고정된 성격 특성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 ② 부모와 자녀가 맺는 복잡한 삼각관계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 ③ 장남/장녀는 다른 형제보다 권력과 권위를 더 추구하며, 부모와 강한 감정적 유대관계를 가지고 삼각관계에 빠질 위험이 높으며, 자기분화수준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 ④ 다른 형제들은 집안에서 약자로서 자기 지위에 만족하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외부의 경험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독립적이며 분화수준도 높다.

(7) 정서적 단절

- ① 부모와의 관계에서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정서적 애착을 처리하는 과정으로 격리, 위축, 멀리 떠남, 부모에 대한 거부 등의 방법을 사용한다.
- ② 결국, 정서적 단절은 세대 간의 미분화를 처리해 나가는 과정이다.
- ③ 세대 간의 정서적 융합이 심할수록 단절이 일어나는 경향이 높다.

(8) 사회 정서적 과정

- ① 사회적 불안의 증대가 가족 내에서 기능적 분화수준을 점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
- ② 사회에서 일어나는 정서적 과정이 가족 내에서의 정서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2) 다세대 가족치료의 치료목표

- ① 불안을 감소시키고 자기 분화수준을 높이는 것이다.
 - ② 자기분화는 치료목표인 동시에 성장목표이다.
 - ③ 분화되지 않는 가족자아집합체에서 자신을 분리시켜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기충동적, 정서적 사고와 행동에서 자유를 획득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다.
- ※ Bowen은 증상이 무엇인지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제시된 임상적 문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개인 또는 부부를 대상으로 하여 불안감소와 자기분화촉진과 탈삼각화를 치료 목표로 한다.

3) 다세대 가족치료의 치료기법

(1) 가계도

- ① Bowen의 다세대 가족치료에서 사정평가에서 사용하는 도구이다.
- ② 한 사람의 가족 사이의 관계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성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특정 형질이나 유전병의 유무 등을 표시한다.
- ③ 가계도에 사용되는 기호는 정상의 남자는 네모, 정상의 여자는 동그라미이며, 네모와 동그라미를 선으로 연결하는 것은 결혼을 의미한다. 또한 정상의 남자나 여자를 표시하는 네모와 동그라미와 색이 다른 네모와 동그라미는 특정 형질을 나타낸다.
- ④ 가계도는 사정을 위하여 사용하는 도구이지만 실제 상담이나 가족치료 현장에서는 가계도를 그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치료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2) 삼각관계로부터 분화

- ① 치료자가 의도적이며 일시적으로 삼각관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벗어나기도하면서 가족의 삼각관계를

깬다.

- ② 치료자는 자기분화수준이 높아야 한다. 그래야 정서적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3) 치료적 삼각관계

- ① 두 성인과 치료자로 이루어진 삼각관계에서 작업하는 것이다.
- ② 두 사람의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해 치료자를 자동적으로 삼각화 과정에 끌어들이려고 할 때 치료자가 정서적으로 말려들지 않는다면, 치료적 삼각관계 안에서 가족체계는 다시 평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된다.
- ③ IP(Identified Patient/Index Person)가 증상을 가진 아동일 때도 Bowen은 아동을 치료대상으로 삼는 대신, 부모의 결혼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가정을 부모가 수용하기를 요구한다. 부부 중 좀 더 성숙하고 분화된 쪽을 택하여 일정기간 동안 개인치료를 통해 정서적으로 엉킨 유형을 깨뜨릴 수 있도록 돋기도 한다.

(4) 코칭(coaching)

- ① 치료자는 내담자가 직접 본인의 가족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조언한다.
- ② 친구와 달리 전문적인 코치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언을 통해 개인의 분화를 돋운다.
- ③ 코칭은 치료자가 내담자의 삼각관계에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가족 스스로 가족의 정서과정을 이해하고 개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다.

(5) 과정질문

- ① 과정질문(process question)은 내담자가 감정을 가라앉히고 정서적 반응에 의해 유발된 불안을 낮추며 사고를 촉진하는 질문기법이다.
- ② 내담자의 감정이나 정서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인지에 초점을 두며, 내담자가 어떤 방식으로 관계유형에 관여하는지를 묻는다.

eg.

치료자 : 남편이 술을 마시면 부인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인지에 초점)

아 내 : 화가 나죠.

치료자 : 남편이 술을 마시는 데 부인이 한 역할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 내 : 모르겠는데요.

치료자 : 남편이 당신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까?

아 내 :

출처: 정문자 외

(2008), p.157-158

- ③ 이런 질문과정을 통하여 내담자가 가족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자각하게 하고 상황을 개선하려면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통찰을 얻게 한다.

(6) '나의 입장' 기법

- ① '나의 입장'(I-position) 기법은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지적하기보다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 ② eg. 당신 왜 이렇게 게을러? --> 당신이 나를 좀 도와주었으면 좋겠어.
- ③ 이 기법은 정서적 충동에 의해 반응하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치료자도 치료과정에서 내담자에게 '나의 입장'을 취한다.

9주차 2차시 :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과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

[학습 내용]

1. 구조적 가족치료의 방법
2. 경험적 가족치료의 방법

[학습 목표]

1. 구조적 가족치료 모델의 주요개념, 치료목표, 치료기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경험적 가족치료 모델의 주요개념, 치료목표, 치료기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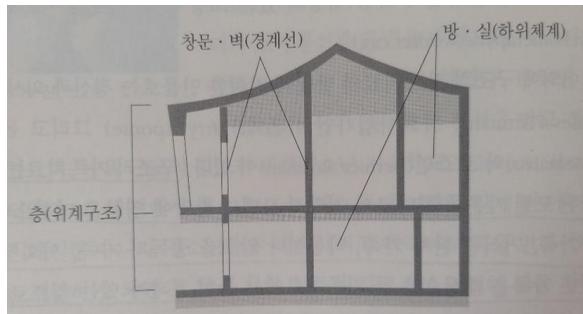
[본학습]

1. 구조적 가족치료의 방법

1) Minuchin의 구조적 가족치료의 주요개념

(1) 가족구조

- ① 가족구조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집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



집의 물리적 구조	가족 상호작용의 구조
방, 실	⇒ 하위체계
벽, 문	⇒ 경계선
충	⇒ 위계구조

그림출처: 정문자 외(2008), p.200

- ②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은 집이라는 물리적 구조 공간 안에서 안팎으로 오고 가는 언어적 메시지와 비언어적 메시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 ③ 결국 가족구조란 “가족 구성원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조직화하는 하나의 보이지 않는 기능적 요구”(Minuchin, 1988)이다.
- ④ 가족구조란 반복적이고 체계화되어 있어서 예측할 수 있는 가족의 행동 양식이다.
- ⑤ 가족의 상호교류 패턴을 유심히 관찰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누구의, 얼마나 자주 관계를 맺는지, 그래서 그들 간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지 파악할 수 있다.

(2) 하위체계

- ① 가족을 하나의 체계로 볼 때 가족체계 안에는 다양한 하위체계가 존재한다.
- ② 건강한 가족에서는 하위체계의 구성원이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한다.
- ③ 부부 하위체계
- 부부 하위체계는 두 사람의 결혼으로 형성된다.

- 부부체계가 건강하게 기능하기 위해서는 각자 원가족 영향에서 어느 정도 독립적이고 적절히 분화되어야 한다.
- 부부 하위체계의 주요과업은 협상과 조정이다.
- 부부 하위체계의 기능은 성, 사랑, 친밀감 등과 연관되며, 그 기능을 다 하기 위해서는 가족 내 다른 체계에서 적절히 보호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 전통사회에서는 부부유별을 강조하고 자녀 출산과 양육을 강조하는 등 부부 하위체계의 기능이 사실상 강조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날 빈 등지 시기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부부 하위체계의 기능이 더없이 중요하게 되었다.

④ 부모 하위체계

- 핵가족에서 부부와 부모는 동일한 사람이지만 역할이나 업무는 다르다. 부부 하위체계는 자녀를 포함하지 않지만 부모 하위체계는 자녀가 있을 때 형성된다.
- 부모 하위체계의 기능은 자녀양육, 지도, 통제와 연관된다.
- 건강한 가족에서는 부모 하위체계와 부부 하위체계가 분리되어 존재한다.
- 부모 하위체계의 기능은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자녀 발달단계의 변화에 따라 가족은 적절히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⑤ 부모-자녀 하위체계

- 부모-자녀 하위체계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체계(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 어머니와 아들, 어머니와 딸)를 포함하며, 세대가 다른 사람으로 구성된다는 특징이 있다.
- 부모-자녀 하위체계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위계구조를 확립하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역기능적으로 될 가능성성이 크다.

⑥ 형제-자매 하위체계

- 자녀들은 형제자매 하위체계 속에서 서로 지지하고, 분화하고, 희생하는 법을 실현하고 배운다.
- 형제자매 하위체계에서 획득한 위치와 학습은 그 후에 이어지는 삶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한 예로 외동아이는 일찍부터 성인 세계에 적응하는 방법을 배울 가능성이 크므로 조숙한 발달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또래와 함께 나누고 경쟁하고 협동하는 능력은 부족할 수 있다.
- 형제자매 하위체계가 기능적이기 위해서는 부모에 대항하여 자신들만의 세계와 흥미를 개발하고 확립할 수 있어야 하며,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하고, 시행착오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3) 경계선

- ① 경계선은 보이지 않지만, 가족원 개인과 하위체계의 안팎을 구분하는 선이다.
- ② 경계선은 가족원 사이에 허용되는 접촉의 양과 종류를 규정한다.
- ③ 경계선을 통해 개인 혹은 체계 간 친밀함 정도, 정보의 상호교환 정도, 문제해결을 위해 서로 상호교류하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④ 경직된 경계선

- 독립된 태도로 서로를 대한다.
- 거리감, 소외감이 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다. 도움을 주는 능력이 부족하다.
- 충성심과 소속감이 부족하다.
- 가족의 보호 기능이 힘들다.

⑤ 밀착된 혹은 모호한 경계선

- '너의 일은 모두 나의 일이다'라는 태도이다. 너와 나가 구분이 없다.
- 개인의 정체성이 모호하다.
- 거리감이 없고 강한 소속감으로 자율성을 방해한다.
- 가족 구성원의 지지, 협동, 관여한다.
- 문제를 자율적으로 탐색하고 해결한 능력이 부족하다.
- 개인의 분화는 배신행위로 간주한다.

⑥ 명확한 경계 -----

-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다.
- 협동, 지지적이며 서로의 삶에 관여한다.
- '우리', '나 자신임'을 잊지 않는다.

(4) 위계구조

- ① 가족이 적절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위계구조가 확립됨으로써 구성원이 각자 적합한 위치에 있을 필요가 있다.
- ② 효율적인 위계구조는 가족 내 권력을 기반으로 한다. 가족 내 권력은 권위 및 책임과 관계가 있으며, 이는 하위체계의 기능 및 경계선과 관계가 있다.
- ③ 가족이 기능적이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분화된 권위를 가져야 하며, 자녀의 성장발달에 책임을 지는 부모 하위체계가 자녀 하위체계보다 위계구조의 위에 위치해야 한다.
- ④ 부모가 자녀보다 더 큰 권위와 책임을 맡아야 한다는 가족의 보편적인 위계구조가 위반되어 가족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경우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
- ⑤ 이러한 역기능은 제휴의 개념과 연관이 있다.
 - 제휴 – 가족원이 서로 연결되는 방법 또는 가족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서로 반대되는 방법으로 동맹과 연합이 있다.
 - 동맹 – 이해를 같이하는 두 사람이 제3자와 다른 공동의 이익이나 목적 때문에 공동전선을 펴는 것이다.
 - 연합 – 특정 가족원이 제3의 구성원에 대항하기 위해 맺는 동맹이다.
 - 안정된 연합 – 가족 내 한 가족원을 밀어내기 위해 두 사람이 밀착된 관계를 지속적으로 형성하는 현상이다. 연합하는 두 사람은 정서적으로 밀착되어 서로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편, 다른 대상의 되는 가족원과는 거리를 두는 관계를 맺는다. 안정된 연합이 세대를 넘어 형성될 경우 가족의 위계구조가 무너진다.
 - eg. 우리나라 고부갈등은 안정된 밀착의 전형이다. 부부관계에 시어머니가 개입하고 아들은 시어머니(엄마)와 밀착하게 되어 모든 의사결정은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하게 된다.
 - 우회연합 – 가족원 간에 갈등이 생길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다. 부부 간 갈등이 있을 때 부부 중 한쪽이 자녀와 밀착된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불안이나 우울을 달래는 경우이다. 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자녀와 밀착된 관계를 가짐으로 권위의 우위에 서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부부간의 연합이 깨어짐으로 가족의 위계질서가 깨질 수 있다.

2) 구조적 가족치료의 치료목표

- ① 구조적 가족치료에서 치료의 목적은 가족구조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 ② 가족의 경계선을 바르게 잡는다. 경계선이 경직된 경우에는 분화하도록 돋고, 경계선이 모호한 경우에는 분명한 경계선을 긋도록 한다.
- ③ 부모가 연합한다.
- ④ 부모가 연합한 모습을 보일 때 자녀들은 동년배 형제자매체계로 기능할 수 있다.
- ⑤ 부부 하위체계는 부모 하위체계와 분리되어 존재한다.
- ⑥ 치료자가 교류패턴 변화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순환적으로 계속 유지하는 구조를 변형시켜 가족 상호교류의 규칙을 재구조화한다. --> 치료자는 가족기능강화자이다.

3) 구조적 가족치료의 치료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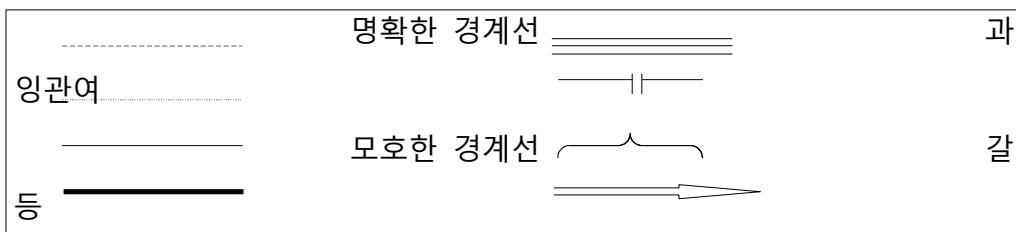
(1) 합류하기

- ① 가족의 성공적인 재구조화는 합류에서 시작된다. 합류는 치료자가 가족의 조직과 상호교류 유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가족의 강점을 경험함으로써 가족체계와 관계를 맺는 것이다.
- ② 치료자가 가족에 합류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가족 상호작용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치료자는 적응 능력이 있어야 된다.
- ③ 치료자가 가족에 합류함으로써 가족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받아들일 때 즉, 가족의 역기능 측면뿐만 아니라 기능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음을 부각하여 줄 때 가족은 편안과 안전을 느끼며 변화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된다.
- ④ 흔히 라포(rapport) 형성을 합류와 동일한 것을 이해하지만, 라포가 치료적 관계 상태를 뜻한다면, 합류는 치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치료자의 자발적 행동을 뜻한다.
- ⑤ 합류를 위한 기법으로는 유지, 추적, 모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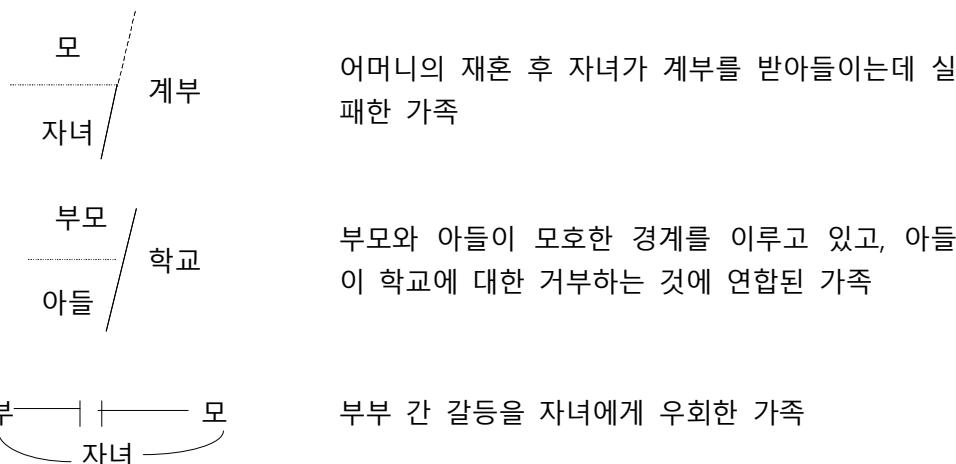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구조를 지각하고 분석할 때 가족구조를 의도적으로 지지 eg. 어머니의 지도력이 강한 가족에 합류 --> 어머니를 통해 자녀와 접촉 • 가족구성 개인의 특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 가족재구조화하는 데 사용 eg. 치료자가 형제자매 하위체계지지 --> 부부, 부모 하위체계 재구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자가 가족의 의사소통과 행동의 내용을 따라 그것이 계속되도록 지지 • 비지시적인 치료자가 가족에 합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방법 • 아내나 남편이 사용하는 용어, 의사소통패턴을 추적해 문제의 핵심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치료자가 가족의 생활방식과 정서상태에 적응하기 위해 가족이 사용하는 언어, 몸짓, 대화방식을 따라 함 • 추적과 모방도 가족재구조화에 사용할 수 있음 가족의 상호작용패턴 추적 --> 가족의 밀착된 관계의 모습을 드러냄 특정가족 구성원의 생활경험 모방 --> 치료자와 가족구성원 간 연합이 이루어짐

(2) 구조적 지도

- ① 구조적 지도는 가족의 상호작용 구조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 ② 치료자는 구조적 지도를 통해 가족구성원의 상호작용 구조를 간략히 나타냄으로써 변화과정을 평가하거나 치료목표를 설정하는데 사용한다.
- ③ 기호는 다음과 같다.



- ④ eg. 구조적 지도



(3) 가족재구조화 기법

- ① 긴장고조기법 – 가족체계 여러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긴장을 고조함으로 가족재구조화를 한다. 가장 쉬운 예로 평소 가족의 의사소통 방식을 방해하는 것이다.
- ② 증상활용기법 – 증상에 초점 맞추기, 증상을 과장하기, 증상을 재명명하기 등으로 가족구조를 새롭게 보도록 한다.
- ③ 과제부여 – 과제는 치료자가 가족의 재구조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영역을 지적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2. 경험적 가족치료의 방법

1) Satir의 경험적 가족치료의 주요개념

(1) 자아존중감

- ① 자아존중감의 형성에는 인간발달 초기에 어떤 가족구조와 어떤 부모와의 관계를 경험하는가가 중요하다.
- ② Satir는 자아존중감을 인간의 기본욕구로 간주하였다. 자아존중감은 에너지의 자원이 되는데, 인간이 자신을 사랑하고 감사를 느낄 때 에너지가 만들어지며, 에너지가 조화롭고 긍정적으로 사용될 때 주어진 상황을 더욱 창조적이며 현실에 맞게 극복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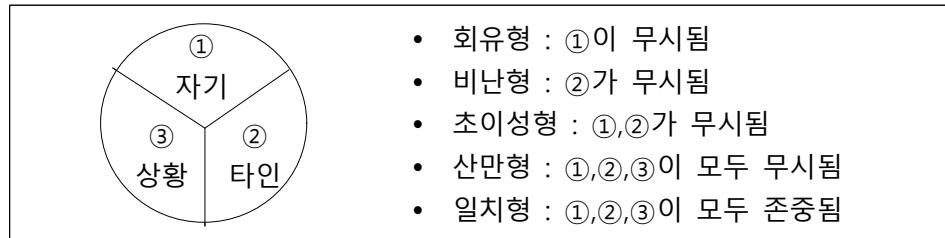
(2) 의사소통 및 대처유형

- ① 역기능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을 때 의사소통 유형이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으로 나타난다.
- ② 사티어는 자아존중감의 3요소를 자기, 타인, 상황으로 제시했는데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온전하지 못하면 역기능적인 모습을 갖는다고 하였다.
- ③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유형

	말	몸	내면
회유형	동의한다(당신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좋다. 나는 오로지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회유한다(나는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는 스스로 쓸모 없는 존재라고 느낀다. 그가 없으면 나는 가치가 없다.
비난형	동의하지 않는다(당신은 어떤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비난한다(나는 여기에서 우두머리이다.)	나는 외롭고 성공할 수도 없다.
초이성형	초합리적이다(주의깊게 관찰해 보면 여기에 누구의 손이 일을 많이 해서 닳아 있는 것을 알아낼 수 있다.)	계산한다(나는 조용하고, 냉정하며 침착하다.)	나는 상처를 입기 쉽다.
산만형	무관하다(말에 의미가 없다.)	산만하다(스트레스 상황을 회피한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없다.

출처 : 김용환 외(2019), p.221

- ④ 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 : 일치형 – 의사소통의 내용과 내적감정이 일치한다. 의사소통이 매우 진실하며 자기감정을 잘 알아차리고, 이를 적절하게 표현한다. 매우 생동적이며, 창조적이고, 유능한 행동양식을 보인다.
- ⑤ 의사소통 유형과 자아존중감 3요소의 무시된 부분



출처 : 정문자 외(2008), p.173

(3) 가족규칙

- ① 가족규칙은 일종의 명령으로써 인간이 원가족 삼인군에서 경험한 것을 내면에 지니고 있는 것이다.
- ② 가족규칙은 행동이나 반응으로 나타나며 인간대처방식의 일부가 된다.
- ③ Satir에 따르면 대부분의 인간은 비합리적인 규칙에 얹매여 비인간적인 삶을 살고 있으며, 이러한 규칙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④ 어린 자녀가 자랄 때는 규칙을 엄수함으로써 생존이 가능했다. 그러나 성인이 되어서도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비인간적인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면 이는 성인 자녀의 성장을 방해한다. 그러나 인간은 가족의 규칙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 규칙을 자동적으로 참고하거나 사용한다.
- ⑤ 가족규칙 중 개인과 가족의 역기능의 원인이 되며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은 수정되어야 한다. 규칙을 지침으로 바꾸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eg.

규칙 : 나는 어른에게 ~ 해야만 한다.

지침 1단계 : 나는 어른에게 복종할 수 있다. (강제-->선택형으로)

2단계 : 나는 어른에게 가끔 복종할 수 있다. (선택의 폭 확장)

3단계 : 나는 어른이 합리적일 때 복종할 수 있다. (가능성의 폭 확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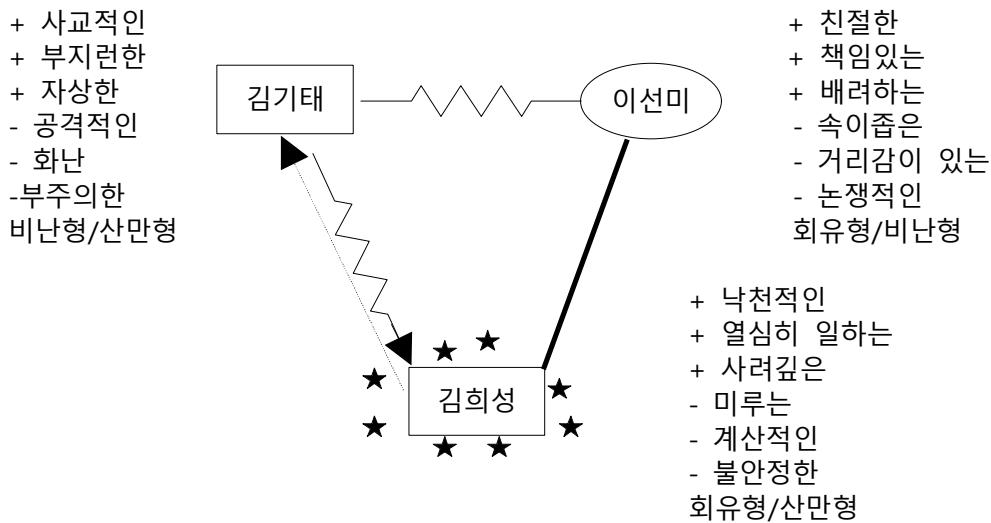
2) 경험적 가족치료의 치료목표

- ① 경험적 가족치료의 궁극적 목적은 각 구성원이 자기가치에 대한 안정된 감정을 발전시킴으로써 성장하도록 돋는 것이다.
- ② 대인관계 상호작용에서 상호존중과 신뢰를 할 수 있는 경험을 클라이언트가 직접 하도록 한다.
- ③ 가족구성원이 직접적이며 '지금-여기'에서의 만남을 통하여 성숙한다.
- ④ 잠재력이 개발된다.
- ⑤ 자신의 자아가치와 존중감을 높이고 자기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돋는다.

3) 경험적 가족치료의 치료기법

(1) 원가족 도표

- ① Satir는 내담자(client) 또는 IP(Identified Patient/Index Person)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타'(Star)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② 원가족 맥락 속에서 개인심리의 내적과정뿐 아니라 가족의 상호작용 및 가족의 역동성을 이해하고 평가하게 해 준다.
- ③ 구체적으로 이 도표를 통해 가족 구성원 성격, 자아존중감 정도, 대처방법인 의사소통 방식, 가족규칙, 가족의 역동성, 가족 내의 대인관계, 세대 간 유사점과 차이점, 사회와의 연계성 수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 ④ 작성방법은 3단계로 진행한다.
 - 1단계 : 원가족 도표 그리기 – 아버지와 어머니를 네모와 동그라미를 활용하며 그리고, 각 도형 옆에 개인 및 인구론적 정보를 기록한다.
 - 2단계 : 과거에 느꼈던 가족의 모습 그리기 – 18세 이전으로 돌아가 그때 생각했던 가족의 특성을 적되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3가지씩 적는다. 1차 대처유형과 2차 대처유형을 적는다, 관계의 양상을 표현한다.
 - 3단계 : 스타 표시하기 – 스타를 별로 표시하고, 이러한 원가족 도표의 별칭을 짓는다.



김희성(스타)의 원가족 도표 : 콩가루 집안

출처 : 정문자 외(2008), p.180

(2) 가족조각

- ① 조각은 근육과 표정으로 내적 감정을 표현함으로 개인의 내적 감정이 시각화, 표현화 되고 은밀한 생각과 느낌이 외현화된다.
- ② 한 가족 성원이 다른 가족 성원에게 느끼는 내적 정서 상태를 자세와 동작 및 소도구를 사용한 공간적으로 나타냄으로 정보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인다.
- ③ 가족조각 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가족 구성원이 각각 내면적 감정에 접함으로써 진정한 자아에 대해 알고 느끼며 새로운 대처방안을 생각해 보게 하는 것이다.
- ④ 이런 과정에서 가족의 역동성이 가시화되는데, 구체적으로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 권력구조, 경계선, 소속감, 개별화, 규칙 등을 파악할 수가 있다.
- ⑤ 문제가 있는 당사자뿐 아니라 참여하는 가족도 가족구조에 대해서 파악하게 된다.

(3) 은유

- ① 은유기법은 치료자가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간접적이고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으로, 내담자의 자아존중감이나 체면을 손상시키지 않게 되어 덜 위협적이다.
- ② 내담자가 치료자의 지시에 저항할 때 유추하거나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다룰 수 있다. 다만, 이때 은유하는 것은 원래 내용과 연결이 되어야만 한다.

(4) 명상

- ① 명상은 직관력을 사용하여 '지금-여기'에 집중하게 한다.
- ② 명상은 자존감을 고양시키고 더 이상 필요 없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우리에게 맞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

(5) 빙산기법 - 서로에게 거는 기대감이 달라서 많이 싸우는 부부들은 개인의 빙산 탐색을 통해서 과거

경험에 대한 각자의 감정과 감정에 대한 감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서로에게 가지고 있는 지각과 열망을 알게 됨으로서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상대방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시도를 할 수 있게 한다.

(6) 원인군 삼가족 치료 – 역기능적인 원가족 삼인군 관계에서 유래된 쟁점을 현재의 상황에서 이해하게 하고, 이 쟁점을 현재의 삶에 대한 방해물이 아닌 긍정적인 것으로 부각시켜 원가족 삼인군을 치유하는 것이다. 학습 삼인군 활동에서 치유될 수 있다.

(7) 부분들의 잔치: 내적 자원의 통합 – 유머와 연극, 역설을 주로 사용하여 인간의 내적 자원을 확인하고 변형하며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게 하는 모델이다.

10주차 1차시 :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 모델

[학습 내용]

1.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의 가정과 원리
2. 해결책 구축을 위한 질문기법

[학습 목표]

1.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의 가정과 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해결책 구축을 위한 질문기법에 대해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본학습]

1.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의 가정과 원리

1)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의 가정

(1)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의 발달배경

- ① 1970년대 후반 정신건강연구소(MRI)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정신역동치료와 달리 10회 정도의 짧은 기간에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 ② 상담을 초점을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해하기보다는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생각하는 방법과 그것을 실용적으로 다루는 방법을 찾는데 두었다.
- ③ MRI에서 활동하던 드세이저(de Shazer)와 버그(Insso Kim Berg)는 1978년에 MRI를 떠나 밀워키에 단기가족치료센터(Belief Family Therapy)를 설립하였고, 1982년부터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라는 이름을 사용하였고,,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 모델은 1980년대에 발전하기 시작했다.
- ④ 한국에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 모델이 소개되기 시작한 것은 1987년이었으며, 1991년 시작된 단기가족치료연구모임이 발전하여 현재의 한국단기가족치료연구소가 되었다.

(2)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의 가정

- ①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둘 때에 이점이 있다.
- ② 예외상황은 해결점을 제시한다.
- ③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설정한다.
- ④ 작은 변화는 생성적(generative)이다. 작은 변화는 큰 변화로 이끈다.
- ⑤ 협동 작업은 있게 마련이다. 내담자는 항상 협조하고 있다.
- ⑥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다.
이는 에릭슨 학파의 가정이며 정신 병리적 측면보다 건강한 측면을 강조한다.
- ⑦ 의미와 체험은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난다. 우리의 세계는 상호작용 속에서 의미를 갖고 있다.
- ⑧ 행동과 묘사는 순환적이다. 예를 들어, 자녀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옳다', '그르다' 중 어떤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대처방법이 다르다.
- ⑨ 의미는 반응 속에 있다. 메시지가 전하는 의미는 관찰자에 의해 만들어지고 내담자의 자세 자체가

절대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사소통의 책임은 내담자에게 있기보다 치료자에게 있다고 가정한다.

- ⑩ 내담자가 전문가이다. 내담자가 자기 문제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며, 많은 해결책을 시도했을 것으로 본다.
- ⑪ 내담자가 어떻게 목표를 설정하고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서 내담자의 작은 변화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관계되는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할 필요 없이 어느 한 사람이 변하면 상호작용도 변하기 마련이다.
- ⑫ 치료팀은 치료목표 설정과 그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할 의사를 가진 사람으로 구성된다.

2)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의 원리

(1)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의 원리

- ① 병리적인 것 대신에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둔다.
- ②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은 물론 증상까지도 발견하여 치료에 활용한다.
- ③ 탈이론적이며, 비규범적이며, 내담자의 견해를 존중한다. 인간행동에 대한 이론적 틀에 맞추어 내담자를 진단하거나 사정하지 않는다.
- ④ 간단하고 단순한 방법을 일차적으로 사용한다. 해결중심접근은 치료목적 달성을 위해 치료방법의 경제성을 추구한다.
- ⑤ 변화는 불가피하다. 누구에게나 변화는 삶의 일부이기 때문에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예외를 증가시킴으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끈다.
- ⑥ 현재에 초점을 맞추며 미래지향적이다.
- ⑦ 내담자와 협력적 관계를 중요시한다. 치료자와 내담자가 함께 해결방안을 발견하고 구축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중요시한다.

(2)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의 목표

- ①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의 목표는 도움을 받으러 온 가족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해결방법을 가족과 함께 모색하는 것이다.
- ② 가족과 치료자가 첫 상담에서 목표를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면 치료의 종결을 향해 작업하기는 매우 수월해진다.
- ③ 목적지향적인 이 모델에서는 목표가 잘 설정된다면 문제의 반은 이미 해결된 것으로 본다.
- ④ 협동적 목표설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 첫째, 내담자에게 중요한 것을 목표로 한다.
 - 둘째, 작은 것을 목표로 한다. --> 성공의 경험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내담자의 작은 변화는 파급효과를 가지고 있어 더 큰 변화를 이끌어 낸다.(generative)
 - 셋째, 구체적이며 명확하고 행동적인 것을 목표로 한다.
 - 넷째, 문제를 없애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행동에 관심을 둔다. --> 문제시되는 것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바람직하고 긍정적인 행동에 관심을 둔 목표가 더 성취하기 쉽다.
 - 다섯째, 목표를 종식보다는 시작으로 간주한다.
 - 여섯째, 내담자의 생활에서 현실적이고 성취 가능한 것을 목표로 한다.

- 일곱째, 목표수행은 힘든 일이라고 인식한다. --> 목표가 성취되는 것은 치료자와 내담자의 협동작업으로 이루어지며, 내담자로 하여금 과제를 수행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함을 알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3)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의 자세와 기술

(1) 치료자의 역할

① 해결중심적 대화 :

- 내담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내담자와 치료자가 함께 목표를 세우고 해결책을 구성하며 실행한다.
- 치료자는 내담자를 '한 발짝 뒤에서 인도'한다.(Cantwell & Holmes, 1994)
- 치료자의 적극적인 역할은 소크라테스 질문법처럼 내담자가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게 하며, 내담자의 생활에 문제시되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의 예외적 상황을 발견하도록 돋는 데 있다.

② 알지 못함의 자세 :

- 매우 사려 깊고 협동적인 가족치료의 접근이다.
- 치료자가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을 통해 내담자에게 풍부하고 진실한 호기심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 치료자는 내담자가 변화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나 생각보다는 내담자의 행동과 말을 좀 더 많이 알고 싶어 하는 의향을 보이는 것이다.
- 알지 못함의 자세에서 나오는 대화적 질문은 가족이 '아직 말하지 못한 것'을 말해도 괜찮겠다는 안전함을 느끼는 시작점을 만들 수 있으며, 가족이 가진 정서적 · 내면적 자원의 억압을 제거해 낼 수 있다.
- 알지 못함의 자세를 위한 의사소통 기술

경청, 내담자가 사용하는 핵심용어의 반복, 요약, 침묵의 활용, 치료자의 자기개방, 칭찬, 해결 중심적 대화의 확대, 치료자의 비언어적 행동, 개방형 질문, 내담자의 비언어적 행동 주목, 과정에 대한 주목, 내담자의 지각에 대한 확인, 내담자의 초점 돌리기

(2) 치료적 기법

① 해결 지향적 질문 : 상담 전 변화에 관한 질문, 예외질문, 기적질문, 척도질문, 대처질문, 관계성 질문, 악몽 질문, 간접적 칭찬(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밖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

② 치료적 피드백 메시지

- 치료적 피드백 메시지는 칭찬, 연결문, 과제로 구성된다.
- 칭찬 : 내담자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내담자가 성공적으로 하는 것과 이러한 성공을 통해 나타나는 내담자의 강점을 강조하는 것이다.
- 연결문 : 칭찬 다음에 나오는 과정에 연결시켜주는 것으로 치료자가 제안하게 되는 근거를 제공한다. 내담자와 치료자와의 관계유형에 따라 달라진다.

방문형	불평형	고객형
과제없음	관찰과제, 생각과제	행동과제

- 치료자가 단독으로 상담하는 경우 5분 정도 휴식한 후 상담 내용을 정리하며 칭찬과 과제를 준비하여 메시지를 전달한다.
- 치료팀이 일방경을 통하여 지켜보고 있었다면 치료자는 휴식 시간에 과제에 대해서 치료팀과 의논하여 과제를 결정한다.

2. 해결책 구축을 위한 질문기법

1) 첫 면담 전의 변화의 질문

- ①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의 기본가정은 '변화란 불가피한 것이고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 ② 내담자가 약속을 정하고 상담하러 오기까지의 변화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저희가 경험한 바로는 처음 상담을 신청했을 때와 상담을 받으러 오기까지의 사이에 어려운 상황이 좀 나아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혹시 그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 ③ 상담 전 변화가 있는 경우 내담자가 이미 보여준 해결 능력을 인정하고 칭찬하며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격려한다.

2) 예외질문

- ① 예외란 내담자가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나 행동을 의미한다. --> 예외적 상황이 바로 문제해결점이다!
- ② 어떤 경우라도 예외는 있기 마련이라는 게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의 기본전제이다.
- ③ 예외질문을 통해 인지하지 못했던 예외를 찾아내고 그것을 계속 강조하면서 내담자의 성공을 확대하고 강화시킨다.
"최근 문제가 일어나지 않은 때는 언제였습니까?"
"문제가 해결된다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 ④ 내담자가 자신도 모르게 행한 성공을 찾아내어 이를 의도적으로 계속해 보도록 격려한다. --> 내담자가 자신의 자원을 활용하게 되어 내담자의 자아존중감을 강화시킬 수 있다.

3) 기적질문

- ① 문제 자체를 제거시키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문제와 떨어져서 해결책을 상상하게 하는 것이다.
- ② 이 질문을 통해 내담자가 바꾸고 싶어 하는 스스로 설명하게 하여 문제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해결중심 영역으로 들어가게 한다.
- ③ "오늘 상담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주무시겠죠. 주무시는 동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서 여기 올 때 가셨던 문제가 꿈같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무셨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는지 모르죠.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무엇을 보면 '아~ 기적이 일어났구나'를 알 수 있을까요?

4) 척도질문

- ① 숫자를 사용하여 내담자에게 문제의 심각성, 문제해결에 대한 희망, 자아존중감, 변화에 대한 확신, 변화하기 위한 의지, 문제가 해결된 정도 등을 표현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 ② 이런 척도로 표현해보는 것을 통해 내담자의 문제해결에 대한 태도를 더욱 정확하게 알 수 있다.
- ③ 내담자의 변화를 격려하고 강화해 주는 사람과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도 얻을 수 있다.
- ④ 상담 전 변화에 대한 내용이나 동기에 대해 알고자 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 ⑤ "1부터 10까지의 척도에서 1은 문제가 가장 심각할 때이고 10은 문제가 다 해결된 상태라고 하면, 지금은 몇 점입니까?"
"6점에서 7점으로 올라간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5) 대처질문

- ① 자신의 미래를 매우 절망적으로 보아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하는 내담자에게 주로 사용한다.
- ② 대처질문은 내담자의 신념체계와 무력감에 대항하는 동시에 내담자에게 일종의 성공을 느끼게 할 수 있다.
- ③ 이 질문으로 치료자가 의도하는 것은 내담자 자신이 대처방안의 기술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 ④ "그 어려움 상황에서도 어떻게 지금까지 견딜 수 있었지요?"
"어떻게 해서 상황이 더 나빠지지 않을 수 있었지요?"

6) 관계성 질문

- ① 내담자와 중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 의견, 지각 등에 대해서 묻는 것이다.
- ② 사람이 자신의 희망, 힘, 한계, 가능성 등을 지각하는 방식은 자신에게 중요한 타인이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인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 ③ 내담자는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자신의 생활에서 무엇이 달라질 것인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내담자는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을 중요한 타인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전에는 없었던 가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④ "선생님의 부인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고 가정하고 제가 그분에게 선생님의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이 달라지겠느냐고 묻는다면 그분은 뭐라고 말할까요?"

7) 악몽질문

- ① 기적질문과 유사하지만 유일하게 문제중심적 질문이다.
- ② 목적설정을 위한 상담 전 변화질문, 예외질문, 기적질문 등이 효과가 없을 때 이 질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
- ③ 내담자가 뭔가 더 나쁜 일이 일어나야 현재와 다른 무엇을 하려고 하거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될 때 이 질문을 활용한다. --> 그러나 설부른 역설을 사용하여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유념하고 사용해야 한다.
- ④ “오늘 밤에 잠자리에 들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한밤중에 악몽을 꾸었어요. 오늘 여기에 가져온 모든 문제가 갑자기 더 많이 나빠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몽이겠죠. 그런데 이 악몽이 정말로 온 거예요. 내일 아침에 무엇을 보면 악몽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겠습니까?”

8) 간접적인 칭찬 :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 ① 내담자의 어떤 측면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 ②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의 감정이나 자원을 스스로 발견하도록 하므로 직접적인 칭찬보다 바람직하다.
- ③ “어떻게 집안을 평온하게 유지할 수 있었어요?”
“자녀 모두를 특별하게 대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9) ‘그 외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

- ① 예외를 더 발견하고 장점, 자원, 성공적 경험 등 긍정적인 측면을 더 이끌어 내려는 질문이다.
- ② “뭐가 더 있을까요? 또 다른 좋은 생각이 뭘까요?
“이전에 얘기한 것과 연결시켜 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10주차 2차시 : 여성주의 가족치료 모델과 이야기치료 모델

[학습 내용]

1.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방법
2. 이야기치료의 방법

[학습 목표]

1. 여성주의 가족치료 모델의 주요개념, 치료목표, 치료기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이야기치료 모델의 주요개념, 치료목표, 치료기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본학습]

1.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방법

1)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주요개념

(1) 중립성의 문제

- ① 여성주의 가족치료자들은 중립성을 지키는 것은 가족폭력을 설명하지 못하고 불평등을 감추게 한다고 주장한다.
- ② 인간관계 내에 있는 권력에 대하여 고려를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 ③ 더 나가 가족치료에서 중립성은 여성에 대한 남성의 지배를 강화하는 가부장적 관점 또는 남성중심적 관점이라고 여긴다.

(2) 권력과 성

- ① 여성주의 가족치료자들은 부부의 권력구조를 남성우위로 이루어진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다.
- ② 여성은 경제력이 없고 남편과의 관계에서 다른 종류의 권리가 없기 때문에 권력에서 뒤로 물러나 있다고 본다.
- ③ 여성주의 가족치료자들은 성은 가족체계를 조직하는 기본 원칙이며 사회에 존재하는 사회위계 중의 하나라고 본다. 그런데 여성은 남성보다 덜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④ 이러한 현실은 여성의 억압하는 사회, 정치, 종교적 체계의 직접적인 직선적 결과로 보고 있다.

(3) 순환적 인과론과 직선적 인과론

- ① 여성주의 가족치료자들은 인간관계를 완전히 설명하기 위해서는 순환적 인과론 개념뿐만 아니라 직선적 인과론도 필요하다고 본다.
- ② 직선적 인과론은 가족의 역기능 형성 전의 사건, 구조, 문화적 관습 등을 이해하도록 돋기 때문이다.

(4) 상보성의 문제

- 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안에서 자신의 역할은 일의 세계보다 더 좋은 분리된 장소이며 상보적 관계의

장소라고 볼 수 있는데, 상보성이란 '이것 아니면 저것' 같은 강요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 ② 여성주의 가족치료자들은 그런 강요된 선택 또는 이분법은 개인에게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다양성이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사회적 배경

- ① 여성주의에서는 사람이 존재하는 그 사회 배경이 인간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본다.
- ② 여성주의 가족치료자들은 가족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영향을 주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치료목표

- ①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기존의 가족치료에 대해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여성주의의 이론과 가치 및 방법을 우선적으로 중시하는 모델이다.
- ② 여성주의 가족치료는 성차별적 사회화의 결과로 가족에서 여성이 겪는 독특한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족문제 해결을 유도해 주는 것을 치료목표로 한다.
- ③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목표는 가족구성원을 가부장주의에 입각한 전통적 가족구조에 적응시키는 데 있지 않고 전통적 가족구조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

3) 여성주의 가족치료의 치료기법

(1) 성역할 분석

- ① 남녀 간의 성차에 의한 지위와 권력의 불평등을 고려하도록 클라이언트를 교육한다.
- ② 남성의 구타 등 학대행위를 사회가 남성에게 폭력을 조장시키는 것으로 재규정한다.
- ③ 클라이언트가 제기하지 않더라도 치료자가 성역할을 쟁점을 제기한다.
- ④ 본가의 문제를 다를 때 성역할 쟁점을 도입한다.
- ⑤ 사회화의 영향을 받은 문제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내린 규정을 재규정하고 이에 대한 도전한다.
- ⑥ 클라이언트에게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억압적 역할에 대해 교육한다.

(2) 남성과 여성 클라이언트 간의 권력균형의 변화

- ① 남녀 간 평등한 관계를 발달시키도록 클라이언트에게 도전하도록 하며 클라이언트에게 대안적 성역할 행동을 제시하여 준다.
- ② 부부가 보다 동등하게 자녀양육의 책임을 맡도록 논의하게 하며 가사책임을 평등하게 분배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게 한다.
- ③ 개인의 행복이 결혼관계를 유지시키기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주며 가족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비성차별적 가정 등을 제공한다.
- ④ 남녀 클라이언트에게 변화의 책임이 같이 있다는 입장을 취하며, 남성이 여성의 역할을 기꺼이 할 수 있도록 도전시킨다.

(3) 여성 클라이언트에게 힘 부여하기

- ① 여성 클라이언트가 가족에 기여하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여성 클라이언트의 자부심을 증진시키고, 역량강화, 의사결정 및 자기주장을 격려하여 고취시킨다.
- ② 여성 클라이언트가 남성에게 지지를 얻기보다 그녀 자신의 사회적 지지망을 개발하도록 격려한다.

2. 이야기치료의 방법

1) 이야기치료의 주요개념

(1) 인간은 능동적 행위자

- ① 인간은 자신의 경험을 만들어 내는 존재이자 해석하는 존재이다.
- ②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사건을 해석하고, 그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존재이다.
- ③ 때로는 혼자, 대부분의 경우는 항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경험을 해석하는 행위를 지속한다.

(2) 이야기는 삶을 반영하는 매체이자 도구

- ① 삶의 이야기는 개인의 삶을 반영하는 도구이자 개인의 삶 자체는 만들어 내고 나아가 개인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도구이다.
- ②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여러 가지 사건 가운데 자신의 논리적 가정에 근거하여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특정한 것을 선택하고 또 그것에 의미를 부여한다.
- ③ 특정한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 특정한 주제를 염두에 두고 줄거리를 만들어 이야기한다.
- ④ 우리는 이야기를 말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경험을 해석하거나 나름의 의미를 붙이면서 우리 삶을 그려내게 되며, 또 그렇게 그려진 삶은 우리 자신이 된다.

(3) 경험은 사회문화적 산물

- ① 개인이 자신의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는 특정한 역사문화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다.
- ② 사람의 경험은 동일해 보이는 것이라도 그 사람의 사회문화적 위치(성별, 인종 등)에 따라 그 의미가 달리 해석되므로 각자의 경험은 독특한 것이 된다.
- ③ 흔히 개인이 갖고 있는 문제는 개인 내면의 역기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야기치료에서는 문제 외현화 작업을 통해 문제를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사회문화적 영향을 해체하는데 주력한다. --> 이런 관점에서 페미니즘적 영향을 받고 있다.

(4) 정체성은 사회적 산물

- ① 인간의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 ② 개인의 정체성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다시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복한다.
- ③ 자신의 살아온 역사 속에서 새롭게 발견해 낸 정체성은 자신과 치료자 사이에서 공유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증인예식'에서 타인과 공유되고 그들의 인정을 받는 과정을 통해 온전히 자신의 것이 된다.

(5) 삶은 복합적인 이야기

- ① 삶은 다양한 목적을 가진 복합적 이야기이다.
- ② 인생은 여러 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복합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 ③ 내담자가 치료자에게 찾아와 하는 '희망이 없다', '우울하다'와 같은 말은 전체 이야기의 부정적 측면이다.
- ④ 이야기치료에서는 그동안 망각되고 간과되어 온 개인의 삶의 지식과 기술을 찾아내고, 나아가 내담자가 선호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며 또 그 이야기 속에 깃들어 있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질문하는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이야기를 발전시키게 된다.

(6) 문제와 사람은 별개

- ①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문제 그 자체이다.
- ②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을 문제시하는 것은 문제의 소재를 개인의 내면 또는 개인의 정체성에서 찾는 실천 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③ 문제는 문화와 역사의 산물이기 때문에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과 별개로 혹은 그 사람의 정체성과 분리하여 생각해야 한다.
- ④ 이야기치료에서는 외현화 작업을 통해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과 문제가 동일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한다.
- ⑤ 사람과 문제 사이에 일정한 공간을 만들어 냄으로써 내담자가 자신과 문제 사이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8) 의도 상태는 인간 삶의 방향

- ①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지향하는 바는 그의 의도, 목적, 희망, 가치, 꿈, 헌신대상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 ② 사람은 이 같은 의도상태 혹은 목적의식에 따라 행동하게 되며 그 행동은 다시 목적의식을 강화하는 이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나간다.
- ③ 이 같은 목적의식은 삶의 이야기의 주제와 방향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야기치료는 가족으로 하여금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목적의식과 희망을 드러내고 그것을 반영하는 사건이나 행동을 밝혀냄으로써 개인과 가족의 정체성이 재구성되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초점을 둔다.

2) 이야기치료의 치료목표

(1) 이야기치료 목표

- ① 단기적으로는 내담가족이 호소하는 문제를 감소시키는데 초점을 두게 된다.
- ② 궁극적 목표는 내담자가족 스스로가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향으로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써 나갈 수 있게 되는 데 있다.
- ③ 구성원이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을 때는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목표라 할지라도 일단 수용하며, 목표를 한 가지로 한정시키지 않는다.

- ④ 가족구성원 각자는 자기 나름대로의 설명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⑤ 각자의 이야기는 모두 고유한 것으로서 치료자를 포함하여 그 어느 구성원의 이야기도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3) 이야기치료의 치료기법

(1) 이야기치료의 과정 및 치료자의 역할

- ① 이야기치료의 과정은 대략 문제의 해체, 독특한 결과의 해체, 대안적 이야기 구축, 대안적 정체성 구축 순으로 이루어진다.
- ② 이런 과정은 나선적 구조를 갖는다.
- ③ 치료도 사회적 산물로 보는 이야기치료는 치료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치료자와 내담자 사이의 권력관계가 재연될 위험성을 경계한다.
- ④ 억압적 권력구조의 영향을 해체하는 데 민감해야 할 존재로서 이야기치료자는 '탈중심적이고 영향력 있는' 위치를 고수해야 한다.
 - '탈중심적'이란 치료자의 전문적 지식이나 이론보다는 내담가족이 제시하는 자신들의 이야기나 삶의 지식과 기술에 우선순위를 두는 입장을 의미한다. 내담가족은 자신들의 이야기에서 '주저자'이며 그들의 삶의 기술과 지식은 치료자나 그 밖의 타인의 것에 우선한다는 의미이다.
 - '영향력 있는'이란 의제를 선택하거나 개입을 주도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질문과 반영을 통해 가족이 대안적 인생스토리를 좀 더 풍부하게 이야기하고, 그간 삶에서 간과되었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고 탐색하며, 새롭게 발견한 삶의 지식과 기술 가운데 현재의 문제·곤경·우려를 다루는데 적절한 것에 가족 스스로가 훨씬 친숙해지도록 돋는다는 의미이다.

(2) 문제의 경청과 해체

- ① 가족의 문제이야기를 경청하기
 - 대개 가족은 '문제로 가득 찬 이야기'로 시작하며, 구성원은 '다 내 잘못'이라면 문제를 자기 마음속에 있거나 자신의 일부로 생각하면서 책임을 자신들에게 돌리는 식의 이야기를 한다.
 - 치료자는 가족이 자신들에 대해 '빈약한 설명'(thin description)을 내놓을 때 그들이 체험하는 어려움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격려하는 한편, 지배적 문제 이야기와는 정반대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 열린 자세로 임한다.
- ② 외현화 : 사람과 문제를 분리하기
 -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문제다. 치료자는 문제를 내담자에게서 분리하기 위하여 문제에 이름을 붙이고 의인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 이를 '외현화' 또는 '문제표출'이라고 하는데, 이는 내담자의 문제가 정신병리나 성격에 기인한 것이라는 생각 등 문제를 개인의 내면으로 끌어들이려는 행위를 경계하고, 그 대신 문제를 상황이나 대인관계 산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아동의 경우 외현화된 문제를 그리거나 만드는 활동을 통해 치료적 대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 외현화 대상은 감정(죄책감, 두려움, 질투 등), 대인관계 상 문제(말다툼, 비난, 질투 등)를 비롯하여 사회적 신념('때려도 된다' 등)이나 관습(자녀문제에 대해 부모탓하기, 성차별) 등 제한이 없다.

내재화	외현화
저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우울이 때문에 생활이 영망이 되었네요.
o eg. ○○은 공격적 성향을 갖고 있네요.	'때려도 된다'는 생각이 ○○을 누르고 있었네요.

③ 문제의 영향력 탐색하기

- 문제가 내담자의 삶에 이제까지 어떤 영향력을 끼쳐왔으며 현재는 어떠한지를 질문한다.
- 또한 문제를 키우는 좀 더 광범위한 문화적 신념, 생각, 관습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질문한다.
- 마지막으로 문제가 삶의 목적, 희망, 꿈,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미래 가능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질문한다.
- eg. 아들이 갖고 있는 '말썽꾸러기'(문제)를 보면서 아버지로서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나요?

④ (사람의 영향력 탐색하기)

- 문제의 영향력과 반대로 내담자가 문제의 흥망성쇠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질문한다.
- 내담자가 미미하게라도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문제와 상반된 이런 기억을 일컬어 '독특한 결과'(White & Epston, 1990)라고 한다.
- eg. (문제)가 평소보다 나쁘지 않았던 때가 있었나요?

⑤ 문제의 영향력 평가하기

- 문제가 끼치는 영향력에 대해 내담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질문한다.
- eg. (문제가) 그렇게 영향을 끼쳐도 괜찮은가요?

⑥ 평가를 정당화하기

- 어떤 이유 근거에서 위와 같은 평가를 내렸는지 질문한다.
- '독특한 결과'나 의도상태에 관한 본격적인 대화로 옮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 eg. 괜찮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지요?

※ 이상의 질문을 통해 내담자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원하는 바를 표현하게 된다. 이는 처음에 '나는 별 볼일 없는 사람이다'와 같은 부정적인 문제나 결론과는 상반된 것이다. 이제 치료의 전환점에 이르게 된다.

(3) 독특한 결과의 해체

① 독특한 결과 외현화하기

- 문제를 외현화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독특한 결과에 이름이나 제목을 붙임으로써 독특한 결과를 재정의한다.

문제	독특한 결과
o eg. 오랜 습관, 무력감과 손을 잡다.	오랜 습관으로부터 내 인생을 되찾다.

② 독특한 결과의 영향력 탐색하기

- 독특한 결과(예외/문제해결기술)가 삶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탐색한다.
- 그 성격과 발생상황은 무엇인지, 그런 상황이 어떤 점에서 문제이야기에 들어맞지 않았는지에 관해 질문한다.
- 치료자의 질문은 이제 과거와 현재를 비롯하여 미래에 대한 가족의 느낌, 행동, 생각으로 점점 확장된다.

- 나아가 이런 독특한 결과를 목격한 사람들, 가족 주변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 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추측해보도록 하는 질문을 한다.
- 독특한 결과는 이런 해체과정을 통해 점점 확고해진다.
- 가족은 자신의 경험에 대해 폭넓은 시각을 가지고 되고, 좀 더 풍부한 이야기를 쓰게 되며, 예상치 못했던 계기를 통해 자신들이 바라는 변화의 근거를 발전시키게 된다.
- eg. 두 분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거리감'이 좋아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 기세가 좀 수그러지는 때는 언제인가요?

③ 독특한 결과의 영향력 평가하기

- 독특한 결과의 영향력 및 그 영향력에 대한 내담자의 입장을 정리하도록 돋는다.
 - eg. 두 분이 함께 장보러 가는 일이 두 분에게 괜찮은 일인가요, 아니면 별로 좋지 않은 큰일인가요?
- ④ 평가를 정당화하기
- 어떤 이유 또는 근거에서 위와 같은 평가를 내렸는지 질문한다.
 - eg. 괜찮거나 괜찮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4) 대안적 이야기의 구축 : 스캐폴딩 지도

- 내담자의 삶의 이야기를 다시 쓰는 재저작 작업은 독특한 결과에서 출발한다.
- 치료자는 독특한 결과와 관련이 있는 과거 사건을 찾아내고, 그 사건들이 순서에 따라 시간의 흐름 속에서 특정한 주제와 구성을 갖는 이야기로 발전하도록 돋는데, 이 작업이 마치 건축물의 임시 지지대를 세우는 과정과 유사하다 하여 스캐폴딩 (scaffolding)이라 부른다.
- 대안적 이야기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거미줄 한 올 같이 가늘고 빈약하지만 스캐폴딩 대화가 진행되면서 공백이 채워져 점차 복잡하고 풍부한 이야기를 가진 구성이 된다.
- 내담자는 재제작 대화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특정한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고 여기에 새롭게 의미를 붙이는 인생과의 극적 만남을 통해 자기 이야기의 공백을 메우고 또 그 이야기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5) 정의예식과 외부증인집단 : 말하기와 다시 말하기

- 이야기치료에서는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정의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의예식이라는 과정을 치료과정에 도입하여 내담자가 자신이 선호하는 삶의 이야기를 청중 앞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경험을 갖도록 한다.
- 이때 외부증인집단은 치료자집단(반영팀)이나 내담자 인생클럽 회원들이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사회 관련된 사람들을 청중으로 초청하기도 한다.
- 말하기 – 예식의 주인공이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신이 선호하는 이야기(정체성)를 외부 증인에게 말한다. 그동안 외부증인은 청중의 입장이 되어 듣기만 한다.
- 다시 말하기 – 외부증인은 내담자 이야기 가운데 자신에게 각별한 의미가 있었던 특정 부분에 초점을 두고 말하기를 한다. 이는 치료자가 외부증인을 면접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외부증인이 면접자 없이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 다시 말하기의 다시 말하기(내담자가 말한다), 다시 말하기의 다시 말하기의 다시 말하기(외부증인이 말한다.)가 반복으로 이루어진다.

(6) 치료적 문서의 활용

- 치료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문서, 글쓰기를 치료에 활용한다.

- ② 치료과정에서 '치료적 편지'를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에 대해 정정, 삭제 또는 추가를 요구하기도 한다.
- ③ 치료적 문서의 형식은 편지, 메모, 진술서, 목록, 수필, 계약서, 증서 등 매우 다양하며 형식의 제약이 없다.
- ④ 이 같은 문서는 내담자 혼자만을 위해 작성되는 경우도 있고, 치료자나 다른 사람과 공유되기도 한다.

11주차 1차시 : 일반가족에 대한 실천

[학습 내용]

1. 일반가족의 개념과 이슈
2. 일반가족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

[학습 목표]

1. 일반가족의 개념 및 정의, 이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일반가족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본학습]

1. 일반가족의 개념과 이슈

1) 일반가족의 개념과 정의

(1) 가족에 대한 인식의 변화

- ① 우리 사회에서 '가족'은 서구의 경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 ② 이전에 비해 약화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가족이라는 개념은 가족구성원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면에서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다.
- ③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의 진행 속에서 가족구조 또한 변하고 있다.
- ④ 가족의 기능과 역할을 점차 축소되고, 전통적 가족구조와 생활이 변화되고 있다.
이런 가족 변화에 대해서 '가족해체'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입장에서는 오히려 환경에 적응하면서 '재구조화'되는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어떤 입장으로 보든지 가족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은 동일하다. 그리고 변화의 가운데서 가족구성원이 느끼는 위기는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가족복지의 방향성 변화

- ① 그동안 가족복지서비스는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저소득층, 장애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보호를 필요로 하는 여성 등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 ② 이들은 주로 사회취약계층이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개입은 사전 예방적이라기보다는 사후 치료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③ 근래에 들어서는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예방적이고 보편적인 가족 기능 강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④ 이런 변화에 따라 2005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고,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가족 전체에 대해서 정책을 펴는 모습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 ⑤ 건강가정지원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건강가정사업의 중심 역할을 하게 되었다.

(3) 일반가족의 개념 및 정의

- ①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이르는 '건강가정'이 일반가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② 그런데 구분하기에 따라선 일반가정과 건강가정을 분류하기도 한다.
- ③ 일반가정 :
 - 형태적 특징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 주로 전통적 가족의 핵가족으로서의 부부와 그들의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한다.
- ④ 건강가정 :
 - 기능적 특성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 가족원 개개인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해 가족원 간 상호작용이 원만하고 집단으로서의 가치체계를 공유하며 친족 및 사회체계와도 원활한 상호작용을 이루는 생활매개체계를 의미한다.

※ 정상가족, 표준가족의 딜레마

- ① 일반가족은 건강한 가족이라는 입장에서 건강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다.
- ② 건강한 가족이란 다른 말로 정상가족 또는 표준가족이라고도 할 수 있다.
- ③ 그런데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전통적 가족주의 가치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즉, 어느 한 종류의 일정한 틀이 정상적 또는 전통적이라고 하며 다른 형태의 가족 구조를 정상적이지 않은 것으로 여기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 가족주의가 면면히 흐르고 있어 부계혈통, 장유유서, 효, 조상숭배, 부계가문의 영속성 등이 지배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과연 이런 전통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을 비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2) 일반가족의 이슈

- ① 현재 일반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건강가정기본법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서 일반가족의 이슈를 살피게 된다.
- ② 이는 가족정책에 있어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국가와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 ③ 건강가정기본법은 이혼 증가, 출산율 감소 등과 같은 가족변화에 대해서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출현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국가는 이러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유지·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⑤ 그런데 국가가 일정한 가정 형태를 건강한 가정으로 정하고 그것을 지향하는 정책을 펼 경우 통제의 위험성을 갖게 된다.
 - 과거 국가가 가족에 대한 일정한 의지를 갖고 통제한 예가 산아제한정책이다. 이 정책으로 인하여 오늘날 저출산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 국가가 정한 방향이 항상 올바르다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의 통제성이 크게 작용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⑥ 법으로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제8조 제1항)고 규정하고, '개인과 가정은 건강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29조 제1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이러한 가정을 위하여 지원하여야 한다'(제28조, 제29조 제2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홍보 및 교육에 대한 것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저출산이나 고령화 문제는 교육이나 홍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오히려 가족의 실체와 욕구를 인정하고 가족 단위로 한 보다 실질적인 가족복지 차원에서의 포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 ⑦ 우리나라 가족 관련 지출은 OECD국가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의 저출산 대응 예산은 매년 크게 증가했지만 OECD 주요국의 국내총 생산(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중 추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비교해 보면, 한국은 대표적인 고출산 국가들은 물론 OECD 평균에 비해서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05~2015년간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은 3%를 상회한 반면 한국은 2015년 기준 1.43%로 OECD 평균 2.40%에 비해서도 1%포인트 정도 낮았다. 또 2019년 GDP 대비 저출산 대응 예산 비중으로 비교할 경우에도 1.69% 정도로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출처: 이데일리 2020.8.11. 검색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65046625797784&mediaCodeNo=257>

2. 일반가족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

1) 일반가족에 대한 정책

- (1)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건강가정정책'(제2장)

①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 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 포함된 내용 :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등

②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여성가족부 장관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 ·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교육 · 연구의 진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 제공하여야 한다.

④ 가족실태조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3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 가족실태조사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2)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제시하는 '건강가정사업'(제3장)

① 가정에 대한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 · 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 검진 및 출산 · 양육의 지원, 5. 직장과 가정의 양립, 6. 음란물 · 유흥가 · 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 ·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② 위기가족긴급지원

- 재난에 의하여 가족의 부양 · 양육 · 보호 · 교육 등 가족기능이 현저하게 저하된 경우 원활한 가족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긴급하게 필요한 범위에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아이돌봄지원, 가사돌봄지원 등 가족돌봄, 2. 가족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가족의 심리 · 정서지원, 3. 법률구조, 의료지원, 복지서비스 등 연계,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지원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심리 · 정서지원은 3년 이내로 하되 1년 연장할 수 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지원에 드는 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자녀양육지원 강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육, 방과 후 서비스, 양성이 평등한 육아 휴직제 등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하여야 한다.

④ 가족단위 복지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 · 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 · 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 ·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 · 사회, 교육 · 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 · 정책 및 사업을 수립 · 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가족의 건강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 · 유아, 아동, 청소년, 중 · 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가족부양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 · 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 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 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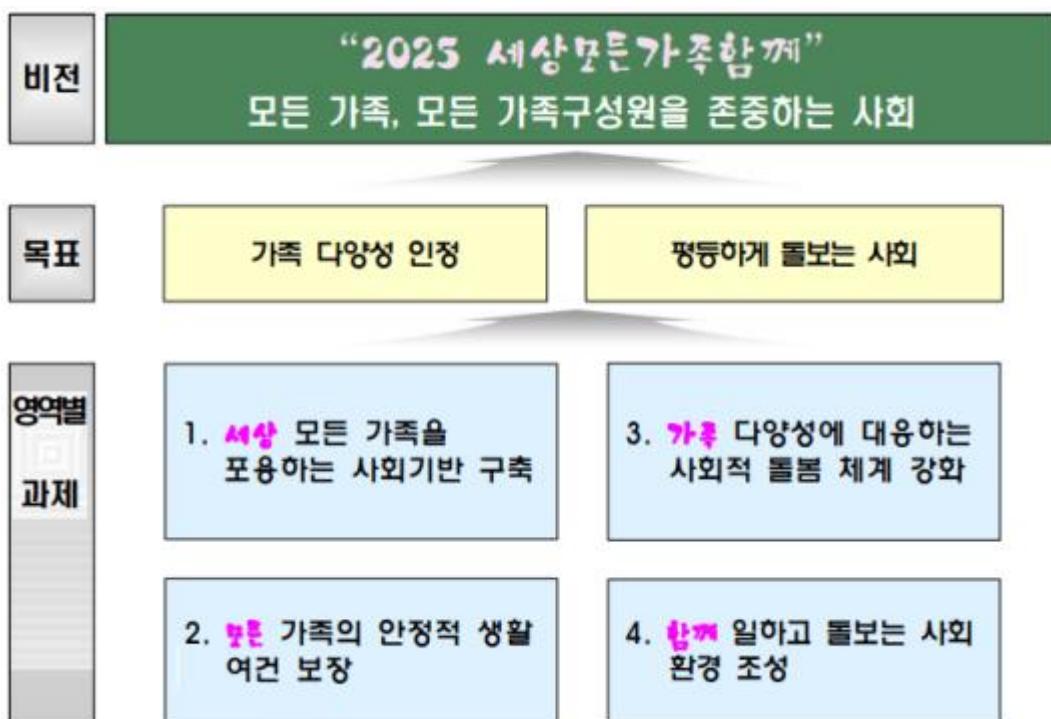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 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 · 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 부모교육, 가족상담, 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⑧ 가족단위 시민적 역할증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⑨ 건강가정문화의 발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가족여가문화, 2.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3.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5. 합리적인 소비문화, 6.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7.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 ⑩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
- ⑪ 건강가정교육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3)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추진체계도와 기본특징



출처: 여성가족부(2021)

① 지난 3차까지의 성과 :

- 다양한 가족의 자녀 양육 및 자립을 위한 정책지원 강화
- 돌봄의 공정성 강화 및 지역사회 돌봄 확대
-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 확충
- 가족다양성 포용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② 지난 3차까지의 한계 :

- 법률 혼·형연 주요심의 가족 개념 등 제도와 인식의 근본적 변화 미흡
- 가족 유형별 지원 중심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와 사회적 낙인 우려
- 가족의 소규모화,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공적 돌봄의 대응 한계

- 남녀 모두가 일하면서 가족구성원을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 미흡

③ 4차의 방향성 :

- 가족 다양성 증가를 반영하여, 모든 가족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정책에서 배제되지 않는 여건 조성에 초첨
- 비혼, 1인 가구 증가 등 다양한 돌봄과 친밀성의 욕구에 대항하는 사회적 돌봄 지원체계 구축으로 돌봄이 사회적 분담 확대
- 한부모 및 다문화 가족 등 핵심 지원 대상 가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하되 욕구가 있는 모든 가족이 가족 형태에 따른 낙인이나 차별없이 기본적인 가족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 재난, 감염병 등 가족 위기에 대응하여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소규모의 유연한 사회적 돌봄 확충 및 가족서비스 확대
- 공동체로서의 가족지원에서 가족과 개인의 삶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환
- 여성의 일한 권리와 일·가정 양립을 강조하는 정책에서 남녀 모두의 일하고 돌볼 권리 균형을 중심하는 성평등 관점의 정책 기조 강화

(4) 한국건강가정진흥원

① 다양한 가족의 삶의 질 제고 및 가족역량 강화를 위한 가족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주요 업무 :

1.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사업, 2.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3. 아이돌봄 및 자녀양육지원 사업, 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양육비 이행 전담기관 운영, 5.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등 취약 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사업, 6.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지원 사업, 7. 제35조의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사업 관리 및 종사자 교육훈련, 8. 가족사업 관련 대내외 교류 및 협력 사업, 9. 가족정책 및 사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 건강가정지원센터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 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곧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2) 일반가족에 대한 서비스

(1) 성인지 교육

- ① 성인지 교육에는 서로 다른 성적 특성의 차이에 관한 교육, 양성평등교육, 성폭력 예방교육이 포함된다.

- ② 이들 각 영역의 분리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지만 남녀관계를 양성의 성적 특성에 기초한 차이의 존중을 목표로 하는 사회적 성의 관계로 인식해 가야 한다는 점에서 통합된 성인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③ 가족실천 영역에서 잠재적 피해자로서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잠재적 가해자로서의 학교, 시설, 기관 종사자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에 포함되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 남녀성관계는 매매나 강압이 아니라 사랑과 상호 합의를 기반으로 한다.
 - 자신의 몸에 대해 자신의 동의 없이 누구도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성적 행동을 가할 권리가 없다.
 - 여아를 착한 소녀의 역할에 맞추는 전통적 성역할의 사회화에 비판적 입장을 갖는다.
 - 성폭력은 쾌락을 줄 수 있는 성표현의 형태가 아니며,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심각하고 오래 지속되는 후유증을 준다.
 - 폭력문화와 관련하여 음란 영상매체 등의 부정적 효과가 인정되고 있으므로 폭력문화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대중매체의 규제 및 보호기준 마련, 이미 노출된 아동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해설,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폭력도 사회·문화적 영향을 받는 것이므로 범시민적 관심과 작성, 활성화가 요구되므로 예방과 아동의 권리확보를 위한 시민교육, 시민운동의 활성화를 통해 잘못된 성인식, 그릇된 통념 등을 불식시키는 사회의식 개혁을 강조한다.

(2) 결혼준비교육

- ① 가족은 두 사람의 결혼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살아온 모든 경험, 특히 자라온 원가족으로부터의 여러 가지 행동양식과 가치관 등을 그대로 지니고 결합된 것이다. --> 따라서 부부는 서로 다를 수 밖에 없다.
- ② 결혼생활의 안정성과 만족도를 높이면서 남녀 각자의 건강한 자아를 유지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부부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결혼준비교육은 유용하다.
- ③ 종교단체, 가족상담기관,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결혼에 대한 가치관과 예배부모로서의 자세 등에 대해서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갖는 경우가 많다.

(3) 부모교육

- ① 부부의 불안정한 결혼관계로 인한 긴장감은 자녀에게도 옮겨가게 되고, 자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삶 그 자체가 불안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 ② 부모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인식하고 자녀의 감정과 행동을 수용하는 양육태도를 가질 때 자녀들은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다.
- ③ 인터넷을 통한 양육정보의 범람으로 인하여 그릇된 양육정보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 ④ 과거와 다른 부모자녀상으로 인하여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 ⑤ 이런 문제와 맞물려 부모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시대에 맞는 정보와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한다.

(4) 부부관계 향상교육

- ① 부부관계는 부부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 ② 부부대화기술, 부부치료, 성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5) 아이돌봄사업

- ①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자 만들어졌다.
- ②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11주차 2차시 : 빈곤가족에 대한 실천

[학습 내용]

1. 빈곤가족의 개념과 원리
2. 빈곤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3. 빈곤가족에 대한 서비스 및 개선방향

[학습 목표]

1. 빈곤가족의 개념과 원인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빈곤가족의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3. 빈곤가족에 대한 현행 서비스를 살펴봄으로써 개선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본학습]

1. 빈곤가족의 개념과 원인

1) 빈곤가족의 개념

(1) 전통적 관점의 개념

- ① 전통적으로 빈곤이라 함은 개인 또는 가족의 일차적 욕구인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상태를 이른다.
- ② 생존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이다.
- ③ 사회복지학 사전에서는 "기본 수요의 부족 현상으로 생활필수품의 결핍과 그것이 가져오는 육체적·정신적 불안감을 포함하는 생활상태"를 의미한다.
 - > 이 경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 다양할 수 있음을 보게 되고, 사회적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보게 된다.
 - > 이런 관점에서 빈곤의 개념이 확장될 수밖에 없다.

(2) 최근의 빈곤에 대한 여러 관점

- ① 최근에는 빈곤을 단순히 물질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는 최소한의 소득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영역에서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는 상태'로 보다 넓게 해석하고 있다.
- ② 절대적 빈곤
 - 고전적 빈곤의 개념으로써 최저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자원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이다.
 - 최소한의 소득을 빈곤선으로 추정하게 된다. 즉, 기준을 정하게 된다.

- 전물량 방식 계측 :
 - 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해서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가격 x 최저소비량)로 환산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것이다.
 - 흔히 시장에서 장볼 때 장바구니에 생활필수품을 담는다 하여 장바구니(Market Basket) 모델이라고 한다.
 - 보충급여체계에서 여러 급여 기준을 정하는데 기준으로 많이 사용한다.
 - 어떤 품목을 카운트 하는가에 대한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
- 반물량 방식 계측 :
 - 최저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엥겔계수의 역수(보통 3)를 곱한 금액으로 최저생계비를 산출한다.
 - $$\text{엥겔계수} = \frac{\text{식료품비}}{\text{총소득}}$$
 - 전물량 방식보다는 계측의 용이성이 높다. 또한 연구자의 자의성을 낮출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적 판단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 또한 전물량방식에 비해 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이 곤란하다.
 - 엥겔계수 활용방법 또는 Orshansky법이라고 한다.
 - 이런 계측방식들은 최소한의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실제조사를 통해서 파악한다는 장점은 있으나, 산술적인 빈곤선의 주변에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정책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③ 상대적 빈곤

- 절대적 개념의 빈곤이 일반 사회구성원의 생활수준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결핍의 측면에 초점을 둔 반면, 상대적 빈곤은 전체소득분포상의 일정 비율 이하를 기준으로 산출한 정도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게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 상대빈곤선 방식 :
 -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을 정하여 빈곤선으로 보는 것이다.
 - 계측이 가장 간단하고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이다.
 -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보는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다.
 - (전물량방식이나 반물량 방식이 절대적 빈곤을 측정하는 것이고, 상대적 빈곤은 상대적으로 빈곤선을 측정하는 것이지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차상위계층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 보통 OECD 국가들은 중위가구 소득의 40-60% 미만을, EU 국가들은 평균 가구소득의 40-60% 미만을 상대적 빈곤선으로 규정한다.
 - 상대적 빈곤 개념은 불평등의 개념에서 파악되는데 다른 사람에 비하여 주관적으로나 객관적으로 소득·교육·기회 등의 포괄적 가치의 상대적 박탈을 포함한다.
 - 빈곤을 물질적 개념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그 사회 구성원들이 통상적으로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적 활동 참여 여부까지 빈곤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다.
 - 저개발 국가에서는 절대적 빈곤 개념이 더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수준이 향상될수록 상대적 빈곤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진다.

※ 빈곤 기준에 대한 사회복지정책 결정 관점에서 보면 절대적 개념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빈곤

개념의 기본적 필요 충족선과 상대적 빈곤의 소득 불평등 차원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 ※ 우리나라에는 생계급여 대상자를 기준중위소득의 30% 이상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다면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절대적 빈곤개념을 반영한 최저생계비 역시 그대로 법령에 남아 있는데 최저생계비와 기준중위소득의 30% 지점이 절묘하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상대적 빈곤 개념이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④ 문화적 빈곤

- 빈곤은 단절된 세대에서 나타나는 단편적인 현상이 아니다. 사회화를 통하여 대대로 전수되는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동적인 과정이다.
- Lewis(1966)가 주장한 '문화빈곤론'은 빈곤층 사람들이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모여 살면서 사회의 지배문화와는 질적으로 다른 태도와 가치, 행동을 포함하는 빈곤문화를 형성하여 자신들의 특유한 생활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걸 이야기한다.
- 빈곤문화의 특징 :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수용 못함, 모자가정, 부자가정, 동거가정이 많음, 쉽게 체념, 동기가 약함, 충동적임, 현재 중심적임, 낮은 학업, 직업선택의 기회 열악, 빈곤의 악순환

(3)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빈곤 개념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

- ① 빈곤은 물질적 결핍뿐만 아니라 개인적 속성의 결여, 심리·사회·문화·제도적 박탈과 소외 등으로 인한 개인과 사회의 총제적 결과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 ② 절대적 개념의 최빈곤층(생계급여 대상자) 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광범위한 다수의 저소득층(차상위계층)들도 빈곤의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2) 빈곤가족의 원인

- ① 빈곤의 원인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작용하며, 다양한 빈곤 집단의 특성에 따라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 ② 개인적 요인 중 자발적 요인 :
개인의 동기 부족, 낮은 성취감, 낮은 열망, 무절제, 게으름, 의타심, 과다한 출산, 음주, 도박, 부적응 등
- ③ 개인적 요인 중 비자발적 요인 :
부양의무자 즉 가구주의 사망, 질병, 장애, 노령, 실직, 낮은 교육수준, 가족해체 등으로 인한 기능 상실 등
--> 비자발적 요인은 사회구조적 요인들과 연결이 되어 있다.
- ④ 사회구조적 요인 :
 -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인 자신의 노동력을 상품화해야 하는 구조에서 노동시장의 구조적 불평등, 취업 기회의 제한, 고용불안정과 임금차별 등이 빈곤가족의 원인이 되고 있다.
 - 여성에 대한 취업 기회 및 임금의 차별, 비정규직의 확산 등은 여성가장 가족과 저임금노동자 가족을 빈곤에 취약한 가족으로 만든다.
 - 정책적으로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약할 때, 정치적 조건에 의한 불로소득과 비정상적인 부의 축적 등은 계층 간 불평등을 심화하여 빈곤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빈곤을 맞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때 빈곤한 사람이 더 빈곤하게 되는 모습이 강화된다.
- 공공부조나 사회보장 등의 소득보장정책이 미흡하거나 사회서비스의 미흡 등 제도적 결함은 빈곤을 악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2. 빈곤가족의 실태와 문제

1) 빈곤가족의 실태

(1) 빈곤가족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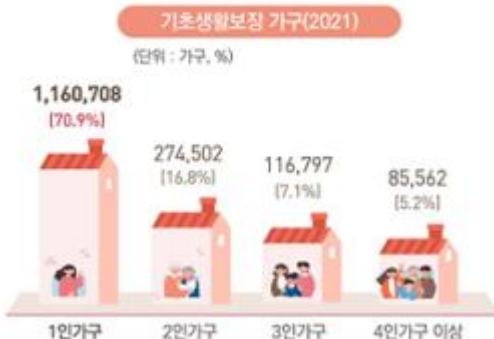
- ① 빈곤층의 경우 1인가구, 노인가구, 장애인가구, 모자가정, 부자가정, 비경제활동 가구주, 만성질환자 비율 등이 높아 가구가 빈곤에 빠질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 ② 중위소득 40% 이하의 가구 중에서 기초생계급여를 받는 가구와 그렇지 않은 가구 간 소득역진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 급여액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수급대상에 대한 지원도 시급한 과제이다.
- ③ 차상위계층 역시 빈곤층으로 둑어서 살필 필요가 있다.

(2)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규모

◎ '21년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수는 약 163만 8천 가구(시설 수급자 제외)



◎ 가구규모별로는 1인 가구가 전체 70.9%로 가장 많은 비중 차지



출처 : 보건복지부(2022), 보건복지통계연보

① 기초생활보장 일반수급자 현황을 보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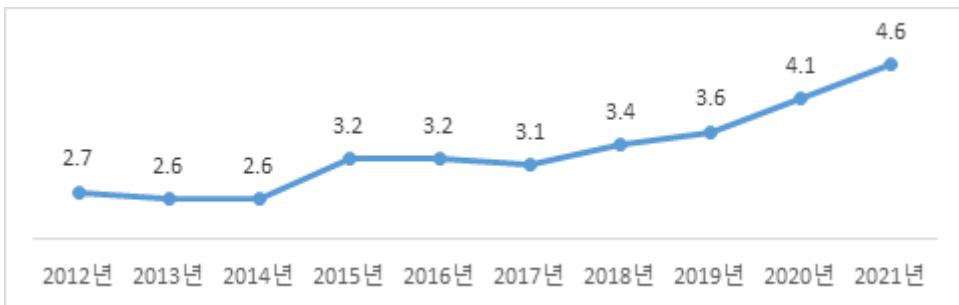
- 수급가구가 2017년 1백만 3만3천 가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1백 63만 8천 가구에 이르고 있음
- 수급자수 역시 2017년 1백 49만 2천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2백 26만 9천명에 이르고 있음
- 수급자 가구나 수급자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② 가구 규모별로는 1인 가구가 전체 70.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인가구(70.9%) > 2인가구(16.8%) > 3인가구(7.1%) > 4인이상(5.2%)

(3) 잠재된 비수급 빈곤층

- ① '비수급빈곤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이지만 수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빈곤층.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장 큰 요인으로 추정됨
- ② 차상위계층과 더불어 대표적인 잠재된 빈곤층으로 통계에 잘 드러나지 않음
- ③ 우리나라 수급률의 변화를 보면 2010년부터 수급율이 감소하다가 2015년 맞춤형 급여로 개편한 이래 높아지다가 안정세를 취했는데, 2017년 부양의무제 기준이 완화되면서 다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이는 비수급 빈곤층이 수급자가 되는 것이 증가하는 걸 보여줌



자료: e-나라지표

- ④ 비수급빈곤층은 항상 잠재된 성격을 갖는 특성이 있음

2) 빈곤가족의 문제점

(1) 빈곤가족의 경제활동에 대한 문제(불안정한 직업 포함)

- ① 빈곤층은 주로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
- ② 빈곤층은 주로 일용직/임시직/계약직에 종사하고 있다.
- ③ 빈곤층은 가구주의 30% 정도가 한 달 이상 일을 하지 못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④ 가구주의 교육수준이 낮은 편이어서 미숙련기술자가 많다. --> 고용불안, 저임금
- ⑤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신체질환,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많다.

(2) 복합적 가족관계 문제

- ① 가족의 빈곤은 그들의 가족 체계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과 연결되어 있다.
- ② 맞벌이를 하는 경우 취업, 가사, 자녀 양육 등 과다한 역할수행에 따른 어려움으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된다.
- ③ 빈곤가구주는 불안정한 취업 구조 속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알코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 ④ 역기능적인 모습으로 인하여 가족 내 하위체계 간 경계가 밀착, 분리가 많아지고, 과잉의존, 소외, 갈등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
- ⑤ 가족의 어려움에 대처하는데 있어 자원이 부족하다.

(3) 만성적인 건강질환의 문제

- ① 빈곤가족은 일반가족에 비해 만성적인 질병율이 높고, 스트레스 해소나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레크레이션 등에 참여하 기회가 적고, 가족이 함께 하는 여가활동이 부재하며, 부적절한 영양상태로 건강한 삶을 유지할 확률이 낮다.
- ② 빈곤은 비행, 알코올, 범죄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신질환, 알코올 중독 등이 빈곤층에서 많이 나타난다.
- ③ 주거환경과 노동환경이 열악한 것은 건강의 악화로 연결된다.

(4)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

- ① 자녀의 학업비 마련 부담으로 인하여 학업중단이나 상급학교 진학 포기하는 모습이 많이 나타난다.
- ② 맞벌이와 야간작업이 많음으로 인하여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아 자녀방임과 유기의 소지가 높아진다.
- ③ 부모의 스트레스와 갈등의 증가로 적절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동의 생애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빈곤의 대물림

- ① 빈곤이 만성화되면 빈곤탈출 가능성성이 낮아진다.
- ② 만성적 빈곤은 사회양극화를 촉진시키고 사회의 통합을 방해한다.
- ③ 양극단으로 갈수록 계층 이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극빈곤층이나 만성빈곤의 경우 자녀에게 빈곤이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 ④ 부모세대가 가진 경제적 자원과 사회적 지위가 불평등하게 분포할수록 자녀세대의 사회성취에 미치는 가족의 영향은 크다.
- ⑤ 근대사회로 오면서 긴교육 기간 역시 자녀가 부모세대에 의존해야 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걸 의미하므로 자녀성공은 부모의 위치나 자원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6) 열악한 주거공간 문제

- ① 2015년 맞춤형 생활보장이 이루어진 이후 주거급여 등 주거대책이 늘어나고 있지만 빈곤층의 주거문제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 ② 국민임대주택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③ 빈곤층의 경우 쪽방 형태의 주거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 ④ 쪽방은 화장실, 상수도 보급이 열악하다. --> 위생문제와도 연결된다.
- ⑤ 지하주택의 경우 햇볕이 들지 않아 낮에도 전등을 켜야 하고, 습기가 많아 건강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준다.

(7) 빈곤과 가족구성원 문제

- ① 빈곤은 아동에게 전반적인 발달영역에서 나쁜 영향을 미친다.
건강, 학업, 심리정서 문제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 ② 한편, 빈곤은 아동으로 하여금 빠르게 사회로 눈을 돌리게 하여 적응적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
- ③ 노인에 대한 돌봄의 기능이 빈곤가정에서는 약하다.
- ④ 노인단독 가구인 경우에는 빈곤과 노인이라는 이중문제를 갖는다.
- ⑤ 여성가구주의 경우 '빈곤의 여성화'라고 할 정도로 취약하다.

- ⑥ 여성가구주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다.

3. 빈곤가족에 대한 서비스 및 개선방향

1) 빈곤가족에 대한 서비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1999년) 제정으로 권리에 입각한 공공부조가 시행되었다.
② 송파세모녀 사건으로 맞춤형 복지로 전환하였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2014).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30% 이상에서 선정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43% 이상에서 선정 (2023년 47% 적용)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50% 이상에서 선정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의 40% 이상에서 선정
 - 급여를 받을 기회가 확장되어 사각지대가 줄어들었으나 실질적인 생계급여를 기준으로 할 때 과거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③ 2023년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과 생활보장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9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생계급여(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주거급여(47%)	976,609	1,624,393	2,084,364	2,638,453	2,975,423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출처 : 보건복지부(2023), 2023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 드림스타트(아동통합돌봄서비스)

- ①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② 대상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7조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
 - 2.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아동의 성장 및 복지 여건이 취약한 가정
③ 내용 :
 - 1. 건강검진 및 질병예방교육 등 건강증진을 위한 서비스
 - 2. 아동의 기초학습 및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지원
 - 3. 부모의 양육 지도
 - 4. 그 밖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

(3) 기타

- ①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행복키움통장을 실시하여 차상위계층 자산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 ③ 디딤씨앗통장(0-18세) 자산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 ④ 각 부처별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여러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2) 빈곤가족 서비스 개선방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 ① 맞춤형 보호로 전환하여 사각지대를 줄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계급여는 기준중위 소득 30% 선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대상자에 들어가기 어렵다.
- ② 생계급여대상자가 되더라도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정도의 급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 ③ 소득을 산정할 때 소득인정액 개념을 활용하다보니 실질적인 소득보다 소득이 더 높게 계산될 수밖에 없다.
- ④ 생계급여 대상자 범위를 더 확대해야 하며 아울러 급여액 수준도 현실적인 보장이 되도록 높여야 한다.
- ⑤ 실질적인 소득을 중심으로 계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하우스 푸어(house poor)라는 말이 나타날 정도로 사실상 소득과 관련 없는 소득환산액이 있을 수 있다.

(2) 다양한 제도에 대해서

- ①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보에 취약할 경우 이용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그런데 빈곤층은 다른 계층보다 정보에 취약할 특성을 가지고 있다.
- ② 따라서 다양한 부처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여러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하나의 체계로 묶어 신청 및 실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사회적 양육과 보호의 개념 강화

- ① 누리과정, 아동수당 등 보육과 관련하여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수급액의 범위가 아직까지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유럽의 아동수당과 같이 실질적인 아동양육에 드는 비용이나 서비스를 국가가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 ② 기초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제도로 노인보호를 하고 있으나 역시 노인돌봄에 대해서 국가 또는 사회의 책임성을 더욱 확장할 필요가 있다.

(4) 기본수당에 대한 도전

- ① 기본수당은 노동 등 아무 조건 없이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가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이른다.
- ② 이 제도의 이론적 근원은 공유부활당제도에 있다.
- ③ 따라서 건물이나 토지의 이용에 대한 세금을 현실화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기본수당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빈곤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 최소한 방향성은 지향점으로 볼 수 있다.
- ④ 세금부담 때문에 반대가 심하다.

12주차 1차시 :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천

[학습 내용]

1. 한부모가족의 개념과 유형
2.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및 개선방향

[학습 목표]

1. 한부모가족의 개념 및 유형을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한부모가족의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3. 한부모가족에 대한 현행 서비스를 살펴봄으로써 개선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본학습]

1. 한부모가족의 개념과 유형

1) 한부모가족의 개념

(1) 전통적인 한부모가족의 개념

- ① 한부모가족이란 결혼한 부부가 배우자의 사망이나 부모 중 한쪽의 이혼·유기·별거 및 미혼모·부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한쪽 부모가 없거나,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한쪽 부모 역할을 할 수 없는 부자 또는 모자 형태로 이루어진 가족을 이른다.
- ② 과거에는 주로 모자가정이라고 했다. 이는 전쟁 이후 모자가정이 많았기 때문이며 사회에서 모자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다.
- ③ 모자가정만이 아니라 부자가정도 있다는 비판에 따라 부자가정이라는 개념도 사용하게 되었다.

(2)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개념

- ① 전통적인 한부모가족 즉, 부나 모 중 어느 한쪽과 자녀가 이루는 가정을 한부모가족이라고 한다.
- ② 그런데 이때 부나 모란 법적으로나 실제적으로 모나 부의 역할을 하는 자를 이른다.
- ③ 또한, 부모가 양육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조손가족도 한부모가족으로 볼 수 있다.
- ④ 그리고 청소년한부모가족도 존재한다.

2) 한부모가족의 유형

(1) 이혼가족

- ① 이혼이란 성격 차이 등 여러 문제로 부부간의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때 협의 또는 법률적 판단에 따라 부부였던 자가 서로 남남으로 이별하는 것이다.
- ② 이혼가족이란 법률적으로 이혼에 의하여 축소된 가정이다.

- ③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은 부모 중 한쪽과 자녀로 이루어지는 한부모가족을 형성하게 된다.
- ④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관계는 사라지나 부모-자녀관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 부모자녀관계는 지속되기 때문에 단순히 가족해체로 규정지을 수가 없다.
 - 학대의 이유가 아니라면 이혼하더라도 부나 모는 자녀와의 관계나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어야 한다.
 - 이혼 후 겪을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경제적, 사회적 부모 역할 등 복합적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여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복합적인 과정이다.
- ⑤ 한국에서는 1970년대 후반부터 이혼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가족 간의 불화나 건강상의 이유, 경제로 문제로 인한 이혼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반면, 부부불화에 의한 이론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 ⑥ 이혼증가의 배경에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 변화, 이혼에 대한 태도의 변화, 이혼 관련 불평등법 조항 개정, 성 역할 변화에 대한 남녀 간 수용의 차이 등이 있다.

(2) 사별가족

- ① 사별이란 부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하는 것을 이르고, 이로 인하여 남아 있는 부나 모는 자녀와 한부모가족을 이루게 된다.
- ② 사별에 의한 모자가정의 증가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 과거 전쟁 이후 남편이 전사한 후 모와 자녀만 남은 경우가 많았다.
 - 여자의 평균수명이 남자보다 길어 모자가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 남자가 여자보다 사회적 활동을 더 많이 함으로 위험에 더 노출된 영향도 있다.
 - 사별 이후 남자는 대개 빠른 시일 내에 재혼을 하지만 여자는 그렇지 않는 경향이 많았다.
- ③ 부나 모가 이론 나이에 사별에 의한 한부모가족이 되었을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들이 이상적인 아버지 상 또는 어머니 상에 대해서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다.

(3) 미혼모 · 부가족

- ① 미혼모 또는 미혼부란 미혼 상태에서 혼전 임신 및 출산, 별거, 이혼, 사별 등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경우를 말한다.
- ② 결국 미혼모가족/미혼부가족이란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를 낳음으로 이루어지는 가족형태이다.
- ③ 통상 미혼부모란 통상 법적 요건을 갖추어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상태로 부모가 된 사람을 말하며, 엄격하게 따지면 기혼이지만 자신의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관계를 맺어 부모가 된 사람까지 포함된다.
- ④ 미혼부모의 자녀 역시 임신 중인 태아와 출생한 자녀 모두를 포함한다.
- ⑤ 그러나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미혼모란 정당한 혼인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 성관계를 통해 자녀를 분만한 여성을 의미한다. 출산하지 않은 임산부는 법률적으로 미혼모의 범주에서 제외되고 있다.
- ⑥ 최근에는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부가 증가함에 따라 미혼부와 그 자녀에 대해서 사회복지적 개입이 필요하여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미혼모와 더불어 미혼부도 지원대상이 되고 있다.
- ⑦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미혼모는 10대 미혼모나 20대 초반의 미혼모에 국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혼인하지 않은 청소년이나 여성은 중심으로 법적 결혼 없이 임신하여 아이를 출산하게 된 여성으로 국한하는 경향이 있다.

(4) 조손가정

- ① 조손가족이란 아동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부모가 가구 내 존재하더라도 부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18세 이하의 손자녀가 한 가정에서 조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여 양육을 책임지는 형태의 가족이다.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는 한부모의 정의에 조부나 조모를 명시하지는 않고 있으나 조부나 조모가 다음과 같은 상태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한부모가족으로서 지원을 받게 하고 있다.
 - 1. 부모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 2. 부모가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질병으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아동, 3. 부모의 장기복역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4. 부모가 이혼하거나 유기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아동
 - (여성가족부령=시행규칙) 2. 부모가 가정의 불화 등으로 가출하여 부모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3. 그 밖에 부모가 실직 등으로 장기간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아동

2. 한부모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1) 한부모가족의 실태

(1) 한부모가구현황



출처 : e-나라지표 2023.5.8.30. 검색 및 편집

- ① 한부모가구는 2017년 1,533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7.6%로 나타남. 이후 한부모 가구의 변동은 거의 없으나 전체가구가 늘어남에 따라 한부모가구의 구성비율을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2021년에 한부모가구는 1,510천 가구로 전체 가구의 6.9%로 나타남
- ② 한부모가구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2021년 기준으로 여전히 전체 가구의 6.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2)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구분	한부모가구	모자가구	부자가구	조손가구
2018	182,703 (100%)	144,156 (78.9%)	38,629 (21.1%)	918 (0.5%)
2019	182,606 (100%)	143,740 (78.7%)	37,969 (20.8%)	897 (0.5%)
2020	184,006 (100%)	145,482 (79.1%)	37,660 (20.5%)	864 (0.5%)
2021	185,461 (100%)	146,973 (79.2%)	37,432 (20.2%)	1,056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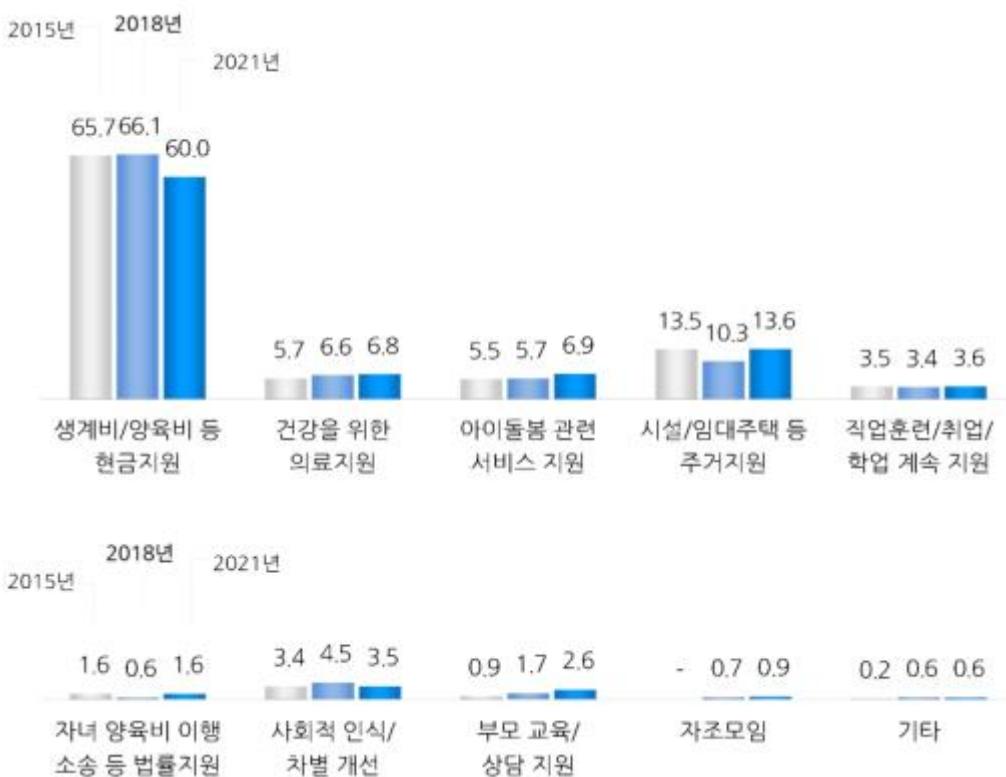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2023), 2023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 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을 보면 수치상으로는 2019년까지는 줄어들다가 그해를 기점으로 다시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 ② 가구구성 비율로 볼 때 모자가구가 78~7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모자가구가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③ 모자가구가 부자가구보다 훨씬 많은 걸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또한 여성의 취약한 노동환경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2) 한부모가족의 문제점

(1) 경제적 문제

- ① 경제적 문제는 한부모가족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한부모가족이 직면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
- ② 경제적 문제는 부자가족보다는 모자가족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취약한 면이 있기 때문이다.
- ③ 조손가족 역시 노동력의 한계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 ④ 경제적 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은 생계비와 자녀양육비 부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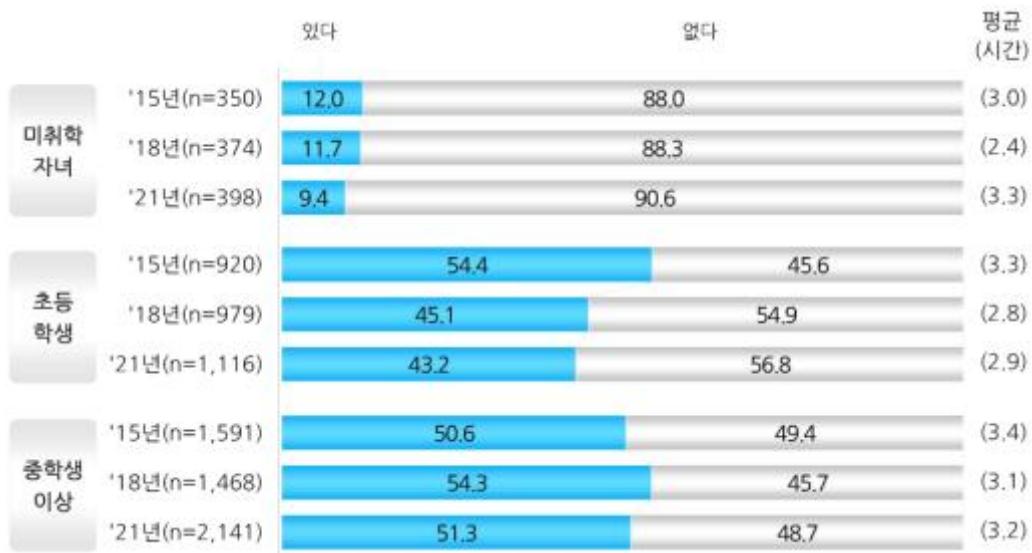
출처 : 여성가족부 (2021), 2021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2015년, 2018년,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한결같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지원 1순위는 생계비 및 양육비 등 현금지원이었다.
 - 이 부분은 60% 이상 높은 필요성을 표시하고 있다. 다른 부분에 비하여 도드라지게 강조되어 나타나고 있다.
 - 이는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 ⑤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 주거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⑥ 모자가정의 경우 여성 노동력이 취약점에서 경제적 문제가 발생하고, 부자가정의 경우 아버지가 노동과 더불어 가사 및 자녀양육을 전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에 장애가 발생하게 된다.

(2) 심리정서적 문제

- ① 한부모가족의 정서적 문제 중 가장 큰 부분은 역할에 대한 갈등이다.
- 한부모가족에게는 역할분담이 과중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 모자가정에서 어머니는 아버지의 역할까지 해야 한다. 반면, 부자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어머니의 역할까지 해야 한다.
- (이는 다분히 전통적인 성분업 관점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분석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우리나라 가정에서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이기도 하다.)
- 과중한 역할을 수행하다보면 자녀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짜증을 낼 수 있고, 이것이 자녀의 정서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

- 남편과 자녀에게 의존적인 삶을 살던 여성은 역할상실로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감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
 - 여아의 경우 어머니를, 남아의 경우 아버지를 동일시하여 성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동일시 대상의 상실로 인하여 발달장애나 학습결핍을 경험하기도 한다.
 - 모자가정의 경우 아들이 자녀와 정신적으로 남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 ② 상실감과 소외감의 문제가 나타난다.
-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기반이 약화됨으로써 심리적 불안감이 생긴다.
 - 고독감, 역할수행의 혼란, 애정결핍, 감정표현 수용의 좌절, 친구관계 변화로 인하여 상실감과 소외감과 피해의식을 경험한다.
 - 자아존중감이나 자아정체감 등에 심한 상처를 받는다.
 - 주변과 원만한 인간관계를 갖는데 어려움을 준다. --> 위축 --> 두려움
 - 조손가정이 경우 조부모의 만성질환 및 노환으로 신체적 건강과 기능수준이 낮아 오히려 돌봄을 받아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손자녀를 돌봐야 하는 양육부담은 과도한 노동으로 이어지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우울이나 소진이 되기도 한다.
- ③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을 경험하게 된다.
- 이혼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이론과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정상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강하다.
 - 비정상이라는 고정관념은 한부모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주게 되어 건강한 성장에 장애가 된다.
 - 한부모여성의 경우 혼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성으로부터 성희롱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 이런 차별이나 편견은 고독감으로도 연결된다. 이런 문제는 사별한 한가족보다는 이혼한 한부모가족이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 ④ 자녀의 부적응 문제가 나타난다.
- 한부모가족은 생계유지를 위하여 취업을 하게 되고, 부모 역할 일부의 부재로 인하여 자녀를 적절하게 양육하고 교육시킬 시간적·경제적·정신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가 발생한다.
 - 아래 그림은 한부모가족 자녀의 혼자 있는 시간에 대한 것이다.



출처 : 여성가족부(2018), 2018 한부모가족실태조사

- 평일 일과 후 돌봐주는 어른 없이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는 미취학 자녀의 경우 9.4%(하루 평균 3.3시간), 초등학생 자녀는 43.2%(하루 평균 2.9시간), 중학생 이상 자녀는 51.3%(하루 평균 3.2시간)임
- 자녀 연령이 많을수록 자녀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이 많지만, 혼자 보내는 평균 시간은 미취학 자녀가 가장 길었음
-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와 비교해보면, 모든 연령대에서 자녀 혼자 보내는 시간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감소한 반면, 혼자 보내는 시간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미취학 자녀의 혼자 보내는 시간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됨
 - 한부모가족 중 이혼한 가족의 자녀는 부나 모가 없는데서 오는 열등감과 심리적인 불안감을 겪으면서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할 대상을 잊게 되어 부적응의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3.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및 개선방향

1) 한부모가족에 대한 서비스

(1) 재가보호서비스

- ① 재가보호서비스는 양육·생계를 위한 서비스, 주거서비스, 금융·무료법률 구조서비스 등이 있다.
- ②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구분	대상		금액
아동양육비	만 18세 미만 자녀		월 20만원
추가양육비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 녀	중위소득 60% 이하 한부모가족 및 조손 가족	월 5만원
학용품비 (생활보조금)	중고등학교 자녀 (시설입소가구)		연 9.3만원 월 5만원

③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구분	대상	금액
아동양육비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자녀양육시	월 35만원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가 검정고 시 학원 수강시	연 154만원 이내
고등학생 교육비	청소년 한부모가 고등학 교 재학시	수업료 및 입학금 실 비
자립촉진수당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 년한부모	월 10만원

④ 위의 급여에 대해서는 신청주의(대상자, 친족, 관계인)와 직권주의(사회복지전담공무원)가 함께
작동되도록 한다.

(2) 시설보호서비스

- ① 시설보호서비스는 여러 이유로 자신의 집에서 자녀양육 및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입소시설을 이용하여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치료를 위하여 일정기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 ② 2022년 12월 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류 및 현황은 아래와 같다.(2023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시설유형	시 설 수	입소대상 및 기능	입소기 간 (연장가 능)	입 소 정 원
모자가 족복지 시설 (46)	기본생 활지원	42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 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3년(2년)	939 세 대
	공동생 활지원	2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 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 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모자 가족	2년(1년)	20 세 대
	자립생 활지원	2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 주택 저소득 모자가족, 기본생활지원 에서 퇴소한 모자세대로서 자립준비 가 미흡한 모자가족	3년(2년)	31 세 대
부자가 족복지	기본생 활지원	2 만 18세 미만의 자뇨를 양육하는 무 주택 저소득 부자가족	3년(2년)	40 세

시설 (3)	공동생활지원	1	독립적인 가정생활이 어렵고 일정기간 공동으로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면서 자립을 준비하고자 하는 부자 가족	2년(1년)	대 5세 대
	자립생활지원	-	기본생활지원에서 퇴소한 부자세대로서 자립준비가 미흡한 부자가족	-	-
미혼모 자가족 복지시설 (63)	기본생활지원	23	이혼·사별 또는 미혼의 임신여성 및 출산 후(6월 미만) 지원을 요하는 여성	1년(6월)	556 명
	공동생활지원	38	3세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	2년(1년)	315 세 대
		2	출산 후 해당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는 미혼모	2년(6월)	15 명
일시지원복지시설		9	배우자의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전 양육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 할 울가 있는 모와 아동	6월(6월)	228 명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9)		9	한부모가족에 대한 위기·자립상담 및 문제해결 지원	이용시설	

(3) 기타 - 정부의 정책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2) 한부모가족 서비스 개선방향

(1) 경제적 지원 확대

- ① 한부모가족이 생계비를 지원받는 데 있어 부양의무자 규정이나 주택, 자동차 등의 소유로 인하여 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이 있다.
--> 한부모가족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② 한부모가족의 경우 생계급여 지원만큼 절실한 것이 주거에 대한 문제이다. 대부분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입소 기간은 6개월에서 3년 이내이다. 경우에 따라서 연장이 가능하나 이것 역시 짧은 편이다.
--> 입소 시설의 확대와 더불어 개인 생활이 보장되는 입소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
--> 부자가족에 대한 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 ③ 대부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기술교육이 제과나 제빵 등이 많아 실질적으로 자립으로 연결되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다.
--> 자립기술지원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립기술교육은 일자리 창출 및 연계와도 연결되도록 하여 실질적인 소득 창출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한다.
- ④ 양육의 사회화에 대해서 고민해야 한다.
'양육의 사회화'란 아동 양육에 대해서만큼은 사회가 책임지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의무교육의 확충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아동수당 등이 도입되어 적어도 아동 양육에 대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심리정서적 기능 강화

- ① 대부분 한부모가족의 심리정서적 지원의 경우 기관별 한부모가족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상담에 대한 욕구에 부응할 전문인력이 감당하는 경우가 드물다.
--> 한부모가족이 겪는 심리정서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이 프로그램과 상담을 맡아야 한다.
- ② 심리정서적 부분의 한 부분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것이 많다.
-->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하는 캠페인이나 프로그램이 확충되어야 한다.

(3)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 ① 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는 경제적 책임 때문에 자녀 양육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
--> 한부모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 지지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어 방과 후 아동 보호와 지도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한부모가족 아동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해야 한다.
- ③ 이미 앞서 다뤘듯이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4) 전달체계의 개선

- ① 정부의 프로그램이나 개별 기관의 프로그램이 산재되어 있어 한부모가족이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 한부모가족이 어느 기관을 방문하더라도 여러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서 서비스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시스템으로 네트워크가 갖춰져야 한다.
--> 한부모가족에 대해서 사례관리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12주차 2차시 : 가정폭력과 학대가정에 대한 실천

[학습 내용]

1. 가정폭력의 개념 및 특성
2. 가정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3. 가정폭력 및 학대에 대한 서비스 및 개선방향

[학습 목표]

1. 가정폭력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가정폭력의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3. 폭력 및 학대에 대한 서비스를 살펴봄으로써 바람직한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본학습]

1. 가정폭력의 개념 및 특성

1) 가정폭력의 개념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 ①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② 이때 가족구성원이란?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동거하는 친족
- ③ 또한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 ④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2) 학자들이 말하는 가정폭력

- ① Kashani와 Allan(1998) :
"난폭한 언어나 신체적 폭력을 사용하여 가족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성원에 대하여 가하는 폭력행위"
- ② Schechter와 Ganley(1995) :
"청소년 또는 성인이 그들의 애인 또는 배우자로부터 경제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신체적 · 성적 · 심리적인 공격을 포함한 폭행과 위협행동 중 한 가지를 가하는 것"

(3) 종합된 정의

- ① 실질적으로 가정을 구성하여 생활하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폭력행위를 이른다.
- ② 폭력행위는 언어, 신체, 심리, 경제적인 것을 모두 포함한다.

2) 가정폭력의 유형

(1) 폭력대상자별 분류

① 부부폭력 :

- 부부 간의 폭력을 지칭하는 용어로 아내학대, 아내구타, 배우자학대, 부부폭력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되고 있다.
- 일반적으로 배우자에게 신체적 상처를 입힐 정도의 힘을 사용했을 경우를 이른다.
- 구체적으로 상대에 대한 폭행, 구타, 해치겠다는 위협,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강압된 행동을 이르고, 결혼관계에서 가해지는 정서적 학대도 포함한다.
- 부부폭력은 남편의 아내 폭력, 아내의 남편 폭력 전부 포함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남편의 아내 폭력 비율이 더 많이 통상 부부폭력이라 함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경우를 이를 때가 많다.

② 아동학대 :

- '아동복지법'(제3조 제7호)에 따르면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적극적인 폭력 가해뿐만 아니라 소극적 행위의 방임까지 학대로 본다.
-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신체적, 성적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의 발달을 저해하는 것까지 학대로 정의하고 있어 아동의 권리보호 입장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
- 실제아동학대는 어느 한 가지 학대보다는 성적 학대와 방임 또는 신체적 학대와 성적학대 등 혼합적인 형태로 발생한다.
- eg. JTBC. 2019. 6. 10보도 (김용환 외, 2019에서 재인용)

인천에서 7개월 된 영아가 6일간 방치돼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 충격을 주고 있다. 사망한 영아의 부모는 21살, 18살로 이른바 청소년 부모인데, 두 사람은 딸이 숨진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두고 집을 빠져나왔다고 한다. 아이를 방치하고 술, 게임 등 준비 안 된 부모의 비극이다. 법원은 이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혐의를 인정해 구속 결정을 내렸다.

③ 노인학대 :

- 노인인구의 증가와 고령화는 노인부양의 부담과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노화로 인하여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능력의 저하로 의존성이 증가함으로 노인학대의 가능성성이 야기된다.
- 가정 내 노인학대는 노인의 자녀, 배우자 등으로부터 받는 학대를 이르고, 요양원 등 주거시설 내 노인학대는 노인에게 보호를 제공해야 할 유급서비스 제공자나 전문인력에 의하여 행해지기도 한다.
-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자신을 돌보는데 필요한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자기방임 또는 자기학대도 나타나기도 한다.
- 노인학대는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손상을 의도적으로 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의도적 손상도 포함된다.
- 생존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를 부양자가 제공하지 않은 방임이나 유기도 학대다.
- 우리 사회에서 노인학대는 가정 내 폭력의 은혜성 때문에 장기화·잠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반복성으로 인하여 심각한 질병, 위기, 사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eg. 노인학대예방센터 (김용환 외, 2019에서 재인용)

허리가 굽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청각장애가 있는 A할머니(70세)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다. 아들 내외는 새집을 짓는다는 이유로 할머니를 마을회관에서 살도록 했고, 밥도 제때 챙겨주지 않았다. 마을이장과 딸, 사위가 아들 내외에게 '잘 모시라' 했더니 욕을 하면서 '우리 일에 참견 말라'고 했다. 신고를 받은 상담원이 할머니를 만났더니 할머니는 '아들 내외가 고생이 많다'며 '학대는 절대 없다'고 하였다.

(2) 폭력유형별 분류

① 신체적 폭력 :

- 배우자, 보호자, 양육자에 의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 공포와 육체적 상해의 원인이 되는 행동, 자유를 억압하는 행위를 이른다.
- 포함되는 것들 :
심한 구타 등 폭행, 감금, 발길질, 침 뺏기, 꼬집기, 물기, 목조르기, 담뱃불로 지지기, 흉기로 찌르기 등의 폭력행위와 행동자유를 구속하는 것 등

② 언어·정서적 폭력 :

- 배우자나 보호자가 거부적인 태도로 대화하거나, 언어적·심리적으로 모욕과 불안이나 공포를 느낄 정도로 고통을 주는 것을 이른다.
- 포함되는 행위들 :
비난, 무시하는 조작적인 언어, 억압하거나 지시하는 태도, 협박, 대화 거부, 위협적인 모습이나 제스처, 외부로부터 고립시키는 것, 소중히 여기는 사물(애완동물 포함)이나 가재도구와 재산을 손괴하는 행위, 피해자의 의사결정을 침해하는 행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위험한 환경에 홀로 방치되는 경우, 심리적 괴롭힘 등

③ 경제적 폭력 :

- 가해자가 경제권을 소유하여 가족원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을 주는 행위를 이른다.
- 포함되는 것들 :
생활비 미지급, 아내나 자녀·노부모 등이 경제적 권한을 간청할 때 계략적으로 경제권 활용, 가족부양을 위하여 어떤 경제적 노력도 행하지 않는 행위, 도박중독·쇼핑증독과 같이 반복적으로 낭비벽으로 돈을 탕진하는 일, 가족을 돌보지 않고 유기·방임하는 행위 등

④ 성적 폭력 :

- 가족 간에 발생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른다.
- 포함되는 것들 :
부부강간, 강제 불임 및 낙태, 자녀 성학대 등

3) 가정폭력의 이론적 배경

(1) 개인적 이론

- ① 폭력에 개입한 개인을 가지고 폭력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 ② 폭력을 개인적·정신병리학적 산물이거나 알코올 혹은 약물중독에 따라 비정상적인 행동 또는 가학적인 행동의 결과로 보는 것이다.
- ③ 사회학습이론 입장에서 보면 어린 시절 부모의 폭력을 목격했던 자녀는 성인이 된 후에 다시 학대자와 피학대자가 된다고 본다.
- ④ 어머니가 학대받는 것을 보고 자란 여자아이는 어머니의 행동패턴을 반복하고, 남자아이는 아버지처럼 결혼해서 아내를 학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 ⑤ 폭력가정에서 자라도 후에 폭력을 답습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가정폭력의 원인으로 설명하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

(2) 사회심리적 이론

- ① 폭력원인은 빈곤과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서 본다.
- ② 가정폭력과 관련된 모든 사회적 요인 중에서 빈곤과 가족의 경제적 지위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난다. 즉, 빈곤, 실업, 부족한 삶의 조건들은 가정 내 폭력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 ③ 가난한 가정에서 노인과 아동에 대한 방임의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 ④ 사회학습이론은 가정폭력은 다른 행동과 마찬가지로 학습된다는 것이다.

(3) 가족체계이론

- ① 가정에서의 폭력은 커다란 체계의 부분으로 존재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 간주한다.
- ② 가정폭력에 대한 단선적인 원인설명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각각의 하위체계가 주변의 환경이나 다른 체계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발생된다고 주장한다.
- ③ 가령, 아동학대는 부모와 아동 간의 부적응 또는 갈증적 환경에서 기인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다.

(4) 페미니즘 이론

- ① 가정폭력이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 ②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문화적 규범,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근거를 둔 남성의 권위적 태도 및 우월성으로 가득 찬 사회주조에서 발행하는 것으로 본다.

4) 가정폭력의 특성

- ① 가정 폭력은 은폐성을 갖는다. 가정을 사적영역으로 보아 타인이 개입하거나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려지는 경우가 많다.
- ② 가정폭력은 가장 경미한 수준에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연속선상에 배열되면서 확대되어 간다. 즉, 초기에는 가벼운 구타에서 시작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폭력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정도가 더 심화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된다.
- ③ 폭력은 반복되면서 상습성을 갖게 된다. 반복될수록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의 단계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고 폭력의 주기가 빨라진다.
- ④ 폭력은 세대전수성을 갖는다. 폭력이 되풀이되면서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폭력에 길들여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일단, 한 번 일어난 폭력은 반복될 확률이 높고, 폭력의 영향을 받고 자란 자녀들이 사회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가정폭력의 사회화 현상을 초래한다.

- ⑤ 폭력은 순환성을 갖는다. 가족구성원 사이의 폭력은 신고를 꺼리게 된다. 그 이유는 가족이라서 창피함, 자존심이 상해서, 그 순간만 넘기면 되니까 등 다양하다. 이렇게 피해자가 침묵하면서 고립되고 가해자는 더 쉽게 통제하게 된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 내어 폭력이 더욱 심각하게 된다.

2. 가정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1) 가족폭력의 실태

(1) 배우자에 의한 폭력

배우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

단위: %

연도	5개 유형 폭력				통제	피해율		
	4개 유형 폭력							
	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2016	2.5	1.3	1.6	9.1	30.0	33.9		
2019	1.5	2.6	1.0	7.2	25.0	27.5		

출처 : 여성가족부(2019), 2019 가정폭력실태조사에서 발췌작성

- ① 2016년 가정폭력실태조사와 2019년 가정폭력실태조사를 비교하여 보면 배우자 간 피해율은 줄어들었다.
- ② 폭력피해 양상을 보면 통제가 월등히 많이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는 통제와 같은 것에 대해서 폭력으로 인식하지 않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 ③ 4개 유형의 폭력을 보면 2016년/2019년 모두 정서적 폭력이 다른 폭력에 비해 높은 편인 것을 보여준다. 역시 정서적 폭력에 대해서 둔감한 사회상을 보여준다.
- ④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할 때 신체적 폭력은 줄어든 반면 성적 폭력을 늘어난 특징을 보여준다.
- ⑤ 4대 폭력(신체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에 대해서 지난 1년간 하나님도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을 대상으로 첫 피해시기를 조사한 바 결혼 후 5년 이후 46.0%, 결혼 후 1-5년 30.0%, 결혼 후 1년 미만 20.6%, 결혼 전 교제기간 3.3%로 나타났다.
 - > 데이트 폭력이 중단되지 않고 결혼 이후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여준다.
 - > 폭력이 한번 시작되면 반복되는 것을 보여준다.
- ⑥ 배우자에 의한 폭력경험에 대한 대응으로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45.6%)와 자리를 피하거나 집 밖으로 도망갔다.(12.5%)가 대부분이었다.
- ⑦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이유 1순위로는 배우자이기 때문에(21.9%), 대응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14.9%),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13.7%),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13.3%), 내 잘못도 있다고 생각해서(10.5%) 순이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 도움 청할 곳이 없어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없었다.
 - > 가정 내 부부 간 폭력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향을 드러내준다.
- ⑧ 그나마 대응한 경우도 가족이나 친척(7.2%), 이웃이나 친구(3.6%), 경찰(2.3%), 여성긴급전화(0.4%), 가정폭력상담소 등 피해자 지원기관(0.4%), 종교지도자(0.2%) 순으로 나타났다.
 - > 공식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 아동폭력

지난 1년 간 양육자에 의한 아동폭력 가해 경험

단위: %

구분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가해율
전체	11.3	24.0	2.0	27.6
여성	13.5	27.8	2.7	32.0
남성	8.8	19.8	1.1	22.7

출처 : 여성가족부(2019), 2019 가정폭력실태조사

- ① 지난 한 해 동안 아동폭력 가해 경험을 보면 주로 신체적 폭력과 정서적 폭력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여전히 아동을 훈육 등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 정서적 폭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반영한다.

(3) 배우자 이외 가족원 폭력

지난 1년 간 배우자 이외의 가족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65세 미만) 단위: %

구분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피해율
전체	1.9	0.1	0.4	4.2	4.7
여성	1.6	0.2	0.4	4.1	4.5
남성	2.3	0.0	0.4	4.3	4.9

출처 : 여성가족부(2019), 2019 가정폭력실태조사

- ① 배우자 이외의 가족구성원에 의한 폭력 피해 경험조사를 보면 역시 정서적 폭력과 신체적 폭력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 > 정서적 폭력에 대해서 폭력이라는 인식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② 가해자의 경우 주로 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4) 노인폭력 피해 경험

지난 1년 간 가족원에 의한 노인폭력 피해 경험 단위: %

구분	신체적 폭력	경제적 폭력	정서적 폭력	방임	피해율
전체	0.2	0.2	3.5	0.3	3.8
여성	0.1	0.2	3.7	0.4	3.8
남성	0.4	0.3	3.4	0.3	3.7

출처 : 여성가족부(2019), 2019 가정폭력실태조사

- ① 노인의 피해 경험은 정서적 폭력이 가장 많았다.
- > 노인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회적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2) 가정폭력의 문제점

(1) 가정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문제점

- ① 신체적 상처가 나타난다.
- 타박상, 골절상, 고막 터짐, 사지통증, 신경통, 만성두통, 만성피로, 위장장애, 악성빈혈, 심장질환, 불면증, 섭식장애 등
- ② 심리·정서적 증상이 나타난다.
- 불안감, 수치심, 부끄러움, 공포심, 죄의식, 우울함, 자살시도, 자신감 떨어짐, 탈진, 허무감, 무력감,

열등감, 집중력 저하 등

③ 사회적응장애가 나타난다.

가출, 친밀감 형성 곤란, 사회적 고립, 결혼생활 부적응, 직업상실, 직장생활 곤란 등

④ 가족기능장애가 나타난다.

결혼생활에 대한 불안감, 가족 내 역할 수행 어려움, 가사일과 자녀양육의 어려움, 성적갈등·부부갈등의 심화, 자녀에 대한 집착 또는 과잉염려·과잉보호 등

(2) 아동학대 및 폭력에 대한 문제점

① 신체적 학대는 가장 눈에 두드러지는 손상을 가져오며 발견이 비교적 용이하다.

② 정서적 학대는 그 결과가 눈에 보이거나 당장 드러나는 것이 아니기에 심각성이 더 크다.

③ 성적학대는 아동으로 하여금 성에 대해서 그릇된 인지를 갖게 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기 어렵게 만든다.

④ 방임은 아동으로 하여금 정상적인 발달에 장애가 된다. 유기는 아동에게 보호환경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⑤ 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를 갖게 된다.

⑥ 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사회성에 문제를 갖게 된다.

⑦ 폭력에 노출된 아동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3) 가정폭력 가해자의 문제점

① 저소득, 정신이상, 약물이나 알코올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②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가정 외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인 경우도 많다.

③ 가정 스트레스에 대해서 폭력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학습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4) 가족폭력 접근성의 문제점

① 가정폭력의 경우 신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다.

② 가정폭력의 경우 문제해결에 대해서 적극성을 갖질 못하는 경향이 있다.

③ 가정폭력에 대한 문제인식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④ 가정폭력에 대한 해결능력이 부족하고 뿐만 아니라 해결자원도 부족하다.

3. 가정폭력 및 학대에 대한 서비스 및 개선방향

1) 가정폭력에 대한 서비스

(1) 피해자에 대한 서비스

① 여성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에게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체제

- 1년 365일 24시간 운용, 국번없이 1366만 누르면 됨
 - 중앙 1곳과 광역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7곳이 운영되고 있음
- ② 가정폭력상담소
 - ③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 ④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 ⑤ 가정폭력 피해자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
 - ⑥ 여성폭력 피해자 주거지원
 - ⑦ 무료법률상담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 ⑧ 여성 및 사회단체를 통한 계몽
 - ⑨ 지역사회복지관에서의 여러 부부 지원 프로그램 등

2) 가정폭력에 대한 개선방향

정책적인 개선(2019 가정폭력실태조사 발췌)

- ① 피해자의 경제적 능력 상실 예방 방안 마련
- ② 보건의료체계에서의 가정폭력의 발견과 대응 강화
- ③加害자 법적 조치 강화
- ④ 대항폭력의 구분과 주가해자의 식별
- ⑤ 이별폭력의 대응강화
- ⑥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예방교육 확대
- ⑦ 가정폭력 관련 법제로 및 지원 기관 인지도 향상

13주차 1차시 :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천

[학습 내용]

1.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특성
2.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및 개선방향

[학습 목표]

1. 다문화가족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다문화가족의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설명할 수 있다.
3. 다문화가족의 현행 서비스를 살펴봄으로써 개선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본학습]

1. 다문화가족의 개념 및 특성

1) 다문화가족의 개념

(1) 다문화란

- ① 다문화는 한 사회 안에 여러 민족이나 여러 국가의 문화가 혼재하는 것을 이른다.
- ② 다문화는 다인종, 다민족으로 구성된 사회와 국가에서 문화의 중심이 되는 주류문화에 대한 하위개념을 볼 수 있다.
- ③ 다문화라는 용어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eg. 지금은 '다문화'시대이다. 이미 사회는 '다문화'사회를 이루고 있다.

(2) 다문화가족이란

- ① 다문화가족이란 통상 현재 국내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을 의미하고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 ② 다문화가족법 상의 다문화가족의 개념
 - "다문화가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을 이른다.
 - 국적법 제2조 출생 / 국적법 제3조 인지 / 국적법 제4조 귀화
 - 정리하면, 다문화가족이란 법적으로 우리나라 국민과 우리나라 이외의 문화권 사람이 결혼하여 이룬 가정을 이른다.
- ③ 다문화가족에 대한 넓은 개념
 - 한국사회에서 어떤 이유로든 다른 문화권이 포함된 결혼관계로 이루어진 가족

-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외국인 가족도 다문화가족으로 보는 것이다.
- ④ 통상적인 의미로의 다문화가족
 -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가 결혼하여 이룬 가정
 - 한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가 결혼하여 이룬 가정
 -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하거나 본국에서 결혼하여 형성된 가정이 국내에 이주한 외국인 근로자 가정
 - 북한에서 한국에 입국하거나 한국에서 한국인 또는 외국인을 만나 결혼한 새터민가정(북한이탈주민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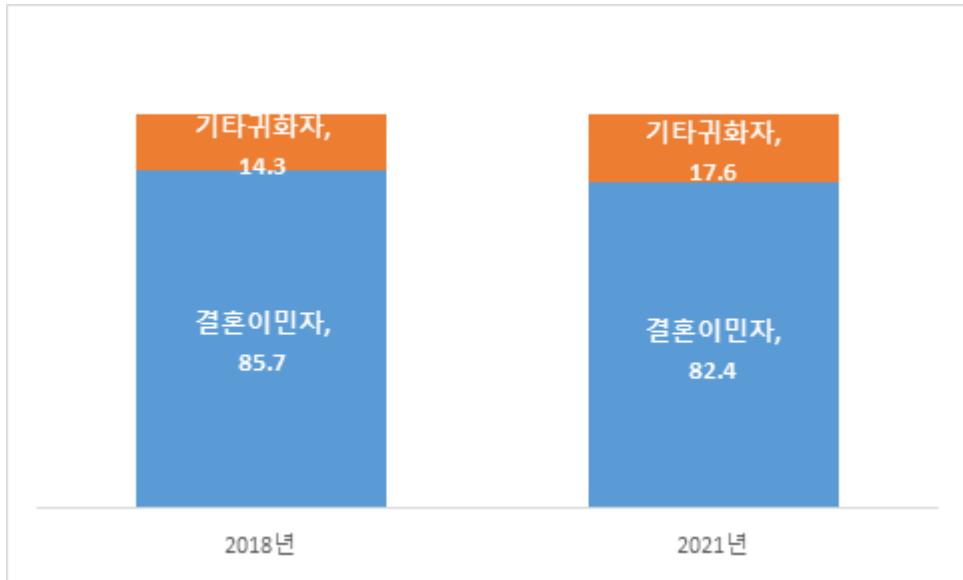
2) 다문화가족의 특성

- ① 다문화가족의 경우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다중언어를 익히는 등 유리한 면도 있다.
- ② 그러나 단일민족을 유난히 강조하는 우리나라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은 언어, 풍습, 생활 등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③ 여성결혼이주가정의 경우 어머니가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자녀교육이나 발달이 늦는 문제를 갖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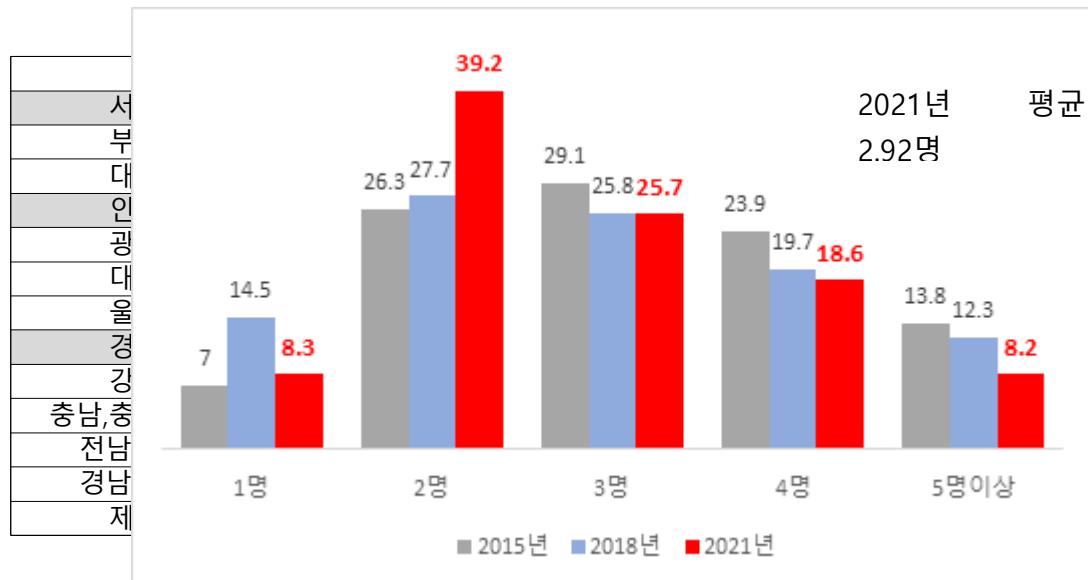
2. 다문화가족의 실태와 문제점

1) 다문화가족의 실태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발췌)

- (1) 다문화가구의 일반적 특성
 - ① 가구특성 : 결혼이민자 가구 82.4%, 기타귀화자 가구 1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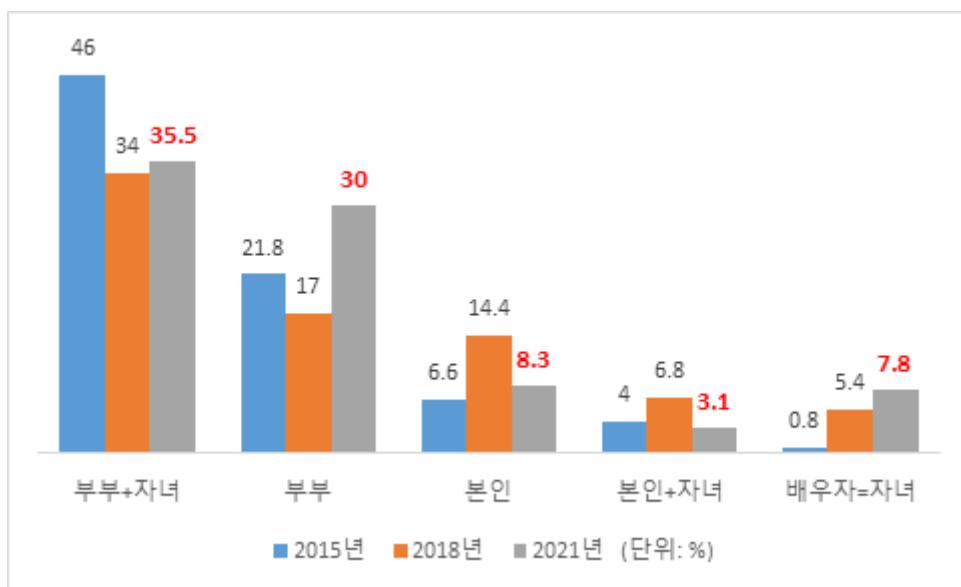


② 지역별 분포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거주 비율이 56.1%로 주로 수도권 거주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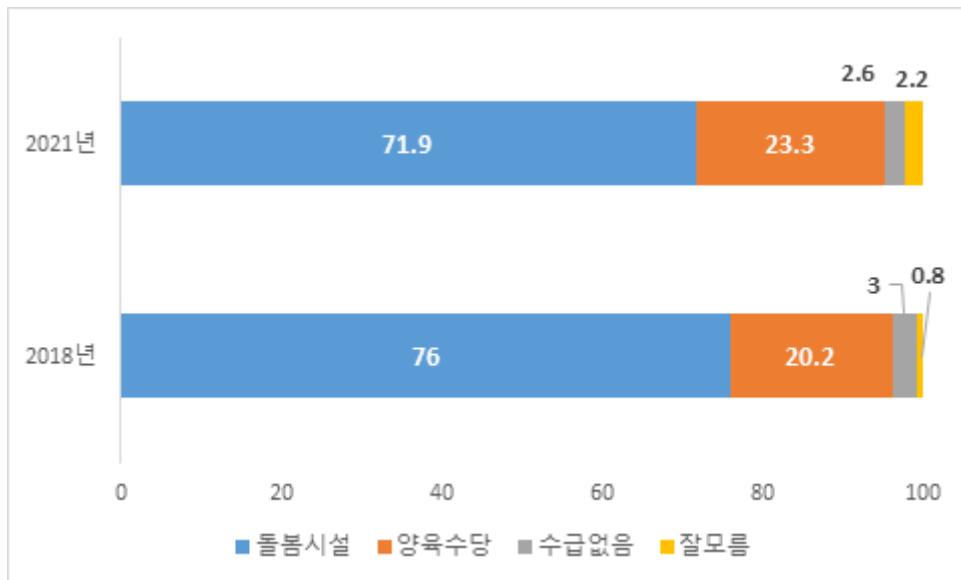
③ 평균가구원 수는 2.92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가구구성 유형 : 부부자녀가정 35.5%, 부부가구 30.0%, 본인(결혼이민자 · 기타귀화자) 1인 가구 8.3%, 본인과 자녀 가구 3.1%, 배우자와 자녀 가구 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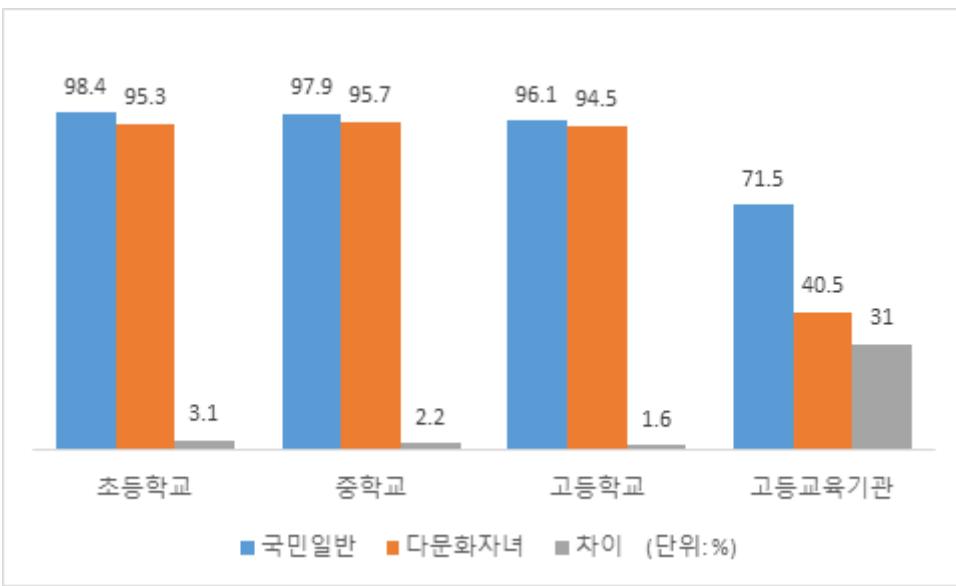


(2) 다문화가구 자녀의 일반특성

- ① 다문화가구의 평균 자녀 수는 0.88명이고 평균 연령은 10.7세이다.
- ② 만 5세 이하 미취학 자녀 중 71.9%는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고, 23.3%는 양육수당을 수령하고, 돌봄시설에 보내지도 않고 양육수당을 받지도 않는 가구는 2.6%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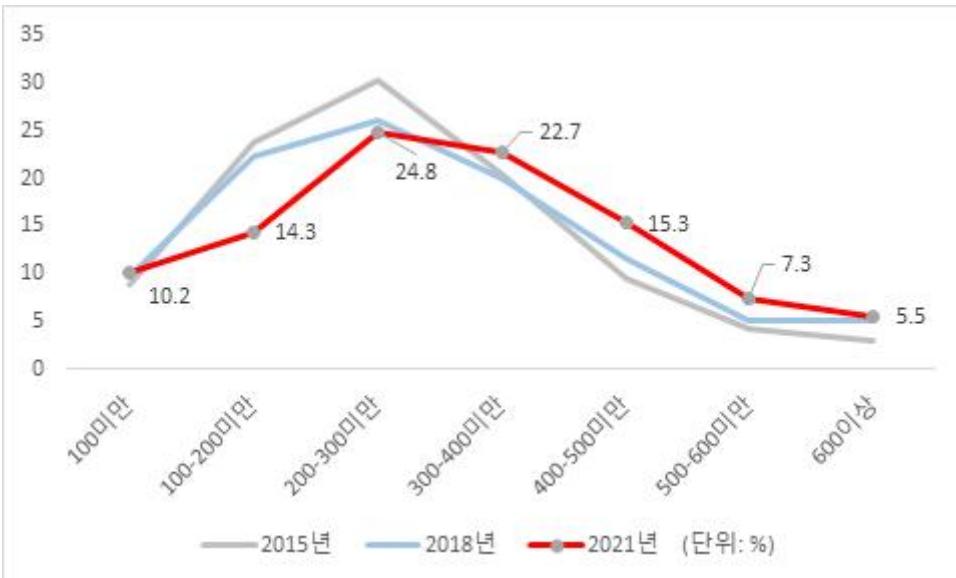
- ③ 전체 저학년 자녀의 42.4%가 평일에 혼자 방치되는 시간이 있다.
- ④ 다문화가구 자녀들의 취학률은 초등학교 취학률 98.1%, 중학교 취학률 92.8%, 고등학교 취학률은 87.9%,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49.6%로 나타난다. 이는 초등학교 취학률인 경우 전체 국민의 취학률을 상회하는 것이지만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취학률 격차가 심하게 떨어지는 편으로 나타난다.



자료: 통계청 취학률 자료와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를 토대로 작성함

(3) 경제형태

- ① 다문화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24.8%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300-400만원 미만이 22.7%, 400-500만원 미만이 15.3%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 ② 결혼이민자 · 귀화자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83.8%이고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은 16.2%이다.
- 관련하여, 일하기 시작한 시점은 입국 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으로 가장 많음
 - 기타귀화자는 결혼이민자보다 입국 후 채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한 비율이 월등히 높고, 결혼이민자는 최소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0년 사이에 취업한 비율이 기타귀화자보다 높음
- ③ 결혼이민자 · 귀화자의 취업형태는 단순 노무, 서비스 종사, 장치 기계 조립 및 종사, 기능종사에서는

국민 일반보다 많은 편이나, 전문가 관련 종사자는 국민 일반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는 편이다.

- ④ 일하면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45.7%가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고, 주된 이유로는 저임금, 의사소통, 위험한 노동, 집안일 병행, 긴 노동시간 등으로 나타났다.

(4) 가족생활 등

- ① 부부간 문화 차이에 대해서 절반 정도가 식습관(57.1%)에서 차이를 느끼고, 의사소통 방식(44.7%), 자녀 양육방식(27.1%), 경제생활(저축, 소비 등)(26.0%), 가족의례(21.2%) 등의 순으로 차이를 경험했다는 응답하였다.
-> 한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길수록 식습관, 의사소통, 문화적 차이에 대한 경험은 줄어들고 있으나, 가사분담방식, 저축 등 경제생활에 대한 부부간 문화적 차이 경험은 체류 기간이 길수록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 ② 부부 간 갈등으로 다툰 이유는 배우자의 성격, 사고방식, 가치관 차이(61.3%), 자녀양육 및 교육 문제(27.1%), 생활비 등 경제문제(25.9%), 언어소통의 어려움(17.5%) 순으로 나타났다.
- ③ 가족 내에서 모국어 사용에 대해서 격려해준다는 응답은 30.8%로 나타났는데 지난 조사에 비해 9.8%p 감소한 것이다. 한국 남성의 경우가 이 부분에서 가장 낮게 격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관련하여, 가정에서 자녀에게 배우자 모국어를 사용하도록 격려한다는 응답은 28.2%로 배우자에게 격려하는 것보다 낮게 나타났다. 역시 한국출신 남성의 격려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 ④ 주로 이용하는 지원기관으로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나타났다.

2) 다문화가족의 문제점

(1) 사회적응의 문제

- ①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적응이 어렵다.
대부분 다문화가족은 한국어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고, 남편은 아내가 한국어를 배우는 것에 적극적 관심이 부족하다. 이런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외로움, 소외감을 유발하게 된다.
- ② 문화적 차이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
서로 다른 문화적 차이로 부부관계, 가족관계, 부부의 양육 및 가사분담, 가부장적 문화, 제사, 음주문화 등에서 갈등을 겪는다. 교제 기간 없이 결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런 문화적 충격은 더 크다.
- ③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한다.
개발도상국 출신의 결혼이주여성에 대하여 생활방식이나 문화의 차이가 나타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무시와 구박을 하는 경우가 많다. 돈을 위해 한국에 온 사람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불쌍한 사람이라고 취급하는 경우도 많다.

(2) 경제적 문제

- ①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제결혼을 선택했지만 기대와는 달리 결혼 이후에도 생활고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 ② 이주민들 대부분 노동시장의 참여기회에 불리한 위치에 있다.
- ③ 한국어에 능통하지 않은 경우 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며, 낮은 지위의 노동을 하게 되고,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 ④ 경제적 어려움은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지며,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경우 다문화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기도 한다.

(3) 부부간 불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문제

- ① 가부장적인 문화 곧 남성 혈통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배제와 차별에서 오는 부부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이 나타난다.
- ② 성격의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언어소통의 어려움, 경제적 문제, 음주 문제, 가정폭력, 시부모 및 시댁 식구와의 갈등 등으로 인하여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
- ③ 이러한 이혼으로 인하여 자녀 양육문제, 단독가구가 된 이주여성의 빈곤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4) 자녀의 적응 문제

- ① 다문화가족 자녀 문제 중 가장 큰 문제는 언어적 문제와 차별의 문제이다.
 - ②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대부분 결혼과 동시에 입국을 하게 되고, 한국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산, 양육, 가정교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 이주여성 자신의 언어적 미숙으로 인하여 자녀의 언어발달이 지연되고 학업 수행이 늦어지며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나타나게 된다.
 - ③ 다문화가족의 자녀의 경우 피부색 등 외모가 다른데 따라 선입견, 편견, 집단따돌림 등을 경험하게 된다.
 - ④ 자녀들은 자아정체성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 ※ 부정적 개념과 달리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이중문화, 이중언어를 강점으로 활용할 경우 오히려 다양한 경험, 문화, 언어를 익숙하게 익힘으로 발달의 이점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이런 모습이 자신감 있게 이루어질 때 자아존중감 확립에도 도움이 된다.

(5) 적응에 대한 개념 이해 부족의 문제

- ① 우리 사회는 다문화가 바람직한 사회라고 학술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반면 아직까지 사회적으로는 다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편이다.
- ② 적응을 통합의 관점이 아니라 동화의 관점 즉, 주류문화 입장에서 이해하고 있다.

※ 다문화 관련 주요 개념의 정리

- 문화접촉 :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구 집단과 집단이 만나는 되는 상황
- 문화변용 : 서로 다른 이질적 문화가 접촉을 통하여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이 모두 변화하는 현상. 문화변용 자체는 문화적 다원성을 전제로 함
- 문화적응 전략 :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과 특성 유지라는 차원과 주류문화에 대한 수용이라는 차원을 교차로 네 가지 문화적응전략을 제시할 수 있다(John W. Berry, 1980, 1997).

차원1		자신의 문화에 대한 정체성 및 특성 유지	
차원2		yes	no
주류문화	yes	통합(Integration)	동화(Assimilation)
	no	분리(Segreg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자신의 문화를 부인하고 주류문화를 받아들이는 동화를 적응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기문화도 받아들이고 주류문화도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적응이라고 할 수 있다.

- 여러 다문화 기관에서 실시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보면 대부분 한글 교실, 한국문화 익히기 등인 것을 볼 때 다분히 '동화'의 관점에서 적응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다문화를 장려해 나가기보다는 한국화하는 것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 물론 부분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확장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동화입장에서 다문화를 바라보는 시선이 주되게 나타나고 있다.

3.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및 개선방향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서비스

(1)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운영

- ①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따로 설립되었었다.
- ②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가 일정 부분 겹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다.
- ③ 현재 법적으로 두 센터 모두 그대로 살아있지만 현장에서는 '건강가정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통합되는 실정이다.
- ④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다루는 기관이 만들어진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다문화'에 대한 명칭이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⑤ 센터는 지역사회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가족통합교육, 자조모임 육성 등 종합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운영 (<https://www.liveinkorea.kr>)

- ①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다문화 관련 포털이다.
- ② 생활정보, 교육정보, 취업 및 채용정보 등의 범주로 운영되고 있다.

2) 다문화가족에 대한 개선방향

(1) 실천적인 면에서의 개선방향

①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기회의 제공

- 아주 및 귀화자에 대하여 한국어, 한국문화, 한국사회에 대해서 익힐 수 있는 교육기회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
-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에 대해서 언어발달 지연으로 인한 발달지연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녀들에 대한 심리정서 지원 및 교육 기회가 더욱 늘어나야 한다.
- 현재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보다 더 현실화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다문화가족형태를 고려한 상담 및 지원

- 다문화가족의 경우 저임금 고강도 노동문제, 가정 내 차별 및 학대문제, 부부간 불화, 자녀양육에 대한 어려움 등을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에 맞는 상담자들의 배치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특별히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서 개입과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상담 및 지원 역시 현실화가 문제이다.

③ 다문화가족에 대한 취업 장려와 직업훈련

- 대다수 다문화가족이 경제적 · 노동적으로 취약한 상황에 있으므로 노동에 대한 기회를 더욱 늘려주어야 한다.
- 실질적인 취업으로 이루어질 직업훈련을 이루어져야 한다.
- 이 부분 역시 현실화가 문제이다.

④ 자조집단의 활성화

- 다문화가족이 지역마다 적지 않은 현실이다. 따라서 자조집단이 형성될 경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등 다양한 도움이 실질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 다문화가족의 여러 상황(출신국, 경제력, 문화적 상이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자조집단 형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자조집단이 단순히 다문화인으로만 구성되는 것보다는 가족단위로 이루어지는 게 더 바람직하다.

(2) 정책적인 면에서의 개선방향

① 다문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통합되면서 다문화 전문인력에 대한 관점은 약화된 측면이 있다.
- 건강가정사는 가정 전체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과 상담을 맡을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경제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아주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임금, 노동환경, 차별문제를 보다 더 엄밀하게 감독하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 다문화가족이 경제적 취약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바 여러 방면의 지원책이 필요하다.
- 교육이나 일자리 정책이 모두 경제적 능력과 기회 확대로 이어진다. 다만, 실질적인 경제적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교육이나 일자리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③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다문화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이나 학대에 대해서 전문기관이 개입하는 형태로 나가야 한다. eg. 아동학대--> 아동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노인보호전문기관
- 사회적 차별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해야 한다.

④ 통합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이는 정책적으로 이를 문제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사회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다.
- 다문화사회가 보다 더 발전한 사회라는 관점이 분명해지도록 매체, 미디어, 기관, 법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13주차 2차시 : 입양 및 재혼가족에 대한 실천

[학습 내용]

1. 입양가족의 특성과 서비스
2. 재혼가족의 특성과 서비스

[학습 목표]

1. 입양가족의 특성과 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재혼가족의 특성과 서비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본학습]

1. 입양가족의 특성과 서비스

1) 입양가족의 개념과 특성

(1) 입양의 사회복지적 의미

- ① 아동이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가장 필수적인 요건은 가정이다.
- ② 모든 아동은 자신이 태어난 가정에서 사랑과 이해로써 양육되고,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 ③ 이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 구와 사회는 책임을 가진다.
- ④ 국가와 사회는 아동에게 복지를 제공할 때 아동이 원가정과 가장 유사한 환경에서 건전한 성장·발달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원가정보호가 불가능하다면 입양이 가장 바람직한 보호방법이 된다.
- ⑥ 아동보호의 우선순위는 '원가정으로의 복귀'와 '원가정에서의 보호'이다.

이것이 불가능할 때 우선고려는 입양이며, 이후 위탁가정, 그룹홈, 양육시설 순으로 고려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는 모두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보호하여야 한다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2) 입양가족의 개념

- ① 입양은 생물학적 과정을 통해서가 아니라 법적·사회적 관계에 의하여 부모자식 관계를 맺는 것이다.
- ② 입양은 친부모로부터 아동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되고 행정적·법적 권한에 의해 타인에게 양육의 권리와 의무가 이양되는 것이다.
- ③ 입양을 통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입양가족이라고 한다.
- ④ 육신으로 낳는 것이 아니라서 흔히 입양을 '가슴으로 낳는다'는 표현을 한다. 이는 입양이라는 법적 과정을 거칠 뿐이지 양육은 친자처럼 사랑을 다 해서 키운다는 것을 표현한다.
- ⑤ 입양이 가족복지 차원에서 성공하려면 입양아동이나 입양부모뿐만 아니라 친생부모 모두의 이익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 입양아동은 입양가정을 통해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원만한 가정생활이 불가한 아동에게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입양부모는 입양을 통하여 아동을 양육할 수 있게 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자녀가 있더라도 더 많은 자녀를 양육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부모에게 입양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된다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다.
- 친생부모는 직접 친생자녀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인데 입양을 통하여 자녀 양육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3) 입양의 유형

① 친족입양 :

- 입양아동이 계부, 계모, 큰아버지 등 혈연관계 또는 부나 모의 재혼으로 인해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이다.
 - 비친족 입양은 전혀 가족관계를 이루고 있지 않은 자에 의하여 입양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 친족입양은 친족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입양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보다 가까운 관계에서 가정을 이룬다는 점에서 유리한 점이 있다.
- cf. 가정위탁 역시 대리양육가정위탁(조부모에 의한 양육), 친인척가정위탁(친인척 가족에 의한 양육), 일반가정위탁(혈연 관계없는 일반인에 의한 위탁양육)으로 구분된다.

② 기관입양 :

- 기관입양이란 국가가 인정하는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이 성립되는 것을 이른다. 이에 반하여 민간입양은 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과 개인이 합의하여 입양하는 것을 이르고, 독립입양은 입양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개인에 의하여 입양이 되는 것이다.
- 민간입양과 독립입양은 입양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입양아동, 입양부모, 친생부모, 사회에까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기관입양만 인정하고 있다.

③ 비밀입양 :

- 입양 사실을 입양아동은 물론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비밀로 하고 입양하는 것이다.
- 마치 입양아동을 출산한 것처럼 가정하여 비밀을 계속 유지한다.
- 친부모와도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는 것을 가정한다.
- 과거 혈연을 강조하던 시대에 비밀입양이 주를 이루었다.

④ 개방입양(공개입양) :

- 입양에 대해서 입양아동은 물론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개하는 것이다.
 - 필요한 경우 아동이 친생부나 모와의 접촉도 개방적이다.
- (방법적인 면에서 반개방입양인 경우와 완전개방입양인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
- 현대사회는 개방입양이 더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입양은 법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즉, 입양은 입양조건을 갖춘 자에게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입양특례법 제11조).

2) 입양가족의 문제와 대책

(1) 입양아동의 문제

① 입양아동은 자아정체감 등 심리적 문제를 경험한다.

- 입양은 원가정 또는 친생부모로부터의 분리를 경험하게 된다. 아동에게 이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 특히, 학대에 의하여 친생부모와 분리를 경험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심리적 문제에 더욱 큰 문제를 갖게 된다.
- ② 입양아동은 유전적인 당혹감을 경험하게 된다.
 - '유전학적 당혹감'은 친생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성장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갖는 욕구이다.
 - 인간으로서 완전하게 느끼기 위하여 자신의 배경·가계·개인력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것이다.
 - 대부분 입양아동은 공허감을 채우고, 자신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신이 태난 신체적·개인적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
 - 이런 현상은 자신이 딛고 설 수 있는 생물학적 기초와 현실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양부모가 아닌 또 다른 부모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 eg. '입양아들도 슬퍼할 권리가 있다'

3살 때 미국으로 입양되었던 카라 보스(실명, 한국명 강미숙)는 입양부모와의 행복한 삶으로 친생부모를 찾을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은 후에 생각이 바뀌어 친생모를 찾고자 하였다. 여러 루트로 겨우 친생부를 찾았지만 친생부는 자신의 딸임을 부인하여 친생부를 향하여 친생부자 확인 소송을 하여 친자임을 확인받았으나 친생부가 선글라스와 경호원을 대동하고 만나러 나타나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음으로 어머니를 찾을 길이 없어 자신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는 네덜란드에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그녀는 돌아가면서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이 사라져 간다'며 '입양아들도 슬퍼할 권리가 있다'는 의미의 말을 하고 떠났다. [자료출처 : news1. 2020.8.20. 접속]

- 이 경우 한국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 것도 문제이지만
- 카라 보스가 친생모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2) 입양부모의 문제

- ① 입양부모가 불임부부인 경우 그동안 불임으로 인하여 심리적 고통을 겪었다.
 - 불임으로 인하여 그동안 겪은 심리사회적인 위축이나 불안이 있으며, 자녀를 출산하지 못함으로 가정 내에서 받는 고통도 크다.
 - 여성의 경우 자녀출산을 통하여 신체적 변화 등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경험하지 못함으로 자신에 대한 완성감에 대해서 좌절을 느낄 수 있다.
- ②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아동이 실제로 자신에게 속해 있다고 믿기 어렵기 때문에 불안을 경험한다.
 - 아동을 입양할 때 되도록 자신이 직접 낳은 자라고 할 수 있는 외모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불안한 심정이 있음을 보여준다.
 - 이런 불안한 태도는 알게 모르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 ③ 입양부모는 부모역할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경향이 있다.
- ④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이 친부모를 찾아 나서고 친부모를 더 좋아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는다.

(3) 친생부모의 문제

- ① 친생부모는 친권을 포기하기 전에 친부모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② 입양과정에서 친부모는 부수적인 존재로 간주되고, 친권 포기 후에 얼마나 강한 상실감과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게 될 것이지, 그런 감정을 표현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조언을 듣지 못한다.
- ③ 아기에게 작별인사를 한다든지, 아기를 직접 보거나 만져 본 기억이 없는 친모는 아기에 대한 상실을 환상이 아닌 현실의 경험으로 전환하기가 힘들어 전체경험에 대한 부정으로 대처하거나 아기와 직접 또한 간접적으로 연락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게 된다. 이렇게 친권을 포기한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행동을 '친모증후군'이라고 한다.

(4) 입양가족에 대한 대책

- ① 입양가족의 경제적 지원으로 양육부담을 줄여주어야 한다. --> 입양의 활성화
- ② 산전 후 휴가와 같이 입양휴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③ 개방입양을 활성화해야 한다. 특히, 완전개방입양을 활성화하여 입양하더라도 친생부모와 단절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④ 입양아의 뿌리 찾기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야 한다.
- ⑤ 국내입양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 ⑥ 친생부모와의 원가정을 이루어 생활하는 것이 아동에게는 가장 적절한 생활환경이 된다. 따라서 입양을 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가정을 보호하는 정책이 우선적이어야 한다.

2. 재혼가족의 특성과 서비스

1) 재혼가족의 개념과 특성

(1) 재혼가족의 개념

- ① 재혼가족에 대해서 정의하자면 재혼을 통하여 구성되는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재혼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재혼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된다.
- ② 무자녀재혼가족 : 자녀가 서로 없는 상태에서 재혼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경우. 자녀입장에서 볼 때 초혼가족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계부모가족에서 제외됨
- ③ 비동거계부가족 :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재혼을 하였으나 자녀와 함께 살지는 않는 경우. <--> 비동거계모가족
- ④ 동거계부가족 : 자녀가 있는 여성이 재혼하여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 동거계모가족
- ⑤ 비동거계부모가족 : 남자나 여자 모두 자녀가 있으면서 재혼을 하고 자녀들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 동거계부모가족
- ⑥ 혼합계부형 계부모가족 : 둘 다 재혼 이전에 자녀가 있으나, 여성의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 <--> 혼합계모형 계부모가족

(2) 재혼가족의 특성

- ① 재혼가족은 복잡한 가족구조를 갖게 된다.
 - 앞서 개념 부분에서 여러 용어로 재혼가족을 살핀 것 역시 이를 보여준다.

- 재혼 이전 자녀의 유무와 그들과의 동거여부에 따라 재혼가족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 또한 요즘은 재혼과 이혼이 반복되면서 재혼했던 사람이 또다시 재혼하는 경우도 있다. 이럴 경우 가족관계는 더더욱 복잡하게 된다.
 - 이런 복잡한 구조로 인하여 의사소통의 방법 역시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 ② 계부모가족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갖고 가족생활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다.
- '즉각적인 사랑의 신화'에 의해 계부모는 계자녀에 대해 즉시 애정과 사랑을 느끼리라고 기대한다.
 - 이러한 기대 때문에 계자녀에게 즉각적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죄의식을 갖게 되고, 자신의 양면적 감정을 부정하게 된다.
 - 이러한 바람을 계자녀에게 투영함으로써 더 큰 문제상황을 야기하기도 한다.
- ③ 계부모가족은 서로 다른 가족역사를 갖는다.
- 핵가족에서 성장하는 자녀들은 가족의 문화와 역사를 공유하고 미래에 대해 공동의 기대를 갖는다.
 - 이런 공유하는 가족역사는 가족정체성을 확립하게 하고 가족유대감을 갖게 한다.
 - 하지만 재혼가족의 경우 가족의 역사가 서로 다른데 하나의 가족으로 묶이게 된다.
 - 새로운 생활 패턴을 이해하고 가족이라는 공동의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
- ④ 재혼가족은 친부모자녀 간의 유대가 먼저 형성되어 있다.
- 일반적인 핵가족은 부부가 유대를 먼저 쌓은 후에 자녀가 합류하게 되지만 재혼가족의 경우 남자와 여자 모두 자신의 친자녀와 유대를 먼저 쌓은 후에 부부관계를 맺게 된다.
 - 즉, 새로 재혼가족이 된 부모가 가지는 기본적 정서유대는 배우자와의 유대라기보다는 그들의 자녀와의 유대이다.
 - 이런 경우 친자녀와 배우자 사이에서 충성심의 갈등을 경험할 수 있다.
 - 부부간 유대가 취약할 수 있다.
- ⑤ 자녀는 두 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 이혼 후 재혼을 통하여 가족이 구성되는 경우 자녀들은 부득이 두 가족에 속하는 모습이 되게 된다.
 - 이는 이혼을 하더라도 부모자녀 간의 관계가 끊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한 가정으로 자녀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일이다.
- ⑥ 계부모와 자녀관계는 법적 관계가 없거나 모호하다.
- 계부모는 실질 가정을 이루어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법률상 아무런 부모권리가 없다.
- ⑦ 가족생활주기의 불일치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 재혼부부들은 초혼부부들에 비해 연령차가 큰 경우가 많다.
 - 이 경우 부부에게 해당하는 발달주기가 다를 수 있다.
 - 자녀들의 발달주기가 다를 수 있다.

2) 재혼가족의 문제와 대책

(1) 재혼가족의 가족관계상의 문제

① 상실감

-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아동은 친부모를 빼앗겼다는 상실감과 친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환상이 깨지는 상실감을 경험할 수 있다.
-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해 친구나 친숙한 환경을 잃어버리게 된다.
- 자신의 지위와 역할 및 특권을 계부모나 의붓형제에게 빼앗겼다는 상실감을 경험할 수 있다.
- 이혼이나 사별 후 부모들은 자녀를 위하여 재혼을 고려하게 된다. 즉, 완전한 가정의 모습을

만들어주려고 재혼을 선택하여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려고 한다. 반면, 아동은 이혼한 부모가 재결합하기를 바란다.

- 아동이 그들 부모에 대한 상실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부모의 재혼을 받아들이는 것을 친부모에 대한 배반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② 경계의 혼란과 역할의 모호성

- 재혼가정은 아동입장에서 볼 때 경계가 모호할 수 있다. 이런 모호함과 혼란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 재혼가족에서 친부모의 부재와 계부모의 존재에 대한 경계의 모호함보다 아동이 계부모를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누가 가족인지 정의하는데 일치가 부족한 점과 자녀가 양가정에 속해 가족의 구성원에 대해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경계의 모호함을 가중시킨다.
- 이런 경계의 혼란을 가족원의 역할에 대해서 모호성을 갖는 것으로 연결된다.
- 또한 재혼가정의 아동은 재혼으로 인하여 출생순위가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됨으로써 역할 재정의 문제에 부딪히게 된다.
- ★★ 경계설정에 있어서 부모는 상대방의 전배우자를 포함한 경계영역을 넓혀야 하고, 자녀들은 계부모와 의붓형제를 가족구성원으로 포함해야 한다.

③ 충성심의 갈등

- 자녀들은 친부모에 대한 충성심이 강해서 (이혼하려는) 친부모가족에서는 부모의 결혼을 유지시키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반면, 재혼가족에서는 한쪽 부모에게 강한 충성심을 느끼고 의식적·무의식적으로 새로운 부부를 갈라지게 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분리된 충성심을 가질 경우 아동은 자신이 부모이혼의 원인이었다는 또는 그것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좌절하게 된다. 또한 재혼을 받아들였다는 죄책감에 시달리게 된다.
- 재혼초기 계부모를 배제하는 친부모와 자녀 간 동맹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고, 이는 가족 내 위계질서의 부조화를 의미한다.

④ 통제력 부족

- 재혼가정은 새로운 생활방식을 적용해야 하지만 청소년 자녀의 경우 이런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 이로 말미암아 통제력이 부족한 모습이 나타나고 통제력 부족은 무력감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⑤ 자원분배 갈등

- 개혼가족은 가족구조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가족의 시간·금전·애정·에너지 등의 자원배분이 욕구된다.
- 이 과정에서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배우자 간 갈등이 일어나기도 한다.
- 자녀들은 새로운 의붓형제와 역할·물건·공간 등을 나눠야 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갈등을 겪게 된다.

⑥ 의붓형제 간 경쟁과 유대

- 의붓형제 간 경쟁과 갈등은 취약한 새로운 부부관계를 위협하게 된다.
- 의붓형제 간 관계에 대해서 상치되는 여러 연구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즉, 경쟁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연구도 나타나고, 가치관이나 생각이 비슷한 경우에는 서로 빠르게 유대되는 모습이 있다는 연구도 나타나고 있다.

⑦ 아동학대

- 재혼가족에서의 아동학대는 주로 친부와 계부 또는 어머니의 남자친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 특히, 계부에 의한 성학대를 당하는 아동의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난다.
- 한편에서는 계부에 의한 학대가 많다고만 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재혼가정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아동학대가 일어날 개연성과 환경적 요인이 많다는 점은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⑧ 아동비행

- 재혼가족을 이루는 과정에서 겪은 아동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아동비행으로 연결되는 경향성이 있다.
- 재혼가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 가정으로부터 탈피하기 위하여 가출 등 비행행동을 하게 된다.

(2) 재혼가족의 사회적 관계에서의 문제

① 불완전한 제도

- 초혼과 달리 재혼에 대해서는 안내해 주는 사회적 규범이 부재하다. 그만큼 불완전한 제도로 인식된다. 실제로 재혼가족의 이혼율이 초혼의 이혼율보다 높다.
- 재혼가족에서는 계부모에 대한 호칭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는다.

② 사회적 부정적 인식과 편견

- 재혼, 의붓자녀 등에 대해서 사회적 편견이 많다.
- 사실 재혼가족에서 계부모에 대한 호칭 문제를 언급하는 것도 재혼가족에 대한 낙인이라고 할 수 있다.

-->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라는 점을 사회가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부자관계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것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재혼을 하더라도 친부모와 관계를 가능하면 이어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가족을 이루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③ 사회적 지원체계의 결여

- 재혼가족을 위한 사회적 규범의 부재와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인식의 결과 사회적 지원체계에서 재혼가족에 대한 것도 부족하게 나타나고 있다.
- 교육, 상담 등도 재혼가족에게 특화된 것이 부족하다.

④ 법적제도의 미비

- 계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모호하다.

(3) 재혼가족에 대한 대책

- ① 재혼가족에 대해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는 사회적 인식과 더불어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적 규범이라고 할 수 있는 일정한 모델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 ② 재혼가족은 초혼가족보다 훨씬 복잡한 관계를 이루게 됨으로 재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서비스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 ③ 재혼가족에 대한 사회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재혼가족도 가족의 한 형태이며 자연스런 가족이라는 관점을 가져야 한다. 부모자녀 간 당연한 관계형성이나 호칭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재혼가족을 구성할 때 자녀 문제 관련하여서는 이전 가족의 역할을 일정부분 받아들이는 사회적 인식도 발달되어야 한다.
- ④ 재혼가족을 다룰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배치하여야 한다.

14주차 1차시 : 가족복지전문가와 윤리적 문제

[학습 내용]

1. 가족복지실천가
2. 가족복지실천 과정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학습 목표]

1. 가족복지실천가의 전문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2. 가족복지실천가가 실천과정에서 겪는 윤리적 딜레마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본학습]

1. 가족복지실천가

1) 가족복지전문가에 대한 이해

(1) 전문가/전문직의 개념

- ① [인적자원관리용어사전] 주된 업무가 자연과학, 생명과학 및 사회과학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 개발 및 개선하며 고도의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진료 활동과 각급 학교 학생을 지도하고 예술적인 창작활동을 수행하는 자와 또한 행정·경영 등에 관련된 의사결정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사회복지용어사전] 가치 지향이나 지식의 특정한 목표가 문제에 집중되어 있고, 특정 활동에 대한 기술적인 전문성과 기법이 고도로 발달되고 세련된 사회복지실천가
- ③ [사회복지용어사전-전문직]
 - 한 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면서 특정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가치, 기술, 기능, 지식 및 신념의 체계.
 - 일반대중은 이러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특정한 사회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 불가결하다고 생각하여,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로 인·허가 등을 통해 공적 또는 법적인 인정을 하고 있다.
 - 전문직업인들은 일반대중의 신뢰를 더 높이기 위하여 지식의 범위를 확대하고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이 이 지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기술과 가치를 갈고닦으며 이들이 기준의 기준체계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대외에 공표한다.

(2) 전문가 또는 전문직의 특징

- ①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활동하는 기법/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따라서 일정기간 학습기간과 훈련기간을 거쳐야 한다.
- ② 전문직은 전문직 문화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 협회, 학회 등의 활동이 활발하다.
- ③ 전문직 가치나 윤리적 기준이 존재한다. --> 대부분 전문직은 자기분야의 윤리기준이 존재한다. eg. 사회복지사윤리강령

- ④ 전문직은 전문적 지식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을 한다. --> 전문직은 스스로 연구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 ⑤ 전문직 자격취득이나 자격관리가 엄격하다. -->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상당기간 공부/훈련해야 하며, 자격관리에 있어 엄격성을 갖는다. 인정된 자격증이 된다.
- ⑥ 사회적으로 전문직에 대한 신망이 두텁다. --> 사회구성원은 전문가가 맡고 있는 일은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신념을 갖는다.

(3) 가족복지에 대한 전문가

- 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족복지에 대한 전문가로 우선 꼽을 수 있는 사람은 '사회복지사'이다. 사회복지사는 국가자격으로 한다.
- ② 가정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전문가로는 '건강가정사'를 들 수 있다. 건강가정사는 국가자격으로 한다.
- ③ 가족복지의 업무 중 상담업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가족복지 전문가로 '상담가'를 들 수 있다. 상담에 대한 자격은 주로 민간자격으로 한다. 청소년상담사는 국가자격이다.
- ④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돋는 '가정봉사원'을 파견한다. 가정봉사원은 소정의 교육을 받은 자로 한다.
- ⑤ 가족관련 전문가들은 주로 사회복지학, 가족학, 아동학, 여성학, 청소년학, 상담학 등을 전공하는 경우가 많다.

2) 가족복지전문가로서의 자격증

(1) 사회복지사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다.
- ②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과 2급이 있다.
- ③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료사회복지사·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은 1급 사회복지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에게 부여한다. (2020.12.12. 시행)
- ④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은 2급 자격을 취득한 자들을 대상으로 국가고시를 통하여 부여한다.
 - 대학과 대학원 졸업과 자격취득을 앞둔 자에게는 1급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 전문대학과 그에 준하는 교육기관에서 교육받고 사회복지사 2급을 받은 자, 양성과정을 거쳐 사회복지사가 된 자에게는 1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1급 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 ⑤ 사회복지사 2급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7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동등 자격이 있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한 자
 - 대학졸업 이상 동등 자격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12주 이상 사회복지사업

에 관한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

- 종전 3급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 기존에는 1,2,3급이었으나 현실적인 상황의 변화로 3급은 이미 취득한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자격취득 과정으로서 3급 취득은 없어졌다.
- ⑥ 필수교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⑦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⑧ 사회복지사가 가족복지의 전문가임은 분명하지만 가족복지 관련 과목은 선택과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족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할 수 없다.

(2) 건강가정사

- ① 여성가족부가 건강가족업무와 관련한 전문가로 자격을 부여한다.
- ② 건강가정지원센터에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곧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 필수인력
- ③ 건강가정사의 자격 요건
 - 1.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할 것(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2. 제1호에 따른 학력 취득과정이나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사회복지학 · 가정학 · 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교과목을 이수할 것
- ④ 대학에서 핵심과목 5과목, 관련과목 7과목(기초이론 4, 상담 · 교육 등 실제 3) 등 12과목 36학점을 또는 12과목 이상 36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⑤ 대학원에서 이수할 경우 핵심과목 4과목, 관련과목 4과목(기초이론 2, 상담 · 교육 등 실제 2) 24학점을 이수해야 한다.
- ⑥ 핵심과목 : 건강가정론, (건강)가정(족)정책론, 가족상담(및 치료), 가정(족)생활교육, 가족복지론, 가족과 젠더, 가족(정)과 문화, 건강가정현장실습, 여성과 (현대)사회, 비영리기관 운영관리 중 5과목 이상
- ⑦ 관련과목 중 기초이론 : 가족학, 가족관계(학), 가족법, 아동학, 보육학, 아동(청소년)복지론, 노년학, 노인복지론, 인간발달,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가족(정)(자원)관리, 가계경제, 가사노동론, 여가관리론, 주거학, 생애주기 영양학, 여성복지(론), 여성주의이론, 정신건강(정신보건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가정생활복지론, 상담이론, 자원봉사론, 성과 사랑, 법여성학, 여성과 문화, 일과 가족(정), 사회복지(개)론 중 4과목 이상
- ⑧ 관련과목 중 교육 · 상담 등 실제 : 생활설계상담, 아동상담, 영양상담 및 교육, 소비자 상담, 주거상담, 부모교육, 부부교육, 소비자교육, 가정생활과 정보, 가계재무관리, 주택관리, 의생활관리, 지역사회 영양학,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지역사회복지론, 연구(조사)방법론, 부부상담, 집단상담, 가족(정)과 지역사회, 여성과 교육, 여성과 리더십, 여성주의 상담, 사회복지실천론, 위기개입론, 사례관리론 중 3과목 이상
- ⑨ 관련과목을 이수하면 건강가정사 자격이 주어지고 현장에 취업했을 경우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 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필수인력을 정의하고 있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당시부터 지역사회종합복지관과의 차별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었다. 현재도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된 사업이 복지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 ⑪ 과목이수만으로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전문성 담보에 대한 문제성이 있을 수 있다.

(3) 상담사

- ① 상담사는 일반적으로 상담학 전공을 한 후 일정기간 현장 훈련을 통하여 자격이 부여된다.
- ② 상담사는 주로 민간자격인 경우가 많다. 청소년상담사는 국가자격이다.
- ③ 민간자격의 경우 자격증을 부여하는 기관에 따라 자격검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상담인력을 뽑을 때 이에 대한 구별은 하지 않고 있다.

(4) 가정봉사원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돋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다.
- ② 가정봉사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교육내용 : 교육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매년 16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론교육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출석하여 받는 교육과 동일한 내용의 시청각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다.

(5) 가족복지 관련 전문가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

- ① 사회복지사 자격 필수교과목에 가족복지 관련 과목이 편입되어야 한다. 이때 필수과목으로 편입되는 가족복지 관련 교과목은 가족구성원 개별에 대한 복지과목이라기 보다는 가족복지 전체에 대한 교과목이 되어야 한다.
- ②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건강가정사 역시 자격의 급수를 구분하고, 최종 권위의 자격은 국가자격 시험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③ 건강지원센터에서 건강가정사를 필수요원으로 선발하고 있으나 가족관련 전문업무 영역에 대해서는 건강가정사를 필수요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전문인력에 맞는 보수와 대우를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⑤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적인 문화를 스스로 창출하여 발전시키는 노력을 해야 한다.

2. 가족복지실천 과정에서의 윤리적 딜레마와 해결방안

1) 가치와 윤리의 중요원칙

부부치료를 목적으로 개별상담을 하는 중 남편(아내)이 배우자 모르게 자신의 외도 경험을 이야기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비밀을 지켜주어야 할까, 아니면 알려서 또 다른 외도가 없도록 해야 할까?
--> 결정이 쉽지 않다.
--> 인간을 다루는 일은 항상 윤리적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1) 가치의 개념과 역할

- ① 가치란 다수의 사회구성원에 의해 선하거나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것을 이른다. 또는 개인의 선호도를 의미한다.
- ② 가치는 개인이 특정상황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지침이 된다.

(2) 가족복지에 종사할 때 세 가지 가치 체계가 복합됨

- ① 전문적 가치,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가 작동된다.
 - 전문적 가치 : 전문직에서 중시되는 가치. 인간의 존엄, 다양성의 존중, 자기결정권 등
 - 개인적 가치 : 개인으로서 좋고 싫음을 구분하는 기준
 - 사회적 가치 : 사회에서 중시 여기는 가치. 전문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줌
- ②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는 전문적 가치에 따라 서비스에 임하다가도 부지중에 개인적 가치에 의해 일을 하게 되는 때가 발생하기도 한다.
- ③ 또한 전문적 가치, 개인적 가치, 사회적 가치는 상당 부분 일치하나,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④ 전문적 가치가 사회적 가치에 토대를 두긴 하나 다를 때도 있다.
- ⑤ 개인적 가치도 전문적 가치나 사회적 가치와 다를 수도 있다.

(3) 윤리에 대한 이해

- ① 윤리란, 무엇이 옳고 바른 것인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이른다.
- ② 가치나 윤리는 모두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기 위한 기준을 말하며 혼용하여 쓰이기도 하지만 서로 다른 것이다.
- ③ 가치는 이상적인 면을 다루는 반면, 윤리는 현실적인 면을 다룬다는 차이가 있다.
 - 사생활보호 –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가치
 - 상담에서 비밀보장 – 상담가로서의 윤리.

(4) 윤리의 철학적 논제

- ① 바람직한 행동을 하기 위한 기준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철학적인 문제로 넘어가는 것이다.
- ② 윤리적 상대주의 : 규범이 기준이 아니라 결과에 따라 바뀌는 것이다.
- ③ 윤리적 절대주의 : 행위의 도덕성은 행위 그 자체에 있는 것이다.
- ④ 임상적 실용주의, 자아실현, 상황윤리, 여권주의, 신민주의, 덕의 윤리 등 여러 가지 철학적 범주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어느 하나의 법칙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 윤리적 딜레마

(1) 가족복지에 있어 윤리의 주요원칙들

- ① 대상자에 대한 책임
 - 다양성의 존중 :
 - 대상자의 인종, 성별, 종교, 출신국가, 성적지향 등에 관계없이 전문적 서비스를 공정하게 제공해야 함
 - 사회복지사의 가치관으로 대상자의 가치관을 판단해서는 안 됨

- 이중관계 금지 :
 - 사회복지사와 대상자 사이에서 전문적 치료관계 외에 다른 사적이 관계를 맺으면 안됨
 - 사적인 친밀관계, 성적관계, 동업자관계, 사제관계 등이 전부 이중관계가 됨
- 자기결정권 존중 :
 -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운명을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 (인권의 핵심)
 - 사회복지사는 대상자가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야 함. 대신 결정을 내리면 안 됨.
- 치료종결이나 의뢰에 대한 책임
 - 사회복지사는 대상자가 치료적 관계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관계를 가져야 함
 - 사회복지사가 다를 수 없거나 부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서비스를 받도록 도와야 함
- 고지된 동의 :
 - 고지된 동의란, 치료 시작 전에 대상자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치료에 동의하도록 하는 절차
 - 비밀보장의 한계, 치료기록(녹화)의 성격과 범위, 치료자의 직책 · 경험 · 전문영역(수퍼바이저), 치료모델과 대안,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및 청구방법, 치료중단에 대해서 등을 사전에 고지.

② 비밀보장

- 비밀보장의 원칙:
 - 치료적 관계에서 얻은 정보를 어떤 경우에도 사전 동의 없이 타인에게 발설하지 않는 것
 - 전문적 치료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원칙임
 - 치료대화에 관한 비밀유지 특권 :
 - 비밀보장의 원칙을 법정에서 적용하는 것. 즉, 치료적 관계에서 얻은 정보를 법정에서 발설하지 않는 것. 통상 부부사이, 변호사와 클라이언트 사이, 사제와 신자 사이에서 발생.
 - 우리나라는 이런 법적 조항은 있으나 윤리적 의무를 가져야 함
 - 예외상황 :
 - 대상자가 신체적 자해나 타해의 위협이 있을 경우
 -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보호대상자에 대한 학대나 유기 주장이 있을 경우
 - 학대, 폭력, 위험성 등을 이유로 법원이 명령을 했을 경우
- ③ 전문성과 품위 – 신체적, 정신적 위험 증상이 되는 알콜중독 등이 있어서는 곤란함
- ④ 훈련생 및 연구대상에 대한 책임 – 상대적으로 주도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착취 등 금지
- ⑤ 전문직에 대한 책임 – 전문직 그룹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함. 즉, 그만한 자격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함. 다른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어선 안 됨
- ⑥ 비용에 대한 합의
- ⑦ 서비스에 대한 홍보 – 자신의 능력, 교육, 훈련 경험 등을 정확하게 밝혀야 함

(2) 윤리적 딜레마

- ① 윤리적 딜레마란, "다른 행동을 취할 더 나은 이유가 있는 상황"을 이른다.
- ② 양자 선택이 모두 나름대로 장단점을 가지고 있어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어려운 경우이다.
- ③ 누가 대상자인가?

도벽이 있는 아이를 상담하다 보니, 아내는 애를 버릇없이 키우고 있고, 남편은 지나치게 변덕스럽고 지기 위주로 행동하며 손찌검도 자주하는 가정임을 알게 되었다.

이 경우 대상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 아이? 아내? 남편? 가족전체?

④ 치료를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경우

남편은 고부갈등을 봉합하기 위하여, 아내는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호소하고자 치료시작. 6회의 상담 끝에 부부관계는 친밀해졌으나, 아내는 분가하지 않으면 이혼하겠다고 하고, 남편은 외아들이라 그럴 수 없다고 하면서, 상담의 결과가 없으니 환불해 달라고 할 경우

이런 경우 정말 상담의 결과가 없는 것일까?

⑤ 비밀보장을 어디까지?

청소년기관의 지도자가 15세 중학생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가족전문기관에 상담 의뢰. 학생은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데 동의했고, 부모는 종교적 이유로 임신을 유지하는데 동의하여 임신을 유지중임. 상담을 통하여 이 학생은 아이의 부가 친척임을 밝혔으나 가족들에게는 절대비밀로 하여 달라고 부탁. 가족들은 이를 알고 싶어 하고, 특히 의뢰기관인 청소년기관에서는 자세한 기록을 요청. 비밀보장을 어디까지 하여야 할까?

비밀보장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특히 의뢰기관에서 요청하는 것을 거부하기는 곤란한데...

⑥ 과거의 치료자가 전남편과 사귄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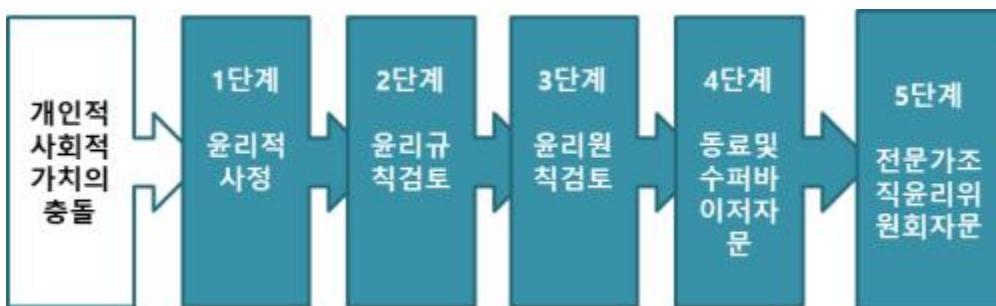
부부문제로 상담을 받은 결과 이혼하게 되었다. 그런데 후에 전남편과 치료자가 사귀고 있다. 치료자는 상담할 때는 사귀지 않았고, 치료관계가 끝난 후 사귀기 시작했다고 한다. 실제로 전남편은 치료과정 중 교제를 요청했고, 치료자는 치료 후에 사귀자고 미루었다고 한다. 과연 어디서부터가 이중관계인가?

단순히 치료 당시에는 사귀지 않았다고 해서 이중관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⑦ 윤리적 딜레마 상황은 수도 없이 많으면 특히 상반되거나 충돌하는 선택의 종류가 있을 때 많이 나타난다. (-> 윤리적 의사결정 원칙이 필요하다.)

3) 윤리적 의사결정

(1) 윤리적 의사결정의 5단계



① 윤리적 사정

- 치료자의 개인적 가치, 딜레마가 처해 있는 사회적 가치,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적 가치를 찾아본다.
- 대안적인 선택의 여지를 만들어 본다. 각 가치 사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대해 고민해 본다.
- 대안들 중 최소 손실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 각 대안의 장단기적인 장단점은?

② 윤리규칙검토

- 전문가 윤리강령을 살펴본다. 사회복지사윤리강령, 가족치료 전문가 윤리강령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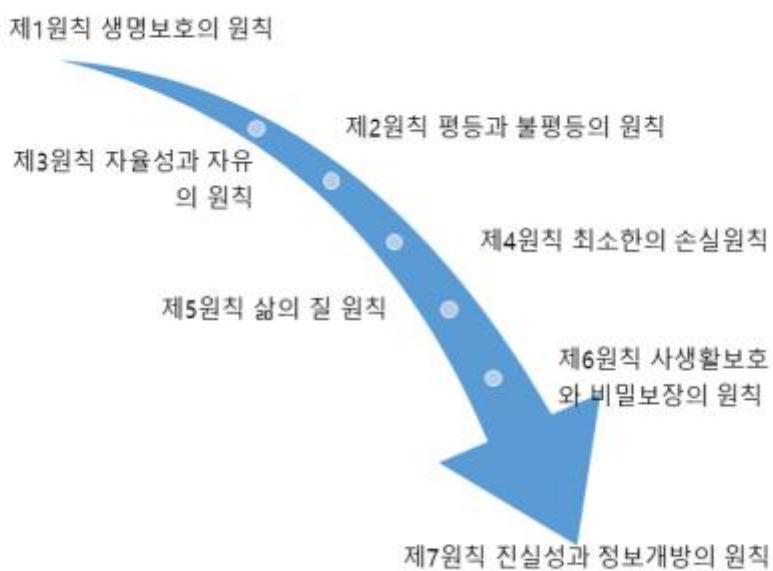
③ 윤리원칙검토

- 윤리원칙을 가장 중요한 것에서부터 서열화한다.
- 높은 순위의 원칙을 먼저 지키고 낮은 순위의 원칙은 후에 지킨다.

④ 동료나 슈퍼바이저의 자문

⑤ 전문가조직 윤리위원회의 자문

(2) 윤리원칙의 서열화



① 제1원칙 : 생명보호의 원칙

- 모든 권리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다른 원칙이나 의무에 우선함
 -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임
 - 생명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다른 권리도 누릴 수 없음
- ② 제2원칙 : 평등과 불평등의 원칙
- 동등한 경우는 평등하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불평등하게 대우해야 함
 - 학대받는 아동과 성인을 동등하게 대우할 수 없음. 아동이 성인과 대등해지려면 아동의 권리가 더욱 우선시 되어야만 함
- ③ 제3원칙 : 자율성과 자유의 원칙
- 대상자의 결정은 자신의 자율적 의사와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며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
 - 그러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평등·불평등 사안보다 우선시 되지는 않음
- ④ 제4원칙 : 최소한 손실의 원칙
- 손실이 불가피할 경우, 최소한의 손실이 오도록 하여야 하며
 - 또한 가장 수월하게 회복할 수 있는 손실을 가져오는 걸 선택하여야 함
- ⑤ 제5원칙 : 삶의 질의 원칙
- 치료자, 대상자, 관련자 등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기회를 선택해야 함
- ⑥ 제6원칙 : 사생활보호와 비밀보장의 원칙
- 모든 사람의 사생활보호에 대한 권리를 신장시켜야 함
 - 대상자의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 것은 이 원칙을 실천하는 결과일 뿐임
- ⑦ 제7원칙 : 진실성과 정보공개의 원칙
- 대상자나 관련된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함
 - 정보를 충분히 개방하는 것을 허용하는 실천적 결정을 해야 함
- ⑧ ※ 일단 윤리원칙을 위에서 제시한 원칙에 따라 서열화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서열화는 하나의 참고의 자료일 뿐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주지해야한다.
- ⑨ ※ 사회복지사의 일은 인간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관련 문제가 항상 제기될 수 있으므로, 평소에 인권에 대한 의식을 높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14주차 2차시 : 가족복지의 전망과 과제

[학습 내용]

1. 가족복지의 방향성 전망
2. 가족복지의 과제와 발전방향

[학습 목표]

1. 사회복지변화에 따른 가족복지변화의 전망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2. 가족복지가 발전하기 위하여 가진 과제가 무엇인지와 그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본학습]

1. 가족복지의 방향성 전망

1) 정책 면에서

(1) 보편주의 관점으로의 변화

- ① 사회복지는 공공부조에서 시작하여 사회보험으로 그리고 사회서비스로 발전해 가고 있다.
- ② 선별주의에서 보편주의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
 - eg. 1. 아동수당의 시행을 선별주의로 했다가 6개월 만에 바로 보편주의로 전향했다. 정부는 원래 보편주의 아동수당으로 설계했었다.
 - eg. 2. 코로나19로 인하여 한참 경기가 어려울 때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였다.
 - 정책을 하나씩 새로 펼칠 때마다 국민 모두에게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필요한 사람을 선별해서 적용해야 하는지 논쟁이 일어나지만 시대적 흐름이 보편주의적 정책이라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 ③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보수 쪽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 cf. 기본소득은 국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가 국민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철학적으로 공유부(common wealthy) 할당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비록, 보수 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기본소득이 기본소득의 개념에 적절한 것은 아니지만 시대적으로 복지에 대해서 논의할 때 보편적인 것을 무시할 수 없는 모습이 확대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가족복지(학)가 지향하던 관점

- ① 생태체계론적 관점에 따라 유기적 상호작용의 관점을 기반으로 하는 '전체로서의 가족'을 강조하여 오고 있다.
- ② 가족구성원 개인보다는 '한 단위로서의 가족'을 보면서 요구분석과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있다. eg. 공공부조-가족 단위의 시행

(3) 가족복지정책의 실제적인 지향점

- ① 전체로서의 가족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 ② 가족의 문제를 아동문제, 여성문제, 노인문제로 분절하여 접근하는 경우가 더 많다.

즉, 가족 전체에 대한 접근이라기보다는 가족 구성원 중심적인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 ③ 이는 사회적 약자로 대표되는 아동,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밖에 없는 점을 기반하고 있다.

(4) 정책의 현실과 학문적 만남의 필요성 대두

- ① 정책을 가족 전체를 보는 보편적인 입장에서 재구성해 볼 필요가 있다.
- ②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에서 건강가정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게 되어 있다. 또한 지방에서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정하고 진행해야 한다.
- ③ 이런 정책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가족을 전체로 보는 이렇다 할 정책이 드러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사회보장계획 등 전체적인 정책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 ④ 따라서 가족복지를 좀 더 설정할 것이 아니라 폭넓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문적 성찰이 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 문제접근 면에서

(1) 기준의 가족복지 정책의 접근법 : 구조중심의 접근

- ① 가족의 정상적인 모습을 합법적인 결혼관계와 그에 따른 자녀로 보고 있다.
즉, 핵가족을 중심으로 보고 있다.
- ② 이것을 벗어나는 가족을 문제가족, 결손가족, 비정상가족이라 하여 개입을 하려 하였다.
- ③ 이렇듯 가족문제를 가족구조적으로만 보려는 게 지금까지의 경향이었다.

(2) 점차 이슈가 되는 부분 : 기능중심적 접근

- ① 가족의 문제를 구조적으로만 볼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았다.
- ② 그 이유는 가족의 형태가 너무나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핵가족을 정상적인 가족으로 보는 것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③ 한편, 가족의 기능이 가족 밖으로 이양되어가는 과정이 나타나고 있다.
- 전통적으로 가족에서 수행해 왔던 기능들 중 많은 부분이 사회에 이양되었다.
eg. 사회화의 기능, 통제의 기능 등
 - 가족은 스스로 내재적, 외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 복지에 대한 기대가 커짐으로 국가와 사회의 개입이 당연시되어가고 있다.
 - ※그렇다면 이젠 가족을 구조적인 관점에서 보던 것을 지양하고,
 - ※새로운 관점, 즉 기능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④ 건강가족에 대한 개념 : 법에서는 핵가족으로 정상가족이며 건강가족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가족의 기능을 제대로 작동하는 가족을 건강가족이라고 할 필요가 있다.
- ⑤ 아울러 개입도 모든 가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야 한다.

3) 가족부양책임 면에서

(1) 기본 정책에서의 부양의 책임

- ① 정책적으로 정상가족에 대한 규범 때문에 '선가정, 후국가 개입' 원칙을 견지해 왔다.
- ②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 대책에 치중해 왔다.

(2) 시대적 상황

- ① 현재 저출산율, 이혼율 증가, 고령인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② 이는 곧 이제는 더 이상 가족이 일차적 책임을 질 수 없는 상황임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따라서 가족부양 및 가족문제에 대해서 가족이 책임을 지라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정책이 된다.
 - cf. 부양의무제 : 부양의무에 관련된 사람을 규정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 대해서 사회가 나서기보다는 먼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하도록 하는 제도
 - cf. 과거 사회복지를 확장하지 않으려는 시대에는 과잉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였으나 이젠 사회가 다른 누군가를 책임지기에는 힘든 시대가 되었다는 점과 사회적 양육/돌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에서 부양의무제는 폐기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 ④ 국가나 사회가 가족부양을 책임지는 형태로 나가야 한다.
- ⑤ 이에 따라 부양의무제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점차로 폐지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종류별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내용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원	질병·부상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임차료, 주택개량 비용 지원	학생의 입학·수업료, 학용품비 등 지원
수급자 선정 기준*	30%	40%	45%	50%
수급권자 수	127만명	142만명	184만명	29만명
예산	4조3천억원	7조원	1조6천억원	1천억원
부양의무자 기준	2022년까지 단계적 폐지	계획 미정	2018년부터 폐지	2015년부터 폐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라야 함.

자료: 보건복지부(수급권자 수와 예산은 2020년 기준) ※이 밖에 해산·장제·자활급여 등이 있음.

자료 : 한겨레 인터넷판 2020-07-30 등록, 2020.08.23. 검색

<http://www.hani.co.kr/arti/society/rights/955767.html>

4) 사회적 인식의 변화

(1) 정상가족이라는 신화를 깨야 한다.

- ①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의하는 핵가족을 정상가족이라고 보는 관점을 내려놓아야 한다.
 - '건강가족'이라는 용어 자체는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건강하지 못한 가족이라는 낙인을 줄 수 있다.
 - '정상가족'이라는 용어 역시 정해진 일정 모습에서 벗어나면 비정상가족이라는 낙인을 줄 수 있다.
 - '역기능가족'이라는 용어도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족이라는 의미가 내포되기에 낙인을 줄 수가 있다.
 - 핵가족을 넘어 이전 1인 가족, 결혼 관계없이 함께 사는 동거가족, 마음 맞는 사람끼리 서로 유대를 갖는 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개념이 나타나고 있는 시대이다. 가족을 그냥 가족으로 보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 이는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② 아동을 가족에서 보호받을 존재로만 규정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하나의 인격체로 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여러 결정이나 법적 조치에 있어 당사자인 아동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 사회적으로 모범적이고 전형적인 아동상을 만들어 놓고 그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비행아동 등으로 낙인을 찍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전형적인 아동상을 전제하는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eg. 2016. 4. 16 세월호사건 때 침몰하는 배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죽은 이유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에 대해서 합리적 판단이 아니라 규범적 판단으로 받아들여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는 우리 교육이 그동안 '말 잘 듣는 아이'를 모범적인 아동으로 전형화한 면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 ③ 마찬가지로 아버지상, 어머니상 등에 대해서도 전형성으로 가둬놓는 모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 ④ 무엇보다도 인권 관점과 보편적 지향이 반영된 가족개념을 정착시켜야 한다.
 - 가족구성원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존재이다.
 - 가족구성원은 서로에 대해 애정적인 관계이다.
 - 가족구성원은 서로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지는 관계이다.

2. 가족복지의 과제와 발전방향

1) 정책적인 과제와 방향

(1) 가족친화적인 복지정책의 개발

- ① 그동안 우리나라는 의도적으로 포괄적인 가족정책이 존재하지 않았다.
- ② 또한 친족을 포함한 가족들의 책임을 우선적으로 하여 왔다.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제도 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 ③ ※ 이젠 가족정책의 다양화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정책에서 가족친화적인 복지정책을 지향할 때가 되었다.
 - 사회정책을 펼칠 때 가족을 대상으로 놓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
 - 가족의 기본적 생활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가야 한다.
 - 양육이나 돌봄에 대해서 사회적 양육/사회적 돌봄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부양/돌봄의 사회화라고 한다.

(2) 저소득층 가족의 경제적 지원정책의 확대방안

- ① 생계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공공부조 측면에서 급여가 현실화되어야 한다.
 -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일어날 필요가 있다.
- ② 저소득층 지원은 공적부조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③ 차상위층에 대한 지원방안이 부족한 현실이다.
- ④ 사회보장 내 다양한 가족수당제도 도입 필요하다. eg. 유럽식 아동수당이나 노인수당
- ⑤ 이혼시 적정 자녀양육비 산정 및 자녀양육비 부담의무를 강화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실천가 또는 가족복지실천가 양성 측면

- ① 사회복지사가 가족복지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가족복지에 대한 기본소양과 전문지식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 이미 제시한 대로 가족복지 관련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의 급여와 대우가 전문직다운 모습이 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
 - 사회복지사나 건강가정사는 사회학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또한 인간을 다루는 전문직이다. 따라서 자격기준을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다. 즉, 엄격한 훈련을 거쳐 양성해야 한다.
- ② 건강가정사업이 중요하다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면서 건강가정사에 대한 양성 및 배치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계획을 가져야 한다.
 -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단순히 과목 이수로 할 것이 아니라 전공, 훈련, 고시 등의 과정을 거치게

하여 현실적으로 전문직다운 면모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 건강가정사 역시 건강가정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고 건강가정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실력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 복지, 상담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수준으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자격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만큼 전문직에 맞는 급여나 대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③ 가족복지 관련 종사자로서 상담사 양성에 변화를 주어야 한다.
- 상담사는 대부분 민간자격증이기 때문에 전문성에 있어 편차가 클 수 있다.
 - 상담사의 공부나 훈련과정은 사회복지사나 건강가정사와는 사뭇 다르다. 상담 자체는 개인문제 중심인 반면 사회복지나 건강가정에 대한 사업은 중·거시적인 차원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가족복지 관련 상담사에게 사회복지에 대한 필수과목 이수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로써 사회복지적 시각을 갖고 상담에 임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이는 전문성을 제고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 가족복지 관련 전문가다운 급여나 대우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 ④ 사회복지사이든, 건강가정사이든, 상담사이든 가족복지 관련 전문가라면 가족치료에 대해서 어떤 이론 하나는 실질적인 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건강가정사업 전문기관으로서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역할 강화(전달체계 측면)

- ① 현재 건강가정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비슷한 가정/가족 관련 서비스를 복지관을 비롯한 여타의 기관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 ② 건강가정센터와 복지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여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럴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 중심의 기관으로 더욱 확대해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 ③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자방자치단체 간의 원활한 연계와 교류를 통하여 정책이나 실천면에서 통일된 가정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5) 비대면사회 확장에 따른 가족복지의 전환

- ① 코로나19 이후(post COVID) 비대면활동이 더욱 강조되고 증가될 수밖에 없다.
- ② 이는 필연적으로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 ③ 따라서 가족의 공간, 가족 프로그램 등에서 많은 문제들이 제기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 대처하지 않으면 사회적 혼란이나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
- ④ 이것은 단순히 가족복지차원에서만 다를 일이 아니라 경제·주거·교육·고용면과 함께 해결할 문제이다.

2) 실천적인 과제와 방향

(1) 가족복지 서비스 기관에서 사례관리의 강화

- ① 가족의 문제는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 ② 거기에 더하여 만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 ③ ※적합한 방법이 사례관리(case management)임을 이미 밝혀졌다.
 - 사례관리는 가족상담, 교육, 기술훈련 등 직접 서비스뿐만 아니라

- 지역사회 자원개발 및 연결, 지역사회 환경 조정 · 옹호와 같은 간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가족이 생활주기에 따라 겪게 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해 준다.
- 현재 가족/아동 문제에 대해서 사례관리가 시행되고 있으나 보다 염밀한 의미에서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족단위 상담프로그램의 강화

- ① 우리나라 상담의 모습을 보면 개별상담은 발달한 반면 한 가족을 전체 단위로서 한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인 것을 볼 수 있다.
- ② 정서적 유대와 지지를 강화하고 가정폭력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가족단위적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부부상담프로그램, 이혼상담프로그램, 부모의 이혼에 따른 자녀의 상담프로그램, 노인 및 위기청소년 상담 프로그램 등
- ③ 코로나19 이후(post COVID) 비대면 활동이 더욱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가족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많아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족 내에서 더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3)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족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확대

- ① 문제발생에 따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예방하거나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 ② 실질적인 예 : 가족의사소통캠프,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부부교육, 가족자원봉사단 등

※ 가족복지를 실천하는 훌륭한 사회복지사가 되는 Tip5

- ① 학문과 실천을 겸비하라
- ② 자원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 ③ 여러 가족치료 모델 중 하나를 경험하라(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
- ④ 인권감수성을 높여라
- ⑤ 항상 도전의식을 가져라